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학술회의

고조선 연구의 신지평

일시: 2015.05.22(금)09:30~18:00

장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호텔관광대학 컨벤션홀(205호)

주관: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설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고조선사연구회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연구재단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설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Institute of Korean Archaeology and Ancient History, KHU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설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학술회의

고조선 연구의 신지평

- 일시 : 2015년 5월 22일(금) 09:30~18:00
- 장소 :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호텔관광대학 컨벤션홀(205호)
- 주관 :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설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 후원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연구재단

* 이 발표논문집은 2015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 본 학술회의는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과제번호:NRF-2014S1A5B8062948, 연구책임자:조인성]

학 회 일 정

- 학회 등록 09:30~10:00
- 개회사 조인성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장)
- 축사 박경철 (고조선사연구회장)

《 제 1 부 우리 역사 속의 고조선 》

- 사회 : 김선우(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1) 10:10~10:40 고조선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과제
발표 : 박선미(동북아역사재단)
- 2) 10:40~11:10 단군신화의 구조 연구 발표 : 조원진(세종대학교)

11:10~11:20 휴 식

- 3) 11:20~11:50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보이는 낙랑의 실체와 辰韓人과
고조선의 관계 발표 : 김남중(고려대학교)
- 4) 11:50~12:20 요동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양상과 변천
발표 : 오대양 (단국대학교)

12:20~13:30 중 식

《 제 2 부 동아시아 역사 속의 고조선 》

• 사회 : 이경섭(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5) 13:30~14:00 기원전 4세기대 요서지역의 문화변동과 그 배경-세형동
검문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발표 : 이후석(숭실대학교)

6) 14:00~14:30 스키토-시베리아문화의 발생과 동북아시아의 청동기시대-
러시아 투바 아르잔고분과 요령 대련 강상묘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 : 강인욱·조소은 (경희대학교)

14:30~14:40 휴 식

7) 14:40~15:10 흥산문화 우하량 무덤집단의 변천

발표 : 이청규·우명하 (영남대학교)

8) 15:10~15:40 明治시기 발행 朝鮮地圖에 보이는 檀君墓와 箕子殿

발표 : 박준형 (연세대학교)

15:40~16:00 휴 식 및 장 내 정 리

《 종합토론 (16:00~18:00) 》

참가자 : 발표자 전원 및 토론자

토론자 : 박경철(강남대, 토론좌장), 김성환(경기도 박물관), 신희권(서울시립대), 이
정빈(경희대), 이종수(단국대학교)

목 차

발표자	제 목	쪽수
박선미	고조선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과제	1쪽
조원진	단군신화의 구조 연구	10쪽
김남중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보이는 낙랑의 실체와 辰韓人과 고조선의 관계	36쪽
오대양	요동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양상과 변천	65쪽
이후석	기원전 4세기대 요서지역의 문화변동과 그 배경	114쪽
강인욱 조소은	스키토-시베리아 문화의 발생과 동북아시아의 청동기시대	154쪽
이청규 우명하	홍산문화 우하량 무덤집단의 변천	185쪽
박준형	明治시기 발행 朝鮮地圖에 보이는 檀君墓와 箕子殿	207쪽

제1부 우리 역사 속의 고조선

고조선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과제

박선미(동북아역사재단)

- I. 머리말
- II. 획기와 분기
- II. 중심지와 강역
- IV. 과제와 전망—맺음말을 대신하여

I. 머리말

한국의 고대사는 고조선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가 늘면서 최근 2년간 세 명이 고조선을 주제로 하여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도 대학원에서 정규 훈련을 받은 연구자들이 인접분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석사와 박사학위를 준비하고 있어 고조선사 전문 연구인력이 더욱 확충될 것으로 생각된다.¹⁾ 여기에 중국 동북지역의 고고학 자료에 대한 전문 연구자도 늘고 있어서 문헌과 고고학 자료를 결합한 고조선 연구가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

고조선 연구를 회고해 보면 零星한 문헌자료와 고고학 자료에의 쉽지 않은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 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학계는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조선에 둘러싼 많은 의문점에 이렇다 할 해답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고조선사 연구의 성숙도에서 야기되는 문제라기보다는 기존에 제기된 여러 사안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토론이 부재했던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조선사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획기와 분

1) 고조선을 주제로 한 학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 강역 및 중심지 문제에서 향후 다루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이번 학술대회가 ‘신진연구자 중심의 고조선사에 대한 최신의 성과를 점검하고 다양한 학문적 대화를 나눔으로써 새로운 연구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된 것인 만큼, 향후 고조선을 둘러싼 쟁점별 집중 토론회를 기대한다.

II. 획기와 분기

‘고조선’이라는 용어는 신석기시대부터 기원전 108년까지 시간상 긴 연대 폭을 포괄하고 있다. 이 연대 폭에는 각기 다른 국가발전 단계가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고조선사를 연구할 때에는 먼저 어느 시기의 고조선을 가리키는가를 명확하게 하고 난 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조선이라 함은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고조선과 위만조선을 구분하여 고조선에 위만조선을 포함시키지 않는가 하면, 기자조선을 부정하고 단군조선만을 고조선으로 부르기도 한다. 한편에서는 ‘국가로서의 조선’을 의미하거나 혹은 ‘문헌에 조선이라는 명칭이 등장한 때로부터 국가로 발전된 이후의 조선’까지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고조선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조선 시대의 획기와 분기를 구분하는 것은

김종열	1987	고조선시대의 의학내용 연구: 단군신화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운섭	1988	고조선사회의 성장과정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학철	1989	상고시대와 고조선시대의 의학에 관한 문헌적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호정	1990	고조선의 위치와 족속문제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강원	1995	고조선 위치비정에 관한 연구사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김태욱	1998	고조선의 영역에 관한 일고찰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채치용	1998	고조선의 멸망 원인-한의 對匈奴政策과 관련하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하문식	1998	동북아시아 고인돌문화의 연구-중국 동북지방과 서북한지역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호정	1999	고조선 국가형성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남중	2000	위만조선의 영역과 왕검성의 위치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선미	2000	기원전 3~2세기 고조선문화와 명도전유적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준형	2000	예맥의 형성과정과 고조선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장록	2005	삼국유사 고조선조 내용에 대한 고찰	여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중서	2006	고조선과 한사군의 위치 비정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병용	2007	조선 후기 역사서에 나타난 고조선 인식: 이종휘의 『東史』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선미	2008	화폐유적을 통해 본 고조선의 교역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정희	2008	중국의 기자조선에 대한 인식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원진	2009	기자조선 연구: 요서지역 상주 청동예기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준형	2012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현수	2014	고조선의 형성과 변천과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김남중	2014	위만조선의 성립과 발전 과정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내학계에 제기된 고조선의 획기와 분기 관련 연구로는 서영수의 글이 주목된다. 그는 고조선과 위만조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위만조선을 교체되기 이전 단계의 고조선을 선고조선(왕국)시기와 고조선 왕국시기로 나누고, 위만조선을 후조선시기로 체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²⁾ 선고조선왕국시기(기원전 9세기 이전)는 환웅의 등장과 단군조선의 개국, 기자족을 비롯한 은주유민의 동진과 단군조선의 도읍 이동으로 특징되며, 고조선왕국 전기(기원전 8~6세기)는 韓侯와 예맥 및 '검'의 등장과 조선이라는 국호의 사용 및 제와의 문피교역으로, 고조선왕국 중기(기원전 5~4세기)는 조선의 칭왕 및 연과의 각축기, 고조선 왕국 후기(기원전 3~2세기)는 秦·漢과 항쟁 및 고조선의 붕괴와 위만조선의 등장으로 특징지었다.

최근 고조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오현수는 고조선의 변천과정을 예맥교섭망의 형성과 변천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였는데, 고조선의 획기에 대한 정리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그의 논지를 정리해보면 고조선 전기(기원전 10~7세기)는 고조선의 형성기로서 기원전 664년 제 환공의 산융정벌의 여파로 인한 요동으로의 이동하기 이전, 고조선 중기(기원전 6~4세기)는 고조선이 요동에 있으면서 주변 토착세력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예맥교섭망을 형성, 발전시킨 시기로, 고조선 후기(기원전 3~기원전 2세기 초)는 연장 진개의 침공으로 요동지역에 중심지를 두고 있던 고조선이 서북한으로 이동한 이후로, 고조선 말기(위만조선 시기)는 위만 등장 이후 멸망까지로 구분하였다.³⁾

북한의 경우 1993년 단군릉 발굴 이후 평양지역을 고조선의 중심지로 비정하면서⁴⁾ 고조선의 正都가 평양에 있었고, 副都인 왕검성이 요동 남부 지역에 있었다고 보는 관점을 견지해 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고조선은 전조선(기원전 30세기 초~기원전 14세기 전후), 후조선(기원전 14세기 전후~기원전 194년), 만조선(기원전 194년~기원전 108년)으로 획기가 구분된다.⁵⁾

2) 서영수, 2005, 「고조선의 국가형성계기와 과정」『북방사논총』6, 고구려연구재단.

3) 오현수, 2014, 『고조선의 형성과 변천과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학위논문.

4) 현명호, 1994, 「고조선의 성립과 수도문제」『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연구논문집』, 사회과학출판사, pp.56~63.

석광준, 1994, 「평양은 고대문화의 중심지」『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연구논문집』, 사회과학출판사, pp.74~82.

5) 손영중, 1999, 「고조선 세 왕조의 시기구분에 대하여」『역사과학』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p.46~50.

이상과 같은 고조선의 획기에 대한 연구는 문헌사학과 고고학계의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접근하였고, 특히 시기 구분을 통해 고조선 全史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과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전론 연구와 토론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바, 사료의 서술체계와 남북한 학계의 연구 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고조선시대의 시기구분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 문헌기록과 학계의 성과를 종합하여 고조선의 시기구분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고조선에 관한 문헌기록을 보면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왕검조선)’이라 하였고 여기에 단군과 기자에 관한 내용을 기술해 놓았으며, 위만조선은 따로 편목을 설정하여 서술하고 있다. 『제왕운기』의 경우는 단군조선을 ‘전조선’, 기자조선을 ‘후조선’이라 하고 역시 위만조선을 따로 서술하고 있다. 고고학 연구 성과를 보아도 소위 ‘전조선’, ‘후조선’, ‘위만조선’의 주민구성이나 문화성격 등에서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필자는 기원전 7세기대의 사실을 기록한 『관자』의 고조선이 이미 지역명을 탈피하고 연맹체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었고 아직은 주변국과의 관계가 기록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 7세기경에 요동지역의 고고학 환경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원전 7세기를 하나의 획기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연과의 접촉관계가 짙어지고 칭왕을 하는 기원전 4세기에는 철기가 요동지역과 한반도 서북부 일대로 확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역시, 4세기도 하나의 획기가 될 수 있겠다. 연장 진개의 침략으로 인한 영토의 축소, 유이민의 증가와 위만의 찬탈이 이루어지는 기원전 3~2세기는 철기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시기를 구분해 보면

<표1> 고조선의 획기와 특징

시기 명칭	연대	특징
고 조선 여명기	신석기시대 후기 청 동기시대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기록된 단군의 개국, 기자족의 유입 중국 동북지역의 신석기~청동기시대 전기 유적
고 조선 전기	~BC7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자』에 기록된 齊와의 교역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시대 중기 유적
고 조선 중기	BC6세기~4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의 칭왕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 및 철기시대 유적
고 조선 후기	BC3~2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燕·秦과의 각축 위만조선의 성립과 발전

III. 중심지와 강역

주지하다시피 고조선의 중심지와 강역에 대한 견해는 재요동설, 평양설, 이동설 등 세 가지로 대분되며, 전통시대의 견해와 근대사학 태동기 역사학자의 견해를 논의의 대상으로 하게 되면 좀 더 복잡해진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학자에 의해서 보고된 바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강역과 중심지 문제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에 대한 토의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표2> 고조선의 중심지 관련 문헌기록

내 용	출전	비정	비고
阿斯達, 無葉山, 白州地의 白岳, 開城東의 고려시대 白岳宮, 平壤城, 藏唐京, 弓忽山, 今旡達	『三國遺事』 古朝鮮, 所引 魏書 및 기타		고조선 여명기 (초기 수도)
平壤城(고려시대 西京) -> 주무왕 즉위년에 白岳山 阿斯達로 천도	『三國遺事』 古朝鮮, 所引 古記		上同
險瀆 참고1) 解徐廣曰 昌黎有險瀆也. 索隱韋昭云 古邑名. 徐廣曰 昌黎有險瀆縣. 應劭注 地理志遼東險瀆縣 朝鮮王舊都. 臣瓚云 王險城在樂浪涓水之東也(『史記』朝鮮傳) 참고2) 索隱 韋昭云 「古邑名」·徐廣曰 「昌黎有險瀆縣」·應劭 注「地理志遼東險瀆縣 朝鮮王舊都」 應劭曰 朝鮮王滿都也. 依水險 故曰險瀆.(『漢書』志卷二十八下 地理志第八下)	『史記』 朝鮮傳, 『三國遺事』 緯滿朝鮮	臣瓚=樂浪郡 涓水동쪽	고조선 후기
王儉(혹은 王險) 참고1) 臣瓚云 王險城在樂浪郡涓水之東也.(『史記』朝鮮傳) 참고2) 括地志云 高麗治平壤城 本漢樂浪郡王險城 卽古朝鮮也.(『史記』秦始皇本紀. 26년조) 참고3) 고구려의 도읍인 평양성은 옛 조선국의 왕험성이었다.(『通典』 185, 邊防 1, 東夷 上)	『史記』 朝鮮傳, 『三國遺事』 緯滿朝鮮		

위의 <표2>를 보면 평양성, 아사달, 무엽산, 백악, 백악궁 등이 고조선 여명기의 수도로 나온다. 이 가운데, 무엽산, 백악, 백악궁은 평양성, 아사달, 장단경에 대한 당대 전해지는 비정이다. 따라서 고조선의 첫 수도는 평양성, 혹은 아사달이 되며, 천도된 곳은 아사달 혹은 장단경이 되는 셈이다. 평양성과 아사달에 대한 문헌기록이 상치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고조선의 첫 수도에 대한 논의에서 평양성과 아사달의 위치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명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의 문헌기록은 매우 희박하여 중심지에 대한 접근은 대개 문헌자료에 기초하기 보다는 고고학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즉 비파형동검문화의 중심지 변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국 동북지역에서 청동기시대의 중심지가 조양에서 심양으로 이동하였음이 밝혀졌다.⁶⁾ 이러한 고고학계의 성과를 <표2>의 도읍 기록과 연결해 보면 조양과 심양이 평양성, 아사달, 장단경에 비견되는 지역에 해당된다.

위만조선 시기의 수도로 나오는 곳은 왕검성과 험독이다. 기록에 따르면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검성에 도읍하였다고 하였으니, 왕검성이 위만 이전부터 고조선의 수도였는지의 여부는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다. 다만 위만조선 성립 이전에 고조선이 연장 진개의 침략으로 西邊을 상실하면서 중심지 또한 동쪽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천도 후의 수도가 왕검성이라고 보며, 「괄지지」, 『통전』 등의 기록을 토대로 낙랑군이 왕검성에 설치되었다고 본다. 왕검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문헌사학계와 고고학계에서는 서북한에서 조사된 각종 封泥, 한계 무덤 등을 근거로 하여 현재의 평양에 왕검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낙랑군이 고조선의 수도에 설치되지 않았다고 보고 왕검성과 험독을 연결하여 고조선의 중심지를 중국 요령성 本溪 일대로 비정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⁷⁾

6) 이청규, 2012,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衄鏡 副葬墓의 展開」 『史學志』44, 단국사학회, pp.5-31.

7) 김남중, 2014, 『위만조선의 성립과 발전 과정 연구』, 서강대학교박사학위논문.

<표3> 고조선의 강역 관련 문헌기록

내 용	출 전	비정	비고
朝鮮在列陽東海北山南列陽屬燕.	『山海經』 海內北經		
東海之內北海之隅有國名曰朝鮮	『山海經』 海內經		
全燕 嘗略屬眞番朝鮮 爲置吏 築鄣塞 참고1) 遼水出碣石山 自塞北東流 直遼東之西南入海. 砥石山名在塞外 遼水所出 南入海(『淮南子』 4, 墜形訓)	『史記』 朝鮮列傳		
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 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爲界 朝鮮遂弱. 참고1) 燕襲走東胡僻地千里 度遼東而攻朝鮮(『鹽鐵論』 伐攻篇)	『三國志』 所引「魏略」		BC3세기 전엽
秦既并天下 東絕沛水并滅朝鮮 참고1) 番汗沛水出塞外 西南入海.(『漢書』 28, 地理志 遼東郡) 참고2) 地東至海暨朝鮮 西至臨兆羌中 南至北嚮戶 北據河爲塞 竝陰山至遼東(『史記』 秦始皇本紀. 26년)	『鹽鐵論』 誅秦		BC3세기 말엽
漢興 爲其遠難守 復修遼東故塞 至涓水爲界 屬燕 참고1) 만의 도주로: 東走出塞, 渡涓水 居秦故空地上下障 참고2) 涓水出樂浪鏤方縣東南過臨涓縣東入於海……余訪蕃使 言城在涓水之陽 其水西流逕故樂浪朝鮮縣 卽樂浪郡治 漢武帝置 而西北流 故地理志曰 涓水西至增地縣入海.(『水經注』 涓水)	『史記』 朝鮮傳, 『三國遺事』 緯 滿朝鮮	안사고= 涓 在 樂浪郡/	BC2세기

다음으로 <표3>을 보면 고조선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는 뚜렷한 국경선에 의한 ‘영토국가’ 이전 단계였다는 점에서 느슨한 형태의 ‘강역’을 취하고 있었을 것인데,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고조선의 西界에 관한 것이다. 기원전 3세기 연과의 각축과 기원전 2세기 한과의 전쟁 기록은 연 및 한과의 경계가 각각 만변한과 패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시기별로 고조선의 강역에 변동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만변한을 중국 요령성 천산산맥 서남부 혹은 어니하와 청하를 잇는 선으로 보거나, 영구와 개주 사이 지역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 패수의 경우는 대

동강, 청천강, 압록강, 혼하, 난하 등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한편 사회 일반에서는 고조선의 중심지와 강역에 대한 전혀 다른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소위 고조선의 재북경설, 재하북성설 등이 그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고조선을 현재의 하얼빈 등으로 비정하거나 고조선 멸망 후 설치된 낙랑군을 북경일대에 비정하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계 내외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견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리가 필요한바, 학계의 전문 연구자들이 제기된 고조선의 중심지와 강역 문제에서부터 사회 일반에서 제기하고 있는 견해까지 아우르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IV. 과제와 전망 - 맺음말을 대신하여

끝으로 고조선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사족을 하나 달면서 맺음말에 갈음하고자 한다.零星한 문자기록과 내용의 불일치, 고고학 자료에의 쉽지 않은 접근성 등은 연구자들이 올바른 고조선사상을 그려내는 데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우리민족사의 첫 장'이라는 의미는 고조선을 어떻게 그려내느냐에 따라서 주류와 비주류, 강단과 재야라는 꼬리표가 붙여지게 되고, 심지어는 민족주의 혹은 식민주의사학이라는 말까지 오르내려지고 있어서 연구자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멀리는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 가깝게는 랑케와 카를 쿤이 운운하지 않더라도, 역사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학문이며, 그 사실은 문자로 기록된 사료의 비판과 고고학 자료에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획득된다. 사료에 대한 비판은 역사학이라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역사학자의 몫이며, 고고학 자료에의 분석은 고고학이라는 과학적인 훈련을 받은 고고학자의 몫이다.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료에 대한 독해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이에 대한 해석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고고학 발굴은 도굴과 닮아닌 수준으로 전락하여 역사왜곡의 길을 스스로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역사학과 고고학이 정규 교육기관에서 훈련받은 이들의 전유물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다만 기록이 영성한 고조선사상의 복원에는 전문가의 정밀하고 치밀한 연구가 어느 분야에서보다도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고고학적으로 특정 유물 혹은 기념물을 남긴 집단이나 주민을 규명하는 작업은 문헌에 등장하는 정치체에 대한 연구와 함께 오랜 동안 문헌사학과 고고학 연구의 중심 주제가

되어왔다. 고고학적 문화영역이 과거의 종족이나 주민을 반영한다고 믿고, 특정 양식의 유물이 분포하는 지역이 곧 특정 집단 혹은 종족의 분포범위 혹은 강역과 연결될 것이라고 추정되어 왔다. 나아가 특정문화의 연속성이 곧 민족(종족)적 연속성과 일치한다고 간주되었다. 그러나 고고학적 문화의 경계는 생각만큼 명확하지 않으며, 반드시 하나의 종족이나 집단과 일대일로 대응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표적인 예로 요하이동, 한반도, 일본열대 및 중국의 동남부 해안지대에 분포해 있는 고인들의 경우 지역마다 결합되는 유물의 종류와 양식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은 고고학 자료를 통한 종족 혹은 특정 집단의 경계 연구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고조선과 같이 문자기록이 명확하지 않고 종족구성이나 위치 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욱 주의를 요한다.

이와 같은 현실을 주의 깊게 고려하면서 최근에는 문헌기록과 고고학 자료의 정합성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문헌기록에 대한 해석만큼이나 고고학 자료에 대한 해석의 차이도 크다. 특히 고조선은 우리민족사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꾸준히 주목 받고 연구되어 왔는데, 같은 이유로 인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특정 사안이 부각되거나 강조되기도 하고 혹은 망각되거나 축소되었다. 이것은 결국 고조선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굴곡으로 작용하여 올바른 이해체계를 잡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다. 고조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현 시점에서 고조선사의 연구에서 지향해야 할 점과 지양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할 시점이다.

제1부 우리 역사 속의 고조선

단군신화의 구조연구

조원진(세종대학교)

- I. 서론
- II. 고려시대 문헌의 단군신화 구조
- III. 조선시대 문헌의 단군신화 구조
- IV. 단군신화 구조의 변천
- V. 결론

I. 서론

단군왕검의 고조선 건국 신화(이하 단군신화)는 고조선에 대한 우리측 자료로는 거의 유일한 것이며 한국사의 시원을 소급해볼 수 있는 자료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¹⁾ 단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최남선²⁾ 이후로 단군신화의 구조³⁾와 기능⁴⁾, 유형의 검토 및 시대별 전승 정리⁵⁾, 고구려와의 관련성⁶⁾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1) 서영대, 1994, 「단군관계 문헌자료 연구」 『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pp.47~48.

2) 최남선, 1973, 『六堂崔南善全集』 2, 玄岩社 ; 최남선, 2013, 『단군론』, 경인문화사.

3) 이필영, 1981, 「단군신화의 기본구조 -천신신앙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26 ; 윤명철, 1988, 「檀君神話에 對한 構造的 分析 : 神話素 分析을 中心으로」, 『한국사상사학』 2.

4) 서영대, 1998, 「檀君神話의 意味와 機能」 『산운사학』 8.

5) 서영대, 1994, 「단군관계 문헌자료 연구」 『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 서영대, 1999, 「전통시대의 단군인식」 『단군학연구』 1 ; 최병현, 1994, 「고려시대 단군신화 전승문헌의 검토」 『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광용, 1994, 「조선시대

최근 중국학계에서도 단군신화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⁷⁾ 대부분 중화주의적 입장이 너무 강하여 단군도 황제신화의 영향으로 성립한 것으로 보아 문제가 되고 있다.⁸⁾ 북한학계에서는 단군릉 발굴 이후 단군신화에 5천년 전 대동강 유역의 고대문화를 기반으로 고조선을 세운 역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⁹⁾

단군신화 연구는 고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밝히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조명되어야 하며 고조선이라는 역사환경과 유리된 채 진행되는 연구는 무의미할 수 있다.¹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단군신화에 나타난 본래의 원형과 후대에 윤색된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군신화가 기록된 현존하는 최고의 문헌인 『三國遺事』와 『帝王韻紀』가 13세기에 저술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대한 논의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건국신화의 구조는 탄생-건국과정-치적-최후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三國遺事』와 『帝王韻紀』의 경우 단군의 아버지 환웅의 치적과 단군의 탄생 부분은 자세하지만 건국 이후에는 고조선의 역사가 마치 한 사람의 단군이 다스린 것처럼 묘사하며 간단히 끝맺고 있다. 건국신화에서 중요한 구성 부분인 건국과정과 치적이 생략된 점은 이들 유형이 이미 본래의 원형에서 적지 않은 변형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고려 후

단군신화 전승문헌의 검토」『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광용, 1997, 「단국 인식의 변천」『한국사학사연구』, 간송 조동결선생 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 김성환, 2002, 『高麗時代의 檀君傳承과 認識』, 景仁文化社 ; 김성환, 2009, 『조선시대 단군묘 인식』, 景仁文化社.

6) 김성환, 2000, 「단군신화의 기원과 고구려의 전승」『단군학연구』 3 ; 尹明喆, 2002, 「檀君神話와 고구려 建國神話가 지닌 正體性(IDENTITY) 탐구」『고조선단군학』 6 ; 조법중, 2005a,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단군 인식 검토 - 한국 고대 동물숭배전통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단군학연구』 12 ; 조법중, 2005b, 「한국 고대사회의 고조선, 단군인식 연구 -고조선, 고구려시기 단군인식의 계승성을 중심으로-」『선사와 고대』 23 ; 尹明喆, 2008, 「檀君神話의 해석을 통한 장군충의 성격 이해 : 의미를 중심으로」『고조선단군학』 19 ; 최일례, 2010, 「고구려인의 관념에 보이는 단군신화의 투영 맥락 -비류부의 정치적 위상을 중심으로-」『韓國思想과 文化』 55 ; 김성환, 2013,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보이는 고조선 인식의 검토」『한국고대사탐구』 13.

7) 張哲俊, 2013, 『韓國檀君神話研究』, 北京大學出版社.

8) 서영대, 2012, 「중국학계의 단군 연구와 그 비판」『고조선단군학』 27.

9) 전대준 · 최인철, 2010, 『조선단대사 : 고조선사』, 과학백과출판사.

10) 이필영, 1996, 「단군신화인식의 제문제」『고조선과 부여의 제문제』, 신서원, pp.37~38.

기에는 『三國遺事』와 『帝王韻紀』의 유형이 단군신화에 대한 주류적인 인식이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이들 문헌에 나타난 각 세부적인 사항이 모두 원형에 더 가깝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과연 『三國遺事』와 『帝王韻紀』에 나타난 단군신화의 모습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¹¹⁾ 조선시대에는 여러 전승을 참고하여 다양한 구조와 형태의 단군신화가 기록되는데 이에 대한 비교와 검토가 필요하다.¹²⁾

본고에서는 각 시대의 문헌에 나타난 단군신화를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후대의 제한된 문헌을 바탕으로 상당 부분 추정에 의지할 수 밖에 없으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단군신화의 구조가 후대에 어떻게 변화되어 갔고 시대에 따라 강조된 부분은 무엇인지 대략적인 흐름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II. 고려시대 문헌의 단군신화 구조

1. 『三國遺事』

고려시대에 단군에 대한 기록으로는 고려중기에 나온 『三國史記』에 “평양은 본래 仙人王儉의宅이다”¹³⁾라고 했고 고려후기의 『趙延壽墓誌銘』에는 “평양의 선조는 仙人王儉으로 삼한 전에 있었고 나이는 천이 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단군신화의 구조는 『三國遺事』와 『帝王韻紀』를 통해 알 수 있다.

『三國遺事』(正德本)의 古朝鮮(王儉朝鮮)條¹⁴⁾는 『魏書』, 『古記』, 『唐裴矩傳』을 인용하여 고조선(왕검조선)의 건국과 역사를 전하고 있다. 이중 『古記』의 단군신화 내용

11) 고려후기 단군신화가 재정립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김성환의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었다.

김성환, 2000, 「단군신화의 기원과 고구려의 전승」 『단군학연구』 3 ; 김성환, 2001, 「高麗後期の檀君認識」 『단군학연구』 4 ; 김성환, 2015, 「고조선 건국신화의 계승과 고조선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47.

12) 단군에 대한 사료는 다음 자료집에 잘 정리되어있다.

서영대 편집, 1994, 「단군 관계자료」 『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 고구려연구재단, 2005, 『고조선·단군·부여 자료집 상·중·하』, 고구려연구재단.

13) 『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 제5 東川王.

14) 『三國遺事』 卷1 古朝鮮.

이 가장 자세하지만 이 세 문헌이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古朝鮮條는 먼저 『魏書』를 인용하여 “『魏書』에 이르길 지금으로부터 2천년 전에 檀君王儉이 있어 도읍을 阿斯達에 정하고 나라를 세워 朝鮮이라 일컬으니 高(堯)와 동시 대이다”라고 기록하였다. 『魏書』의 고조선 건국 기록은 이미 고조선에서 출발하는 역사 인식에 근거한 우리측 자료가 이 책의 편찬 이전에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자료 들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소개되었고, 다시 중국인의 시각에서 재정리되어 『魏書』에 실렸다고 짐작된다.¹⁵⁾ 이 기사는 단군왕검과 왕검조선(고조선)이 역사적 사실임을 자신있게 표명하고 있는 정제된 표현이다. 이 기사만으로도 『魏書』가 쓰여질 시점에서 2천년 전에 단군왕검이 나라를 세웠다는 확고한 역사적 사실을 공표하고 그러한 단군에 대해 좀더 자세한 전말을 알려주기 위해서 『古記』를 인용하여 단군의 탄생과정 등을 상세하게 알려 주고 있다.¹⁶⁾ 또한 “乃往二千載”라는 말에서 기원전 2300년경의 요임금 시기라는 일반적인 건국연대와는 또다른 건국연대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인용된 『魏書』가 3세기 曹魏 時代라면 고조선의 건국연대는 기원전 17~18세기이며¹⁷⁾ 6세기 南北朝時代 魏收의 『魏書』라고 본다면¹⁸⁾ 고조선의 건국연대는 기원전 15세기가 된다.

『古記』에 나타난 단군신화의 구조를 크게 여섯으로 나누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환웅신화1 : 桓因의 서자 桓雄이 자주 천하에 뜻을 두어 인간세상을 탐내자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천부인3개를 주고 다스리도록 보냄
- ② 환웅신화2 : 환웅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니 신시라 부르며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평, 형벌, 선악을 주관하여 인간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함
- ③ 단군 탄생 : 꿈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길 원하여 결국 꿈이 금기사항을 준수하여 여자로 변하여 환웅과 혼인하고 檀君王儉이 탄생함
- ④ 고조선 건국 : 단군왕검이 唐堯 50년에 朝鮮을 건국함

15) 김성환, 2003, 「高麗時代의 檀君傳承과 古朝鮮 認識」 『단군학연구』 8, p.117.

16) 김정배, 2005, 「古朝鮮과 琵琶形銅劍의 問題」 『단군학연구』 12, pp.8~11.

17) 리상호, 1963, 「단군고」 『고조선에 관한 토론논문집』, 사회과학출판사 ; 김정배, 2005, 앞의 논문, p.9.

18) 박대재, 2001, 「‘三國遺事’ 古朝鮮條 인용 ‘魏書’論」 『한국사연구』 112, pp.21~27.

- ⑤ 도읍 이동 : 平壤에서 白岳 阿斯達로 도읍을 옮겨 1500년을 다스리고 기자가 동래하자 藏唐京으로 옮기고 다시 阿斯達로 돌아와 은거함
- ⑥ 최후 : 산신이 되니 1908세였음

『古記』의 고조선 건국신화는 단군 탄생, 건국과 도읍이동, 최후, 수명을 포함하여 내용의 완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시조의 탄생부터 고조선 멸망까지의 내용은 다른 건국시조의 탄생 배경과 비교하여 소략하다. 이것은 전승과정에서 전자의 내용이 많이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¹⁹⁾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환웅의 이야기와 단군의 탄생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단군의 치적은 오히려 기록이 없고 환웅의 치적은 자세한데 이것은 환웅신화 자체가 본래 또다른 건국신화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건국 이후 도읍 이동과 산신이 된 단군의 마지막 모습을 전하고 있는데 건국 이후 고조선의 역년과 도읍 이동을 마치 한 사람의 단군이 다스린 것처럼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일연은 古朝鮮條 말미에 『唐襄矩傳』 및 『通典』을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전체적인 고조선조 편성에 있어서 어색한 면이 있다. 일연은 『三國史記』와 『帝王韻紀』와는 달리 箕子の 존재를 단군이 장당경으로 도읍을 옮겨간 이유를 설명할 때만 간략히 언급하여 기자조선설을 부정하고 있다. 馬韓條에서도 『魏志』를 인용하여 準王이 魏滿에 패하여 바다 건너 馬韓을 세운 이야기를 하면서도 箕子와 準王의 관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古朝鮮條 말미에 『唐襄矩傳』 및 『通典』을 인용하여 箕子が 봉해진 기사와 韓桓侯를 기록한 두 자료를 언급하고 桓侯 수에 대해 서로 다른 기록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현한 것은 韓桓侯와 나아가 기자조선설을 우회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²⁰⁾ 따라서 『三國遺事』에서 고조선은 단군왕검이 세운 왕검조선만을 말하는 것이며 1908년을 내려오고 이후 위만조선으로 계승되었다는 인식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연은 古朝鮮條는 『古記』를 위주로 편성하고, 또다른 자료인 「壇君記」는 기타 高句麗條와 王曆에서 참고하는데 그쳤다. 이것은 이 자료들의 전하는 내용이 서로 달랐을 것으로 추측된다.²¹⁾ 『三國遺事』가 인용한 「壇君記」와 『帝王韻紀』가 인용한 「檀

19) 김성환, 2015, 앞의 논문, p.20.

20) 차광호, 2009, 「『三國遺事(三國遺事)』 '기이(紀異)편'의 저술의도와 고구려인식」 『사학지』 41, pp.64~65.

21) 최병헌, 1994, 앞의 논문, p.143.

君本紀」를 동일한 자료로 이해하거나²²⁾ 「檀君本紀」를 『舊三國史』의 편목으로 이해한다면²³⁾ 고려시대에는 이미 국초에 편찬된 『舊三國史』에서 ‘단군(조선)—고구려—고려’로 이어지는 역사체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²⁴⁾ 이는 『帝王韻紀』先以扶餘沸流稱에서 「檀君本紀」를 인용하여 “단군이 비서잡 하백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부루이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舊三國史』는 서명에서 알 수 있듯이 삼국의 역사를 주로 기록한 역사서지만 「檀君本紀」를 앞에 배치한 통사적인 구조로 「檀君本紀」를 통해 삼국 이전의 역사를 설명하는 한편 고조선의 역사가 부여에서 고구려로 이어졌다는 고구려의 전통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묘청의 난 이후에 김부식이 『三國史記』를 편찬하면서 신라를 삼국 중에서 정통으로 삼기 위해 「檀君本紀」를 삭제하고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서술을 피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신라 박혁거세 즉위년조에 “이에 앞서 조선의 유민들이 산곡간에 분거하여 6촌이 되었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고조선 계통을 신라가 계승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그 이상의 언급은 피한 것이다.²⁵⁾

2. 『帝王韻紀』

『帝王韻紀』²⁶⁾에 나타난 단군신화의 구조를 크게 여섯으로 나누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환웅신화 : 上帝 桓因의 서자 雉이 천부인 3개와 귀신 3천을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와 단웅천왕이라 이름
- ② 단군탄생 : 孫女가 檀樹神과 혼인하여 檀君을 낳음
- ③ 건국 : 단군이 조선지역을 차지하여 왕이 됨
- ④ 역년 : 요임금과 나란히 무진년부터 1028년을 다스림

22) 최병헌, 1994, 위의 논문, p.143.

23) 김정배, 1987, 「단군기사와 관련된 “고기”의 성격」 『한국상고사의 제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163.

24) 韓永愚, 1982, 「高麗~朝鮮前期의 箕子認識」 『韓國文化』 3, p.25.

25) 김철준, 1976, 「고려중기의 문화의식과 사학의 성격」 『한국의 역사인식 상』, 창작과 비평사, p.107.

26) 『帝王韻紀』 卷下 前朝鮮紀.

⑤ 최후 : 阿斯達山에 들어간 신이 됨

⑥ 계승 : 尸羅, 高禮, 南北沃沮, 東北扶餘, 穢貊이 모두 단군의 후예임

일연과 이승휴는 각각 『古記』와 『本紀』를 이용하여 단군전승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일연이 『古記』의 기록을 그대로 전제하고 『古記』와는 다른 자신의 견해를 세주 형식으로 싣고 있는 반면에, 이승휴는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시를 원문으로 하고 『本紀』의 전승내용을 세주 형식으로 싣고 있다. 이것은 일연은 『古記』의 기록을 전적으로 믿고 있지만 이승휴는 자신의 생각이 『本紀』와 달랐음을 의미한다. 즉 『本紀』의 기록이 이승휴의 이해와 거리가 있고, 그가 『本紀』의 전승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점은 이승휴가 세주로 『本紀』의 5대 계보를 소개하면서도 자신은 原詩에서 『古記』와 같은 3대 계보를 중심으로 전승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승휴가 이해하는 전승은 『古記』와 『本紀』 어느 한쪽이 아니라 그 중간 형태인 부계중심의 3대 계보와 樹木崇拜信仰의 전승이 함께 이해되고 있었을 것으로 믿어진다.²⁷⁾

『帝王韻紀』는 『三國遺事』와 거의 동시기에 완성된 저서이지만(1287)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첫째, ‘단’字의 표기에서 『三國遺事』는 ‘壇’으로 『帝王韻紀』는 ‘檀’으로 기록하였다. 둘째, 단군의 개국 연대를 『三國遺事』는 堯 50년으로, 『帝王韻紀』는 堯와 같은 무진년이라고 했다. 셋째, 『三國遺事』는 환웅이 땅에 내려와 360여가지의 일을 주관했다고 했는데 『帝王韻紀』는 이러한 환웅의 치적에 대한 기록이 없다. 넷째, 단군의 후예에 대하여 『三國遺事』는 고구려만을 들고 있으나 『帝王韻紀』는 尸羅(=신라), 高禮(=고구려), 南北沃沮, 東北扶餘, 穢貊, 沸流國 모두를 꼽고 있다. 다섯째, 『三國遺事』는 기자의 동래로 단군이 장당경으로 천도했다고 했으나 『帝王韻紀』는 기자가 동래하기 164년 전에 이미 단군이 아사달 산신이 되었다고 했으며 이후 후조선(기자조선)이 이어졌다고 하였다.²⁸⁾

『帝王韻紀』는 『三國遺事』와 비교하여 단군의 탄생과 전체 역년 등은 전혀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단군의 계보가 우리나라 북방계 건국신화의 기본구조인 조-부-자로 이어지는 3대의 계보를 벗어나 5대에 걸쳐 있고, 그것도 외가로 이어지는 계보를 보여주고 있으며, 모계가 천신계인 반면 부계가 지신계로 나타나고 있다. 모계를 중심으로 한 5

27) 김성환, 2001, 앞의 논문, pp.50~54.

28) 서영대, 1994, 앞의 논문, pp.54~55.

대에 걸쳐 있는 계보는 어떤 오각이나 개작이 아니라 또다른 전승 중 하나로 보인다.²⁹⁾ 단군의 탄생에 대한 전승중에서 동물을 인간의 조상으로 여기는 獸祖神話 요소가 보이는 『三國遺事』의 『古記』가 좀 더 원형에 가깝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수조신화 요소는 한국 문화의 원류 내지 기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북아시아 여러 민족의 시조신화에서 흔히 등장하며 한국 건국 신화에서 동물은 후대로 갈수록 비중이 줄어든다. 부여·고구려·신라의 신화에도 동물이 등장하여 시조 왕의 신성성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조연에 불과하다. 부여 동명 신화의 돼지와 말, 고구려 주몽 신화의 말을 비롯한 온갖 짐승, 신라 혁거세 신화의 말, 탈해 신화의 까치, 알지 신화의 닭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실 또한 『三國遺事』 유형이 고대국가의 건국신화보다 더욱 오랜 관념을 내포하고 있음을 반영한다.³⁰⁾

단군의 도읍이동과 역년에 대해서도 두 유형은 큰 차이를 보인다. 『三國遺事』는 단군이 기자의 동래로 도읍을 장당경으로 옮겨갔을뿐 왕검조선이 1908년 동안 계속 유지되었다고 기록했으나 『帝王韻紀』는 기자가 동래 하기 이전에 단군의 통치는 끝나고 이후 후조선(기자조선)이 이어졌다고 하여 기자조선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고조선사의 체계가 『三國遺事』는 ‘왕검조선(1,908년)–위만조선’으로 이어지고 『帝王韻紀』는 ‘전조선(1,028년)–공백(164년)–후조선(928년)–위만조선’으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이중 원형에 가까운 것은 『三國遺事』로 원래 단군신화에는 기자동래 기사가 없었으나 서한시대에 위만조선이 망하고 고조선의 고유한 단군신화가 漢民族의 세력을 배경으로 한 기자전설과 뒤섞이게 되어 혼란을 가져오다가³¹⁾ 결국 檀君朝鮮時代를 기자가 동래하기 이전으로 끊고 箕子朝鮮時代를 중간에 삽입하여 『帝王韻紀』와 같은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³²⁾ 『三國遺事』에서 기자의 동래로 단군이 도읍을 옮겨갔다는 기록은 기자 기록이 처음 삽입되어 단군의 통치가 계속되는 고조선사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기자의 동래는 인정할 초기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³³⁾

『三國遺事』와 『帝王韻紀』의 단군신화는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구조가

29) 김성환, 1999a, 「檀君傳承의 類型(I)」 『중앙사론』 12·13, pp.25~28.

30) 서영대, 1994, 앞의 논문, pp.75~76.

31) 이기백, 1975, 「고조선의 제문제」 『한국고대사론』, 탐구당, pp.25~26.

32) 조원진, 2009, 「기자조선 연구의 성과와 과제」 『단군학연구』 20, p.403.

33) 조원진, 2014, 「단군과 기자 : 고조선사의 체계에 대하여」 『고조선단군학』 31, p.343.

거의 같은데 다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 문헌은 신비로운 환웅신화와 단군 탄생 부분은 자세한 반면 구체적인 건국과정이나 치적이 없는 점도 공통점이다.

단군신화는 기본적으로 고조선은 하늘과 땅을 대표하는 지극히 신성한 존재의 혈통을 이어받은 단군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으로 고조선의 정치권력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한다.³⁴⁾ 특히 천신신앙은 단군신화의 원형에서 중요한 구성요소였을 것이다.³⁵⁾ 그러나 건국신화에서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국과정이나 치적에 대한 기사가 거의 없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이것은 이들 문헌에 나타난 단군신화의 구조는 고조선 멸망 이후 역사성이 대부분 탈락하며 원형이 변형된 결과로 여겨진다.

Ⅲ. 조선시대 문헌의 단군신화 구조

1. 조선 전기 문헌의 단군신화

15세기에는 국가적 차원의 집단적 저술에 의한 관찬 사서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단군관계 사실도 국가적 차원에서 기록·정리되었다. 특히 조선왕조는 국가의 명칭을 ‘조선’이라고 정하여 조선 계승 의식을 명확히 했는데 권근의 『東國史略』(1403)과 노사신 등의 『三國史節要』로 체계화되었다.³⁶⁾ 단군을 국조로 파악한 조선의 지배층은 성리학적 합리사관에 근거하여 단군과 관련된 비합리적이고 신화적 요소를 제거하고 단군의 역사성을 부각하여 인간 군주로 이해하려는 작업을 보인다. 군주로서의 단군의 치적을 제시하고 단군의 천년이 넘는 재위 연수는 단군의 후손이 대대한 왕위를 계승한 연수를 합산한 것이

34) 서영대, 1998, 앞의 논문, pp.318~320.

35) 이필영, 1982, 앞의 논문, p.22.

36) 박광용, 1994, 「단군인식의 역사적 변천 : 조선시대」 『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p159.

라 보았다. 조선초기 단군 의식과 상고사 이해의 확대속에 『三國遺事』도 태조 3년 무렵(1394) 경주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³⁷⁾

『世宗實錄』地理志는 『檀君古記』를 인용하여 단군신화를 기록하고 있는데³⁸⁾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환웅신화 : 환인의 서자 웅이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옴 ② 탄생 : 손녀에게 약을 먹여 단수신과 혼인시켜 단군을 낳았음 ③ 건국 :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고 하고 조선, 시라, 고례, 남북옥저, 동북부여, 예맥이 모두 단군의 통치를 받음 ④ 가족관계 : 비서갑 하백의 딸과 결혼하여 부를 낳고 도산회의에 보냄 ⑤ 최후 : 나라를 다스리고 1038년만에 아사달사신이 됨. 내용은 『帝王韻紀』와 비슷하지만 부루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점이 다르다.

『應製詩註』³⁹⁾(1462)에서 단군신화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건국 : 신인이 단목 아래로 내려와 국민의 추대를 받아 임금이 되어 단군이라 부름 ② 계승 : 단군의 후손이 대대로 왕위를 계승하여 일천년이 넘게 내려옴. 이 유형은 단군신화의 신화적인 내용이 모두 배제되고 단군의 고조선 건국이라는 역사적인 사실만을 위주로 전승을 재구성하여 단군신화를 유교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다.⁴⁰⁾ 여기에 『古記』를 인용하여 주석을 통해 환웅의 신시개척과 통치, 환웅과 웅녀의 결혼으로 단군이 탄생, 단군이 평양에 도읍하여 백악으로 옮기고 비서갑 하백의 딸과 결혼하여 부루를 낳음, 도산회의에 부루를 보내어 조회, 상 무정 8년 을미에 이르러 아사달사신이 됨 등을 보강하고 있다. 『應製詩註』는 권근이 명의 高皇帝에게 지어 바친 『應製詩』에 그의 손자인 권람이 『古記』를 인용하여 주석을 하는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三國遺事』의 『古記』와 비교하면 환인을 상제로 기록하고, 단군이 요와 같은 날 즉위했다고 이해하고 있으며, 단군이 비서갑 하백녀와 결혼하여 부루를 낳았고, 단군의 향국연수가 1048년이라고 한 점 등은 다르다.⁴¹⁾

서거정 등의 『東國通鑑』⁴²⁾(1485)은 檀君朝鮮을 外記로 처리하였는데 그 구조는 ①

37) 도현철, 2013, 「조선초기 단군 인식과 《삼국유사》간행」 『동방학지』 162, pp.39~50.

38) 『世宗實錄』卷154 地理志 平安道.

39) 『陽村集』 卷1 始古開關東夷主.

40) 김성환, 1999b, 앞의 논문, p.87.

41) 김성환, 1999a, 앞의 논문, pp.16~20.

42) 『東國通鑑』 外記 檀君朝鮮.

건국 : 동방에 군장이 없었는데 신인이 단목 아래로 내려오자 국인이 임금으로 삼았는데 이가 단군으로 국호는 조선으로 唐堯 무진년이었음 ② 도읍이동 및 역년 : 평양에 도읍을 정하였다가 뒤에 백악으로 도읍을 옮기는데 1048년은 檀氏가 代로 전한 햇수이고 단군의 수명은 아님 ③ 최후 :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이 됨으로 이루어졌다. 역시 환웅신화와 단군탄생 부분이 없으며 1048년 동안 이어지다가 箕子朝鮮으로 이어졌는데 예악제도와 부자군신의 도리 등은 기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단군에 대한 새로운 사실은 없다. 이에 앞서 편찬된 『三國史節要』(1476)⁴³⁾도 앞부분에 九夷가 먼저 있었다고 언급한 것을 제외하면 내용은 거의 같다. 이들 문헌은 『三國遺事』나 『帝王韻紀』를 합리적으로 축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三國遺事』나 『帝王韻紀』에 상세히 나왔던 환웅신화와 단군탄생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또한 단군의 건국을 추대형으로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조선전기에 주목할 만한 역사서는 유희령의 『標題音註東國史略』⁴⁴⁾이다.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환웅신화 : 환인의 아들 환웅이 무리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세상을 교화함 ② 탄생 : 환웅이 아들을 낳아 단군이라 이름 함 ③ 건국 : 단군의 성은 환씨이며 이름은 왕검임. 당요 무진년에 즉위하여 처음으로 '조선'이라 일컫고 평양에 도읍하고 후에 백악으로 도읍을 옮김 ④ 가족관계 및 치적 : 비서갑 하백의 여식을 아내로 맞아 부루를 낳음. 도산회의에 부루를 보냄. 참성단을 바다 가운데 섬에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세 아들에게 성을 쌓게 함 ⑤ 최후 : 승하하자 송양에 장사를 지냄 ⑥ 도읍이동 및 역년 : 후손이 기자가 피봉을 받아 들어오자 장당경으로 옮기고 세대를 전한 것이 1500년이었음

유희령의 고조선 역사에 대한 이해는 이제까지 어떤 사서보다도 완결성을 갖춘 것이었다. 신화적인 내용을 철저히 배제하며 역사에 기록된 어느 왕의 기록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이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역사적 사실로 이해하고 있다. 단군을 역사적 존재로서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는 단군의 죽음과 송양(강동현)에서의 장례에 대한 사실의 기록에서 절정을 이룬다. 기존의 아사달산신으로의 좌정이라는 견해를 버리고 『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단군묘 전승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⁴⁵⁾ 이외에도 단군이 海島(강화도)中에 塹城壇을 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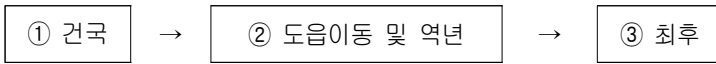
43) 『三國史節要』卷1 外記 檀君朝鮮.

44) 『標題音註東國史略』卷1 前朝鮮.

45) 김성환, 2009, 앞의 책, pp.118~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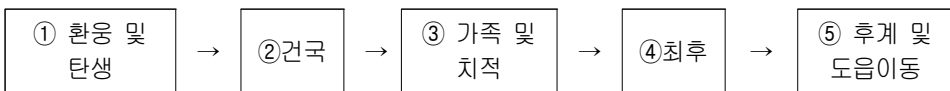
아 祭天을 행하고, 세 아들로 城을 쌓았으며, 아들 부루를 도산회의에 보냈다는 기록 등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민간구전자료나 仙家들의 古記類에서 뽑은 것이 틀림없다.⁴⁶⁾

조선전기에는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시작으로 하는 우리나라 역사의 체계화가 이루어진다. 이 중 『三國史節要』, 『東國通鑑』 등에 나타난 단군신화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이처럼 이들 문헌은 단군의 고조선 건국이라는 최소한의 건국사실만 기술하고 있다. 단군이 건국시조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지만 기존 문헌처럼 단군은 한 개인이라기 보다는 건국이후의 치적이나 가족 등의 기록이 없이 고조선시기의 상징적인 인물처럼 기록된다. 여기서 환웅신화가 없으며 단군의 건국과정도 국민의 추대를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단군 이전의 기록이 생략됨으로 단군의 건국이 아버지 환웅의 신시를 기반으로 하거나 환웅과 응녀라는 두 세력의 결혼동맹으로 인한 건국으로 볼 여지가 없는 상황인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건국과정 부분에서 다른 건국신화와 마찬가지로 추대형으로 기록한 것은 본래의 원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世宗實錄』 地理志와 『應製詩註』는 각각 『三國遺事』, 『帝王韻紀』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標題音註東國史略』의 단군신화는 기존에는 볼 수 없는 체계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단군의 이름이 왕검이라 밝히고, 치적과 아들, 무덤에 대해 기록했다. 이것은 기존의 역사서에서 단군은 건국이후 구체적인 치적이 나오지 않고 천년 이상 도읍을 옮기며 다스린 사실만 기록된 것과는 대조된다. 다른 전승에는 단군이 한 개인이 아니라 고조

46) 한영우, 1981, 『조선전기 사학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p.247.

선의 역사를 상징하는 존재인 것처럼 서술되었다면 여기서는 한명의 건국자로서 그 역사성을 더욱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2. 조선후기 문헌의 단군신화

16세기에 들어와서 箕子에 대한 숭배와 인식은 훨씬 깊어지는데 윤두수의 『箕子志』(1580)와 이이의 『箕子實記』(1580)는 16세기 사립의 기자숭배와 기자인식을 집성한 것이다. 17세기에는 古記類가 성행하기 시작하며 한국고대사 인식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허목의 『東事』도 이러한 역사서중 하나이다. 허목의 『東事』 47)(1673)에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환웅 : 九夷에 환인씨가 있어 신시를 낳고 처음 인민을 생육하는 다스림을 가르침 ② 탄생 : 신시가 단군을 낳음 ③ 건국 : 처음으로 국호를 조선이라 하고 평양에 도읍함 ④ 치적 및 가족관계 : 비서갑녀와 결혼하여 부루를 낳고 도산회의에 참석하게 함 ⑤ 도읍이동 : 평양에서 당장으로 옮겨감. 전체 역년은 약 1천년 ⑥ 최후 : 상 무정 8년에 단군씨가 죽어 송양 서쪽에 단군총이 있음. 『東事』 단군세가의 기사는 『三國遺事』와는 다른 도가류의 古記를 참고하였고 九夷에서 출발한 단군조선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⁴⁸⁾ 또한 단군조선 1048년 이후 단군의 아들 부루가 북부여를 세웠고 이때 기자가 단군조선의 옛땅인 평양에 와서 기자조선을 세웠으며 이후 부여는 금와가 부루의 뒤를 이어 동부여를 세우고 금와의 후손에 주몽과 온조가 있다고 보았다. 단군조선 이후 북방의 '북부여-동부여-고구려, 백제'로 이어지는 계통과 남방의 '기자조선-마한'으로 이어지는 두 계통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홍만종의 『東國歷代總目』 49)(1705)의 단군신화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치적 : 단군이 編髮蓋首를 가르치고, 팽오에게 명하여 국내의 산천을 다스려 인민의 살 곳을 정했으며, 아들 부루를 도산회의에 보냄 ② 도읍이동 : 평양에 도읍하고 나중에 백악으로 도읍을 옮김 ③ 최후 : 갑자(상 무정 8년)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이 되니 모두 1212년임. 이외에도 주석을 통해 단군의 이름은 왕검이고, 신인이 태백산 단목에 내려와 국인이 임금으로

47) 『眉叟記言』 卷32 外篇 東事 檀君世家.

48) 한영우, 1989, 「17세기 중엽 南人 許穆의 古學과 歷史認識」 『조선후기 사학사연구』, 일지사, p.117.

49) 『東國歷代總目』 檀君朝鮮.

삼았고, 『三國遺事』에는 천신이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응녀가 사람이 되자 결혼하여 단군을 낳은 사실 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홍만종이 단군시대를 문화내용을 강조한 것은 역사인식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었다.⁵⁰⁾

안정복의 『東史綱目』⁵¹⁾(1778)의 단군신화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건국 : 신인이 태백산 단목 아래에 내려오자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으니 그가 단군인데 혹은 이름은 왕검이고 국호는 조선임 ② 치적 : 백성들에게 編髮蓋首를 가르치고, 군신·남녀·음식·거처의 제도가 이때 시작됨, 아들 부루를 도산회의에 보냄 ③ 최후 : 아사달에 들어가 산신이 되니 재위한지 1017년이고 壽는 1048세였음. 『東史綱目』은 기자를 전통으로 세우고 단군은 그 밑에 부기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단군을 인정하면서도 신화적인 모습은 배제하여 단군 이전은 생략하여 역사적인 사실만을 간략히 나열하고 있다. 또한 古記 등의 단군 이야기는 허황하여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고 三聖祠에서 환인·환웅·단군을 제사 지내는데 단군을 제사지냄은 마땅하지만 환인·환웅의 제사는 없애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종희의 『東史』⁵²⁾(1803)에 나타난 단군신화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탄생 : 神人 桓因의 庶子 桓雄이 단군을 낳음. 단군의 이름은 왕검, 성은 환씨임 ② 치적 : 단군이 백성들에게 編髮蓋首를 가르침, 홍수에 彭吳에게 치수하게 함 ③ 후계 : 단군이 죽고 아들 부루가 왕이 되어 도산회의에 참석함, 부루 이후는 세계와 연보가 전하지 않음 ④ 도읍이동 및 역년 : 단군은 평양에 거하고 은주 교체기에 자손이 백악으로 옮기니 단군이 즉위한지 1508년임. 『東史』는 환웅이 단군을 낳은 사실만 간략히 언급될뿐 치적이나 결혼 등의 사실은 나오지 않는다. 이어서 단군의 이름과 구체적인 치적을 밝히고 있다. 단군이 죽고 부루가 왕이 되어 도산회의에 참석했으며 은주 교체기에 장당경이 아니라 백악으로 옮겼다는 점은 다른 문헌과 차이를 보인다. 왕검과 부루의 역사성을 부각시키며 부루 이후는 세계가 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扶餘世家에서는 부여의 선조가 단군으로부터 나왔다고 하였다. 『東史』도 『標題音註東國史略』처럼 신화적 요소를 배제하면서 고조선 시조 왕검의 건국 사실을 완결성 있게 기록하고 있다.

한치윤의 『海東歷史』⁵³⁾(1814)에 나타난 단군신화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건국 :

50) 최병헌, 1994, 앞의 글, p.167.

51) 『東史綱目』 第一上.

52) 『修山集』 卷11 東史 檀君本紀.

53) 『海東歷史』 卷2 世紀2 檀君朝鮮.

唐堯 29년 戊辰에 단군이 평양에 도읍을 정하여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함 ② 탄생 : 환웅이란 천신의 아들임 ③ 건국과정 : 단군의 이름은 儉으로 나면서부터 신명하여 九夷들이 임금으로 삼았음 ④ 최후 : 殷 무정 8년 을미에 구월산에 들어가 신이 되니 壽는 1048년이었음. 한국사 체계를 구성함에 있어 단군조선을 국가의 시발로 설정하는 것은 『三國遺事』 이래로 관례로 내려왔다. 그러나 『海東歷史』는 이러한 관례를 깨고, 단군조선에 앞서 東夷總紀 를 독립된 항으로 설정하고 있다. 단군도 九夷들이 임금으로 삼아 조선을 세웠다고 보았으며 단군의 이름이 王儉이 아닌 儉이라고 이해했다. 단군조선에 관한 자료가 단 1건에 그친 것과 대조적으로 기자조선의 역사가 상세히 부각되는데 이것은 자료 수집의 결과로 보인다.⁵⁴⁾

조선후기의 문헌들에 나타난 단군신화의 구조는 단군의 탄생에 대한 부분이 간략한데 환웅의 존재는 아예 배제하거나 단군의 아버지로 잠시 언급된다. 그러면서 단군의 이름은 왕검이며 백성들에게 編髮蓋首를 가르치고, 군신·남녀·음식·거처의 제도를 가르치는 문화적 업적을 강조하여 시조 단군의 역사성이 뚜렷해지는 구조를 가진다.

54) 한영우, 1989, 「19세기 초 《海東歷史》의 歷史敘述」 『조선후기 사학사연구』, 일지사, pp.405~407.

IV. 단군신화 구조의 변천

지금까지 살펴본 문헌 자료에 나타난 단군신화의 구조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1> 문헌자료에 나타난 단군신화의 구조

문헌 구조	환웅 신화	탄생	건국과정	치적 및 가족 관계	도읍이동 및 역년	최후	계승국가
三國遺事 (1281~ 1283)	○	환웅+웅녀		×	평양-백악 산 아사달- 장당경-아 사달 (1908년)	아사달 산신	위만조선, 부여, 고 구려
帝王韻紀 (1287)	○	단수신+손녀		×	평양-아사 달 (1038년)	아사달산 신	기자조선 및 열국
『世宗實 錄』地理志 (1454)	○	단수신+손녀		아들 부루, 도산회의	(1038년)	아사달산 신	열국
應製詩註 (1462)	○	환웅+웅녀	國人 추대	아들 부루, 도산회의	평양-백악 (1048년)	아사달산 신	동부여, 기자조선
三國史節要 (1476)	×	×	國人 추대	×	평양-백악 (1048년)	아사달산 신	기자조선
東國通鑑 (1485)	×	×	國人 추대	×	평양-백악 (1048년)	아사달산 신	기자조선
標題音註東 國史略 (1520~ 1529)	○	환웅+?		아들 부루, 도산회의, 참성단을 쌓 고 하늘에 제사	평양-백악- 장당경 (1500년)	송양에 장사	기자조선
東事 (1673)	○	신사+?		아들 부루, 도산회의	평양-당장 (1048년)	송양 서 쪽 안장	북부여
東國歷代總 目(1705)	○	환웅+웅녀	國人 추대	編髮蓋首, 아들 부루, 신하 팽오	(1212년)	아사달산 신	
東史綱目 (1778)	×		國人 추대	編髮蓋首 등	평양-백악 (1048년)	아사달 산신	기자조선
東史 (1803)	○	환웅+?		編髮蓋首 등	평양-백악 산(1508년)		기자조선, 열국
海東歷史 (1814)	×		九夷 추대	編髮蓋首 등	평양 (1048년)	구월산신	기자조선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군신화는 고려후기에 시조 단군의 근본을 이야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조선시대에는 비합리적인 탄생 이야기를 삭제 혹은 주로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단군의 이름을 밝히고 주로 단군의 치적과 역사적·인간적 측면을 부각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도읍이동이나 역년에 대해서는 기자조선을 인정하지 않고 왕검조선 1908년만을 인정한 『三國遺事』와는 달리 조선시대에는 대부분 단군조선을 약 1000년으로 보고 이후에 箕子朝鮮時代를 인정한다. 다만 『標題音註東國史略』과 『東史』의 경우 기자의 동래로 단군의 후손이 도읍을 옮기고 약 1500년 동안 존속했다고 보았다. 단군신화의 구조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환웅신화

단군신화의 桓因이란 단어는 본래 하늘님, 天神이란 의미의 한국 고유한 말이 있었을 것이나, 문자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당시 유행되던 天神이란 뜻을 가진 桓因, 또는 帝釋이라는 불교용어로 표현된 것이다. 일연은 『三國遺事』를 편찬할 때 『古記』의 桓因이란 용어에 帝釋이라는 같은 의미의 해석을 이중적으로 부쳤다. 『帝王韻紀』가 인용한 『檀君本紀』에서는 桓因과 함께 그의 다른 명칭으로 유교적 표현인 上帝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유학자이면서도 동시에 불교신자인 이승휴가 불교적인 桓因, 帝釋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위에 유교적인 上帝라는 개념을 덧붙여 이해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⁵⁾

흔히 건국신화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생략되어 있다. 해모수는 하늘에서 홀승골성에 내려와 북부여를 건국했고, 신라의 혁거세와 가야의 김수로는 알에서 태어났다.⁵⁶⁾ 중국의 시조신화에서도 상(은)의 설은 어머니가 제비알로 임신했으며, 주나라 후직은 어머니 강원이 거인의 발자국을 밟고 임신했으며, 秦나라의 시조 여수는 어머니가 제비알을 먹고 대업을 낳았다고 한다.⁵⁷⁾ 그런데 단군신화는 오히려 아버지 환웅의 치적에 대한 기사가 더 자세하다. 우리나라 건국신화의 일반적인 전개에서 건국시조는 하늘신의 대리자로서 산을 통해 지상으로 내려와 건국까지 하고 있음을 염두해 둘 때, 환웅은 분명하게 건국시조의 위치에 있다.⁵⁸⁾ 이는 환웅신화라는 단군 이전의 또다른 시조신화가 나중에 단군신화

55) 최병헌, 1994, 앞의 논문, pp.146~147.

56) 『三國遺事』 卷1 紀異 第1.

57) 『史記』 卷3 殷本紀 ; 『史記』 卷4 周本紀 ; 『史記』 卷5 秦本紀.

와 결합된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국조로 단군을 받들고 환웅을 받들지 않는 것은 환웅의 신시 집단과 단군의 아사달집단은 같은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즉 신시의 2대왕으로서 환웅의 신시를 계승한 존재가 단군이 아니고 신시와 웅녀집단이 통합되어 새로운 조선이라는 국가를 만들고 조선의 시조로서 즉위한 존재가 단군인 것이다.⁵⁹⁾

여기서 중요한 줄거리는 지상에 내려온 환웅이 天孫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지상에 내려온 정복자의 정당성을 이야기 하기 위해 天孫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天에 대한 관념의 중요한 부분이 지배권의 확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⁶⁰⁾

2) 탄생

단군의 탄생은 크게 『三國遺事』의 환웅·웅녀의 결합과 『帝王韻紀』의 단수신·환웅손녀의 결합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선시대의 문헌에도 나타난 모습도 이 두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탄생 부분 자체를 아예 생략하고 있다. 다만 『妙香山誌』에 실린 『第代祖記』에는 ‘桓仁의 아들 桓熊이 白虎와 결혼하여 檀君을 낳았다’고 하여 『三國遺事』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을 다른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 그다지 널리 유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⁶¹⁾

한편 熊女 대신 환웅의 孫女가 등장하는 유형을 본래의 ‘熊’字가 ‘孫’字로 변형된 것이라는 견해⁶²⁾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글자의 혼란이라기 보다는 다른 전승이 내려왔던 것으로 보인다. 내용에서 『三國遺事』가 수조신화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면 『帝王韻紀』는 수목숭배가 중심이다. 구조에서는 전자가 부계 중심의 3대 구조인 반면, 후자는 비부계의 5대 구조다.⁶³⁾ 모계보다 부계를 더 신성화하고 천신이 지신이나 수목신보다 지위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三國遺事』유형이 좀더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된다.⁶⁴⁾ 도참사상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전하던 『帝王韻紀』 유형의 전승은 후

58) 김성환, 2009, 앞의 논문, p.29.

59) 서대석, 2001,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p23.

60) 최광식, 1999, 「韓國 古代의 天神觀」 『사학연구』 58·59, pp.51.

61) 김성환, 1999b, 「檀君傳承의 類型(Ⅱ)」 『사학지』 32, pp.107~110.

62) 朱昇澤, 1993, 「北方系 建國神話의 文獻的 再考察 : 解夫婁神話의 구조를 중심으로」 『韓國學報』 19, pp.202~205 ; 최병헌, 1994, 앞의 논문, 151~152.

63) 김성환, 2015, 앞의 논문, p.23.

대에 들어와 유교적인 입장에서 단웅천왕과 단수신의 관계, 단수신과 단웅천왕 손녀의 혼인 등의 문제에 대한 혼란으로 널리 유포되지 못하고, 곰이 사람이 되어 환웅과 혼인함으로써 단군을 낳았다는 유형이 전승의 전형으로 자리하게 되었다고 짐작된다.⁶⁵⁾

단군신화의 구조에서 단군의 탄생 부분은 가장 신화적인 요소가 가장 강한 부분이다. 熊은 토렘으로 보거나 혹은 地母神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한다.⁶⁶⁾ 한국의 민속과 설화의 세계에서는 현재 곰보다는 호랑이가 우세한 자리를 차지하여 『三國遺事』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⁶⁷⁾ 한편 濊는 호랑이를 豹은 곰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군신화는 濊와 豹族의 긴밀한 교섭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⁶⁸⁾

3) 건국과정

단군왕검의 건국과정(즉위과정)은 상세히 전해지지 않는데 조선시대의 문헌에는 박혁거세신화나 김수로신화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주로 國人の 합의로 왕을 추대하는 방식으로 기록된다. 오운의 『東史纂要』에서는 “동방에 九夷가 있었다”⁶⁹⁾고 했고 조여적의 『靑鶴集』에서는 “단군이 환웅의 업을 이어받아 교화한지 10년만에 九夷가 함께 그를 존송하여 천왕으로 세웠다”고 했는데 이미 『三國史節要』에서도 단군 이전의 九夷의 존재를 언급했다. 조선후기에 東夷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한치윤은 아예 『海東歷史』에서 단군조선에 앞서 東夷總紀를 넣기도 했다. 따라서 환웅이 나오지 않아도 단군 이전에 九夷라는 사회가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확실한 건국과정 묘사는 없으나 『三國遺事』 등에는 환웅의 신시개창 다음에 단군의 개국이 서술되고 있기에 신시를 건설한 환웅의 유이민 집단과 응녀로 대표되는 토착 집단이 통합되어 새로운 단군의 집단으로 재편되고 도읍과 국호를 새로 정했다는 사실로

64) 강인숙, 1995, 「단군신화」 『북한학계의 단군신화 연구』, p.453.

65) 김성환, 1999a, 앞의 논문, p.30.

66) 윤명철, 1988, p.199.

67) 이정재, 1997, 『동북아의 곰문화와 곰신화』, 민속원, p.91.

68) 이성규, 2002, 「문헌상으로 본 한민족문화의 원류」 『한국사』 1, 국사편찬위원회, pp.141~146.

69) 『東史纂要』 卷1 上 檀君朝鮮.

추측할 수도 있다. 즉 단군의 즉위는 신시 집단의 환웅의 왕위를 단순히 계승한 것이 아니고 집단의 통합과 확장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국가의 시조로서 스스로 왕위를 차지한 것이다.⁷⁰⁾ 따라서 기존 사회를 통합하고 혼인동맹을 통해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추대형으로 건국했다고 기록된 것은 신비롭게 묘사된 환웅신화와 탄생기사를 삭제하면서 후대에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시기와 무대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시기가 요임금과 동시기라고 인식한 것은 중국과의 교류가 있고 난 후의 일이다. 요임금과 동시기에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 역사의 유구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書經』에서는 요순부터 중국의 역사를 다루었지만 이미 한 대에 이르러 『史記』에서는 황제를 중국역사의 출발로 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건국시기와는 별개로 요임금 시기에 나라를 세웠다는 인식을 한 대 이전의 고조선인이 가졌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魏書』의 편찬연대를 기준으로 고조선 건국연대를 잡는다면 기원전 18~15세기라는 또다른 연대도 제시될 수 있다.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장소인 평양 혹은 아사달은 평양지역과 관련하여 많은 전승이 남아있으나 고조선의 초기 도읍지는 보다 발달된 청동기문화가 존재했던 요서지역 혹은 요동지역에서 찾은 것이 일반적이다. 비파형동검이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요서 조양지역을 아사달로 비정하거나⁷¹⁾ 고조선의 중심지를 요동의 海城·蓋平 일대로 보기도 하는데⁷²⁾ 개평은 고구려시대 蓋牟城이 있던 곳으로 개모는 우리말의 곰이나 일본어에서 곰을 뜻하는 구마(くま)와 통한다. 또 개평의 서남쪽을 요나라 이래로 熊岳이라 불렀다는 것도 시사적이다.⁷³⁾ 따라서 본래의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초기 도읍지가 있었던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고조선의 지배층은 단군신화에 대한 의례를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자신들의 정치권력의 초월성과 신성성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하였을 것이다.⁷⁴⁾

70) 서대석, 2001, 앞의 책, pp.22~23.

71) 임병태, 1991, 앞의 글 ; 오현수, 2014, 「古朝鮮의 形成과 變遷過程 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 박사학위논문.

72) 노태돈, 2000, 「고조선의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73) 리상호, 1962, 「단군 설화의 역사성(하)」 『역사과학』 1962-4 ; 서영대, 2001, 「단군 신화의 역사적 이해」 『한신인문학연구』 2.

74) 서영대, 1998, 앞의 논문, pp.318~320.

4) 단군의 치적 및 가족관계

단군의 치적에 대한 기록은 주로 조선시대의 문헌에 나온다. 『東國歷代總目』, 『東史綱目』 등에는 단군의 치적에 대해 단군이 백성들에게 編髮盖首를 가르치고, 군신·남녀·음식·거처의 제도가 이때 시작되었으며, 팽오에게 명하여 국내의 산천을 국내의 산천을 정비하게 하는 등 단군의 문화적 치적을 강조했다.

단군의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문헌에서 단군이 非西岬의 ‘河伯之女’와 혼인하여 夫妻를 낳았다고 기록했다. 하백녀는 고구려 시조의 어머니로도 기록되는 점에서 특정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의 여성 신격임을 짐작하게 된다.⁷⁵⁾ 『高麗史』⁷⁶⁾, 『世宗實錄』⁷⁷⁾ 地理志, 『海東異蹟』⁷⁷⁾ 등에서는 塹城壇은 단군이 쌓아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며 三郎城은 단군이 세 아들을 시켜 쌓았다고 기록했다. 참성단과 삼랑성은 『高麗史』에 이미 언급되어 남북한을 통틀어 단군유적 가운데 문헌적 근거가 가장 올라간다. 우리 민족의 제천 전통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고조선의 정치권력이 하늘에서 기원했다는 단군신화로 미루어 제천의 전통은 고조선 시기로 소급될 가능성은 충분하다.⁷⁸⁾ 『靑鶴集』에서는 단군 네 아들의 이름이 전하는데 부루 외에도 부소, 부우, 부여라는 모두 네 아들이 있었는데 부루는 도산회의에 입조했고, 九夷 알유의 반란을 부여가 토벌하였고, 나라에 질병이 있자 부우가 의술로 살려냈고, 산에 맹수가 많아 부소는 불로 사냥하며 몰아냈다고 하였다. 또한 홍수로 패수가 범람하여 평양에 물에 잠기니 네 왕자가 당장리에 도읍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三國遺事』와 『帝王韻紀』의 경우처럼 단군의 탄생에 대해서는 상세한 반면 건국과정이나 치적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한사람의 단군이 고

75) 이지영, 2006, 「河伯女, 柳花를 둘러싼 고구려 건국신화의 전승 문제」 『동아시아고대학』 13, p.26.

한편 하백은 주몽세력의 모태가 되었던 세력이 自族의 主神으로 水神을 모시던 것을 주몽에 의한 계루부 고구려 건국과 이후 중국 문화가 전래되면서 河伯이라는 명칭으로 雅化시켜 표현 것이라는 연구가 있다(조영광, 2006, 河伯女신화를 통해서 본 고구려 국가형성기의 상황 북방사논총12, p.282) 단군의 부인을 하백녀라고 표현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76) 『高麗史』 卷56 地理志1.

77) 『海東異蹟』 檀君.

78) 서영대, 2009, 「참성단의 역사와 의의」 『단군학연구』 19, pp.143~145.

조선을 1,000년 넘게 다스리고 산신이 되었다는 인식에 대해서이다. 과연 고조선은 역대 왕들의 이름이 처음부터 전하지 않고 단군 한사람의 수명으로 고조선 전체 역년을 대신한 것처럼 기록된 유형만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여기서 먼저 단군과 왕검이 고유명사인지 일반명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군은 ‘천신을 모시는 사제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⁷⁹⁾ 고조선시기 지배자의 호칭으로 보는데는 큰 이견이 없다. 단군이 호칭이라면 王儉의 경우는 첫 번째 단군의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인지⁸⁰⁾ 아니면 단군처럼 호칭을 의미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고조선의 도읍이동이나 수명 혹은 역년만을 언급한 문헌들은 그저 건국자를 ‘단군’이라고만 하고 있다. 이때의 ‘단군’은 개인이 아니라 고조선의 통치자를 말하는 일반명사처럼 사용된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단군의 구체적인 치적을 기록한 문헌은 대부분 먼저 단군의 이름이 왕검이었다고 밝히는 것이 특징이다. 적지 않은 문헌에서는 왕검 혹은 검이 단군의 이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따라서 단군은 고조선의 왕들을 일컫는 일반명사로, 왕검은 건국자의 이름을 말하는 고유명사로 이해된다. 『三國遺事』古朝鮮(王儉朝鮮)條의 편명인 ‘王儉朝鮮’도 뒤의 ‘魏滿朝鮮’이 ‘魏滿’이 세운 조선이란 의미와 마찬가지로 ‘왕검’이 세운 조선을 말하는 것으로 인명을 강조한 표현으로 보인다. 한편 단군의 아들로 기록되는 부루는 뒷날 동부여를 세웠다고 하여 활동한 시기가 불분명한 인물이다. 부루는 본래 밝음을 속성으로 하는 천신계열의 명칭으로 이외에도 곡식, 생식성, 흰, 밝음, 馬의 뜻도 가지고 있다.⁸¹⁾ 『東史綱目』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⁸²⁾ 부루는 단군시대의 부루와 뒷날 동부여를 세운 해부루와는 다른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단군신화가 고조선 멸망이후 전승 과정에서 부여 신화와 융합되며 혼란을 가져왔을 것으로 이해된다.

『揆園史話』에는 단군조선 47대의 이름이 전하며⁸³⁾, 『奇氏譜』에는 기자조선 41대

79) 이필영, 1981, 앞의 논문, p.22.

80) 申采浩, 1948, 『朝鮮上古史』, 종로서원, p.55 ; 윤내현, 2003, 「단군학 정립을 위한 몇 가지 전제」 『단군학연구』 8, pp.190~191.

81) 이필영, 1981, 앞의 논문, pp.18~20.

82) 『東史綱目』附卷上 考異.

83) 『揆園史話』는 후대의 위서라는 견해와 17세기에 저술된 이후 일부 윤색이나 가필이 되었다고 보더라도 전적으로 위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견해로 대립된다.

한영우, 1976, 「17세기의 反尊華의 道家史學의 성장 - 北崖의 「揆園史話」에 대하여 - 」 『한국의 역사인식 상』, 창작과 비평사 ; 趙仁成, 1988, 「『揆園史話』와 『桓檀古記』」 『한국사 시민강좌』 2.

의 이름이 전하는데 다른 문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것은 단군조선 1대왕검, 2대부루와 기자조선 1대 기자, 40대 부왕, 41대 준왕 뿐이다. 이러한 역대 왕들의 이름이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三國志』가 인용한 『魏略』에 기자 이후로 40여대가 지나 연나라와 대립하는 기사⁸⁴⁾가 있어 당시 고조선에 40여대의 계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반영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⁸⁵⁾ 단군이 비서갑 하백의 딸과 혼인하여 부루를 낳았다는 기록 등 단군의 가족관계와 후계에 대해 남아있는 내용은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달리 고조선 왕실의 후계 계승 문제가 이미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하게 전해졌고, 이를 정리한 다양한 자료가 저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⁸⁶⁾ 보통의 건국신화는 ‘탄생-건국과정-치적-최후’로 구성되는데 단군신화의 원형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여기진다. 고조선도 첫 번째 단군인 왕검의 탄생과 건국과정 및 치적을 중심으로 한 건국신화가 먼저 만들어졌을 것으로 이해된다. 단군이 고조선의 건국시조였다면 사후에 무덤이 조성되어 삼국이나 가야의 시조처럼 무덤에 장례되고 왕실 부근에 시조묘가 세워져 매년 정례적인 제사가 모셔졌을 것이다. 그런데 고조선이 멸망하고 단군의 무덤이 있던 지역을 상실하며 역사성이 탈락된 채 산신신앙이 결합된 모습이 아사달산신으로의 최후일 것이다.⁸⁷⁾ 따라서 신비로운 요소의 환웅신화와 탄생이야기만 남고 왕검 이후 역대 왕들의 이름도 전해지지 않게 되면서 마치 한사람의 단군이 고조선 전시대를 다스린 것처럼 서술하여 건국자의 치적과 건국과정이 생략된 전승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三國遺事』, 『帝王韻紀』와 같은 유형은 고조선 멸망이후 역사성이 대부분 탈락하며 원형이 변형된 결과로 여겨진다.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인식을 수궁할 수 없었기에 단군의 이름, 치적, 무덤 등이 기록된 다른 전승을 참고하여 단군의 역사성을 복원하려고 했을 것이다.

84) 『三國志』卷30 魏書東夷傳 韓傳 所引 『魏略』.

85) 조법중, 2006, 『고조선 고구려사 연구』, 신서원, pp.199~200.

86) 김성환, 2009, 앞의 책, p.41.

87) 김성환, 2009, 위의 책, pp.21~60.

5) 도읍이동 및 역년

이 부분은 건국이야기가 아니라 고조선의 역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고조선에 대한 체계적인 역사는 전해지지 않고 고조선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 말미에 단군 혹은 그 후손이 도읍을 옮긴 사건과 다스린 전체 연수를 언급하고 있다. 최종적인 도읍이동과 연수는 고조선 멸망 이후에 추가되었을 것이다.

『三國遺事』는 단군이 ‘平壤-白岳山阿斯達-藏唐京-阿斯達’로 도읍을 옮기며 1908년을 살았다고 한 반면 기자조선을 인정한 『東國通鑑』 등은 도읍 이동을 ‘平壤-白岳’만 언급하며 단군이 약 1000년을 살았다고 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帝王韻紀』 등의 기록은 기자조선시대가 중간에 삽입되어 삽입되며 원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⁸⁸⁾ 『標題音註東國史略』과 『東史』 등은 기자의 동래로 단군의 후손들이 도읍을 옮겨가 약 1500년을 다스렸다고 했다. 따라서 고조선을 약 1000년으로 인식한 것은 기자를 염두해 두고 ‘평양-백악산아사달’ 도읍시기만 계산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래에 기록된 단군의 수명 혹은 고조선의 전체 역년은 약 1500년이나 1908년이었을 것이다.

6) 계승국가

엄밀히 말하면 단군신화의 구조에 해당되지 않으나 한국사를 다룬 문헌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단군신화의 특성상 그 계승국가에 대해 언급하며 끝맺는 경우가 많다. 삼조선체제로 인식하는 경우 기자가 동래하기 이전에 단군조선이 끝나고 기자조선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帝王韻紀』는 신라, 고구려, 남북옥저, 동북부여, 예맥, 비류국 등을 모두 꼽고 있으며 『東事』는 단군의 아들 부루가 북부여를 세웠다고 했으며 『東史』 扶餘世家는 扶餘의 선조가 단군으로부터 나왔으며 단군이 맏아들 외의 아들을 扶地에 봉하니 스스로 ‘扶餘’라고 이름했다고 기록했다. 기자조선을 인정하지 않는 『三國遺事』 고조선조는 뒤에 위만조선조를 배치하여 ‘고조선(왕검조선)-위만조선’으로 이어지는 체계로 인식하였으며 王歷에서는 주몽이 단군의 아들이라고 했다.

계승국가에 대한 부분은 고조선 멸망 이후에 가장 늦게 추가된 부분이다. 동부여의 해부루나 고구려의 주몽이 단군의 아들로 기록되는 경우는 단군신화가 고조선의 영토 대부분을 이어받은 고구려에 의해 전승되어 내려오며 부여, 고구려 신화와 융합된 것으로 보인다. 주몽과 대립하던 송양이 자신은 仙人의 후예임을 강조하는데⁸⁹⁾ 『三國史記』에서 평

88) 조원진, 2014, 앞의 논문, pp.340~344.

양지역과 관련하여 나타난 仙人王儉은 단군왕검의 또다른 표현으로 이해된다. 한 국가의 왕이 계승성을 강조할 수 있는 仙人의 존재는 단군왕검 외에는 달리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송양은 단군왕검의 후손임을 내세웠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류국 송양만이 단군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고조선 건국신화와 고구려 건국신화는 태백산이라는 장소에서 공유성을 가지고 있다. 주몽의 부계인 해모수는 환웅과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태백산으로 내려왔다. 그 주변에 웅심산·웅심연 등이 있었는데 이곳은 고조선 건국신화에서 응녀로 대표되는 세력의 근거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3세기 고구려의 제천례인 동맹에서 모셔신 隧神은 유화 이전에 그들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던 응녀일 가능성이 있다.⁹⁰⁾ 그러나 고조선 → 고구려로의 역사계승의식이 고구려 당시 존재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고구려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고조선 사회의 해체 이후에도 유민들은 이전처럼 건국신화를 중심으로 신앙체계와 의례가 반복되었으나 그 역사성은 점차 축소 또는 퇴색되어 갔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단군은 옛 고조선 영역을 중심으로 각 지역 공동체의 신앙과 숭배 대상으로서만 기능하게 되었다. 각저총·장천 1호분 등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조선 건국신화와 관련된 모티브들은 이런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⁹¹⁾

89) 東國李相國集 卷3 東明王篇

90) 김성환, 2013, 앞의 논문, pp.59~92.

91) 김성환, 2003, 앞의 논문, p.140.

V. 결론

지금까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된 단군신화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여 마무리하고자 한다.

고려후기의 문헌인 『三國遺事』와 『帝王韻紀』에 나타난 단군신화의 구조는 ‘환웅신화-단군탄생-건국-도읍이동과 역년-아사달 산신이 되는 사후행적’으로 이루어진다. 아버지 환웅의 치적과 단군의 탄생 부분은 상세한 반면 구체적인 건국과정이나 치적이 없어 일반적인 건국신화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단군신화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성보다는 지역 공동체의 신앙과 숭배 대상으로서만 기능함으로 신비로운 요소의 환웅신화와 탄생이야기만 남고 한사람의 단군이 고조선 전체를 다스린 것처럼 기록하여 건국자의 치적과 건국과정은 탈락한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 전기는 단군이 국조로 자리잡으면서 신비적인 요소가 있는 환웅신화와 탄생부분을 생략하는 구조가 나타난다. 『三國史節要』, 『東國通鑑』 등은 '건국-도읍이동 및 역년-최후'로 이루어지는 최소한 역사적 사실만을 전하고 있다. 단군의 천년이 넘는 재위 연수는 단군의 후손이 대대한 왕위를 계승한 연수를 합산한 것이라 보았고 건국과정도 국민의 추대를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도읍 이동과 역년에 대해서는 기자조선을 인정하며 단군의 통치는 약 1,000년으로 보는 인식이 일반적이 되는데 이것은 기자동래기사가 삽입되며 원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高麗史』·『東國輿地勝覽』 등은 참성단·삼랑성·단군묘 같은 단군유적을 전하고 있다.

조선 후기 문헌에는 단군의 이름이 왕검이었음을 밝히고 가족 관계와 백성들에게 編髮蓋首와 군신·남녀·음식·거처의 제도를 가르치는 단군의 문화적 업적을 강조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東史』와 『標題音註東國史略』은 다른 건국신화에 못지않게 ‘탄생-건국-치적 및 가족-최후 및 후계-도읍이동’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균형있게 기록되어 있다.

이와같이 보았을때 단군신화의 구조는 고려후기에는 신성한 탄생이 강조되었다면 조선 시대에는 점차 역사성을 강조하여 단군의 치적을 강조하는 구조를 갖게 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특히 고려후기와 조선전기의 문헌들에 나타나는 단군은 한 개인 이라기 보다는 고조선을 통치한 상징적인 존재처럼 기록된다. 그러나 후대 문헌에서는 다른 전승을 이용하여 단군의 이름이 왕검이었고 가족관계와 치적, 관련유적을 밝히며 한명의 건국자로서 역사성이 부각된다.

제1부 우리 역사 속의 고조선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보이는 낙랑의 실체와 辰韓人과 고조선의 관계

김남중(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 I. 머리말
- II. 신라의 국가형성과 낙랑국
- III. 위만조선과 낙랑국
- IV. 진한인의 계통과 낙랑국과의 관계
- V. 맺음말

I. 머리말

『삼국사기』에는 조선 유민에 의해 진한 6부가 형성되었으며, 이들이 박혁거세를 받들어 신라를 세웠던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또한 『三國志』辰韓傳에는 진한인들이 秦의 고역을 피해 韓地로 왔으며, 낙랑인에게 동족 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낙랑군은 위만조선 멸망 이후 설치된 郡이라는 점에서 고조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두 기록은 모두 진한이 고조선과 관련 있음을 알려 주는 것으로, 결국 신라는 고조선 세력이 세운 또 하나의 국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 신라본기 초기 기록에는 다른 세력보다 낙랑이 신라를 침공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다. 『三國志』에 진한과 낙랑을 친근 세력으로 묘사한 것과는 달리 『삼국사기』는 낙랑과 신라를 적대 세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상반된 기록이 나오게 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는 신라인들의 건국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신라인들의 국가관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건국 무렵에 낙랑을 신라를 괴롭히는 세력으로 설정했다는 것은 낙랑에 대한 신라인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낙랑의 신라 침공 기사는 儒理尼師今 13년 사건 이외는 일반적인 전쟁 기사와는 다른 점들이 보이는데, 특히 낙랑의 無道함을 드러내면서 상대적으로 건국 무렵의 신라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신라를 쳐들어왔던 낙랑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낙랑의 漢人이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견해,¹⁾ 낙랑군 동부도위 지역의 토착 세력과 맥이 닿는 존재라는 견해,²⁾ 옥저 지역의 낙랑국으로 보는 견해,³⁾ 영서 지역으로 이동한 일부 낙랑 주민이라는 견해,⁴⁾ 辰韓의 일파로 보는 견해⁵⁾ 등이 있다. 대체로 낙랑의 실체를 조명하려는 입장에서 접근하였으며, 낙랑을 신라 국가 형성의 방해 세력으로 묘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덜 주목하였다.

낙랑은 漢이 위만조선을 멸하고 설치한 군이다. 그런데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낙랑국이라 하여 또 다른 낙랑이라는 정치적 실체가 보인다. 이 낙랑국에 대해 위만조선 시기부터 존재했던 세력으로 낙랑군이 개설된 곳,⁶⁾ 낙랑군 내에 개설된 왕국,⁷⁾ 낙랑군 내 토착 국읍⁸⁾ 또는 그 중 하나,⁹⁾ 낙랑군의 속현으로 국을 칭한 세력,¹⁰⁾ 옥저 지방 즉 낙랑군 동부도위 지역에 있던 토착 세력,¹¹⁾ 낙랑군에 흡수되지 않은 채 간접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親漢의 성격의 국가¹²⁾ 등으로 본다.¹³⁾ 최근 낙랑군의 지배세력을 漢人으로만 볼 수

-
- 1) 李鍾旭, 1987, 『新羅國家形成史研究』, 一潮閣, p.81; 조범환, 2009, 「『三國史記』 新羅本紀 初期記錄에 보이는 樂浪」, 『韓國古代史探究』 창간호, pp.145~147.
 - 2) 文昌魯, 2004, 「新羅와 樂浪의 關係」, 『한국고대사연구』 34, pp.187~192.
 - 3) 文安植, 1997, 「『三國史記』 新羅本紀에 보이는 樂浪-靺鞨史料에 관한 검토」, 『전통문화연구』 5, p.22; 2008, 「『三國史記』 초기기록에 보이는 낙랑의 실체에 대하여」, 『전통문화논총』 6, pp.202~209.
 - 4) 李道學, 2014, 「樂浪郡의 推移와 嶺西 地域 樂浪」, 『東아시아古代學』 34, pp.19~29.
 - 5) 姜鍾薰, 1995, 「『三國史記』 初期記錄에 보이는 ‘樂浪’의 實體」, 『韓國古代史研究』 10, pp.133~14; 李炯佑, 2000, 『新羅初期國家成長史研究』, 영남대학교출판부, pp.65~66.
 - 6) 趙法鍾, 2000, 「衛滿朝鮮의 崩壞時點과 王險城-樂浪郡의 位置」, 『韓國史研究』 110, p.27.
 - 7) 孫晉泰, 1954, 『韓國民族史概論』, 乙酉文化社, pp.95~99.
 - 8) 徐榮洙, 1998, 「對外關係史에서 본 樂浪郡」, 『史學志』, pp.18~19.
 - 9) 權五重, 1992, 『樂浪郡研究』, 一潮閣, pp.54~55.
 - 10) 李鍾旭, 1993, 『古朝鮮史研究』, 一潮閣, pp.289~290.
 - 11) 文安植, 1997, 앞의 논문, p.22; 2008, 앞의 논문, pp.202~209.
 - 12) 李峻誠, 2010, 「낙랑군과 낙랑국의 병존 가능성 고찰」, 『3사교 논문집』 70, pp.17~19.

없다는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북한 지역에서 조사되고 있는 기원전 1세기대의 토광목곽묘에 토착문화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점에서 군현 운영에 토착민이 많이 참여하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¹⁴⁾ 비록 낙랑군의 통치 아래에 있었지만 토착 세력의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신라를 침공한 주체는 낙랑군 즉 낙랑태수일수도 있지만 낙랑국일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초기 신라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건국 무렵 신라를 공격했던 낙랑의 실체와 낙랑 침공 기사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고조선과 관련하여 두 세력이 어떤 차이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자 한다. 그런데 위만조선은 고조선 등 여러 세력은 병합하여 성립되었다. 비록 위만이 조선을 국명으로 채택하였다고는 하지만 위만조선 안에는 본래 고조선을 칭했던 세력이 있었던 것이다. 신라와 낙랑이 각각 어떤 고조선 세력과 관련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낙랑의 신라 침공 기사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며, 이에 위만조선 시기 두 세력의 관계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신라의 국가 형성과 낙랑국

『삼국사기』 초기 기사에 묘사된 삼국의 국가 형성 과정을 보면 극복해야 할 상대국들이 나온다. 고구려의 경우는 시조 동명성왕이 부여에서 나온 이후 유리왕, 대무신왕 시기까지 부여왕이 끊임없이 고구려에 압력을 가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유리왕 28년에는 부여왕 대소가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어 禮와 順으로써 부여를 섬길 것을 조롱하듯이 말하였다.¹⁵⁾ 또한 대무신왕 3년에는 부여왕이 머리가 하나이며 몸이 둘인 赤鳥를 얻었는데 두 나라를 아우를 징조 즉 고구려를 합병할 징조라는 말에 고구려에 보낸 바 있다.¹⁶⁾ 결국 대무신왕

13) 낙랑군을 요녕 지역으로 보고 낙랑국을 낙랑군과 별개로 서북한 지역에 있던 국가로 보는 견해도 있다(尹乃鉉, 1986, 『韓國古代史新論』, 一志社, pp.305~343; 리승혁, 1995, 「만 왕조의 멸망과 낙랑국에 대하여」, 『단군과 단군조선』, 살림터, pp.247~250.).

14) 尹龍九, 1990, 「樂浪前期 郡縣支配勢力의 種族系統과 性格」, 『歷史學報』 126, pp.32~40; 오영찬, 2004, 『樂浪帶方郡 支配勢力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pp.40~94; 송호정, 2010, 「한군현(漢郡縣) 지배의 역사적 성격」, 『역사와 현실』 78, pp.47~51,

15)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 第1 琉璃明王 28년 8월

5년에 고구려가 부여를 쳐서 그 왕을 죽이고¹⁷⁾ 부여왕의 從弟가 만여 인을 이끌고 고구려에 투항하는 것으로 고구려와 부여의 대립은 일단락된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는 고구려가 대무신왕 시기까지 하여¹⁸⁾ 부여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다. 다만 『三國志』 東夷傳에는 부여가 고구려보다 더 강대한 세력으로 언급되어 있어¹⁹⁾ 대무신왕 시기에 고구려가 부여를 완전히 병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광개토태왕릉비문에서는 鄒牟王이 세운 국가를 儒留王이 도로써 興治하고 大朱留王이 그業을 계승하였다고 하여²⁰⁾ 첫 3대 왕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구려인들이 세 왕의 활약으로 국가적 기틀이 이루어졌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기록은 고구려가 하나의 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부여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백제의 경우는 백제본기 온조왕조에 마한의 병합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마한은 백제가 한강 유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준 세력으로 나오는데, 백제가 강역을 확장하고 웅천책을 세우자 마한이 백제를 질책을 하였다.²¹⁾ 이후 어느 漢城 사람의 집에서 말이 머리 하나에 몸이 둘인 소를 낳은 사건이 일어났는데,²²⁾ 이웃 나라를 병합할 징조라는 말을 들은 온조왕은 이듬해 마한을 공격하여 결국 복속하였던 것으로 나온다.²³⁾ 마한은 백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존재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구려의 국가 성장을 방해한 부여에 대비된다. 더구나 두 나라 모두 머리 하나에 몸이 둘 달린 동물이 출현한 뒤 각각 부여와 마한을 복속하였다. 그러나 『三國志』 東夷傳에는 여전히 마한이 존재한 것으로 나와 『삼국사기』 온조왕조의 마한 복속 기사는 실재를 반영하는 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 다만 온조왕조 기사에 마한 병합 내용이 나온다는 점에서 백제가 하나의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마한 극복을 중요하게 인식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16) 『三國史記』 卷14, 高句麗本紀 第2 大武神王 3년 10월

17) 『三國史記』 卷14, 高句麗本紀 第2 大武神王 5년 2월

18) 『三國史記』 卷14, 高句麗本紀 第2 大武神王 5년 7월

19) 『三國志』에서는 부여의 호가 8만이었던 반면 고구려는 3만 호였던 것으로 나오며, 부여 전에 인용된 『魏略』에서는 부여는 先世 이래로 일찍이 破壞된 적이 없었다고 전한다.

20) 韓國古代社會研究所 편,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pp.7~8.

21)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 第1 溫祚王 24년 7월

22)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 第1 溫祚王 25년 2월

23)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 第1 溫祚王 26년 10월

신라의 경우 赫居世居西干, 南解次次雄, 儒理尼師今 시기에 낙랑이 자주 침범해 들어왔다. 혁거세 때 1번, 남해왕 때 2번, 유리왕 때 1번이다.²⁴⁾ 이때 신라를 쳐들어온 세력으로는 왜와 화려·불내가 더 있는데, 왜는 2번,²⁵⁾ 화려·불내는 1번²⁶⁾ 쳐들어 왔다. 다른 세력보다 낙랑의 침공이 잦았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혁거세와 남해왕 때 낙랑의 침공 기사는 약간 특이한 점이 있다.

A. 樂浪人將兵來侵 見邊人夜戶不扃 露積被野 相謂曰 此方民不相盜 可謂有道之國 吾儕潛師而襲之 無異於盜 得不愧乎 乃引還(『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赫居世居西干 30년 4월)

이 기록은 낙랑이 처음으로 신라를 쳐들어온 내용을 전한다. 그런데 낙랑이 신라 변방의 사람들이 밤에 문을 닫지 않고 露積이 들에 깔려 있는 것을 보고는 道가 있는 나라라고 하며 부끄러워서 돌아갔다고 전한다. 혁거세의 통치로 신라의 주민들은 서로 도적질하지 않을 정도로 道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다.

혁거세 38년에 신라가 瓠公을 마한에 사신을 보냈을 때 마한왕이 근래 職貢을 바치지 않은 것을 질책하자 호공은 두 聖人(혁거세와 알영 부인)이 나라를 일으켜 인사가 바로잡히고 天時가 和하여 창고는 충실하고 백성들은 敬讓하여 卜韓樂浪·倭 등 이웃 나라들이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는데도 신하를 보내 聘禮를 닦았으니 어찌 禮가 지나칠 수 있냐며 반문하였다.²⁷⁾ 신라는 성인이 다스리는 나라로 정치가 잘 이루어져 이웃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다. 혁거세 8년에 왜가 쳐들어왔을 때도 혁거세가 神德이 있음을 듣고 물러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혁거세 53년에는 동옥저가 남한에 聖人이 나심을 듣고 사자를 보내 말을 바쳤다.²⁸⁾ 혁거세 시기에 신라가 하나의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근거로 聖人, 神德, 有道之國 등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혁거세 부인인 閼英夫人에 대해서도 마

24)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赫居世居西干 30년 4월, 南解次次雄 원년 7월, 11년, 儒理尼師今 13년 8월

25)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赫居世居西干 8년, 南解次次雄 11년

26)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儒理尼師今 17년 9월

27)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赫居世居西干 38년 2월

28)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赫居世居西干 53년

찬가지이다. 알영에 대해 德스러운 모습이 있어 혁거세가 妃로 맞아들였는데 과연 賢行이 있어 內輔를 잘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이 혁거세와 알영을 二聖이라 불렀다고 전한다.²⁹⁾ 신라는 聖人 부부가 다스리는 나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B. (南解次次雄) 元年 秋七月 樂浪兵至 圍金城數重 王謂左右曰 二聖棄國 孤以國人推戴 謬居於位 危懼若涉川水 今隣國來侵 是孤之不德也 爲之若何 左右對曰 賊幸我有喪 妄以兵來 天必不祐 不足畏也 賊俄而退歸(『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C. (南解次次雄) 十一年 倭人遣兵船百餘艘 掠海邊民戶 發六部勁兵以禦之 樂浪謂內虛 來攻金城甚急 夜有流星墜於賊營 衆懼而退 屯於關川之上 造石堆二十而去 六部兵一千人追之 自吐含山東至關川 見石堆知賊衆 乃止(『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B 사료는 혁거세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낙랑이 쳐들어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때 신하들이 國喪의 틈을 타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하늘이 낙랑을 돕지 않을 것이라 하였으며, 과연 낙랑이 포위를 풀고 물러났다. 이것은 西韓(마한)왕이 죽은 불행을 기회로 삼지 않고 사신을 보내 弔慰하였던 혁거세의 태도와³⁰⁾ 상반된다. 낙랑의 침입 기사는 오히려 혁거세의 賢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다.

C 사료는 왜가 신라의 해변을 침공해 온 것을 틈타 낙랑이 金城을 포위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밤에 유성이 적진 가운데 떨어지는 사건으로 적들이 두려워 물러났다. 낙랑의 침입을 하늘의 도움으로 물리치고 있는 것이다. 남해왕 시기에도 낙랑은 계속해서 불의한 전쟁을 일으켰고 신라는 하늘의 도움으로 손쉽게 적을 물리치고 있는 것이다. 낙랑은 성인이 다스리는 신라를 불의한 방법으로 침공해 오는 세력으로, 신라는 싸우지도 않고 낙랑의 침입을 막아내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결국 낙랑의 신라 침입 기사는 ‘신라=聖人之國’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낙랑은 고구려 대무신왕에 의해 멸망하였으며,³¹⁾ 신라가 來投해온 낙랑 사람

29)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赫居世居西干 5년 정월

30)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赫居世居西干 39년

5천 인을 6부에 나누어 살게 하는 것으로³²⁾ 신라와 낙랑의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있다. 고구려가 부여를 흡수하고 백제가 마한을 병합한 내용과 약간 다르지만 신라 역시 건국 과정에서 자신들을 괴롭혔던 낙랑 유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낙랑과의 관계가 종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낙랑은 신라의 국가 성립을 방해하였던 것일까. 백제의 경우도 건국 초에 낙랑과 관계를 하였다. 그러나 백제는 낙랑과 修好 관계를 맺었다가³³⁾ 馬首城과 瓶山柵 건립 문제로 불화하여³⁴⁾ 싸움이 계속되었다. 修好하였다는 것은 백제와 낙랑이 국가 대 국가로 외교 관계를 맺었음을 의미한다. 낙랑과 신라는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으며 단지 낙랑을 신라의 국가 형성을 방해하는 나라로 묘사하고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첫머리에 보면 조선의 유민들이 6촌에 분산되어 살면서 진한 6부를 이루었는데, 6부 사람들이 혁거세를 왕으로 세웠다고 전한다.³⁵⁾ 신라는 고조선 유민들이 세운 국가라는 것이다. 낙랑 역시 고조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漢이 위만조선을 멸한 뒤에 그 땅에 樂浪·玄菟 등 4군을 설치하였으며,³⁶⁾ 특별히 朝鮮縣을 樂浪郡의 首縣으로 삼았다. 낙랑은 고조선 지역에 설치된 郡이었다. 신라를 침공한 낙랑의 실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낙랑군과 관련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三國志』 辰韓傳에 보면 진한인들이 낙랑인을 阿殘이라고 불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阿는 我를 의미한다고 하였다.³⁷⁾ 진한인과 낙랑인은 근원이 같은 세력이라는 것이다. 결국 고조선과 관련 있는 낙랑이 고조선 유민이 신라라는 별도의 국가를 세우려는 것을 방해한 것이 된다. 부여에서 나온 고구려가 부여를 극복하고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나갔던 것처럼 고조선에서 나온 신라 역시 낙랑의 간섭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를 이루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31) 『三國史記』 卷14, 高句麗本紀 第2 大武神王 20년

32)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儒理尼師今 14년

33)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 第1 溫祚王 4년 8월

34)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 第1 溫祚王 8년 7월

35) 先是 朝鮮遺民分居山谷之間 爲六村 一曰闕川楊山村 二曰突山高墟村 三曰醬山珍支村(或云干珍村) 四曰茂山大樹村 五曰金山加利村 六曰明活山高耶村 是爲辰韓六部(『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第1 赫居世居西干)

36) 『漢書』 卷95, 西南夷兩粵朝鮮傳 第65

37) 名樂浪人爲阿殘 東方人名我爲阿 謂樂浪人本其殘餘人(『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傳)

그렇다면 낙랑에서 신라를 침공한 주체는 누구였을까.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낙랑태수이다. 낙랑태수가 주도하였다는 것은 낙랑군이 주도적으로 신라 침공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三國志』 東夷傳에서 韓은 帶方의 남쪽에 있었다고 하였을 뿐³⁸⁾ 韓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다는 내용은 없으며, 낙랑에 속하여 四時에 朝謁하였다³⁹⁾고는 하였지만 漢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桓靈之末에 韓濊가 강성하여 郡현이 능히 통제하지 못하여 많은 백성이 韓國으로 흘러들어갔다고 하여⁴⁰⁾ 漢이 통치하던 郡현 지역과 韓 지역을 구별하여 기록하였다. 『後漢書』에서도 韓은 북쪽으로 낙랑과 접하고 있다고 하였을 뿐⁴¹⁾ 漢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내용은 없다. 이런 점에서 진한은 漢의 통치권 밖에 있던 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三國志』나 『後漢書』에서는 辰韓을 秦韓이라 표현하며 낙랑과의 친근성을 강조하고 있다. 戶來 사건 이외에 진한이 낙랑군에 危害를 가한 기록도 보이지 않으며 그나마 진한이 漢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무력 충돌 없이 마무리되었다.⁴²⁾ 이런 점에서 만약 낙랑태수가 신라 침공을 주도한 것이라면 이것은 漢의 邊郡을 통치하는 태수가 통치권 너머에 있는 우호 세력의 일에 간섭한 것이 된다. 특히, 『삼국사기』에서는 백제와는 달리 신라가 먼저 낙랑에 군사적 위협을 가한 적이 없으며, 낙랑이 일방적으로 신라를 쳐들어온 내용만 보일 따름이다.

『後漢書』 南蠻西南夷列傳에 보면 王莽 이후에 漢이 변방의 여러 세력을 공략한 내용을 살필 수 있다. 그런데 漢의 군사 행동은 반란을 일으킨 토착 세력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지 평온한 관계에 있는 세력을 친 것은 아니었다. 더구나 변방의 郡현들은 토착 세력의 반란에 관아가 무너지거나 관리들이 살해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반란의 진압은 주로 중앙에서 파견된 군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⁴³⁾ 전한 昭帝 때에도 益州의 廉頭姑

38) 韓在帶方之南(『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傳)

39) 漢時屬樂浪郡 四時朝謁(『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傳)

40) 桓靈之末 韓濊彊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傳)

41) 韓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 馬韓在西 有五十四國 其北與樂浪 南與倭接 辰韓在東 十有二國 其北與濊貊接(『後漢書』 卷85, 東夷列傳 第75 韓傳)

42) 『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傳 所引『魏略』

43) 王莽 때에 益州郡의 夷 棟蠶과 若豆가 군사를 일으켜 郡守를 살해하였고, 越巂郡 姑復의 夷人 大牟도 반란을 일으켜 吏人을 살해하였다. 이때 王莽은 寧始將軍 廉丹에게 巴蜀에서 10여만을 징발하여 치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또한 邛都夷 사람 長貴가 種人을 거느리고 越巂 太守 枚根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後漢 建武 16년에는 交阯의 徵

縉 등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水衡都尉를 파견하여 蜀郡과 犍爲郡에서 만여 명의 군사를 징발하여 깨뜨렸다.⁴⁴⁾ 漢의 군사 행동은 토착 세력의 반란 등 변방이 소란스러워졌을 때에 이루어졌던 것이며, 더구나 邊郡이 직접 토착 세력의 반란에 대처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반란군의 공격에 군현 관청이 쉽게 무너졌다. 邊郡에서 직접 토착 세력의 반란을 진압한 사례도 드문데, 전한 시기 珠崖郡 지역이 대표적이다.

D. 至武帝元鼎五年 遂滅之 分置九郡 交址刺史領焉 其珠崖儋耳二郡在海洲上 東西千里 南北五百里 …… 武帝末 珠崖太守會稽孫幸調廣幅布獻之 蠻不堪役 遂攻郡殺幸 幸子豹合率善人還復破之 自領郡事 討擊餘黨 連年乃平 豹遣使封還印綬 上書言狀 制詔即以豹為珠崖太守 威政大行 獻命歲至 中國貪其珍賂 漸相侵侮 故率數歲一反 元帝初元三年 遂罷之 凡立郡六十五歲(『後漢書』卷86, 南蠻西南夷列傳 第70)

珠崖郡은 武帝 元鼎 5년(기원전 112년)에 漢이 남일을 멸하고 설치한 군 중의 하나로 海南島 지역에 있었다. 본래 이 지역에 珠崖, 儋耳를 설치하였는데, 이 지역 주민의 잦은 반란으로 昭帝 始元 5년(기원전 82년)에 儋耳郡을罷하여 珠崖郡에 병합하였다.⁴⁵⁾ 武

側徵貳 자매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交址刺史와 여러 太守는 겨우 방어만 하고 있을 정도였으며, 伏波將軍 馬援, 樓船將軍 段志가 長沙, 桂陽, 零陵, 蒼梧에서 병사 1만 명을 징발해 가서 토벌하였다. 建武 18년에 益州의 棟蠶가 다시 姑復, 楛榆, 楛棟, 連然, 滇池, 建伶, 昆明 등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長吏를 살해하였고, 益州太守 繁勝은 싸우다 패하여 殊提로 물러났다. 이에 武威將軍 劉尚 등에게 廣漢, 犍為, 蜀郡의 백성과 殊提夷 만 3천을 거느리고 가서 치게 하였다. 建武 23년에는 南郡 瀘山蠻 雷遷이 반란을 일으켜 노략질을 하였는데, 武威將軍 劉尚在 만여 인을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였다. 建武 23~25년에 精夫, 相單程 등이 군현을 노략질하였는데, 建武 23년에 武威將軍 劉尚在 南郡, 長沙, 武陵의 병사 만여 인을 징발하여 공격하였으나 패하였고, 이듬해 다시 謁者 李嵩, 中山太守 馬成을 보냈다가 실패하였다가 그 이듬해 伏波將軍 馬援, 中郎將 劉匡, 馬武, 孫永 등에 의해 격파되었다. 光武帝 이후에도 토착민의 반란을 일으켜 관아를 불태우고 관리를 살해하는 사건이 계속되었다.(『後漢書』卷86, 南蠻西南夷列傳 第70)

44) 孝昭始元元年 益州廉頭姑縉民反 殺長吏 牂柯談指同並等二十四邑 凡三萬餘人皆反 遣水衡都尉發蜀郡犍爲奔命萬餘人擊牂柯大破之(『漢書』卷95, 西南夷兩粵朝鮮傳 第65)

45) 『漢書』卷64下, 嚴殊吾丘主父徐嚴終王賈傳 第34下

帝末 珠崖太守 孫幸이 廣幅布를 調로 바치게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잦은 반란이 일어났는데, 孫幸이 반란군에 죽은 이후 孫幸의 아들 孫豹가 善人이라고 불리는 즉 군에 협조적인 세력을 거느리고 반란을 평정하였다. 이후 특별 성공 과정을 조정에 알리자 조정에서 그를 珠崖太守로 정식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자주 반란이 일어나자 결국 元帝 初元 3年(기원전 48년)에 珠崖郡을 廢하였다.⁴⁶⁾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변군 지역의 반란 사건에 漢 중앙 정부가 전혀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무런 직책도 없던 孫豹가 직접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모아 반란을 평정하였을 따름이다. 더구나 결국에 가서는 漢이 이 지역에 대한 통치를 포기하였다. 武帝 이후에 漢은 관심이 적은 邊郡 지역에서 군현 관리를 죽일 정도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도 중앙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관할 지역 토착민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漢의 邊郡 태수가 관할 지역 밖에 있던 세력을 자극하는 군사 행동을 벌일 수 있었을까 한다.

낙랑군 지역의 경우 昭帝 始元 5年(기원전 82년)에 儋耳와 마찬가지로 진번을 폐하여 낙랑군에 통합하였다.⁴⁷⁾ 또한 단단대령 동쪽은 東部都尉를 두어 통치하였으며, 후한대에는 옥저와 동에 지역 토착 거수를 縣侯로 삼아 사실상 단단대령 동쪽 지역의 통치를 포기하였다.⁴⁸⁾ 전한대에 漢은 昭明縣을 南部都尉의 치소로 삼기도 하였다.⁴⁹⁾ 漢이 낙랑군 내 토착 세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낙랑 태수가 관할 지역 밖의 진한 지역에서 새로운 국가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군사를 일으켰을까 한다.

진한과 낙랑군의 군사적 충돌은 『魏略』에 인용된 戶來 사건과 관련하여 일어난 것이 유일하다.⁵⁰⁾ 진한 右渠帥 廉斯鏹이 낙랑군에 來降하는 과정에서 호래를 비롯한 1,500여

46) (初元 3年) 珠崖郡山南縣反 博謀群臣 待詔賈捐之以為宜棄珠崖 救民饑饉 乃罷珠崖(『漢書』卷9, 元帝紀 第9)

47) 『後漢書』卷85, 東夷列傳 第75 濊傳

48) 『後漢書』卷85, 東夷列傳 第75 東沃沮·濊傳, 『三國志』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東沃沮·濊傳

49) (樂浪郡) 昭明 南部都尉治(『漢書』卷28下, 地理志 第8下)

50) 至王莽地皇時 廉斯鏹為辰韓右渠帥 聞樂浪土地美 人民饒樂 亡欲來降 出其邑落 見田中驅雀 男子一人 其語非韓人 問之 男子曰 我等漢人 名戶來 我等輩千五百人伐材木 為韓所擊得 皆斷發為奴 積三年矣 鏹曰 我當降漢樂浪 汝欲去不 戶來曰 可 辰鏹因將戶來 來出詣含資縣 縣言郡 郡即以鏹為譯 從岑中乘大船入辰韓 逆取戶來 降伴輩尚得千人 其五百人已死 鏹時曉

인이 진한에 사로잡힌 사실이 알려졌고, 낙랑군은 大船을 보내 진한을 위협하였다. 이에 진한이 진한인 15,000명과 弁韓布 15,000필을 낙랑에 바쳐 사태가 마무리되었다. 당시 낙랑은 萬兵을 보내겠다고 위협하였지만 실제 군사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호래 사건을 보면 낙랑군에서는 호래 등 1,500명이 진한에 사로잡혀갔던 것을 3년 동안 알지 못했다. 더구나 낙랑군은 자체 조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한인 邑사착의 來降을 통해 호래 무리가 진한에 잡혀간 것을 알게 되었다. ‘初元 4年 樂浪 戶口簿’를 통해 낙랑군이 매년 호구의 증감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戶來 사건을 통해 실제로는 호구 변동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郡 내의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던 낙랑태수가 郡 밖의 정세 변화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낙랑태수는 신라 건국 초기에 신라를 공격한 주체로 보기 어렵다.

한편,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최리의 낙랑국이 나온다.⁵¹⁾ 낙랑군 이외에 낙랑으로 불리는 또 다른 실체가 있었던 것이다. 고구려 대무신왕 때 왕자 호동이 옥저 지역을 유람할 때 낙랑왕 최리를 만났는데 최리가 고구려왕을 北國神王으로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낙랑국은 고구려 남쪽 옥저에 가까운 지역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낙랑은 漢이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후 玄菟, 眞番, 臨屯 등과 더불어 설치한 군이다.⁵²⁾ 眞番, 臨屯은 위만조선 이전부터 있던 세력의 이름이었다. 漢이 남월이나 서남이 등 주변의 여러 세력을 복속한 뒤 군을 설치할 때 토착 세력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⁵³⁾ 眞番, 臨屯을 군명으로 사용한 것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秦의 관리였던 尉佗가 세운 남월을 복속한 뒤에 漢은 儋耳, 珠崖, 南海, 蒼梧, 鬱林,

謂辰韓 汝還五百人 若不者 樂浪當遣萬兵乘船來擊汝 辰韓曰 五百人已死 我當出贖直耳 乃出辰韓萬五千人 弁韓布萬五千匹 鏹收取直還 郡表鏹功義 賜冠幘田宅 子孫數世 至安帝延光四年時 故受復除(『三國志』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傳 所引『魏略』)

51)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 第2 大武神王 15년 4월

52) 故遂定朝鮮爲眞番臨屯樂浪玄菟四郡(『漢書』卷95, 西南夷兩粵朝鮮傳 第65 朝鮮傳)

『史記』朝鮮列傳에는 4郡의 명칭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史記』南越列傳에도 『漢書』南越傳과 달리 남월에 설치한 9郡의 명칭을 나열하지 않았다.

53) 『史記』西南夷列傳에 따르면 漢은 頭蘭 등 南夷 지역을 복속한 뒤 牂柯郡으로 삼았으며, 邛都에는 越巂郡, 笮都에는 沈犁郡, 冉駹에는 汶山郡, 廣漢 서쪽의 白馬에는 武都郡, 滇에는 益州郡을 두었다. 또한 흉노 休屠王의 땅에는 武威郡, 昆邪(渾邪)王의 땅에는 張掖郡을 두었다(『漢書』卷28下, 地理志 第8下).

合浦, 交趾, 九眞, 日南 등을 설치하였는데,⁵⁴⁾ 南海, 蒼梧 등 최소한 2郡은 남월 시기에 사용되었던 명칭이었다. 즉 南海는 秦나라 때부터 있었던 남월의 군⁵⁵⁾이었고, 蒼梧는 남월의 諸侯王國⁵⁶⁾이었다. 또한 남월의 交趾와 九眞 군수는 漢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복종한 공로로 그 지위를 유지하였다고 한다.⁵⁷⁾ 위만조선 역시 남월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활동하였던 인물인 위만에 의해 성립되었으며 중국의 제도를 채용하여 통치하였다는 점에서⁵⁸⁾ 漢이 위만조선을 복속한 후 위만조선 시기의 지역 편제를 계승하였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는 漢이 다른 지역에서와 달리 진번과 임둔 등 토착 세력의 이름을 그대로 군명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즉 漢이 진번과 임둔을 군명으로 사용한 것은 이 명칭이 특정 종족명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만조선의 지역 구분 명칭을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낙랑, 현도 등도 최소한 위만조선에서 이미 사용된 명칭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⁵⁹⁾ 즉 낙랑국은 漢의 낙랑군뿐만 아니라 위만조선 이전부터 있었던 낙랑과도 연결되는 이름이라 하겠다.

고구려는 32년(대무신왕 15년)에 최리의 낙랑국을 공격하였고,⁶⁰⁾ 결국 37년에 낙랑을 멸하였다.⁶¹⁾ 고구려는 낙랑국을 공격한 직후인 32년 12월에 후한에 사신을 파견하여

54) 『漢書』卷95, 西南夷兩粵朝鮮傳 第65 南粵傳

55) 秦時已并天下 略定楊越 置桂林南海象郡(『史記』卷113, 南越列傳 第53)

56) 遣人告蒼梧秦王及其諸郡縣 立明王長男越妻子術陽侯建德爲王 …… 蒼梧王趙光者 越王同姓 聞漢兵至 及越揭陽令定自定屬漢(『史記』卷113, 南越列傳 第53)

57) 劉仁善, 1971, 「秦漢時代의 南越」, 『史叢』 15:16, p.484.

58) 일례로 위만조선은 중국의 相制를 그대로 받아들여 통치하였다(김남중, 2013, 「위만조선과 고구려 초기의 相」 『韓國古代史探究』 14, pp.8~27.).

59) 조법중은 漢四郡의 명칭은 위만조선에 포섭된 정치적 존재들의 명칭으로 樂浪도 위만조선 시기에 위만조선에 별개로 존재했다고 보았다(趙法鍾, 2000, 앞의 논문, pp.20~22.). 한편, 이병도는 樂浪 즉 ‘아라’, ‘알라’는 proper 朝鮮의 對譯으로 漢 제국이 군명으로 삼았다고 하였으며(李丙燾, 1976, 「樂浪郡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pp.151~156.), 서영수는 ‘조선국’을 지칭한 ‘낙랑’ 곧 ‘나라’를 지역 명칭으로 오인하여 漢이 군현 명칭으로 삼았을 것으로 보았다(서영수, 1996, 「衛滿朝鮮의 形成過程과 國家的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9, pp.115~116.). 즉 조선을 지칭하는 樂浪이라는 명칭을 漢이 郡名으로 삼았다고 보았다. 이준성은 낙랑은 이미 독립적인 ‘국’으로서 위만조선에 복속되어 있었다고 보았다(李峻誠, 2010, 앞의 논문, 331~333.).

60) 『三國史記』 卷14, 高句麗本紀 第2 大武神王 15년 4월

조공을 바쳤으며, 후한 광무제는 고구려의 왕호를 회복해 주었다.⁶²⁾ 王莽의 新은 고구려 후 驪를 참하고 고구려의 이름도 下句驪로 낮춰 부르고 천하에 포고한 바 있다.⁶³⁾ 후한은 30년에 낙랑태수 王遵을 파견하여 낙랑인 王調의 난을 평정하고 낙랑의 모반자들을 사면하였다.⁶⁴⁾ 32년 고구려가 최리의 낙랑국을 공격했을 때는 후한이 낙랑군 사회를 안정시킨 이후인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고구려가 낙랑군을 쳤다면 후한이 고구려의 왕호를 회복시켜줄 리 없다. 즉 낙랑국 왕으로 언급된 최리는 낙랑태수는 아니었다고 하겠다.

오히려 낙랑국 공격 직후에 후한이 고구려의 왕호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고구려의 낙랑국 공격은 漢에게 나쁘지 않은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후한은 광무 6년(30년) 이후에 邊郡의 都尉를 파하고 불내, 화려, 옥저 등을 侯國으로 만들고 그 거수들을 縣侯로 삼았다.⁶⁵⁾ 낙랑군 안에는 여전히 토착 수장들이 자기 집단을 이끌고 있었던 것이다. 낙랑군 안에는 다수의 국읍이 있었고 ‘王’에 상당하는 지배자가 있는 나라들이 존재했던 것이다.⁶⁶⁾ 이들의 존재는 낙랑군의 군현 통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일 수밖에 없다. 후한이 고구려의 낙랑국 공격을 문제 삼지 않은 것은 낙랑국이 낙랑군의 군현 지배에 걸림돌이었기 때문임을 추론할 수 있다. 즉 낙랑국은 낙랑군 내 토착 세력과 관련 있다고 하겠다. ‘初元 4年 樂浪 戶口簿’에 따르면 낙랑군 인구 28만여 인 중에서 86%는 原 토착주민이었다고 한다.⁶⁷⁾ 낙랑군은 토착 세력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토착 세력에게 영향을 끼쳤던 세력의 소멸은 낙랑 태수가 郡政을 장악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낙랑국을 공격한 고구려에 漢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신라를 침공한 낙랑은 낙랑군 내 토착 세력인 낙랑국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실제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낙랑 기사는 유리이사금 14년에 고구려 대무신왕에게 멸망한 낙랑 유민 5천에 신라로 투항해 온 것으로 마무리된다.⁶⁸⁾ 고구려에 멸망한 낙랑국과 연결되어

61) 『三國史記』 卷14, 高句麗本紀 第2 大武神王 20년

62) 『三國史記』 卷14, 高句麗本紀 第2 大武神王 15년 12월,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第75 高句麗傳

63) 『漢書』 卷99中, 王莽傳 第69中

64) 『後漢書』 卷1下, 光武帝紀 第1下 建武 6년

65) 漢光武六年 省邊郡 都尉由此罷 其後皆以其縣中渠帥爲縣侯 不耐華麗沃沮諸縣皆爲侯國(『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東沃沮傳)

66) 權五重, 1992, 앞의 책, pp.54~56.

67) 尹龍九, 2007, 「새로 발견된 樂浪木簡」, 『한국고대사연구』 46, p.250.

있는 것이다. 낙랑의 신라에 대한 군사 행동은 낙랑 태수와는 무관하게 낙랑의 토착 사회를 이끌어갔던 세력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Ⅲ. 위만조선과 낙랑국

『漢書』地理志에는 각 郡國의 군현 상황을 소개한 이후 마지막에 각 지역의 풍습이나 역사를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玄菟·樂浪郡 지역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두 郡은 漢이 위만조선을 멸하고 설치하였던 郡이다. 여기에는 고조선과 관련하여 이전 기록에는 없던 새로운 내용이 많이 추가되었다.

E. ① 玄菟樂浪 武帝時置 皆朝鮮濊貉句驪蠻夷 ② 殷道衰 箕子去之朝鮮 教其民以禮義 田蠶織作 ③ 樂浪朝鮮民犯禁八條 相殺以當時償殺 相傷以谷償 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 人五十萬 雖免爲民 欲猶羞之 嫁取無所讎 是以其民終不相盜 無門戶之閉 婦人貞信不淫辟 ④ 其田民飲食以籩豆 都邑頗放效吏及內郡賈人 往往以懷器食 ⑤ 郡初取吏於遼東 吏見民無閉臧 及賈人往者 夜則爲盜 俗稍益薄 今於犯禁浸多 至六十餘條 ⑥ 可貴哉 仁賢之化也 然東夷天性柔順 異於三方之外 故孔子悼道不行 設浮於海 欲居九夷 有以也夫(『漢書』卷28下, 地理志 第8下)

①은 玄菟와 樂浪郡은 武帝 때 설치되었으며, 朝鮮·濊貉·句驪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하며, ②는 殷의 賢人인 箕子가 조선으로 가서 그 백성들을 예의로 가르쳤다는 내용이 전한다. ③은 樂浪朝鮮民에게 범금 8조가 있었다는 내용, ④는 그 백성들이 籩豆를 사용하였다는 내용, ⑤는 郡 설치 이후 토착 사회의 풍습이 각박해서 범금이 60조로 늘어난 내용이 전한다. ⑥은 仁賢의 교화가 일어났음을 찬양하고 있다. 箕子가 조선으로 갔다는 내용은 『尙書大傳』⁶⁹⁾이나 『史記』宋微子世家⁷⁰⁾에 이미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나 樂浪朝鮮民에

68)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 第1 儒理尼師今 14년

69) 武王勝殷 繼公子祿父 釋箕子之囚 箕子不忍周之釋 走之朝鮮 武王聞之 因以朝鮮封之(『尙書大傳』卷4, 周書 洪範)

게 범금 8조가 있었다는 내용은 처음으로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이전 기록에 없던 내용들이 풍부하게 추가되었는데,箕子의 가르침으로 교화가 일어났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있는데, 바로 위만에 대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史記』朝鮮列傳에서는 위만을 ‘故燕人’으로 표현하고 있다. 위만조선은 본래 중국에서 살던 사람이 세운 나라라는 것이다.箕子의 교화는 곧 중국의 賢人이 東夷로 가서 그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것이 핵심이다. 위만 역시 중국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었으므로 고조선과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다.『三國志』濊傳에서는箕子의 八條之教를 언급한 뒤 다시 燕人 衛滿이 와서 왕이 되었다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⁷¹⁾ 더구나 위만조선은『史記』朝鮮列傳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漢書』朝鮮傳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漢人들이 위만과 고조선의 관계를 모를 리 없었음에도『漢書』地理志에서는 위만조선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점은 同書의 越 지역에 대한 내용과도 대비된다.

- F. ① 粵地 牽牛婺女之分野也 今之蒼梧鬱林合浦交阯九真南海日南皆粵分也 ② 其君禹後 帝少康之庶子云 封於會稽 文身斷髮 以避蛟龍之害 ③ 後二十世 至句踐稱王 與吳王闔廬戰 敗之雋李 夫差立 句踐乘勝復伐吳 吳大破之 棲會稽 臣服請平 後用范蠡大夫種計 遂伐滅吳 兼併其地 度淮與齊晉諸侯會 致貢於周 周元王使使賜命為伯 諸侯畢賀 ④ 後五世為楚所滅 子孫分散 君服於楚 ⑤ 後十世 至閩君搖 佐諸侯平秦 漢興 復立搖為越王 ⑥ 是時 秦南海尉趙佗亦自王 ⑦ 傳國至武帝時 盡滅以為郡云 ⑧ 處近海 多犀象毒冒珠璣銀銅果布之湊 中國往商賈者多取富焉 番禺 其一都會也(『漢書』卷28下, 地理志 第8下)

①은 越 지역이 포괄하는 지역을 다루고 있는데, 玄菟樂浪 지역에 서술과 비슷한 방식으로 시작하고 있다. ②는 越의 군장은 禹王의 자손인 少康의 庶子の 후손임을, ③은 越王 句踐이 吳를 병합하고 覇者가 된 내용을, ④는 句踐 이후에 楚에게 패해 그 자손이 흩

70) 於是武王乃封箕子於朝鮮 而不臣也(『史記』卷38, 宋微子世家 第8)

71) 昔箕子既適朝鮮 作八條之教以教之 無門戶之閉而民不為盜 其後四十餘世 朝鮮侯淮僭號稱王 陳勝等起 天下叛秦 燕齊趙民避地朝鮮數萬口 燕人衛滿 魁結夷服 復來王之 漢武帝伐滅朝鮮 分其地為四郡 自是之後 胡漢稍別(『三國志』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濊傳)

어진 내용을 전하고 있다. ①~④는 『史記』 越王句踐世家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이어 ⑤에서는 閩君 搖가 漢 성립 이후에 越王(東海王 또는 東甌王)이 된 내용을, ⑥에서는 秦의 南海尉 趙佗가 왕(南越王)이 된 내용을, ⑦은 武帝 때 漢이 두 나라를 멸하고 군을 세운 내용이다. ⑤·⑥과 ⑦은 각각 위만조선의 건국과 멸망 무렵의 상황으로 『史記』 南越列傳과 東越列傳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⑧은 그 지역의 특산물과 중국 상인들의 왕래를 간략히 다루었다. 전반적으로 『史記』에서 다루고 있는 越 지역의 역사를 축약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위만조선 시기를 다루지 않은 玄菟樂浪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인다.

玄菟樂浪 지역에 대한 『漢書』 地理志의 기록의 특징은 위만의 부제와 箕子의 강조로 정리할 수 있다. 위만조선 이전의 고조선의 역사를 가장 상세하게 전하는 기록은 『三國志』 韓傳에 인용된 『魏略』이다. 여기에는 고조선이 燕이 왕을 칭했을 무렵에 稱王을 하였다는 내용, 고조선이 燕將 秦開의 침공을 받은 내용, 秦의 중원 천하 통일 무렵과 고조선의 否王이 秦에 복속을 청했으나 조화에 응하지는 않았다는 내용, 準王 시기에 위만이 고조선으로 망명해 왔다가 준왕을 공격했다는 내용 등이 전한다. 다른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 많이 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否王, 準王 등 고조선의 왕들이 이름과 활동이 언급되어 있어 고조선인들을 통해 얻은 새로운 정보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고조선의 왕을 箕子の 후손으로 언급하고 있다.⁷²⁾ 箕子和 고조선왕을 연결시킨 것은 『三國志』 濊傳⁷³⁾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5~6세기에 활동한 樂浪王氏들의 묘지명에서도 箕子和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王基의 묘지명에는 그 선조가 殷에서 나왔으며 周 武王이 箕子를 조선에 봉하여 자손들이 그로 인하여 氏를 삼았다고 전한다.⁷⁴⁾ 동 시기에 활동한 王禎 묘지명에는 箕子和 朝鮮侯를 연결시키고 있다.⁷⁵⁾ 이러한 점에서 최소한 낙랑 사회에서는 고조선이 箕子の 후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箕子和 고조선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는 좀 더 검토할 필요는 있겠으나⁷⁶⁾ 漢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고조선계 세력 중 일부는 자신들의 가계를 箕子和 연결시켰

72) 魏略曰 昔箕子之後朝鮮侯(『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傳)

73) 昔箕子既適朝鮮 作八條之教以教之 無門戶之閉而民不爲盜 其後四十餘世 朝鮮侯準僭號稱王 (『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濊傳)

74) 其先出自有殷 周武王剋商 封箕子於朝鮮 子孫因氏焉(韓國古代社會研究會 編,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1권,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pp.586~588.)

75) 殷有三人 周訪九疇 只族王家 藉胄鮮侯(韓國古代社會研究會 編, 1992, 위의 책, pp.583~585.)

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漢書』地理志에 위만이 빠진 이유는 특이하다. 위만이箕子와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빠질 수도 있겠으나, 越 지역의 경우 少康의 후손과는 거리가 먼 남월왕 趙佗를 언급하고 있다. 漢 입장에서는 고조선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燕人으로 언급된 위만을 딱히 제외할 이유가 없다. 위만이 제외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魏略』에 따르면箕子の 후손인 고조선의 준왕은 위만의 僞計에 속아 패하여 남으로 도망한 것으로 나온다.⁷⁷⁾ 위만은箕子の 후손을 내세웠던 세력 입장에서 볼 때 속임수를 써서 자신들의 나라를 빼앗은 간활한 원수인 것이다. 『漢書』地理志는 고조선의 역사를箕子の 교화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가계를箕子와 연결시킨 세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위만에게 밀려난 준왕 세력의 고조선을 중심으로 서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漢書』地理志에서 고조선의 역사에서 위만조선을 없는

76) 최근 大凌河 유역의 여러 지역에서 殷(商)·周 청동 禮器가 발견되고 있어 기자조선의 실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실제로箕子の 東來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한다(李亨求, 1991, 「大凌河流域의 殷末周初 青銅器文化和箕子 및箕子朝鮮」, 『韓國上古史學報』5 ; 1996, 「渤海沿岸 大凌河流域 箕子朝鮮의 遺蹟·遺物」, 『韓國古代史研究』9.). 그러나 대부분 한국 학자들은箕子の 동래를 부정하는데, 大凌河 유역의 殷周 청동 禮器는 고조선과 관련 없으며(宋鎬晟, 2005, 「大凌河流域 殷周 青銅禮器 사용 집단과箕子朝鮮」, 『韓國古代史研究』38 ; 박대재, 2010, 「箕子 관련 商周青銅器 銘文과箕子東來說」, 『先史와 古代』32.)箕子東來說은 후대에 조작된 것으로 본다. 고조선이 실제 기자의 후손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최근 한국 학계에서는 『尙書』原典이나序說에 기자의 東走 東封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이나(李丙燾, 1976, 「箕子朝鮮」의 正體와 所謂「箕子八條教」에 대한 新考察」,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p.45.) 전국시대까지의 기록에는 기자가 조선에 왔다는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조원진, 2009, 「기자조선 연구의 성과와 과제」, 『단군학연구』20, pp.398~410.) 후대에 訛傳 혹은 윤색된 것으로 보고 고조선 시기(李丙燾, 1976, 앞의 책, pp.47~54.) 또는 樂浪郡 시기(尹龍九, 1998, 「3세기 이전 中國史書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韓國古代史研究』14, pp.124~129 ; 박대재, 2011, 「準王南來說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조선유민의 마한 유입과 관련하여」, 『先史와 古代』35, pp.114~125 ; 吳炫受, 2012, 「箕子 전승의 확대 과정과 그 역사적 맥락」, 『大東文化研究』79, pp.167~173.)에 漢化된 토착 세력이나 조선계 大姓 등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본다.

77) 滿誘亡黨 衆稍多 乃詐遣人告準 言漢兵十道至 求入宿衛 遂還攻準 準與滿戰 不敵也(『三國志』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傳 所引『魏略』)

나라로 취급한 것은 箕子와 관련된 原고조선 세력의 입장인 것이다.

반대로 『史記』 朝鮮列傳에는 箕子에 대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史記』 宋微子世家에서 周 武王이 箕子를 조선에 봉했다는 내용이 전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열전에서는 箕子를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이다. ‘朝鮮王滿者 故燕人也’로 시작되는 조선열전은 사실상 위만조선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고조선 전체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위만조선에 대한 기록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위만이 진번·조선 등을 모아 왕이 되었다는 내용이나 燕이 전성기에 진번·조선을 복속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위만 이전의 고조선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위만 이전의 고조선을 언급하면서 箕子에 대한 기록을 첨가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상 『漢書』 地理志의 위만 不在, 『史記』 朝鮮列傳의 기자 不在는 위만조선과 原고조선을 구별해서 봐야 함을 시사한다.

後漢代의 應劭는 고조선과 관련하여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주를 남겼다. 즉 樂浪郡 朝鮮縣에 대해 “武王封箕子於朝鮮”⁷⁸⁾라는 주하고 또 遼東郡 險瀆縣에 대해서는 “朝鮮王滿都也”⁷⁹⁾라고 주었다. 武王이 箕子를 朝鮮에 봉했다는 것은 樂浪郡 朝鮮縣 지역이 箕子の 조선과 관련된 지역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도 險瀆이 朝鮮王 滿의 도읍 즉 위만 조선의 도읍이 있던 곳으로 보았다. 應劭는 箕子와 관련된 原고조선 세력 지역과 위만조선의 도읍을 구별해서 본 것이다. 이것은 위만이 준왕의 고조선을 병합하여 새로운 고조선 왕조를 세웠지만 위만조선과 原고조선 세력이 거주지를 달리했음을 보여준다.

『史記』 조선열전에서는 기원전 195년에 위만이 淇水를 건너와 秦故空地 上下郭에 거주하였다가 점차 眞番朝鮮 蠻夷와 燕齊 亡命者를 모아 왕이 되었다고 전한다.⁸⁰⁾ 위만이 고조선과 별도의 공간에 거주하였다가 고조선을 병합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魏略』에서는 위만이 준왕으로부터 고조선의 西界를 얻어 거주하다가 세력을 키워 준왕을 공격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⁸¹⁾ 위만이 고조선 안에서 세력을 키우기는 하였지만 고조선의 도읍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 거주했던 것으로 전하는 것이다. 또한 위만이 세력을 키웠다고

78) 『漢書』 卷28下, 地理志 第8下 樂浪郡 朝鮮縣

79) 『漢書』 卷28下, 地理志 第8下 遼東郡 險瀆縣

80) 滿亡命 聚黨千餘人 魑結蠻夷服而東走出塞 渡淇水 居秦故空地上下郭 稍役屬眞番朝鮮蠻夷及故燕齊亡命者王之 都王險(『史記』卷115, 朝鮮列傳 第55)

81) 燕人衛滿亡命 爲胡服 東度淇水 詣準降 說準求居西界 故中國亡命爲朝鮮藩屏 準信寵之 拜爲博士 賜以圭 封之百里 令守西邊 滿誘亡黨 衆稍多 乃詐遣人告準 言漢兵十道至 求入宿衛 遂還攻準 準與滿戰 不敵也(『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傳 所引『魏略』)

하는 고조선의 西界는 당시 중원 지역의 혼란을 피해 들어온 燕齊趙民들이 정착했던 곳이다.⁸²⁾ 위만이 이러한 고조선의 서계에서 세력을 키웠다는 점에서 중원 지역에서 들어온 유이민 세력은 위만조선의 세력 기반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위만조선과 原고조선의 중심 세력이 이질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유이민 중에는 본래 고조선계 주민으로 燕秦의 지배를 받던 자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위만 역시 고조선계였다.⁸³⁾ 그러나 이들은 한동안 중원 세력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점과 패수 서쪽에 거주했다는 점에서 패수 동쪽에서 별도의 정치·사회적 발전을 이어왔던 原고조선 세력과는 구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위만 세력의 고조선 복속은 서로 다른 정치 세력 간의 통합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原고조선 세력이 위만에게 한 번 패하여 복속되었다고 하여 정체성을 잃고 위만 세력에 융합되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秦이 고조선을 복속했을 때 고조선에는 여전히 왕이 존재했다. 『史記』 朝鮮列傳에서는 秦이 燕을 복속한 뒤에 眞番朝鮮을 遼東外徼에 소속시켰다⁸⁴⁾고 하였으며, 秦始皇本紀에서는 秦의 땅이 동으로 朝鮮에 이르렀다⁸⁵⁾고 하였다. 律書에서는 秦代에 조선이 內屬하여 臣子가 되었다⁸⁶⁾고 하였다. 『鹽鐵論』에서도 秦이 천하를 병합한 뒤 朝鮮을 멸하였다⁸⁷⁾고 하였으며, 『前漢紀』에서는 朝鮮이 秦나라 때에 遼東에 속해 있었다⁸⁸⁾고 하였다. 『魏略』에서는 秦이 蒙恬을 시켜 장성을 축조하던 시기에 고조선의 否王이 秦의 침입을 두려워하여 복속하였다⁸⁹⁾고 전

82) 二十餘年而陳項起 天下亂 燕齊趙民愁苦 稍稍亡往 準 準乃置之於西方(『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傳 所引『魏略』)

83) 李丙燾, 1976, 「衛氏朝鮮興亡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pp.78~82; 김남중, 2014, 「위만의 출신 종족에 대한 再考」, 『先史와 古代』 42, pp.6~27.

84) 自始全燕時嘗略屬眞番朝鮮 爲置吏 築鄣塞 秦滅燕 屬遼東外徼(『史記』卷115, 朝鮮列傳 第55)

85) 分天下以爲三十六郡 郡置守尉監 …… 地東至海暨朝鮮 西至臨洮羌中 南至北嚮戶 北據河爲塞 並陰山至遼東(『史記』卷6, 秦始皇本紀 第6)

86) 孝文卽位 將軍陳武等議曰 南越朝鮮 自全秦時內屬爲臣子(『史記』 卷25, 律書 第3)

87) 秦既并天下 東絕沛水 并滅朝鮮(『鹽鐵論』 卷8, 誅秦 第44)

88) 朝鮮本秦時屬遼東(『前漢紀』, 孝武皇帝紀 14 元封 2年)

89) 及秦并天下 使蒙恬築長城 到遼東 時朝鮮王否立 畏秦襲之 略服屬秦 不肯朝會(『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 所引『魏略』)

한다. 즉 고조선은 秦의 영토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고조선에 왕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조선은 정체성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秦은 楚를 멸망시킬 당시에 60만 대군을 이끌고 갔던 강국이었다. 이러한 秦의 통치권에 포함되었을 때에도 세력이 유지되었던 고조선이 위만에게 패해 왕이 다른 지역으로 도망하였다고 하여 완전히 붕괴되었을까 한다. 백제의 경우 고구려 장수왕의 침공으로 개로왕이 죽고 한성이 함락되었지만 멸망하지 않고 문주왕에 의해 계속되었다.⁹⁰⁾ 고구려도 동천왕 때 卍丘儉의 침공으로 도읍이 무너졌지만 멸망하지 않았다.⁹¹⁾ 전국시대 齊나라도 燕 昭王에게 도읍과 대부분의 땅을 빼앗기고 타국으로 도망한 湣王이 죽었음에도 그 아들에 의해 다시 나라를 회복하였다.⁹²⁾ 어느 정도 규모를 지닌 나라는 도성이 무너지고 왕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꼭 멸망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고조선이 燕에게 2천여 리를 빼앗겼을 때에도 나라가 유지되었는데 위만에게 도성 등 일부 지역을 빼앗겼다고 하여 원고조선 세력이 위만조선에 융합되어 정체성을 소멸했을까 하는 것이다.

준왕이 위만에게 패해 韓 지역으로 도망한 이후에도 위만조선 지역에는 준왕의 자손과 친족이 남아 있었다.⁹³⁾ 위만조선 시기에 원고조선을 이끌던 세력이 여전히 존속했던 것이다. 위만조선은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살다가 망명해 들어온 세력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국가이다. 원고조선을 이끌어왔던 세력 입장에서 볼 때 위만조선은 秦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위협하는 외부 세력인 것이다. 같은 조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원고조선 세력이 위만조선에 융합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秦의 통치 시기에도 별도의 왕위를 이어갔던 원고조선 세력이 위만에게 한 번 패했다고 하여 위만조선에 융합되어 정체성을 소멸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90) 『三國史記』卷25, 百濟本紀 第3 蓋鹵王21년 9월, 『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 第4 文周王元年

91)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 第4 東川王 20년

92) 四十年 燕秦楚三晉合謀 各出銳師以伐 敗我濟西 王解而卻 燕將樂毅遂入臨淄 盡取齊之寶藏 器 湣王出亡 之衛 …… 湣王之遇殺 其子法章變名姓爲莒太史敫家庸 …… 莒中人及齊亡臣相聚求湣王子 欲立之 法章懼其誅己也 久之 乃敢自言我湣王子也 於是莒人共立法章 是爲襄王 以保莒城而布告齊國中 王已立在莒矣 …… 襄王在莒五年 田單以卽墨攻破燕軍 迎襄王於莒 入臨菑 齊故地盡復屬齊(『史記』卷46, 田敬仲完世家 第16)

93) 將其左右宮人走入海 居韓地 自號韓王 魏略曰 其子及親留在國者 因冒姓韓氏(『三國志』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傳)

위만은 왕검성에 도움을 정한 이후에 漢의 遼東太守를 통해 漢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⁹⁴⁾ 이때 漢은 위만을 外臣으로 삼을 것을 약속하고 塞外의 만이를 보호하도록 하였으며, 위만은 漢으로부터 兵威財物을 얻어 진번·임둔 등 주변 세력을 복속하였다. 이것은 漢이 위만이 패수 동쪽 사회의 맹주임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史記』 조선열전에서 위만을 조선왕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漢이 위만을 조선의 왕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위만이 漢과 외교 관계를 맺음으로 중국 사서에 조선왕으로 기록된 셈이다. 위만을 조선왕으로 기록한 것은 어디까지나 漢의 기록에 그렇다는 것이며, 위만에 복속된 원고조선 세력이 위만조선에 융합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漢은 위만조선을 복속한 뒤 낙랑군에 조선현을 설치하였다. 조선은 진번, 임둔 등을 포함하고 있던 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郡名으로 사용된 진번, 임둔 등과 달리 縣名으로 사용된 것이다. 조선이라는 명칭을 남긴다는 의미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진번, 임둔 등과 비교하여 격이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비록 낙랑군의 首縣이기는 하였으나 조선은 不而(耐), 華麗 등과 같은 취급을 받은 셈이다. 아무리 쇠퇴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조선은 하나의 縣名에 사용될 정도로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魏略』에서는 燕將 秦開의 침공으로 고조선이 서쪽 2천여 리를 빼앗겼다고 하였는데, 고조선은 한때 2천 리가 넘는 국가였음을 알 수 있다. 漢의 낙랑군 설치 이후 조선이라는 이름이 縣名으로 사용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조선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세력은 위만조선 이전부터 있었다. 이런 점에서 낙랑군 조선현의 조선을 꼭 위만조선과만 연결시킬 이유는 없다. 더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漢書』 地理志에는 위만조선을 고조선의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箕子와 연결된 고조선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한때 箕子の 후손을 칭했던 준왕의 원고조선 세력은 위만조선처럼 단순히 국명을 조선으로 칭한 세력이 아니라 오랜 전통을 지닌 고조선 그 자체였다. 漢이 위만조선을 멸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간직할만한 세력은 유이민이 중심이 되어 성립된 위만조선이 아닌 원고조선 세력인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應劭가 樂浪郡 朝鮮縣 조에서는 箕子가 조선에 봉해진 내용을 언급하고, 遼東郡 險瀆縣 조에는 위만의 도움을 언급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樂浪郡 朝鮮縣은 원고조선 세력과 관련 있었던 것이지 위만조선과는 관련이 없었던 것이다.

94) 會孝惠高后時天下初定 遼東太守卽約滿爲外臣 保塞外蠻夷 無使盜邊 諸蠻夷君長欲入見天子 勿得禁止 以聞 上許之 以故滿得兵威財物 侵降其旁小邑 眞番臨屯 皆來服屬 方數千里(『史記』 卷115, 朝鮮列傳 第55)

그렇다면 위만조선 시기에 조선을 국명으로 채택한 위만은 원고조선 세력을 어떻게 구분했을까. 아무래도 조선은 위만조선이 국명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고조선 세력은 다른 이름으로 구분해서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 『漢書』地理志(E 사료)에는 樂浪朝鮮民에게 犯禁八條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낙랑조선’이라는 표현을 살펴볼 수 있다.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漢武帝 시기에 병합한 지역에 군을 설치할 때 토착 세력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는 진번·임둔뿐이었으며, 이런 점에서 漢이 남월의 경우처럼 위만조선 때 사용하던 통치 단위명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낙랑이라는 이름도 위만조선 시기에 이미 사용되었던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낙랑과 원고조선 세력과의 밀접한 관계로 보아 원고조선 세력을 낙랑 또는 낙랑조선으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漢은 원고조선 세력의 지역에 낙랑군을 두고 조선현을 설치한 것이다.

준왕을 몰아낸 위만조선에 대해 원고조선 세력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들은 위만조선이 漢의 침공을 받아 멸망했을 때 漢에 우호적인 자세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우거왕 때 藏君 南閭 등이 위만조선에 반하여 漢에 내속을 청했던 사건⁹⁵⁾을 통해 위만조선에 포함된 세력들 중에 위만조선의 통치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있었으며 이러한 세력은 경우에 따라 漢에 투항할 수도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 漢의 입장에서 볼 때도 원고조선 세력은 오랫동안 고조선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토착 세력을 통제하는 유용한 세력이라 할 수 있다. 즉 두 세력은 손을 잡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에 낙랑조선은 漢의 군현 설치 이후에도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삼국사기』에 낙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타난 것이다.

IV. 辰韓人的 계통과 낙랑국과의 관계

『三國志』韓傳에서는 辰韓 사람들은 秦役을 피해 韓國으로 왔는데 마한이 그 동쪽 지역을 떼어 주어 살게 되었다고 전한다. 또한 『삼국사기』에서는 6촌에 거주하던 조선 유민들이 진한 6부를 이루었으며 이들에 의해 신라가 건립되었다고 전한다. 두 기록에 근거하면 진한인은 秦役을 피해 내려온 조선 유민인 셈이다. 그런데 조선이라는 이름은 원고조선 세

95) 元朔元年 藏君南閭等畔右渠 率二十八萬口詣遼東內屬 武帝以其地爲蒼海郡(『後漢書』卷85, 東夷列傳 第75 藏傳)

력뿐만 아니라 위만조선도 사용하였다. 위만조선을 세우는데 적극적이었던 세력도 조선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를 세운 사람들은 어떤 고조선과 연결된 자들이었을까.

G. 辰韓在馬韓之東 其耆老傳世 自言古之亡人 避秦役 來適韓國 馬韓 割其東界地 與之 有城柵 其言語不與馬韓同 名國爲邦 弓爲弧 賊爲寇 行酒爲行觴 相呼皆爲徒 有似秦人 非但燕齊之名物也 名樂浪人爲阿殘 東方人名我爲阿 謂樂浪人本其殘餘人 今有名之爲秦韓者(『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傳)

진한인의 실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秦의 役을 부담하였다는 부분과 언어가 秦人가 비슷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이다. 먼저 고조선인이 秦의 役에 동원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燕의 침공을 받아 燕의 지배를 받다가 다시 중원을 통일한 秦의 지배를 받게 된 경우이다. 또 하나는 秦이 직접 고조선을 복속한 뒤 고조선인들을 동원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史記』 조선열전에는 燕의 전성기 때에 燕이 진번·조선을 복속하고 관리를 두었으며, 다시 秦이 燕을 멸한 뒤에 遼東外徼에 소속시켰다고 하였다.⁹⁶⁾ 『魏略』에서는 기원전 280여 년경에 燕이 秦開로하여금 고조선의 서방을 치게 하여 2천여 리를 빼앗았다고 하였다.⁹⁷⁾ 燕의 침공으로 많은 고조선인들이 燕의 지배 아래에 들어갔던 것이다.

한편,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鹽鐵論』에서는 秦이 조선을 멸하였던 것으로 전하며, 『史記』 秦始皇本紀에서는 秦의 영토가 동으로 조선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고조선이 秦의 영토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魏略』에서는 고조선의 否王이 秦이 장성을 축조하던 시기에 秦의 침공을 두려워하여 秦에 복속을 약속하였지만 秦에 조회하지는 않았다고 전한다. 고조선이 秦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秦은 중원 통일 후 흉노 방비를 위해 장성을 축조하였는데, 『史記』 蒙恬列傳에는 秦이 천하를 통일한 뒤 蒙恬에게 30만 대군을 주어 북으로 戎狄를 쫓아내게 하고 臨洮에서 遼東에 이르는 지역에 장성을 쌓게 하였다고 전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淮南子』에서는 始皇帝가 錄圖에 전하는 글을 보

96) 自始全燕時嘗略屬眞番朝鮮 爲置吏 築鄣塞 秦滅燕 屬遼東外徼(『史記』 卷115, 朝鮮列傳 第55)

97) 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爲界 朝鮮遂弱(『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傳 所引『魏略』)

있을 때에 50만의 군사를 동원하여 서쪽으로 流沙에서 동쪽으로 朝鮮에 이르는 큰 성을 쌓았다고 전한다.⁹⁸⁾ 『史記』秦始皇本紀에서는 始皇 32년(기원전 215년)에 燕의 盧生이 ‘亡秦者胡也’라는 글이 있는 錄圖書를 바쳤으며, 이에 始皇帝는 蒙恬으로 하여금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胡를 치게 하여 河南 지역을 취하였다고 나온다. 이때 고조선의 否王을 조회에 응하지 않았던 점에서 秦이 고조선인들을 직접 부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否王이 秦의 침공이 두려워 복속을 청했다는 내용까지만 나오고 秦이 고조선에 군사적 침공을 가했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否王의 통치 아래에 있던 원고조선인들은 秦役に 시달렸다면 진한인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秦 붕괴 시기부터 漢 초에 걸쳐 燕齊趙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조선으로 넘어왔다. 『魏略』에서는 陳勝과 項羽가 봉기하여 천하가 어지러워지지 燕齊趙民이 고통스러워 점점 고조선의 준왕에게 왔다고 하였으며,⁹⁹⁾ 『三國志』와 『後漢書』 濊傳에서는 이때 수만 명이 고조선으로 피난해 왔다고 하였다.¹⁰⁰⁾ 秦 지배 아래 있던 많은 사람들이 혼란기를 틈타 고조선으로 들어온 것이다.

G 기록에 보면 진한인의 언어가 秦人が 유사한 점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國을 邦이라 불렀다고 하였다. 國과 邦은 모두 한자어로 고조선 고유의 언어라고 할 수는 없다. 國이든 邦이든 이러한 글자를 사용했다는 것은 한자를 습득하여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 漢代에는 漢 高祖의 이름을 避諱하여 邦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진한인들이 國을 邦이라고 하였다는 것은 이들이 한자를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漢의 통치 아래 있기 전에 습득하였음을 의미한다.¹⁰¹⁾ 漢에서 정치적 목적에서 일부러 사용하지 않는 글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漢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漢에 우호적인 태도를 지녔다면 의도적으로라도 邦을 國으로 바꾸어 쓰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邦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이들이 漢의

98) 秦皇披錄圖見其傳曰 亡秦者胡也 因發卒五十萬 使蒙公楊翁子將 築脩城 西屬流沙 北鑿遼水 東結朝鮮(『淮南子』卷18, 人間訓)

99) 陳項起 天下亂 燕齊趙民愁苦 稍稍亡往準 準乃置之於西方(『三國志』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傳 所引『魏略』)

100) 陳勝等起 天下叛秦 燕齊趙民避地朝鮮數萬口(『三國志』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濊傳), 漢初大亂 燕齊趙人往避地者數萬口(『後漢書』卷85, 東夷列傳 第75 濊傳)

101) 박대재는 이러한 점에서 漢代 이전의 상고중국어가 고조선에 유입되었다가 유민의 이동과 함께 진한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았다(박대재, 2015, 「古朝鮮의 언어구역과 燕의 동북지역」, 『先史와 古代』 43, p.33.)

통치 아래 있지 않았던 세력이었음을 의미한다. 『삼국유사』에서 최치원은 진한은 본래 燕人으로 피난해 왔다고 기록하였다.¹⁰²⁾ 위만처럼 燕 지역에서 피난해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진한이 원고조선이 아닌 위만조선과 관련 있음을 말해 준다.¹⁰³⁾

위만은 고조선의 서변에서 세력을 키웠는데, 이 지역은 秦末 漢初에 燕齊趙 지역에서 고조선으로 들어온 유이민이나 秦代까지 燕秦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 있던 곳이다. 漢 건국 이전에 한자를 습득한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에서 위만이 세력을 키운 것이다. 전국시대에 燕이 고조선의 일부를 차지하여 통치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秦末 漢初에 고조선 지역으로 들어온 유민들 중에는 고조선계(또는 예맥계)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중국에서 들어온 세력도 조선 유민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燕秦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한자를 습득하였고, ‘나라’를 ‘國’이 아닌 ‘邦’으로 쓰게 된 것이다.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있었던 국가로, 辰國과 관련 있는 것으로 언급되기도 하였다. 『三國志』에서는 진한이 옛 辰國이라고 하였으며,¹⁰⁴⁾ 『後漢書』에서는 마한, 진한, 변진이 모두 옛 辰國이라 하였다.¹⁰⁵⁾ 어느 기록을 따르든 진한이 辰國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魏略』에서는 이러한 辰國에 위만조선인이 이주한 기록이 나온다.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인 우거왕 시기에 朝鮮相 歷谿卿이 우거왕과 불화하여 동쪽으로 辰國으로 갔으며, 이후 朝鮮貢(진)蕃과 왕래하지 않았다고 한다.¹⁰⁶⁾ 이때 2천여 호가 역계경을 따라갔다고 하였다.

102) 又崔致遠云 辰韓本燕人避之者 故取涿水之名 稱所居之邑里 云沙涿 漸涿等(『三國遺事』 卷1, 紀異 第1 辰韓)

103) 主보돈은 사로 6촌을 이룬 조선 유민은 마한 지역으로 가서 韓王을 칭했던 準王系와 구분되는 위만조선계 유민이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았다(朱甫墩, 2003, 「斯盧國을 둘러싼 몇가지 問題」, 『新羅文化』 21, pp.26~27.). 김병곤은 경주 일대의 先住集團은 위만조선 이전 고조선 유민과 연결해서 보고 신라를 세운 혁거세 집단은 위만조선의 문화 역량을 경험한 집단으로 보았다(金炳坤, 2001, 「斯盧 六村의 黜自와 村長의 사회적 성격」, 『韓國古代史研究』 22, pp.132~138.) 한편, 박대재는 秦의 고역을 피해 진한으로 들어온 戰國 계통 주민은 위만조선을 거쳐 진한 지역으로 유입되었는데, 기원전 3세기 말이 아닌 위만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들어왔던 것으로 보았다(박대재, 2006, 『고대한국 초기 국가의 왕과 전쟁』, 경인문화사, pp.155~164.).

104) 韓 …… 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辰韓者 古之辰國也(『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傳)

105) 韓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 …… 皆古之辰國也(『後漢書』 卷85, 東夷列傳 第75 韓)

朝鮮相이라는 관직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역계경은 위만조선에서 왕 다음 가는 위치에 있던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왕에게 諫하였다가 쓰이지 못하여 진국으로 갔다고 하였던 점에서 역계경은 위만조선의 정치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三國志』에는 변진한에 24국 45만 家가 있었는데, 대국은 45천 家, 소국은 6·7백 家라고 하였다. 역계경이 이끌고 간 무리는 변진한의 소국들보다도 훨씬 규모가 컸으며, 대국들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三國志』 저술 시기와 우거왕 시기는 4백 년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역계경을 따라간 무리만으로도 여러 국가가 이루어졌을 법하다. 물론 역계경과 함께 내려간 무리 이외에도 위만조선 멸망 이후에 진한 지역으로 내려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¹⁰⁷⁾ 최근 동남한 지역에서는 樂浪郡 설치를 전후로 한 시기에 전국계 철기와 전국계 및 漢式 토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토기들이 출토되고 있다.¹⁰⁸⁾

정리하면 신라를 세운 고조선 유민은 위만조선과 관련된 세력인 반면 신라의 국가 형성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나오는 낙랑은 원고조선 세력과 연결된다. 즉 『삼국사기』 신라본기 초기 기록은 원고조선 세력이 위만조선계가 남한 지역으로 내려와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것을 방해한 내용을 담고 있는 셈이다. 『魏略』에서는 고조선의 준왕이 망명해 온 위만을 받아들였지만 위만이 僞計를 사용하여 준왕을 공격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이렇게 원고조선 세력은 위만에게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위만조선 세력을 견제한 것이다.

더구나 위만이 준왕을 공격한 것은 은혜를 망각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원고조선 입장

106) 初右渠未破時 朝鮮相歷谿卿 以諫右渠不用 東之辰國 時民隨出居者 二千餘戶 亦與朝鮮貢蕃不相往來(『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 第30 韓傳 所引『魏略』)

107) 이현혜는 戰國系 유민을 포함한 위씨조선계 유민이 기원전 1세기경에 경주, 대구 등지로 유입하여 선주세력집단을 통합하면서 사로국이 대두하였다고 보았다(李賢惠, 1984,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一潮閣, pp.48~102.). 문창로는 위만조선 멸망 무렵에 들어온 위만조선계 유이민 세력이 사로국 성립의 배경이 되었다고 보았으며, 이후에도 낙랑 계통의 유이민이 斯盧 지역을 비롯한 진한 사회에 지속적으로 유입되었다고 보았다(文昌魯, 2004, 앞의 논문, pp. 183~187.).

108) 김길식, 2006, 「진변한 지역 낙랑 문물의 유입 양상과 그 배경」 『낙랑 문화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pp.322~327; 鄭仁盛, 2008, 「瓦質土器 樂浪影響說」의 검토 『嶺南考古學』 47, pp.20~23; 우병철, 2012, 「한반도 동남부지역 철기문화의 성격과 전개양상」 『동아시아 고대 철기문화 연구 - 燕國 철기문화의 형성과 확산』, 국립문화재연구소, pp.373~374.

에서 볼 때 위만 세력은 無道한 자들로 한 나라를 다스릴 만한 자들이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해 위만조선 계통인 신라는 자신들이 하나의 나라를 세울 만한 국가임을 건국 기사에 드러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서 신라는 곳곳에서 聖人이 다스리는 나라, 道가 행해지는 나라임을 제시하고 있다. A 기록(『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혁거세 30년에 신라를 쳐들어온 낙랑 군대가 사람들이 밤에 문을 닫지 않고 노적가리가 들에 가득한 것을 보고는 “이 지역 사람들은 서로 도적질하지 않으니 가히 道가 있는 나라라 할 만하다.”라고 하며 물러난 내용을 적고 있다. 이 기록은 고조선에 대한 『漢書』 地理志 기록(E 사료)과 대응된다. 여기서 낙랑조선민에게 犯禁八條가 있음을 언급한 뒤 그 백성들은 서로 도적질하지 않아 문을 닫지 않았다고 하였다. 신라 사회 역시 漢의 郡 설치 이전 고조선 사회처럼 道가 행해지고 있는 나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초기 기록은 신라는 聖人이 다스리는 나라로 원고조선 세력과는 별도로 하나의 국가를 이룰 만한 세력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신라본기는 고조선에서 갈라져 나온 세력(위만조선 계통)이 또 다른 국가를 이루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원고조선 세력인 낙랑국이 위만조선계인 진한에서 새로운 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 행동을 취하였다는 점은 낙랑군 사회에서 낙랑국의 위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낙랑국이 신라의 국가 형성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낙랑국 역시 독립된 실체여야 한다. 비록 낙랑군 안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왕의 권위를 지니고 있어야 새로운 국가의 등장을 견제하는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한 시기에 漢이 복속한 서남이 지역에도 여전히 夜郎王, 鉤町王, 哀牢王 등이 존재하였으며, 군태수나 현령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¹⁰⁹⁾ 漢의 邊郡 안에는 별도의 군사력을 지닌 토착 세력의 국이 존재했던 것이다. 낙랑국 역시 하나의 국으로 존재했다고 본다. 『漢書』 地理志(E 사료)에서 군 설치 이후 낙랑조선의 犯禁이 60여 조로 늘어났다고 하였다. 犯禁 8조와 대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토착민의 紀律로 볼 수 있는데¹¹⁰⁾ 낙랑국이 별도의 법률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렸음을 엿볼 수 있다.

109) 吳永贊, 2004, 앞의 논문, pp.44~45.

110) 권오중, 앞의 책, 1992, pp.56~58.

V. 맺음말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는 건국 초에 다른 나라들보다도 유독 낙랑이 신라를 괴롭혔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가 부여를, 백제가 마한을 극복하고 국가적 성장을 이루었던 것처럼 신라는 낙랑의 방해로 극복하고 국가적 성장을 이루어간 것이다. 낙랑의 신라 침공 기사는 일반적인 전쟁 기사와 달리 약간 특이한 점을 보이는데, ‘신라=聖人之國’의 이미지를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삼국사기』나 『三國志』에 신라는 고조선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국가였음을 전하는데, 위만조선 복속 후 설치된 樂浪郡 역시 고조선과 관련이 있다. 즉 낙랑의 신라 침공은 고조선과 관련 있는 세력들 간에 이루어진 사건인 셈이다.

낙랑에서 신라를 침공한 주체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크게 낙랑태수와 낙랑국왕을 살필 수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신라가 먼저 낙랑에 먼저 군사적 위협을 가했던 적은 보이지 않으며, 『三國志』 등에서도 戶來 사건 이외에는 진한과 낙랑이 충돌한 적은 없다. 그나마 진한이 낙랑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무력 충돌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런 점에서 만약 낙랑태수가 신라 침공을 주도했다면 이것은 漢의 邊郡을 다스리는 태수가 관할 지역 밖에 있으면서 평온한 관계에 있던 세력을 침공한 것이 된다. 그러나 漢代 邊郡 지역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이럴 가능성은 없다. 戶來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낙랑군은 郡 내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고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郡 밖의 정세 변화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삼국사기』에는 최리의 낙랑국이 나온다. 낙랑은 위만조선 이전부터 있었던 이름이다. 이러한 낙랑국을 고구려가 32년에 공격하였는데, 漢은 오히려 그해 고구려의 왕호를 회복해주었다. 즉 漢은 고구려의 낙랑국 공격을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이런 점에서 낙랑국은 낙랑군의 군현 통치를 어렵게 하는 토착 세력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라를 침공한 낙랑은 이러한 낙랑국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신라와 낙랑의 관계는 고구려에 멸망한 낙랑 유민이 신라로 투항해 오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漢書』 地理志의 玄菟樂浪郡 지역에 대한 소개 기록에 보면 箕子에 대해서는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풍부한 반면 위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것은 同書의 越 지역에 대한 설명과 차이를 보이는데, 여기서는 『史記』 越王句踐世家와 南越東越列傳에 언급된 내용이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魏略』 등 여러 기록과 자료에서는 준왕의 고조선이 기자의 후손이라는 인식을 찾아볼 수 있어 위만조선을 없는 나라로 취급한 『漢

書』地理志는 기자와 관련된 原고조선 세력의 입장임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위만조선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찬 『史記』朝鮮列傳에는 기자에 대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漢書』地理志의 위만 不在, 『史記』朝鮮列傳의 기자 不在는 위만조선과 원고조선을 구별해서 봐야 함을 시사한다. 後漢代 사람 應邵가 樂浪郡 朝鮮縣에 대해서는 周 武王이 기자를 봉했다는 내용을 달았던 반면 遼東郡 險瀆縣에 대해서는 조선왕 滿의 도읍이라는 주를 남겼던 것은 원고조선 세력 지역과 위만조선의 도읍을 구별해서 보았기 때문이다.

위만은 중원 지역의 혼란을 피해 고조선 지역으로 들어온 유이민들이 주로 거주한 西界에서 세력을 키워 위만조선을 세웠다. 위만조선은 원고조선의 중심 세력과 이질적이었던 것으로, 위만 세력의 고조선 복속은 서로 다른 정치 세력 간의 통합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만에게 한 번 패하고 왕이 도망갔다고 하여 원고조선 세력이 위만조선에 융합되어 정체성을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만이 漢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중국 사서에 조선왕으로 기록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원고조선 세력이 위만조선에 융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조선 세력은 위만조선처럼 단순히 국명을 조선으로 칭한 세력이 아니라 오랜 전통을 지닌 고조선 그 자체였다. 漢이 위만조선을 복속하고 낙랑군에 조선현을 설치한 것은 원고조선 세력과 관련이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고조선 세력은 위만조선 시기에 위만조선의 조선과 구별하여 낙랑 또는 낙랑조선으로 불렸다. 이들은 준왕을 몰아낸 위만조선에 감정이 좋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漢에 우호적인 자세를 보여 漢의 군현 설치 이후에도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진한인은 秦役을 피해 왔다는 점, ‘國’ 대신 ‘邦’을 사용한다는 점 등에서 중국 유이민과 관련 있는 위만조선계임을 알 수 있다. 실제 위만조선 말기에 朝鮮相 역계경이 2천여 호를 이끌고 辰國으로 갔다는 기록이 있다. 결국 『삼국사기』 신라본기 초기 기록은 원고조선 세력인 낙랑이 위만조선계가 남한 지역으로 내려와 새로운 국가를 세우려는 것을 방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위만에게 당한 적인 있는 원고조선 세력이 위만조선계를 견제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점은 원고조선 세력이 낙랑군 내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 위상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다른 漢의 邊郡 지역의 國들처럼 낙랑국도 왕이 있어 별도의 법률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다.

제1부 우리 역사 속의 고조선

요동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양상과 전개

- 소위 쌍방·미송리·고조선문화에 대한 검토 -

오대양(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 I. 머리말
- II. 요동지역 초기 청동기문화 검토
- III. 쌍방·미송리문화에 대한 검토
- IV. 고조선문화에 대한 검토
- V. 맺음말

I. 머리말

요동지역은 우리 고대사의 한 시원지로 이해되고 있다. 이 지역의 청동기문화연구는 고조선은 물론 그 이전시기까지 아우른다. 더불어 그 연구 영역 안에는 고구려사의 출발 및 정체성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어 우리 민족사의 기원과 변천과정의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고조선관련 연구는 매우 다방면에 걸쳐 그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고조선의 강역 및 중심지 설정과 대외관계, 이와 관련된 고고학적 유물·유적에 대한 형식학적 고찰과 기원탐구가 주된 논점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요동지역은 줄곧 고조선의 초기중심지로서 인식되어 왔다. 그 대상으로는 강상유형 혹은 쌍방문화와 더불어 새롭게 제기된 신성자문화¹⁾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그 실체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편이다. 사실상, 이상의 문화유형들은 각각 지역을 달리하는 관계로 내용상에서 일련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그 본질과 주제적 문화내용은 매우 유사성이 강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커다란 보편성 속에 포함되어 각자의 개성이 표출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는

1) 華玉冰, 2011, 『中國東北地區石棚研究』, 科學出版社, 186~187쪽.

고인돌과 석관묘, 적석묘, 석곽(목관)묘 등의 돌무덤 위주의 묘제, 미송리형토기와 비파형 동검, 선형동부와 조문경으로 대표되는 당대의 표지적 유물, 더불어 이들과 공반관계에 있는 유물조합들 속에 내재된 각종 다양한 문화내용들의 복합적 현상들이 포함되어 있다.²⁾

그런데 최근에는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로서 요서지역의 십이대영자문화가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는 십이대영자문화를 고조선의 물질문화에 비정하면서 그 중심지 이동을 조양-심양-평양지역으로 보는 인식이 강한데 현재 한국의 많은 연구자들에게 지지받고 있다. 과거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고조선의 중심지 이동설이 제기된 이래, 최신 증가하는 고고학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겠다.³⁾

하지만 단지 청동유물의 조합과 그 특수성만으로 당대 가장 선진적인 문화를 보유했다는 관점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⁴⁾ 여기에는 십이대영자문화와 동시기에 병행된 쌍방문화의 내용이 요서지역에 비해 결코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변지역 문화와의 보다 종합적인 비교를 통한 중심문화로서의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조선문화에 대한 실체와 그 변화상을 설명할 이론적 토대는 마련되지 못하였다. 금번 학술대회를 통해서도 이러한 논의가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져 그 실마리를 풀어줄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적으로 그동안 진행된 요동지역 청동기문화의 연구성과를 개설적으로 살펴본 후, 고조선문화의 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쌍방문화를 중심으로 그 특징과 변천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 연구 범위에는 최근 중국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쌍방문화가 커다란 범주속에서 미송리형토기문화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내용 또한 포함시키고자 한다. 더불어 요북지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설정된 신성자문화의 개념과 내용 역시 검토의 대상이 된다. 만약 이들을 포괄하여 고조선문화에 대응시키고자 한다면, 십이

2) 吳大洋, 2013, 『朝鮮半島北部地區青銅器時代石構墓葬研究 - 兼論與中國東北之比較』 吉林大博士論文, 104~108쪽.

3) 서영수, 1988,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시민강좌』2 : 노태돈, 1990, 「고조선의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한국사론』23 : 오강원, 1996·97, 「고조선 위치비정에 관한 연구사적 검토(1·2)」, 『백산학보』48·49 : 조법중 2002, 「고조선의 영역과 그 변천」, 『韓國史論』 34, 국사편찬위원회 : 송호정, 2010, 「고조선의 위치와 중심지 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58.

4) 백종오, 2014, 「遼西地域 青銅器時代 文化設定에 대한 檢討」, 『고조선문명의 학제적연구 정기 학술대회발표집』, 40쪽.

대영자문화와의 관계분석을 통해 그 중심문화로서의 논의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상의 내용을 한편의 글에서 모두 다룬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여기에서는 상관내용의 대략을 정리하여 후속연구의 전초로 삼고자 한다.

II. 요동지역 초기 청동기문화 검토

현재까지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요동지역의 청동기문화는 태자하를 경계로 남북 두 개의 분포구로 나눌 수 있다. 이는 해당 문화유형이 자리한 곳의 자연·지리적 환경 및 고고학적 문화내용의 차이에 근거한다.⁵⁾

먼저 요동 남부지역은 태자하 이남의 천산산지와 발해연안일대이다. 대부분이 요동반도에 포함되며 천산산지에서 뻗어 나온 구릉성 저산지대에 속한다. 이 지역일대의 청동기문화는 쌍타자문화에서 쌍방문화 - 윤가촌유형을 거쳐 초기철기시대에 진입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북부지역은 태자하 이북의 요하평원지역에 해당된다. 이곳은 혼하와 휘발하유역이 중심이 되는 요녕성 동북부와 길림성 서남부의 접경지대로 볼 수 있다. 이 지역의 청동기문화는 마성자문화에서 신성자문화 - 정가와자유형을 거쳐 초기철기시대로 진입한다.

요동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청동기문화는 남부의 쌍타자문화이다. 이 문화는 요동반도 남단의 대련지역을 중심으로 발전되었으며 대략적으로 기원전 21세기 전후에 시작된 것으로 평가받는다.⁶⁾ 현재 중국학계에서는 이 문화를 전체 3기로 획기하여 각기 쌍타자 1·2·3기문화로 구분하고 있다.⁷⁾(지도1)

제1기문화에 속하는 유적은 쌍타자유적 하층, 대취자유적 하층, 우가촌유적 하층, 노철산·장군산적석총, 사평산적석총 등이 있다. 이중 대취자유적의 하층유구에서 청동과(T33 ④:21)⁸⁾ 한 점이 발견되어 이미 이시기부터는 청동기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겠

5) 朱永剛, 1998, 「東北青銅文化的發展階段與文化區系」, 『考古學報』 1998-2期, 131쪽 : 朱永剛, 2009, 「區位, 序列, 編年, 系統 : 동북지역 청동기시대문화 구조체계 논감」, 『동북아 청동기문화 전개와 한반도』 제19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88쪽.

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著, 1996, 『雙砬子與崗上一—遼東史前文化的發見和研究』 科學出版社, 53~54쪽 : 趙賓福, 2009, 『中國東北地區夏至戰國時期的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2009年, 124~125쪽.

7)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著, 1996, 위의 책, 3~5쪽.

다.(도면 2-9) 이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대규모로 축조되는 적석총유적들과 그 내부에서 출토되는 산동 용산문화계열의 토기들이다. 쌍타자 1기문화의 적석총 출토 토기는 주거유적 출토품과 대체적으로 유사한데 크게 2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⁹⁾ 첫번째는 산동 용산문화의 영향을 받은 삼족기와 손잡이 달린 잔이 대표적이며 검은색의 고운 진흙질로서 기벽이 1~3mm 정도로 얇은 것이 특징적이다. 두번째는 당지의 후기 신석기문화를 계승한 토착문화계열 토기이다. 특징은 모래가 섞여있는 붉은색 토기(甌, 杯, 豆 등)가 많은데 구운 온도가 낮고 기벽이 두껍다.¹⁰⁾ 쌍타자 1기의 연대 범위는 쌍타자하층 F16의 B.P.4010±95년과 우가촌 하층(목탄시료)의 B.P.3630±85년 등 절대연대 측정값을 통해 대략 기원전 2100 ~ 1900년 사이로 편년 된다.¹¹⁾(도면 1.2)

제2기문화에 속하는 유적은 쌍타자유적 중층, 대취자유적 중층, 단타자 토광묘, 단타자·고려채유적, 상마석용관묘 등이 대표적이다. 이 시기의 주요특징은 전단계에 보편적으로 유행하였던 적석총 장축이 돌연 사라지며, 문화내용상 산동지역의 악석문화와 강한 유사성을 보이는 점이다. 특히 토기의 문양구성에 凸菱文·刻齒文, 附加堆文 등이 관찰되며 특히 甌의 허리부분에 시문된 附加堆文과 단추모양 장식 등은 이시기를 대표하는 특징이 된다.¹²⁾ 쌍타자 2기문화의 연대는 산동 악석문화의 연대와 비교하여 대략적으로 기원전 1900~1500년 사이로 편년된다.¹³⁾(도면 3)

제3기문화는 쌍타자유적 상층을 표지로 하며 양두와, 대취자상층, 우가촌상층, 타두묘지, 왕보산, 토룡자묘지 등이 있다. 이시기에는 요동지역에서 산동지역의 문화요소가 거의 배제되면서 당지의 토착문화가 한층 강화된다. 더불어 전단계에 단절되었던 적석총 전통이 다시 등장하며 벽류하유역에서는 고인돌 축조가 보편화된다.¹⁴⁾ 쌍타자 3기문화의 연대범위는 쌍타자유적과 타두묘지의 절대연대측정값에 근거하여 기원전 1400~1100년 사이로

8) 大蓮市文物考古研究所, 2000, 『大嘴子——青銅時代遺址1987年發掘報告』, 大蓮出版社.

9) 華陽·霍東峰等, 2009, 「四平山적석총再認識」, 『赤峰學院學報』 2009-2期, 10~14쪽.

10) 백종오·오대양, 2013, 「遼南地域 青銅器時代遺蹟의 發掘現況과 研究成果」, 『고조선단군학』 29, 204쪽.

11) 趙賓福, 2009, 앞의 책, 124~125쪽.

12) 朱永剛, 1998, 앞의 글, 135쪽.

13)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著, 1996, 위의 책, 145~146쪽.

14) 吳大洋, 2013, 앞의 책, 129~130쪽 : 오대양, 2014, 「북한지역 고인돌유적의 특징과 성격」, 『선사와 고대』 40, 97~98쪽.

편년된다.¹⁵⁾(도면 4,5,6)

요남의 쌍타자문화와 병행하여 요북지역에서는 마성자문화가 발전하였다. 이 문화는 동굴무덤을 대표로 하며 주요 분포범위는 태자하 중상류의 요양, 본계, 신빈 등지에 집중된다.(지도 2) 지금까지 발굴된 주요 유적에는 본계현 마성자 A·B·C동굴, 복전 A동굴, 산성자 B·C동굴, 장가보 A동굴, 사가외자 동굴, 근번사 동굴¹⁶⁾, 신빈현 동승 동굴¹⁷⁾, 대사평현 소홍석립자·동산·남둔 동굴¹⁸⁾ 등이 있다. 이상의 유적에서는 각종 다양한 형식의 무덤 150기 가량이 발굴되었는데 주요 특징은 동굴내부에 얇은 구덩을 파거나 몇 개의 작은 석관을 깔고 그 위에 시신과 부장품을 놓는 형태이다. 이외에 몇 개의 석재를 장방형 혹은 타원형태로 둘러놓은 石壙 형태도 확인되며, 일부는 석관 여러 개를 이어 세우거나 적석을 한 구조도 있다. 장법을 보면 대부분 묘실내에서 직접 화장을 하거나 간골 화장되었고, 양신직지장과 측신장 및 아이와 어른의 합장형태도 확인된다. 이 문화의 연대범위는 무덤에서 출토된 인골의 연대측정 결과 기원전 1800년 ~ 1100년 사이로 편년 되었다.¹⁹⁾

마성자문화의 분기와 편년은 대체적으로 2단계²⁰⁾에서 3단계²¹⁾, 혹은 4단계²²⁾에 걸친 발전과정이 상정되고 있으나 연구자별로 개별 유적에 대한 분석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

1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著, 1996, 위의 책, 3~5쪽 : 朱永剛, 2009, 앞의 글, 88쪽 : 趙濱福, 2009, 앞의 책, 124~125쪽.

16)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 1994, 『馬城子-太子河上游洞穴遺存-』, 文物出版社. : 唐森, 2008, 「關於馬城子文化內涵認知的述評」, 『東北史地』 2008-6, 72~73쪽.

17) 撫順市博物館·新賓滿族自治縣文物管理所, 2002, 「遼寧新賓嫫族自治縣東升洞穴古文化遺存發掘整理報告」, 『北方文物』 2002-1, 6-7쪽.

18)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撫順市博物館, 2002, 위의 글, 169~171쪽 : 唐森, 2008, 위의 글, 72~73쪽.

19)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 1994, 위의 책, 181~182쪽.

최근에는 태자하 중하류지역에서 발굴된 일련의 석관묘유적 또한 마성자문화 후기단계(기원전 12~11세기)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 관련된 주요유적으로는 요양 접관청 석관묘, 본계 호구, 정가촌, 봉밀립자, 맹가보자, 정가옥 석관묘, 신빈 노성 석관묘 등이 대표적이다.

20) 趙濱福, 2007, 「馬城子文化新論 - 遼東北部地區夏商時期遺存的整合研究」, 『邊疆考古研究』 6, 科學出版社, 143~164쪽.

2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 1994, 위의 책, 275~282쪽.

22) 華玉冰, 2011, 위의 책, 173~181쪽 : 吳大洋, 2013, 110~115쪽.

다.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성자 보고서의 분기안을 참고하여 전체 3단계로 구분하겠는데, 여기에는 동굴내에서 확인되는 석관묘제의 변화상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각 단계별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1 및 도면7~14와 같다.

<표 1> 마성자문화의 단계별 특징

단계	편년	대표유적	대표토기	무덤특징
1	B.C 18세기 이전	마성자 B동, 북전 A동	紅陶 혹은 紅褐陶 위주, 구연과 동체부에 附加堆文 시문, 주요기종은 壺, 罐	無葬具, 無封 土의 얇은 土坑墓 위주
2	B.C 17~14 세기	장가보A동4층, 산성자B동2층, 마성자A동	각종 형식의 손잡이가 발달, 壺의 구연 하부로 圓點, 삼각형의 點列文이 시문.	원시형태의 석관묘제 출현
3	전기	B.C 13~12 세기	경부의 경사도 小, 최대경이 중부로 이동, 동체부의 형태가 腰鼓形→渾圓球型 변화, 褐陶과 灰陶의 수량이 증가, 豎耳長頸壺와 鉢口壺의 출현	동굴내 석관묘의 보편적 축조
	후기	B.C 12~11 세기	산성자C동2층, 마성자C동, 장가보A동2층, 동승, 남둔, 홍석립자	灰褐陶와 黑陶의 증가, 각종 손잡이 발달, 부장용의 소형 토기 증가, 壺의 경부가 나팔형으로 변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요동지역의 초기 청동기문화는 남·북 두 개의 분포구로 구분되며, 전체 3단계에 걸친 발전과정을 살필 수 있다. 먼저 요남의 제1단계는 쌍타자 1기문화로 그 시작연대는 기원전 21세기 이전이다. 기원전 18~17세기에는 산동의 악석문화와 연관된 쌍타자 2기문화로 전환되며, 기원전 14~11세기까지는 토착 전통이 매우 강한 쌍타자 3기문화가 지속된다. 요북지역은 남부지역과 대략적으로 유사한 변천과정을 보이지만 그 세부내용에서는 일련의 차이가 있다. 1단계의 연대는 쌍타자 1기의 하한에 근접하지만 그 상한연대를 비롯한 문화내용의 전반은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2단계는 기원전 17~14세기 전후로 이때부터 요북지역에서도 초보적인 형태의 돌무덤, 즉 석관묘제의 시원형식이 출현된다. 3단계(기원전 13~11세기)는 문화권내에서 석관묘제의 축조가 보편화되는 시기이다. 전·후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기는 동굴내 석관묘제의 보편화(기원전 13~12세기), 후기에는 전형적인 형태의 석관묘제가 탈동굴화의 현상(기원전 12~11세기)

을 보인다.²³⁾ 현재 중국학계에서는 이상의 단계설정 및 편년문제 대해 기본적인 합일을 이룬다. 그러나 이후에 연속되는 쌍방문화의 범위와 전개양상 및 서북한 지역의 미송리형 토기문화와의 관계설정 등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I. 쌍방·미송리문화에 대한 검토

토최근 중국학계에서 논의되는 소위 쌍방문화는 서북한지역의 미송리형토기문화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그동안은 쌍방유형과 양두와유형²⁴⁾ 혹은 쌍방유존(遺存)²⁵⁾ 등으로 불려왔으나 최근 趙賓福에 의해 보다 광의적인 개념에서의 쌍방문화가 제안되었다.²⁶⁾ 그에 의하면 요동반도의 “上馬石 上層類型”과 요북지역의 “祝家溝遺存” 그리고 “老虎冲遺存” 등은 모두 유사한 형태의 문화내용을 포함하기에 이들은 모두 동일한 범주에 해당되는 쌍방문화라 통칭할 수 있다. 주요 특징을 보면 “선명한 형태의 음각 선문대가 시문된 토기(弦文壺)를 전형토기로 하며 이외에 대부분의 토기는 무문이다. 기물조합은 단호와 관위주이며, 삼족기는 유행되지 않는다. 더불어 비파형동검과 동부, 동모, 동축 등의 청동무기가 공반되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華玉冰은 요북지역에서 폭넓게 확인되는 弦文壺(미송리형토기) 출토 유적은 요남의 쌍방문화와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는 기원전 9~6세기 요북지역 청동기문화는 마성자문화에서 파생된 독자적인 형태임을 강조하면서 무덤에서 출토되는 弦文壺와 무문의 鉢口壺, 橫耳球腹罐 등의 조합을 전형특징으로 보았다. 더불어 이러한 현상을 요남지역 쌍방문화(弦文壺와 二重口沿筒形罐의 조합)와 구분되는 주요한 문화속성으로 보고,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대표유적의 명칭을 따라 신성자문화로 明命할 것을 제안하였다.²⁷⁾

23) 吳大洋, 2013, 앞의 책, 177~178쪽 : 오대양, 2004, 앞의 글, 102쪽.

24) 陳光, 1989, 「羊頭窪類型研究」, 『考古學文化論集』(二), 文物出版社.

25) 朱永剛, 1982, 「東北青銅文化的發展階段與文化區系」, 『考古學報』1982-2期, 139쪽 : 王巍, 2004, 「雙房遺存研究」, 『慶祝張忠培先生七十歲論文集』科學出版社.

26) 趙賓福, 2009, 위의 책, 158~159쪽.

그런데 쌍방문화 혹은 신성자문화던 간에 그 주요 특징은 현문(혹은 무문)의 橫橋耳壺와 橫耳球腹罐(혹은 二重口沿筒形罐)을 기본조합으로 하며, 동시에 비파형동검과 동모, 청동부, 청동촉 등의 청동기가 공반되는 공통적 속성을 지닌다. 대체적으로 석재를 葬具로 한 무덤유적에서 많이 발견되며, 주거유적에서 발견된 자료는 매우 드물다. 무엇보다 주의 해야 될 점은 이와 유사 형태의 문화내용이 서북한지역의 미송리형토기문화에서도 확인된다는 점이다.

<표 2> 미송리문화 각 지역별 유형의 특징

지역	요남지역	요북지역	서북한지역
유형	쌍방유형	신성자유형	미송리유형
묘제	고인돌, 적석총	고인돌, 석관묘	고인돌(적석형), 석관묘, 동굴묘
공 반 유 물	토 기	미송리형토기, 網文壺, 無文脣耳壺 이중구연토기	미송리형토기, 無文鉢口壺, 橫耳罐, 鉢 이중구연토기 팽이형토기
	청 동 기	비파형동검, 동부(석범), 동촉, 차마구, 장식품	비파형동검, 동모, 동부(석범), 동촉, 공구 동령, 동부, 동촉
	석 기	석부, 석촉	석부, 석촉, 석검 석모, 석검, 석부, 석촉

이상 세 종류의 문화유형은 비록 지역적 차이에 따른 일련의 차이가 존재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모두 동일한 문화범주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²⁸⁾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해당 자료가 출토된 최초의 표지유적명을 붙이는 고고학계의 용례를 생각한다면 미송리형토기와 상관된 학술용어는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²⁹⁾

27) 華玉冰, 2011, 앞의 책, 186~187쪽.

28) 백종오·오대양, 2013, 앞의 글, 208쪽.

29) 배진성, 2015, 「미송리형토기문화의 동태와 분포권」, 『동북아역사논총』 47호, 105쪽.

이글에서는 이상 세 종류의 문화유형을 모두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켜 이해하고자 하며 통칭하여 미송리문화로 부르겠다. 그 의미는 미송리형토기를 중심으로 전개된 각종 다양한 문화양상의 전반으로 정의된다. 더불어 미송리문화의 각 지역별 유형인 요남의 쌍방 유형, 요북의 신성자유형, 서북한지역의 미송리유형 등은 그 하위개념으로서 미송리문화의 보편성 속에서 표출된 각 지역별 특수성(의 유형화) 정도로 풀이 할 수 있다.

1. 쌍방·신성자유형에 대한 검토

그동안 쌍방유형의 내용을 비롯한 범위와 그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그중에서도 관련내용의 대개를 정리하여 처음으로 유형화 시킨 것은 王巍인데, 그는 “1980년 遼寧省 大連市 新金縣 雙房遺蹟에서 발견된 大石蓋墓를 대표유적으로 하는 고고학 문화유형”이라 정의하면서 新金 雙房墓地와 碧流河大石蓋墓遺蹟, 鳳城 東山墓地, 撫順 大甲房石棺墓, 遼陽 二道河子石棺墓 등에서 발견된 일련의 大石蓋墓와 石棺墓를 모두 이 유형에 포함시켰다.³⁰⁾

이후 吳世恩³¹⁾과 趙賓福 등에 의해 관련내용이 보다 세부적으로 정리되면서 요동 각지에서 확인되는 미송리형토기 관련 유적을 통칭하여 쌍방문화로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華玉冰에 의해 반론이 제기되었고 각지에서 확인되는 관련문화의 내용은 별개의 문화로 구분되어질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 이글에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요동의 쌍방문화를 미송리문화에 포함되는 쌍방유형과 신성자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요남지역의 쌍방유형에 속하는 유적은 대련 강상, 루상, 와룡천 등의 적석총유적과 보란점 쌍방묘지를 대표로 하는 벽류하유역의 고인돌유적 등이 포함된다. 주요 특징을 보면 무문의 손잡이(口脣狀 혹은 紐狀) 달린 토기 및 미송리형토기와 이중구연토기의 조합, 동시에 쌍타자 3기문화에서 연속되는 그물문과 철룡문토기, 이외에 비파형동검과 청동부, 청동촉 등이 공반된다. 대체적으로 석재를 장구로 한 무덤양식인 고인돌과 적석총에서 많이 발견되며, 주거유적에서 발견된 자료는 매우 드물다.

그동안 진행된 쌍방유형의 연대범위는 미송리형토기와 비파형동검의 형식변화에 근거

30) 王巍, 2004, 앞의 글. 402~403쪽.

31) 吳世恩, 2004, 「關於雙房文化的兩箇問題」, 『北方文物』 04-2.

하여 전기와 후기로 구분되고 있다.³²⁾ 전기의 것은 구연부 형태가 鉢口形에서 점차 斜口形으로 변화되며, 동체부는 아래로 처진 형태에서 점차 동그란 형태로 발전된다. 후기에는 점차적으로 현문과 손잡이가 사라지며, 경부가 세장해지는 특징을 보인다. 비파형동검은 검신이 점차 세장화되는 형태로 변화되는데, 후기로 갈수록 날부의 곡선이 뚜렷한 형태에서 점차 밋밋해지고 돌기부가 소멸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시기 적석총유적은 강상과 루상, 와룡천 유적이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매우 다양하고 수량도 많다. 토기는 대부분 무문의 홍색이 많고 종류는 罐, 壺, 豆(굽접시) 등이 있다. 청동기는 비파형동검, 도끼, 화살촉, 차마구 및 각종 장신구가 확인되었으며 몇 기의 무덤에서는 불에 녹아 덩어리가 된 청동유물이 확인되었다. 이외에 옥구슬을 비롯한 흙구슬과 조개장식 등 각종의 장신구 등이 출토되었다.(도면 15~16) 강상묘지는 쌍타자 3기문화의 퇴적층 상부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강상 12호묘실에서 출토된 그물문 단경호(도면 15-5)는 우가촌 타두적석총의 것과 형식발전관계에 있다. 따라서 강상묘지의 연대는 쌍타자 3기의 하안 연대인 기원전 11세기를 넘을 수 없다.³³⁾ 발굴보고서에 따르면³⁴⁾ 강상과 루상, 와룡천묘지 출토 비파형동검의 형식비교를 통해 강상묘지의 연대는 루상과 와룡천묘지보다 빠르며, 그 연대는 기원전 8세기 이전으로 보았다. 이외에 루상묘지의 연대는 기원전 6~5세기, 와룡천묘지는 전국시대에 해당되는 기원전 4세기 전후로 편년하였다. 따라서 강상은 쌍방유형의 전기, 루상과 와룡천은 후기유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쌍방유적의 6호 고인돌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과 미송리형토기는 모두 쌍방유형 전기단계의 전형적 특징을 보인다.³⁵⁾ 또한 바로 인접해 위치한 2호 고인돌 출토 그물문 토기(도면 17-1)는 우가촌 타두적석총 출토품과 거의 유사하며, 강상적석총 12호묘실 출토품과(도면 15-5)는 문양 구성상 유사점이 발견된다. 따라서 쌍방유적의 고인돌은 대체로 쌍방유형 전기단계의 유적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요북의 신성자유형에 속하는 유적은 대표적으로 본계 신성자묘지, 개원 건재촌묘지, 서풍 동구 석관묘유적, 성신촌 석관묘, 요양 이도하자 석관묘 등이 있다. 모두 석제를 장구로 한 무덤유적군에 포함되며, 아직까지 이 유형에 속하는 대규모의 취락유적이 보고된

32) 朱永剛, 2008, 「遼東地區雙房式陶壺研究」, 『華夏考古』 2008-2, 89~97쪽.

33) 오대양, 2013, 위의 책, 106~108쪽.

34)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著, 1996, 위의 책, 110~118쪽.

35) 朱永剛, 2008, 「遼東地區雙房式陶壺研究」, 『華夏考古』 2008-2, 180~184쪽.

바가 없다.

신성자유적에서는 모두 16기의 고인돌이 발굴되었다. 대다수의 묘실은 석재를 쌓아 만든 개석형 고인돌이다. 조사된 대부분의 고인돌은 묘실 바깥으로 소량의 석재를 둘러놓아 덮개돌의 하중으로부터 묘실을 보호하고 있다. 거의 모든 묘실에서 전형적인 형태의 미송리형토기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유적이 형성된 연대는 기원전 9~8세기를 정도로 편년된다.³⁶⁾(도면 18) 서풍 동구유적과 성신촌, 요양 이도하자 석관묘에서는 신성자유적의 미송리형토기와 동일한 특징의 것이 출토되어 모두 신성자유형 전기유적에 해당된다.(도면 19)

건재촌유적에는 모두 35기의 고인돌이 산의 남사면을 따라 수기씩 열을 지어 분포해 있으며 이중 3기(10·24·26호)가 발굴되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무덤 상부에는 소량의 적석더미가 잔존해 있으며, 지표상으로 묘실 벽석의 일부분과 덮개돌이 노출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깨진돌과 판석을 혼용하여 묘실을 축조한 개석형 고인돌에 해당된다. 이외에 발굴되지 않은 몇 기의 무덤 중에는 두꺼운 판석을 세워 묘실을 만들고 그 위에 한 장의 덮개돌을 덮었다는 보고서의 설명³⁷⁾으로 보아 유적내 탁자형 고인돌과 공존한 것으로 여겨진다. 건재촌유적의 발굴된 3기에서는 축조연대를 알 수 있는 유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미발굴 유적에서 구연부가 짧고 문양이 조잡한 미송리형토기 1점이 채집된 바 있다. 요북지역에서 이러한 형태의 토기가 유행한 연대는 대략 기원전 7세기 전후로 해석되기 때문에³⁸⁾, 건재촌유적의 형성연대 또한 이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건재촌유적은 후기단계의 유적으로 설정하겠다.(도면 20)

2. 미송리유형에 대한 검토

1959년 평안북도 의주군 미송리 동굴유적의 발굴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그 범위와 개념설정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이글에서는 미송리형토기 관계의 유물·유적군 혹은 미송리유적 출토 호형토기를 중심으로 복합된 각종의 유물과 유적 복합체 정도로 정리하겠다. 따라서 이 유형의 표지적인 유물은 미송리형토기인데 요동지역의

36) 遼寧省考古文物研究所 等, 2010, 위의 글, 782~784쪽.

37) 許志國, 2000, 「遼寧開原建材村石棺墓群」, 『博物館研究』 2000-3, 64~65쪽.

38) 朱永剛, 2008, 위의 글, 95~97쪽.

쌍방형토기 혹은 弦文壺 등과 동일한 기물이다.

대체적으로 평저에 동체가 불록하며 목이 위로 올라가면서 넓어지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그 단면이 표주박을 반으로 잘라 놓은 형태와 유사하여 북한에서는 표주박형 단지로 불리기도 한다. 바탕흙은 고운 모래와 진흙을 사용하며, 소량으로 활석이 섞였다. 색깔은 갈색, 회갈색, 흑갈색 등이 많고, 표면은 대체로 마광된다. 겉면에는 집선의 현문이 횡으로 여러 줄 있거나 현문대의 사이에 거치문이 돌아가거나 드물게 삼각문이 보이기도 한다. 동체에는 다양한 형태의 손잡이(橫橋狀, 豎橋狀, 구순상, 뉴상과수 등)가 1쌍 혹은 2쌍씩 대칭으로 달려 있다. 이외에 무문으로서 손잡이를 비롯한 장식적 요소가 전혀 부가되지 않는 형태의 것들이 전형적인 것들과 공반되는 현상도 확인된다.

그동안 북한학계에서는 주로 비파형동검과 함께 고조선의 표식적인 유물로 인식하여, 그 기원과 발전과정을 중점으로 연구되어 왔다. 연대문제와 관련해서는 요동반도 남부에서 그 기원을 찾으며, 상한연대를 기원전 10세기 전후, 중심연대는 기원전 8~7세기 전후가 보편적 인식이었다.³⁹⁾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대동강문화론이 주창되기 시작하면서 고조선의 성립시기를 기원전 30세기 전후로 설정하여 미송리형토기의 편년도 모두 상향조정된다. 더불어 미송리형토기의 기원지 역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유역으로 그 기원문제는 팽이형토기의 발전과 연관된 것으로 주장되기 시작한다. 즉, 미송리형토기는 팽이형토기의 한 갈래로서 팽이형토기문화 제2단계부터 유행하였고 제3단계에는 변형형식인 목방리형토기, 제4단계에는 남양형토기로 발전된다는 인식이다.⁴⁰⁾ 이러한 현상은 평양 일대의 역사적 우수성을 강조하여 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비상식적인 상황에 기인하는데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비판받고 있다.⁴¹⁾

서북한지역의 미송리형토기는 요동지역과 마찬가지로 고인돌과 석관묘 등 무덤유적에서 많이 발견되나, 최근 주거유적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공반유물 관계를 보면 주로 팽이형토기의 각종 형식과 공반되거나, 이중구연토기⁴²⁾ 1~2점씩이 세트관계를

39) 김용간, 1963, 「미송리동굴유적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3, 과학출판사 : 1977, 『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20~127쪽 : 황기덕, 1989, 「비파형동검문화의 미송리유형 1- 미송리유형의 유적유물과 그 연대」, 『조선고고연구』 3, 3~9쪽

40) 서국태, 1996, 「팽이그릇문화의 편년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 사회과학출판사, 17~21쪽 : 김중혁·전영수, 2003, 「표대유적 팽이그릇집자리들의 편년」, 『조선고고연구』 2, 5~10쪽.

41) 배진성, 2015, 앞의 글, 103쪽.

보인다. 주목되는 점은 혈구가 새겨진 석검 혹은 석모 등이 특정단계에 집중적으로 공반되는 현상인데 이를 잘 활용한다면 이지역 미송리형토기의 상대편년은 물론 형식의 변천양상을 추정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미송리형토기의 형식분류 및 편년에 관해서는 현재 매우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1977년 西谷正은 미송리동굴의 상층유물에 대해 新, 高 두 형식으로 구분하면서 전자를 미송리 I형, 후자를 미송리 II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藤口健二는 신암리 모래산 1~3호 주거지 출토품을 신암리 III기유형으로 분류하고, 기물의 형태 및 공반유물에 근거하여 신암리 IIIA형과 신암리 IIIB형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신암리 IIIB형은 미송리동굴 상층유형에 해당된다.⁴³⁾

최근 김미경은 서북한지역 미송리형토기를 형태적 특성과 분포지역의 차이에 따라 A, B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A형은 청천강 이북의 압록강유역에서 유행한 형식으로 전술한 신암리III기유형과 미송리상층유형이 해당된다. B형은 청천강 이남의 대동강유역에서 유행하였으며, 대평리 5호 고인돌, 평양시 남경, 표대유적 출토품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B형토기는 형태 및 문양구성상 A형토기와 차이가 있는데, 이는 기원전 9세기 말 중국 요녕지역에서 유입된 문화요소가 대동강유역 팽이형토기의 영향을 받아 형태상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파악하였다.⁴⁴⁾

김미경이 분류한 청천강 이북지역의 A형토기는 구경부가 짧고 최대 복경이 동체 하단 혹은 중심부에 가까이 위치하는 등 그 형태적 속성이 요동지역의 弦文壺와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동일한 맥락에서 토기의 형식변화 추이를 유추할 수 있겠는데, 동체와 구연부형태 및 공반유물 등에 근거하여 대략 3단계(3식)에 걸친 변화양상을 살필 수 있다.⁴⁵⁾

먼저 1단계(1식)은 신암리와 토성리유적 출토품을 대표로 한다. 장경의 발구 형태

42) 서북한지역에서 미송리형토기와 공반되는 이중구연 토기는 평저를 기본으로 하며, 구연부에 2조의 눌러찍어 새긴 단사선문이 조합되는 공통적 속성을 보인다. 요남지역 고인돌에서 공반되는 침순통형관과 동일한 기종이지만 구연부의 문양새김 수법에서 차이가 보인다.

43) 박순발, 2003, 「미사리유형 형성고」, 『호서고고학』 9, 96쪽 ; 김미경, 2006, 「미송리형 토기의 변천과 성격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60, 76쪽.

44) 김미경, 2006, 위의 글, 74~76쪽.

45) 朱永剛, 2010, 위의 글, 오대양, 2013, 위의 책, 71~74쪽.

및 최대정부의 위치, 횡교상과 구순상과수가 부착된 점이 쌍방 6호, 신성자묘지 출토품과 유사하다. 2단계(2식)는 미송리 I형(미송리유적 상층 제1군)을 대표로 한다. 전단계에 비해 구경이 넓고 길어지며, 동체는 고복해진다. 동체에 횡교상과수 혹은 구순상과수가 대칭으로 있다. 3단계(3식)는 미송리 II형(미송리유적 상층 제2군)을 대표로 한다. 구연부가 전단계에 비해 길고 넓어져서 형태상으로는 목방형토기와 유사하며 전단계에 유행한 횡교상이 대신 뉴상과수가 붙는 특징이 있다.(도면 21)

한편 대동강유역에서 발견되는 B형토기는 A형에 비해 구경부가 넓고 길며, 동체부에 횡교상과수 대신 구순상과수 혹은 뉴상과수가 붙어있거나, 혹은 손잡이가 없는 특징이 보인다. 가장 뚜렷한 특징은 토기바닥이 팽이형토기와 같이 뾰족한 형태를 보인다는 점이다. B형 토기는 손잡이의 유무와 현문형태에 따라 다시 a·b 아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Ba형은 손잡이가 없으며, 동체부 형태의 변화상에 따라 3식으로 나뉜다. 1식 : 동체형태가 아래로 처져 있으며, 바닥은 평저이다(표대 58호 주거지). 2식 : 동체가 고복해지며 세장해진다(대평리 5호 고인돌, 고연리 3호주거지). 3식 : 세장해진 동체부에 X자가 교차 시문된다(표대 11호).

Bb형은 동체 중간부에 뉴상과수가 대칭으로 붙었다. 동체와 구연부 형태변화에 따라 다시 3식 구분된다. 1식: 최대 복경이 동체 하단에 위치한다(표대48호, 남경3호 주거지). 2식 : 기형이 전체적으로 세장해진다(표대5호). 3식 : 목방형토기의 전형으로 동체와 경부가 모두 세장해 지며, 현문대 사이에 삼각문이 시문된다(표대 57호).(도면 22)

이상 A·B형 토기의 편년 및 형식간 선후관계에 대해선 비교적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그중 이글의 A형1식에 해당되는 신암리 출토품은 요남의 쌍방 6호와 그 형태적 유사성에 근거하여 동시기성을 지닌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연대는 기원전 9세기 전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⁴⁶⁾ A형2식은 1식에 비해 구연부가 커지고, 동체는 세장해진다. 형태적 특징만을 놓고 볼 때 A형3식에 비견되는 목방형토기와 의 중간형 정도로 이해하고자 한다.

B형 토기들의 편년에 관련하여 박순발은 팽이형토기 제2단계에 해당되는 남경 3호주거지(본문Bb형1식)에서 공반된 이중구연 평저토기를 요녕지역 점토대토기문화 초기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기원전 9~7세기 사이로 추정하였다.⁴⁷⁾ 이러한 남경 3호 출

46) 朱永剛, 2010, 앞의 글, 93쪽.

47) 박순발, 2004, 「요녕 점토대토기문화의 한반도 정착 과정」, 『금강고고』 창간호.

토 Bb형1식과 동일한 토기가 남경유적 바로 인근에 위치한 표대유적 48호 주거지⁴⁸⁾에서도 출토되었다. 표대 48호에서는 Bb형1식과 함께 혈구가 있는 석모가 출토되었다. 이처럼 혈구가 표현된 석모는 동일한 특징(혈구식)의 석검 및 이단병식과 함께 비교적 이른 시기로 편년되어 왔다. 대체적으로 그 하한연대가 기원전 8세기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들을 참고할 경우⁴⁹⁾, 이러한 특징의 석검 혹은 석모와 공반되는 토기들의 상대편년에 큰 도움이 된다.

표대 48호 출토 석모와 유사한 형태의 것이 황북 덕암리석관묘, 평남 오신리주거지, 평안남도 북창군 대평리유적과 황해북도 황주군 고연리 8호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이중 오신리주거지⁵⁰⁾에서는 표대 48호 출토품과 동일 형식(Bb형1식)의 토기, 3점의 혈구식 석모, 2점의 이중구연 평저토기가 출토되었다. 그중 이중구연의 토기는 남경 3호에서도 Bb형1식의 토기와 공반되어, 이상 3가지 유물들은 모두 동시기성을 가진다. 황주군의 고연리유적⁵¹⁾은 발굴조사를 통해 주거지간 중복관계 및 선후시기가 명확하게 밝혀진 팽이형토기문화의 취락유적이다. 팽이형토기문화 2단계에 속하는 8호 주거지에서는 혈구식 석검과 함께 미송리형 토기의 저부편(추정)이 공반되었다. 8호 주거지와 동일층위에서 발견된 고연리 3호 주거지에서는 Ba형2식 토기가 출토되어 이들 또한 동일 단계로 볼 수 있다. 고연리 8호 석검과 동일한 형식의 혈구식 석검이 대평리유적⁵²⁾에서도 확인되었다. 대평리유적 역시 팽이형토기문화 주거지들과 함께 고인돌과 석관묘가 발굴되었다. 이중 혈구식은 석관묘에서 출토되었으며, 석관묘 인근에 위치한 고인돌에서는 고연리 3호 출토품과 유사한 Ba형2식토기가 출토되었다. 표대유적 5호주거지에서는 Bb형2식 토기가 이단병식의 혈구식 석검과 공반되었다. 표대유적 11호주거지에서 Ba형3식토기와 함께 Bb형1식토기의 재활용품이 출토되었다. Ba형3식은 동체형태 및 문양구성상 묵방형토기와 유사한데 동체부 현문사이에 X자가 연속시문 되었다. 표대 10호와 57호 주거지에서 전형적인 형태의 묵

48)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평양시고대집자리-조선고고학전서11』 진인진.

49) 배진성, 2007, 『무문토기문화의 성립과 계층사회』 서경, 176~177 ; 손준호, 2006, 『청동기시대 마제석기 연구』 서경, 75~87.

50) 김성국, 2008, 「오신리유적의 팽이그릇시기집자리」 『조선고고연구』 2008-1, 3~6쪽.

51)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황해남북도 고대집자리- 조선고고학전서 13(고대편 4)』, 121~168쪽.

52) 정찬영, 1974, 「북창군 대평리유적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4, 사회과학출판사, 138쪽.

방형토기인 Bb형3식이 출토되었다. 그중 표대 10호 주거지에서는 비파형동모와 공반되어 그 시기성을 반영해 준다.(도면 23.24)

목방형토기의 연대범위는 표대 10호에서 공반된 비파형동모의 시간성을 비롯해 전형 유적에서 확인되는 층위관계 및 그 공반유물 관계를 통해 기원전 7~6세기 정도로 볼 수 있다.⁵³⁾ 그런데 혈구식 석검을 통해 상대편년이 가능한 B형토기들의 형태변화만을 놓고 본다면 1식과 2식사이에는 연대상 큰폭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A형토기 중 가장 빠르게 편년되는 신암리 출토품에서 늦은 단계인 목방형토기까지의 형태변화, 유사기종의 아형에 해당되는 서단산형호의 형태변화 관계⁵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3식까지의 형태변화상은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이상을 통해 볼 때 미송리유형의 A·B형 토기는 공반유물 및 토기형태의 변화에 따라 모두 3단계의 발전과정을 생각 할 수 있다. A·B형 모두 최대경부가 동중하에 위치한 형태에서 점차적으로 고복화 및 세장화되는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목방리형의 만기형식으로 변화된다.

미송리유형 1단계의 연대는 A형1식과 쌍방6호와의 비교, 표대유적 48호 주거지 출토 혈구식 석검, 남경 3호 출토 이중구연 평저토기와 공반된 Bb형1식 등을 근거로 기원전 9세기 전후로 편년하겠다. 2단계의 연대는 Bb형2식토기와 함께 출토되는 혈구식과 이단병식 석검의 하한연대를 적용하여 잠정적으로 기원전 8세기로 설정하겠다. 3단계는 Ba형3식(표대11호)과 Bb형3식(표대10, 57호)의 공반유물 및 기형으로 보아 목방형단계인 기원전 7~6세기 전후로 편년한다.

이외에 평양시 남양리유적에서는 팽이형토기문화 4단계에 해당되는 25호 주거지에서 목방형토기에 비해 동체가 더욱 세장해진 남양형토기가 출토되었다. 현재 남양형 토기는 목방형토기보다 한단계 늦은 시기로 편년되고 있으며 미송형토기의 최후형식으로 분류되어 진다.

3. 십이대영자문화에 대한 검토

선행연구에 의하면 요서지역의 청동기문화는 전체 3단계에 걸친 발전과정을 가진다. 제1단계는 하가점 하층문화이며, 그 중심연대는 기원전 20~15세기 전후가 된다. 2단계는

53) 오대양, 2013, 앞의 책, 73~76쪽.

54) 오대양, 2013, 앞의 책, 166~170쪽.

위영자문화로서 기원전 13~11세기 정도로 편년된다. 그런데 기원전 11세기 전후 위영자 문화가 소멸되면서 요서지역의 청동기문화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연속된 위영자단계까지는 동질성이 강한 문화현상들이 이 지역 전체에서 고르게 확인되는 반면, 이시기를 전후로 요서 청동기문화는 동·서 두 개의 권역으로 재편된다. 그 기준은 노로아호산맥을 중심으로 서쪽은 하가점 상층문화, 동쪽은 십이대영자문화에 귀속된다. 현재 이 두 문화에 대해서는 양자의 관계설정을 비롯한 선행문화와의 계승성, 문화를 담당할 족속문제 등에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의 분포범위와 권역설정 및 연대편년 등은 대체적인 합의를 이루어 그 대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하가점 상층문화의 분포범위는 서랍목륜하와 노합하유역에 집중되며, 그 동계는 노로아호산에 도달하여 대체로 하가점 하층문화의 서부권역과 일치한다. 이 지역에서 발굴된 주요유적은 夏家店, 南山根, 龍頭山, 周家地, 紅山後, 小黑石溝遺蹟 등이 있으며 이외 赤峰 巴林右旗 大板南山, 寧城 天巨泉, 梁家營子, 瓦房中, 北山嘴, 孫家溝, 敖漢旗 熱水湯, 東井, 千斤營子, 山灣子 등지에서 대략 수백여기 이상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이처럼 지금까지 발견된 하가점 상층문화의 대다수는 무덤유적에 해당되며 주거유적은 夏家店, 蜘蛛山, 龍頭山遺蹟 등에서 산발적으로 확인된 정도이다. 이외에 보다 특수한 성격의 유적으로 용두산유적에서는 대형의 제사터가, 임서 대정유적에서는 동광유적이 발굴된 바 있다.(지도 3)

발굴된 무덤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석곽묘, 토광수혈묘와 석관묘 등 3종류로 구분된다. 더불어 무덤의 규모 및 부장품 수량과 등급에 따라 다시 소형의 보통 무덤과 중·대형의 귀족무덤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소수의 권력층에게 재화가 집중되는 현상을 유추할 수 있으며 당시 사회가 이미 계급분화가 이루어진 계층사회였음도 알 수 있다.

무덤의 부장유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청동기이다. 종류를 보면 兵器와 車馬器, 工具와 裝飾品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동물문양이 정교하고 화려하게 장식된 점은 이 문화의 가장 특색 있는 부분이다. 먼저 병기류를 보면 劍과 矛, 鏃, 투구(盔) 등이 특징적이다. 먼저 검은 鏃柄式劍과 匕首式劍, 獸面式, 琵琶形式 등이 있는데 형식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정교하고 세밀하게 제작되었고, 복잡한 도안으로 장식된 점이 눈에 띈다. 투구는 기본적으로 정수리가 둥근 활 모양이고, 중앙부에 방형 혹은 동물형상의 꼭지가 달렸다. 좌우 양측 아래에는 귀덮개가 내려와 안면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을 보호해 준다. 이외에 각종 형

식의 鍬과, 矛, 戈, 鉞, 盾, 管鋸斧, 管鋸戈 등이 발견된다. 공구류에는 각종 銅刀(齒柄刀, 環首, 鈴首, 平首, 一字形首, 糾結狀柄 등과 空首斧 및 鏃, 鑿, 錐, 錐形器, 鎬, 鋤 등이 있다. 또한 車馬器가 발달되었는데 銜, 鑣, 軛, 鑿鈴, 當廬, 套管, 別釘, 擺形器 등이 있다. 청동으로 만든 생활용기는 이문화의 가장 특색 있는 기물로 볼 수 있다. 종류에는 罐, 鼎, 鬲, 豆形器, 勺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 鬲, 鼎, 豆 등은 토기의 형태를 그대로 청동기로 만든 것이다. 이외에 각종 장식품과 금기도 발달되었다.(도면 25,26)

토기는 무문의 홍갈색 및 홍색 위주이며 화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대부분 夾沙 토기이며 수제이고, 점토 띠를 이어 붙여 만들었다. 鬲을 주체로 한 鼎과 甗 등의 삼족기가 발달되었고 이외에 罐, 豆, 盆, 碗 등이 있다. 이중 鬲은 하가점 상층문화의 전형 토기로 筒形鬲과 鼓腹鬲이 다수를 차지하고, 동체 양측에 방형의 손잡이가 달린 것이 특징적이다. 문양은 附加堆紋이 많고 소량의 圓滲紋, 篋點紋 등이 확인된다. 점차 늦은 시기로 갈수록 단순한 무문의 紅褐陶가 증가하는데 표면은 磨研되던가 혹은 紅陶衣가 베풀어져 있다(도면 27).

하가점 상층문화의 연대범위는 무덤에서 출토되는 각종 청동기 및 표지유적의 지층관계에 근거하여 산출할 수 있다. 먼저 夏家店, 南山根, 蜘蛛山遺蹟 등의 발굴을 통해 하가점 하층문화 - 상층문화 - 전국시대 등의 순차적인 층위관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南山根, 小黑石溝, 北山嘴, 周家地 등의 대형 석곽묘에서는 周初~春秋時期에 이르는 중원식 鼎, 鬲, 簋 등 청동용기와 戈, 鉞 등 병기가 출토되었다. 이외에 절대연대값이 측정된 용두산 묘지의 M1은 3240±150B.P., 임서 대정유적의 F2에서는 2720±90B.P.과 2970±115B.P. 등으로 이상을 종합하면 서주 초에서 춘추 중기에 이르는 기원전 11세기~기원전 7세기에 해당된다.⁵⁵⁾ 또한 그동안 조사된 전형유적의 분포관계 및 연대편년에 근거하여 이 문화를 용두산유형과 남산근유형으로 구분해 연구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시 각각 전기유형과 후기유형으로 편입된다.⁵⁶⁾

마지막으로 하가점 상층문화의 족속문제에 관해서는 동호설⁵⁷⁾과 산융설⁵⁸⁾이 제기되

55) 林雲, 1998, 「東胡與山戎的考古探索」, 『林雲學術文集』,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387~396쪽.

56) 복기대, 2002, 『요서지역의 청동기시대문화연구』, 146~149쪽.

57) 劉觀民·徐光翼, 1981, 「內蒙古東部地區青銅時代兩種文化」, 『內蒙古文物考古』創刊號 : 勤楓毅, 1987, 「夏家店上層文化及其族屬問題」, 『考古學報』1987-2 : 오강원, 2004, 「중국 동북지역 세 청동단검문화의 문화지형과 교섭관계」, 『선사와 고대』 20 : 조진

어 왔으나 최근에는 산옹이라는 견해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하가점 상층문화의 종족구성 문제가 논쟁이 되는 이유는 이 문화가 차지하는 시·공간적 위치에 있다. 무엇보다 동시기 대릉하유역에서 발전한 십이대영자문화와의 관계 설정에 주된 논점이 있는데 두 문화를 향유한 종족들간의 계통성문제는 고조선의 종족구성문제와도 연결되기에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작용되는 것이다.

십이대영자문화는 1958년 요령성 조양현 십이대영자유적의 발굴을 통해 알려졌다.⁵⁹⁾ 이 문화는 전단계의 위영자문화가 소멸된 이후 하가점 하층문화의 동부권역에 해당되는 노로아호산 이동지역에서 발전하였다. 기본적으로 노로아호산 서쪽의 하가점 상층문화와 병행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하가점 상층문화의 하위유형으로서 십이대영자유형, 혹은 능하유형으로 분류되어왔으나 현재는 양자를 독자적인 문화체계로 인정하고 있다. 이 문화의 분포범위는 하가점 하층문화의 동부권역에 해당되는 대·소릉하유역에 집중된다. 동으로는 의무려산 산록, 서로는 노로아호산 산록, 북으로는 부신 이남지역, 남으로는 요령성 남서부와 하북성 동북부의 접경지역에 이른다.⁶⁰⁾(지도 4)

연대 범위는 표준유적의 지층관계 및 출토청동기에 근거하여 산출할 수 있다. 먼저 향양령과 남구문묘지에서 확인된 위영자문화 - 십이대영자문화 - 전국문화 등의 종합적 지층관계를 통해 이문화의 상대연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십이대영자, 오금당, 남동구, 삼관전자와 노야묘⁶¹⁾ 등에서 출토된 비파형동검과 조문경 및 각종 청동기물의 유형학적 분석을 통해 서주 중기에서 전국 중기에 이르는 기원전 10~4세기로 편년된다.

하가점 상층문화와 마찬가지로 이문화 역시 발굴된 유적은 주로 무덤이 많다. 출토유물은 대부분 청동기인데, 종류에는 비파형동검, 罽柄式劍, 匕首式劍, 粗紋鏡, 劍鞘, 矛, 刀, 斧, 鏃, 馬具, 裝飾品, 투구 등이 있다. 이중 비파형동검과 조문경 및 호랑이, 늑대, 사슴,

선, 2010, 「遼西地域 청동기문화의 발전과정과 성격」, 『遼河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 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184-186쪽.

58) 林雲, 1998, 위의 글, 387~396쪽 : 朱永剛, 1987, 「夏家店上層文化的初步研究」, 『考古學文化論集(1)』文物出版社 : 박준형, 2012,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연구』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0~45쪽.

59) 朱貴, 1960, 「遼寧朝陽十二臺營子青銅短劍墓」, 『考古學報』, 1960-1.

60) 복기대, 2002, 앞의 책, 224쪽.

61) 劉大志·柴貴民, 1993, 「喀左老爺廟鄉青銅短劍墓」, 『遼海文物學刊』, 1993-2.

뱀, 개구리, 가오리, 새 및 인면 등 독특한 문양의 佩飾은 이문화의 대표성을 가진다. 연구의 초창기 하가점 상층문화의 하위유형으로 인식되던 분위기에서 이상 각종 청동기 조합과 문화 내용의 독자성이 인정되면서 점차 독립적인 문화유형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무덤유적 이외에도 수천, 안장자, 향양령과 하동유적 등에서 주거지와 窟穴 및 灰坑 등이 확인되었다. 이 중 수천유적의 窟穴에서는 조와 기장 등의 탄화된 곡물이 검출되었으며 이와 함께 斧, 刀, 杵, 臼, 磨盤, 磨棒 등 석제 농기류와 그물추와 낚시 바늘 등의 어구 등이 출토되어 이 문화의 복합적인 경제형태를 반영해 준다.

이 문화에서 완형으로 발견된 토기는 많지 않아 구체적인 분석이 어렵다. 그러나 초기유적으로 편년되는 화상구묘지와 중기의 남동구 석곽묘, 후기의 삼관전자묘지 등에서 세트관계를 보이는 일련의 토기군이 확인되어 시기별 변천양상을 알 수 있다. 먼저 유행한 종류를 보면 鬲과 鼎, 罐, 壺, 鉢, 碗, 杯 등인데 전단계의 문화들에 비해 삼족기의 수량이 적은 편이다. 초기에는 대부분 夾沙 紅陶 혹은 紅褐陶가 많고, 표면이 마연된 무문토기가 주종을 이룬다. 늦은 시기로 갈수록 夾沙 灰褐陶와 泥質灰陶의 증가를 보이며, 이중구연(外疊脣)과 손잡이(橫耳) 달린 것이 증가한다(도면 28~31).

최근 이 문화와 관련되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고조선과의 연관성에 있다. 이청규는 십이대영자문화를 예맥 혹은 고조선문화의 실체로 보고 관련유적에서 출토되는 다뉴경을 표지로 하여 고조선의 중심지는 대릉하 상류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⁶²⁾ 결국 고조선의 역사실체에 대응하는 문화는 조양 십이대영자문화에서 심양 정가와자문화로, 다시 북한의 평양 신성동유적과 연결되는 데 이를 바탕으로 고조선의 중심집단 변화양상을 파악한 것이다.⁶³⁾ 이 같은 논점은 다뉴경을 표지로 한 청동기문화의 위치변화를 고조선 중심지 이동론과 연결해 파악하려는 입장과 연결된다.⁶⁴⁾

박준형 역시 이와 유사한 논지를 전개하였다. 대릉하 - 서북한지역에서 확인되는 비파형동검문화와 문헌관계 사료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서 고조선의 위치문제를 검토한 점에 주목된다. 그는 전기 비파형동검문화의 중심은 기원전 8세기 전후 대릉하유역의 십이대영자유형이며 후기 비파형동검문화 중심은 기원전 5세기전후 심양지역으로 이동하였다고

62) 이청규, 2007, 「청동기를 통해서 본 고조선과 주변사회」, 『고조선의 역사를 찾아서』, 112쪽.

63) 이청규, 2011, 「고조선과 요하문명」, 『한국사시민강좌』 49, 85~91쪽.

64) 조법중, 2013, 「고조선의 중심지 및 도읍관련 논의와 쟁점」, 『고조선.위만조선과 동아시아의 고대문화』 제43회 동양학국제학술회의 자료집.

보았다.⁶⁵⁾ 여기에는 비파형동검문화의 중심지 이동이 곧 고조선문화의 변동과 상관되며 조양지역을 중심으로 한 십이대영자문화가 바로 고조선의 초기중심지였음을 내포한다.

한편 십이대영자문화의 소멸과 관련하여 조진선은 하가점 상층문화와 십이대영자문화의 족속문제를 토론하면서, 기원전 4~3세기 전후 두 문화의 갑작스런 종말은 진개의 동호, 고조선 침입과 결부되며 하가점 상층이 동호, 십이대영자문화가 고조선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았다.⁶⁶⁾ 오강원은 기원전 4세기 십이대영자문화의 후기유형인 남동구문화를 위락의 조선후와 관련된 기사로 파악하였고 십양의 정가와자 유형은 준왕 이전의 고조선으로 보았다. 그는 결국 이들 두 개의 조선이 요서와 요동에 별도로 존재하다가 기원전 3세기 초 진개의 공격으로 인해 모두 복속되었다고 보았다.⁶⁷⁾

이상 십이대영자문화를 고조선문화에 비정하면서 그 중심지 이동을 조양 - 십양 - 평양지역으로 보는 논지에는 선진문헌의 기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여기에는 관련기사의 추정연대 및 고조선의 표지유물에 관계되는 문화의 중심지이동이 대략적인 부합을 이루는 면에서 설득력이 강하며, 석곽(목관)묘계열의 무덤 및 비파형동검과 조문경의 조합이라는 측면에서 십이대영자문화의 각종 지방유형들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킨다.

IV. 고조선 문화에 대한 검토

앞에서 서북한지역 미송리형토기의 분포범위는 청천강을 경계로 이북의 압록강 중·하류와 청천강이남의 대동강유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지역별로 형태와 문양적 속성에서 일련의 차이가 간취됨을 확인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요동지역의 미송리형토기 또한 그 변화상을 유추할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미송리형토기의 분포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그 형식특징 또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있는 공통적인 표준을 잡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덧붙여 최근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자료들을 보다 정치

65) 박준형, 2012, 「대릉하-서북한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변동과 고조선의 위치」, 『한국고대사연구』 66, 203~204쪽.

66) 조진선, 「요서지역 청동기문화의 발전과정과 성격」,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184-186쪽.

67) 오강원, 2013, 「청동기-철기시대 요령,서북한 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와 고조선」, 『동양학』 53.

하게 검토해보면, 서북한지역은 물론 요동지역에서도 현문의 전형적인 형태의 것과 무문양의 것이 공반되는 현상이 확인된다.⁶⁸⁾ 이들은 장식적 속성을 제외한 나머지의 특징(형태적 속성)이 전형의 것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들 역시 미송리형토기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⁶⁹⁾

사실 미송리형토기의 시공간적 범위와 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현문과 손잡이라는 장식적 요소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될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문양구성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형태적 특징 속에 각 유형별로 각자의 개성들이 매우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송리형토기를 규정 짓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는 鉢口, 弦文, 각종 손잡이 형식 등이 포함된다. 발구, 즉 단면 표주박형의 형태에서는 罐形의 토기 상부에 鉢形토기가 복합된 구조의 특이점을 보인다. 이러한 형태는 이미 마성자문화 2·3단계의 유적(산성자B동4호, 장가보A동31호,34호)을 비롯한 고대산(공주둔후산T31호), 하가점 하층문화(대전자459호) 등의 관련유적에서도 드물게 확인되고 있다.(도면 32-1~6) 현문적 요소는 쌍타자문화계열 토기의 보편적 특징이며 그중에서도 쌍타자 3기(타두)에 특히 유행된다.⁷⁰⁾(도면 6, 도면 32-7~10) 또한 미송리형토기의 손잡이는 장식적 요소가 매우 강한 편인데, 이중 횡교상과수는 마성자문화에서, 수교상은 고대산문화, 구순상은 쌍타자 3기문화 토기에 주로 배풀어지던 장식적 요소이다. 이러한 문양속성들은 당시의 개성과 함께 주변지역의 제요소가 복합되어 매우 다양하게 응용·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쌍방 6호나 신성자묘지, 혹은 신암리주거지에서 확인되는 현문과 각종 손잡이(횡교와 구순상과수)의 복합양상은 이 유형 토기의 정형화된 패턴이 아니라, 어느 한 지역을 대표하거나 혹은 특정시기에 유행된 시간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형태적 속성은 단면 표주박형이라는 기본형태가 분포지역 전체에 걸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대동강유역에서는 그 바닥형태가 팽이형토기의 것을 많이 닮아 있어, 변이현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 역시 단면 표주박

68) 발생기적 특징을 강하게 보여주는 마성자관계의 동굴유적 및 요남의 타두유적에서도 무문양과 유문양의 것이 함께 발견되며, 현재 대부분의 관련유적에서도 이들의 공존관계가 뚜렷히 간취되고 있다.

69) 王巍, 2004, 앞의 글 : 朱永剛, 2010, 앞의 글 : 吳大洋, 2013 : 오강원, 2014, 「요동~서북한지역 미송리형호의 지역문화와 사회문화적 함의」, 『한국상고사학보』 85.

70) 마성자문화에서 간헐적으로 보이는 현문적 속성은 쌍타자 3기문화와의 관계성 속에서 파악해야 된다.

형이라는 기본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미송리형토기의 각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주요 특징이 되는 표주박형 단면(장경발구형)을 가지며, 교상파수와 뉴상 혹은 구순상파수가 붙어 있으나 무문인 토기, 혹은 발구형에 손잡이 없이 현문만 있는 것, 구연이 단경사구형에 무문이지만 전형의 손잡이가 달린 것, 무문에 손잡이가 없으나 발구형으로 단면이 표주박형을 보이는 것 등등 매우 다양한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형태적, 장식적 속성들을 정리하여 유형화 시킨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A)무문의 (Ⅰ)장경발구형 - (a)손잡이 있는 것, (b)없는 것
- (A)무문의 (Ⅱ)단경사구형 - (a)손잡이 있는 것 (b)없는 것
- (B)현문의 (Ⅰ)단경사구형 - (a)손잡이 있는 것 (b)없는 것
- (B)현문의 (Ⅱ)장경발구형 - (a)손잡이 있는 것 (b)없는 것

A : 요북형(장가보형), 장경발구의 단면 표주박형 패턴을 기본으로 그 형태적 속성이 강하게 전승되며, 여기에 다양한 패턴의 장식적 요소가 파생된다. 이중 한 갈래가 당지에서 신성자유형(현문과 무문, 손잡이)으로 발전되며, 다른 한 갈래는 길림의 서단산유형(무문, 손잡이)과 동요하 하류의 후태평유형⁷¹⁾(단순무문)으로 파생된다.

B : 요남형(타두형), 현문과 구순상파수와 같은 장식적 속성을 기본으로 한다. 당지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형태적 속성(단경사구)과 함께 주변지역으로 확산된다.

※ 장식적 속성 중 현문과 구순상파수는 요남의 쌍타자계열, 장경발구와 횡교상파수, 수교상파수는 요북의 마성자와 고대산문화에서 그 계통성을 찾을 수 있다.

※ A형은 주로 요북지역에서 보편적이며, 요남지역에선 AⅡ형만 드물게 확인된다.

※ BI형은 요동지역 전체에서 보편적인데, 그중 BIa형이 요북지역에서는 횡교상파수와 구순상파수가 공존, 요남에서는 구순상파수만 초기유적인 타두묘지에서 확인된다.

※ BⅡa형은 전지역에 걸쳐 가장 보편적인 형식, 하지만 대동강유역 BⅡa형의 손잡이는 모두 구순상 혹은 뉴상파수의 형태 보인다. 또한 BⅡb형은 대동강유역에서 주로 확인되어,

7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等, 2011, 『后太平 - 東遼河下流右岸以青銅時代遺存爲主的調查與發掘』, 文物出版社: 鄭淑敏, 2014, 『后太平墓地再研究』 吉林大碩士論文.

대동강유역의 미송리형토기(B형)는 요남의 타두유적과 보다 친연성이 강한 것으로, 청천강이북지역(A형)은 남·북 두지역의 제요소가 복합된 양상으로 전개된다.

아직까지 어느 형식의 것이 시원적 형태인지에 대해선 정설이 없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년대가 가장 빠른 것은 장가보(A형)와 타두유적(B형) 출토품이라는 인식이 공통적이다. (도면 32) 두 유적은 편년관계상 기원전 14~12세기 전후의 동시기성을 보이기에, 양자는 남·북 각지에서 공존 하다가 산성자 C동굴(BIIa-구순상과수:도33-1)과 동산묘지(BIa-횡교상과수:도33-2.3)에서 두 요소가 복합되는 현상(기원전 11~10세기 전후)이 서로 다른 패턴으로 유형화되며, 쌍방과 신성자단계(기원전 9~8세기)에서는 모든 요소가 완전히 복합되는 양상으로 이해된다(도면 33-4.5). 하지만 대동강유역(B형)의 미송리유형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가 보여 지는데, 팽이형토기의 전통을 강하게 계승하면서 여기에 현문과 구순상(혹은 누상) 과수라는 쌍타자계열(타두)의 요소가 복합되어 나타난다.(도면 33.6.7)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쌍방유형의 묘제는 탁자형 고인돌과 적석총 위주의 쌍타자문화계열로 볼 수 있으며, 신성자유형은 개석형 고인돌과 석관묘 위주의 마성자문화계열에 포함된다. 반면 미송리유형은 탁자형과 개석형고인돌, 석관묘, 적석묘 등 제요소가 복합된 양상을 보이며 그 바탕이 되는 팽이형토기문화와 오랫동안 병행된다. 이상 3가지 계열의 문화가 특정시기가 되면 강한 보편성을 보여주는 동질적인 문화로 귀속되는 현상은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그런데 여기서 비파형동검관계 청동유물을 포함시켜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경우, 기원전 9~8세기 전후 요서, 요동, 서북한지역은 비파형동검관련 청동기문화, 미송리형토기문화, 고인돌·석관묘·적석묘·석곽(목관)묘 위주의 석묘문화 등이 복합된 매우 종합적인 형태의 문화내용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요남지역의 탁자형(판석식묘실) 고인돌과 적석총유적, 요북의 개석형(토광, 석축,훈축식묘실) 고인돌과 석관묘유적을 과연 동일한 하나의 문화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검토는 미송리문화의 주체가 되는 제요소들이 모두 석제를 장구로 한 무덤에서 확인된 다는 점에 중요하다.

현재 요동지역 고인돌의 기원문제와 상한연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주로 기원전 10세기를 전후한 시점에는 요동반도와 서북한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채택된 무덤양식라는 점에 합의를 보고 있다. 그런데 최근 벽류하유역의 탁자형 고인돌에서 쌍타자 2기문화로 소급시킬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되고 있으며, 묘실의 구조 및 축조방법 등이 쌍타자 3기의 적석총 혹은 마성자문화의 동굴무덤 구조와 매우 유사하여 주목된다. 즉, 이지

역 탁자형 고인돌은 쌍타자 및 마성자문화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출현 및 발전 하였음을 알 수 있다.⁷²⁾ 서북한지역 고인돌의 출현과 확산과정은 이러한 요동지역과 연계 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대동강하구의 서해안지역에서는 기원전 13세를 전후한 시점부터 탁자형고인돌이 축조되는데, 구조는 물론 출토유물상에 있어 동시기 요동반도의 것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양자는 동일한계통의 사람들이 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석형고인돌은 태자하구역의 마성자문화 사람들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 중 요동반도의 고인돌문화와 접촉하여 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 가장 빠른 연대를 보이는 것이 봉성 동산유적에서 확인되었는데 커다란 덮개돌 밑으로 토광형의 묘실을 두었고, 그 내부에서는 마성자문화 후기단계의 전형토기가 출토되었다. 따라서 동산유적의 개석Ⅰ식(토광식묘실)은 기원전 12~11세기 전후로 편년 할 수 있다. 또한 동산유적의 개석Ⅱ식(석축식묘실)에서는 고식의 미송리형토기 출토되었다. 본계 대편지유적에서는 개석Ⅱ식과 Ⅲ식(괴석+판석혼축식묘실)에서 전형의 미송리형토기가 출토되었고, 개석Ⅲ식이 발굴된 개원 건재촌에서는 후기형식의 미송리형토기가 수습되었다. 북한의 대동강유역에서는 기원전 7세기 전후부터 개석Ⅱ식과 Ⅲ식이 축조되기 시작하며, 묘실에서 목방형토기가 출토된다.⁷³⁾

한편 마성자문화 후기단계인 기원전 12세기 전후, 동굴무덤의 전통을 고수하던 사람들이 점차 동굴바깥으로 탈피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와 동시에 태자하유역을 중심으로 한 요북지역에서는 새로운 무덤양식인 석관묘전통이 시작되는데 원시형태의 석관묘들이 동굴무덤내부에서도 확인되며 양자의 출토유물이 동일함을 통해볼 때 초기의 석관묘유적은 마성자문화에 속할 수 있다. 이처럼 태자하구역의 마성자문화가 점차 동굴바깥으로 벗어나는 과정 중 인접한 대양하구역에서 쌍타자3기의 고인돌문화와 접촉하게 된다. 그 결과 동산유적에서는 고인돌의 주요특징인 덮개돌을 가지면서 묘실구조와 유물은 동굴무덤의 전통을 유지하는 개석형이 축조된다. 이후 본계 대편지유적과 개원 건재촌유적을 걸쳐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중 기원전 7세기를 전후한 시점 대동강유역으로까지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⁷⁴⁾

요남지역의 적석총문화는 소주산 상층문화단계에 이미 등장하며, 쌍타자 1기문화에는 매우 보편적인 무덤양식으로 자리 잡는다. 기원전 25~20세기 초반으로 설정되는 이 시기

72) 백종오·오대양, 2014, 앞의 책, 68~69쪽.

73) 오대양, 2014, 앞의 글, 101~102쪽.

74) 오대양, 2013, 앞의 책, 177~181쪽.

요남지역의 문화는 산동반도의 용산문화와 친연성이 매우 강한 것은 사실이나, 적석총의 축조 전통은 당지의 고유한 문화유산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쌍타자 2기문화에 돌연 적석총 축조 전통이 단절되며 바로 이때 요북지역 마성자문화의 동굴묘에서 돌을 재료로 쓴 무덤과 쌍타자문화계열의 유물이 보편화되기 시작한다. 쌍타자2기에서 3기초반에는 요동반도의 벽류하유역에서 고인돌축조가 시작되며, 요동반도 남단에서는 적석총문화가 재등장한다. 이때(쌍타자3기)의 적석총은 쌍타자1기의 전통을 모방 혹은 계승하였음이 분명하며 고인돌과 적석총의 구조와 장속, 유물방면 등이 매우 닮아 있다.

요동반도에서 고인들이 처음 등장하는 벽류하유역은 쌍타자문화와 마성자문화의 중간 지점에 해당된다. 이지역에서 처음 출현한 판석을 세워 묘실을 만든 구조의 고인돌(판석형)과 석관묘의 묘실형태는 동시기 유행한 마성자문화의 석관묘제와 매우 닮아 있으며 그 내부에서는 쌍타자 2기문화와 마성자 2~3기문화의 전형토기가 공반되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벽류하유역의 초기 고인돌과 석관묘는 쌍타자문화와 마성자문화 사람들의 교류 혹은 문화융합과정을 통해 두 문화의 중간지점에서 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쌍타자 3기가 되면 묘실주변으로 대규모의 적석시설이 부가된 탁자형 고인돌(개주 화가와보유적)이 등장하는데 그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그전 단계의 것을 그대로 계승하여 발전된다. 즉, 이미 이단계부터 석관묘(마성자문화), 고인돌·적석총문화(쌍타자문화)는 상호 복합적인 문화요소를 내포하게 된다. 더불어 미송리문화단계(쌍방유형)의 쌍방묘지에서는 전형적인 탁자형 고인돌과 여러 개의 판석을 이어세운 초기유형의 것이 동시에 발견되며 출토유물 역시 전단계와 계승관계를 보인다.

쌍방유형의 적석총은 묘실구조 및 장속특징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 먼저, 묘실의 축조는 보편적으로 깨진돌이나 막돌을 쌓아 만들던 것이 점차 판석을 세우거나 쌓는 형식으로 변화되며, 내부에서는 직접화장 혹은 간접화장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징은 동시기 벽류하유역에서 유행한 고인돌의 구조 및 장속특징과 유사하기에 양자는 동일한 문화의 개별 묘제로 볼 수 있다. 앞서 요동지역 고인돌문화의 형성과정을 요남의 쌍타자와 요북의 마성자문화의 융합과정으로 이해하였다. 그 후속문화에 해당되는 미송리문화는 요남(쌍방유형)과 요북지역(신성자유형)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기에 이문화가 선행 두 문화의 결합을 통해 하나로 통합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미송리문화단계의 고인돌과 적석총, 석관묘 등은 모두 전단계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여 해당지역에서 자체적인 발전과정을 거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기원전 15~11세기 전후

요남의 적석총과 요북의 동굴묘(석관묘), 그리고 그 중간지대의 고인돌은 모두 그 분포권역에서 확연한 차이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송리문화단계에는 고인돌과 석관묘가 요북, 길림, 서북한지역 등에서 미송리형토기와 비파형동검(혹은 혈구식석검)이라는 공통적인 문화내용을 포함하며 각각의 지방유형으로 자리 잡는다. 하지만 요남지역에서는 적석총(반도남단)과 고인돌(벽류하), 석관묘(태자하)가 각각의 분포권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비록 선행 두문화가 융합되는 과정 중 그 중간지점에서 고인돌이라는 특수한 묘제가 출현하였지만 당지의 토착전통과 묘제는 지속적으로 고수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요서지역의 비파형동검 관계문화(십이대영자문화)는 고인돌, 석관묘, 적석총 등과 함께 미송리문화를 대표하는 한축이 된다. 현재 이문화의 중심은 요서에서 요동으로 이동된다는 견해⁷⁵⁾가 있어 참고 할 수 있는데, 석곽(목관)묘를 포함하는 비파형동검관계 청동기문화를 고조선 중심세력의 표지로 볼 수 있다면⁷⁶⁾ 석관묘(동굴묘)와 적석총문화는 당지의 토착문화로, 고인돌은 석관묘(동굴묘)와 적석총의 복합문화, 석곽(목관)묘문화는 선진외래문화요소로 볼 수 있다. 요컨대, 기원전 9~6세기 미송리문화는 당지의 전통문화가 복합된 고인돌문화를 중심으로 당대의 선진문화(비파형동검문화=십이대영자문화)를 수용하여 발전한 고조선왕국의 한 지역문화로 볼 수 있겠다.

75) 오강원, 2006, 위의 책.

76) 이청규, 2011, 위의 책, 85-91쪽 : 박준형, 2012, 위의 책, 203-204쪽.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미송리문화는 매우 다양한 양상의 내용을 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엇 한 가지를 정하여 이 문화를 대표하는 정체성으로 삼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

미송리문화를 형성하는 큰 줄기에는 미송리형관계 토기조합, 비파형동검관련 제 청동기문화, 고인돌로 대표되는 석묘문화 등으로 대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큰 줄기에서 파생된 다양한 유물·유적의 복합체는 매우 다채로운 양상으로 전개된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한민족, 한문화의 성격을 이야기 할 때, 북방과 남방의 문화가 적절하게 어울려진 보다 종합적인 양상에서 이해를 구하듯이 어느 한 요소만을 특별히 부각해서는 우리문화의 원형을 온전히 표현해 낼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미송리문화에는 매우 다양한 지역별 문화가 복합되어 표현되기 때문에 그 뚜렷한 특성과 정체성을 규정짓는 작업은 좀처럼 쉽지가 않으며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처럼 미송리문화의 성격을 검토함에 있어 밀려드는 일련의 부담감과 책임감은 이 문화를 곧바로 고조선문화로 이해하려는 막연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아직까지 고조선문화를 규정지을 뚜렷한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양자를 동일한 맥락으로 접근하기에 그 상충점이 발생된다고 보여 진다.

우선적으로 고조선문화에 대한 정의와 시공간적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학술회의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서는 미송리문화를, 잠정적으로나마 고조선문화를 형성하는 큰 줄기 정도로 이해하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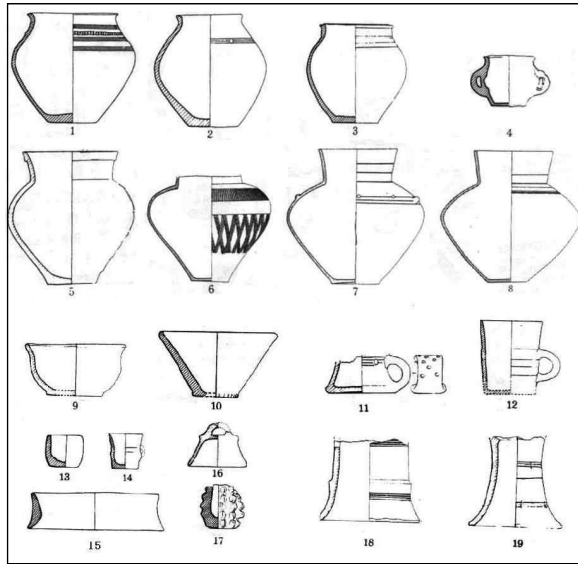
< 도면 및 지도 >



<지도1> 쌍타자문화의 적석총과 주거유적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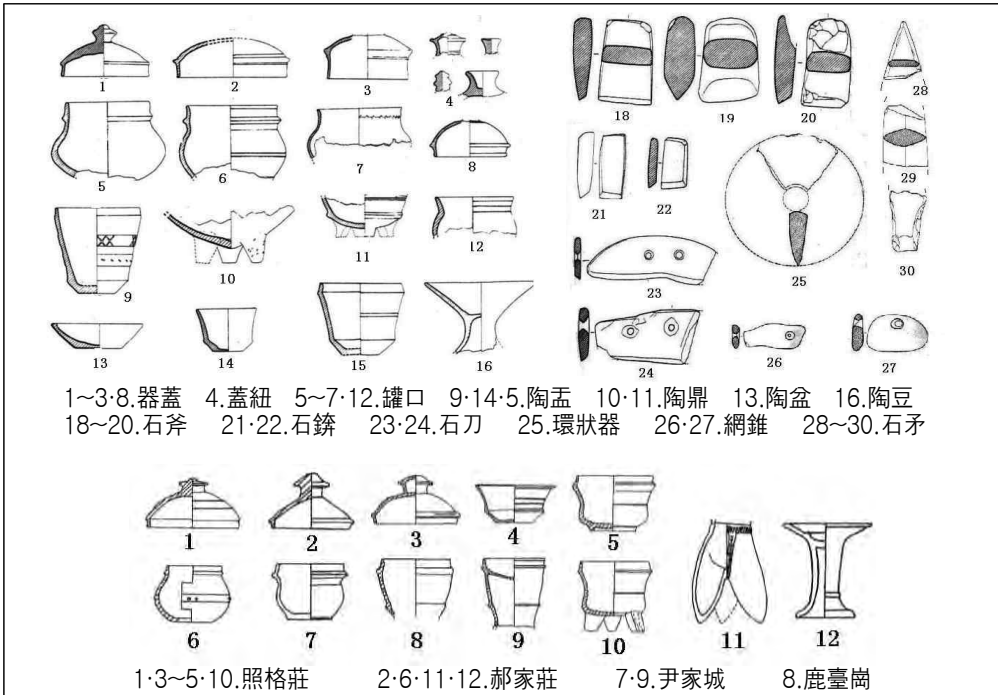
<지도2> 마성자문화의 동굴유적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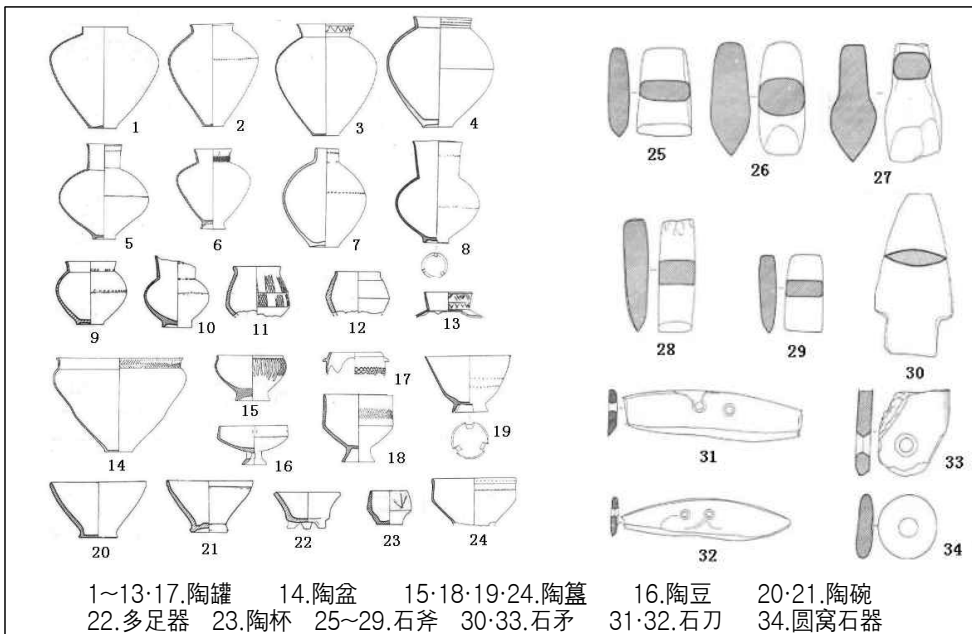
<도면 1> 쌍타자유적 하층 출토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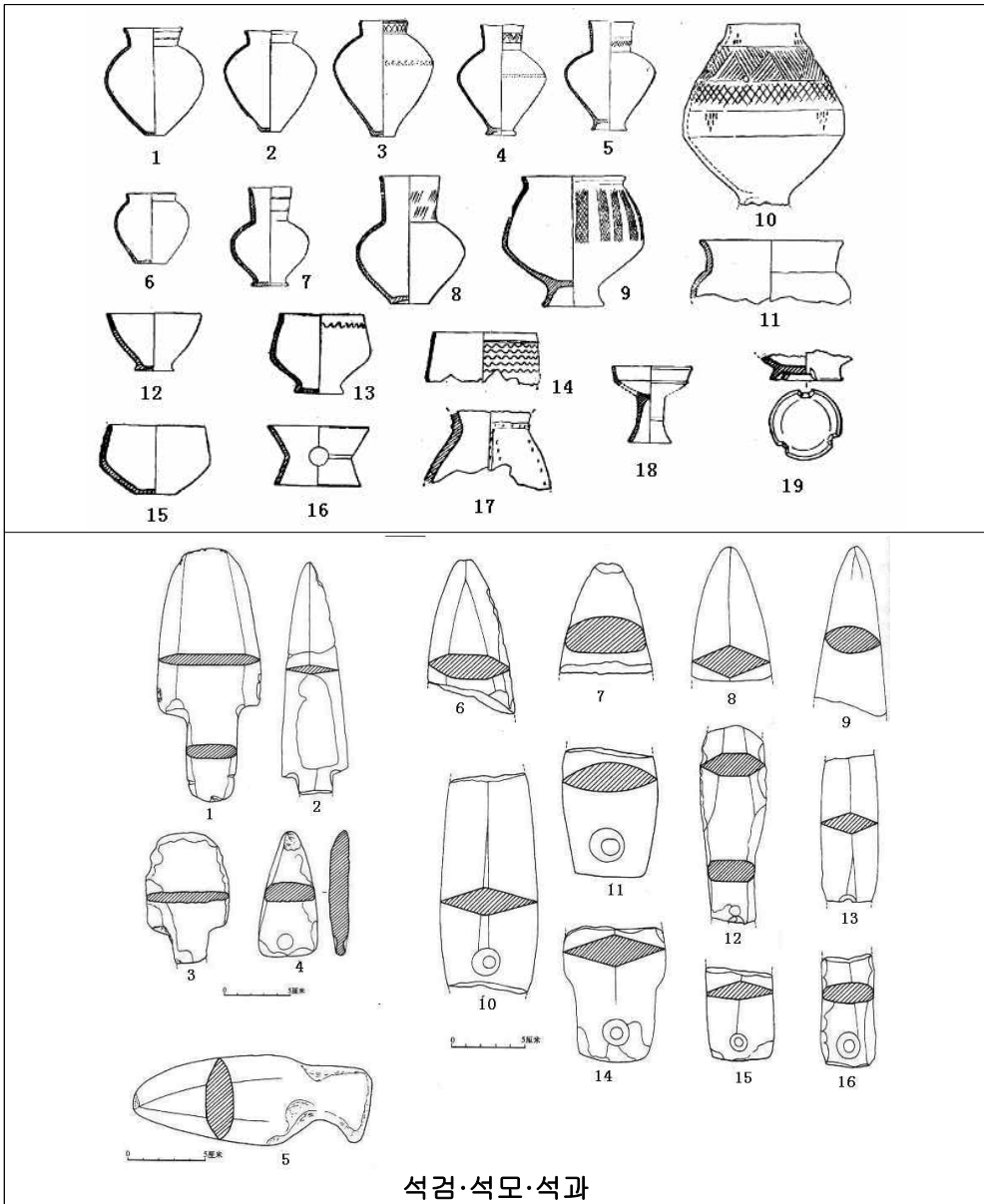
<도면 2> 쌍타자1기 적석총 및 관련문화 출토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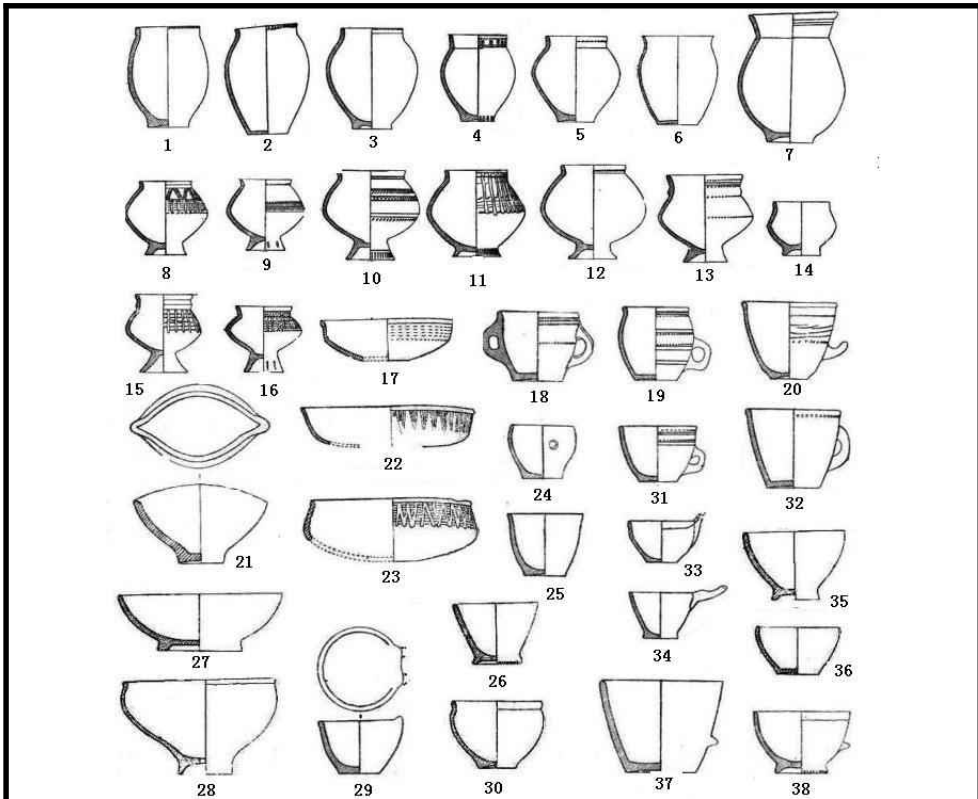
<도면 3> 쌍타자유적 중층(上) 및 악석문화유적(下) 출토 토기 비교



<도면 4> 쌍타자유적 상층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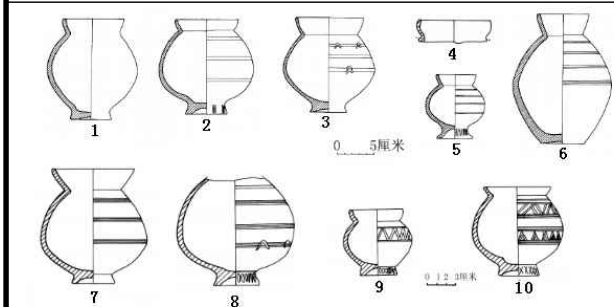


<도면 5> 대취자유적 상층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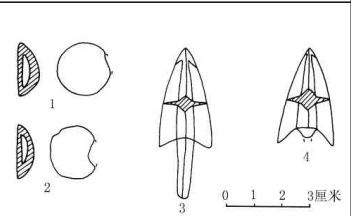
각종 토기류

1~16.陶罐 17·22·23.陶盆 21.舟形器 18~20·24·25·29·31~34·37·38.陶杯 26~28·30·35·36.陶鉢
 (1·27.M25 : 1·2, 2.M46 : 3, 3·5·29.M51 : 4·3·6, 4·35.M44 : 3·2, 6·8·19·38.M3 : 2·3·1·4, 7.M3
 9 : 2, 9·18·32.M8 : 1·4·2, 10·26.M31 : 2·4, 11·25.M21 : 5·6, 12.M13 : 1, 13.M9 : 1, 14.M48 :
 1, 15.M24 : 2, 16.M15 : 2, 17.M46 : 2, 20.M42 : 7, 21·36.M38 : 1·3, 22·23·30.M28 : 2·3·1,
 24·33.M55 : 1·5, 28·37.M11 : 2·1, 31·34.M41 : 1·2)



각종 현문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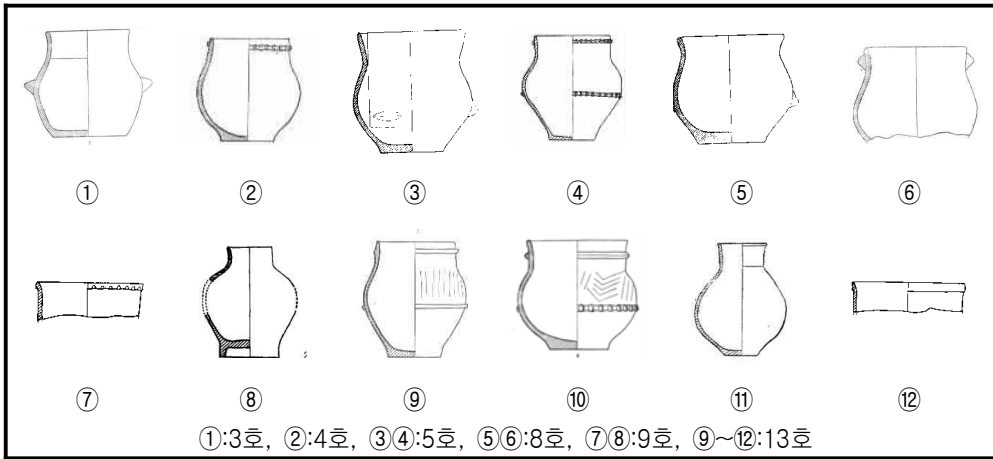
1.M21:2, 2.M36:1, 3.M40:1, 4.采集:1, 5.M42:1,
 6.M30:2, 7.M45:1, 8.M41:3, 9.M21:3, 10.M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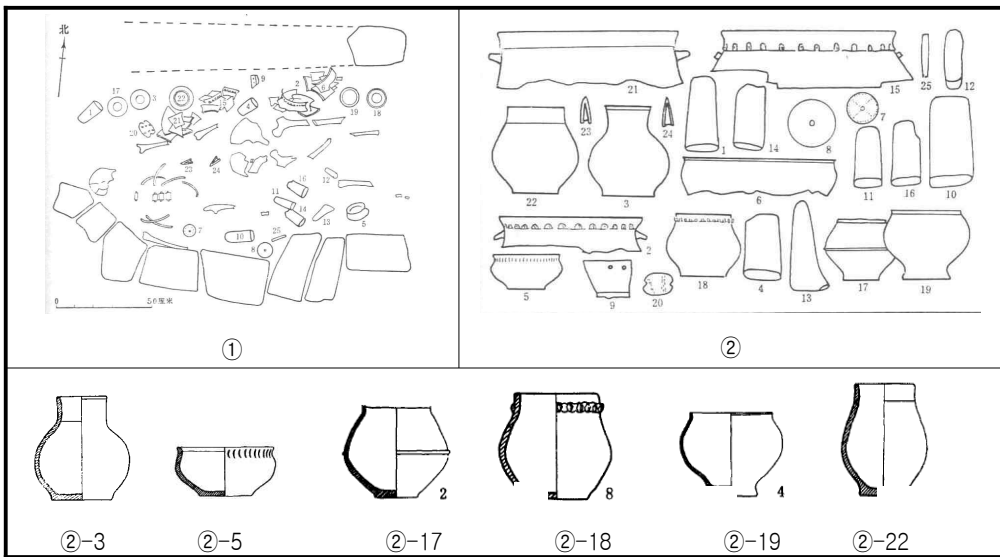
청동단추와 동촉

1·2. M38 : 5, M38 : 6,
 3·4. M24 : 5, M24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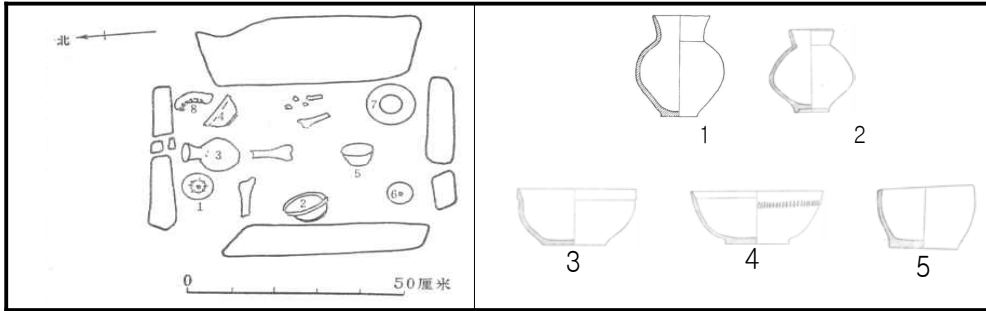
<도면 6> 우가촌 타두묘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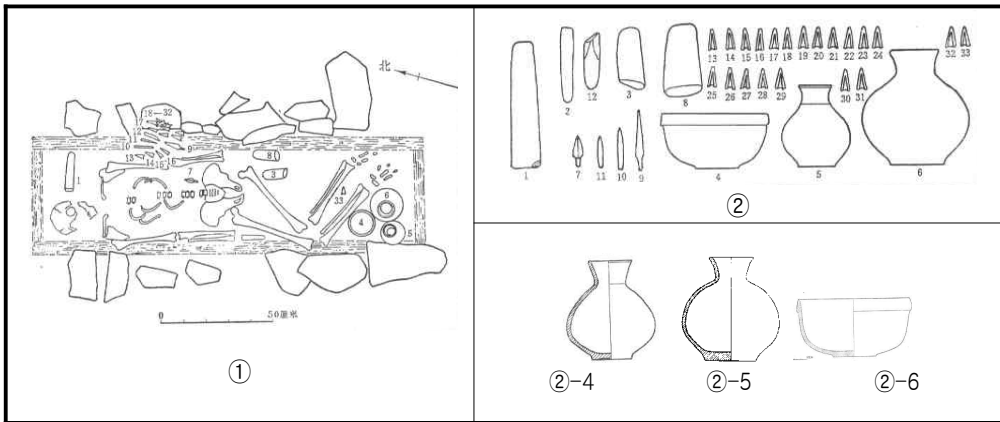
<도면 7> 마성자 동굴 B동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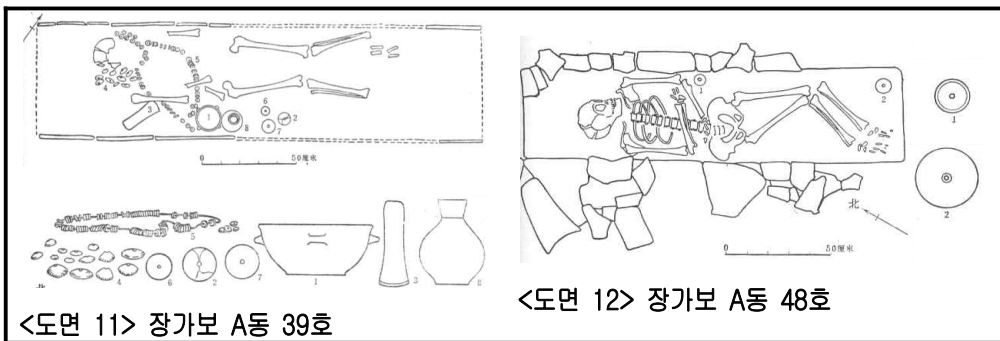
<도면 8> 마성자 동굴 A동 12호묘 및 출토유물



<도면 9> 산성자 B동 4호 및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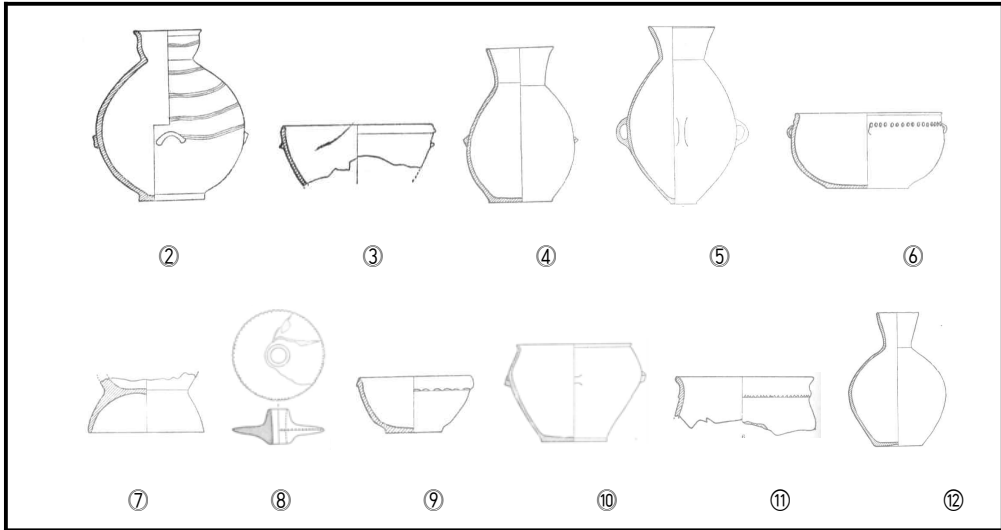


<도면 10> 장가보 A동 42호묘 및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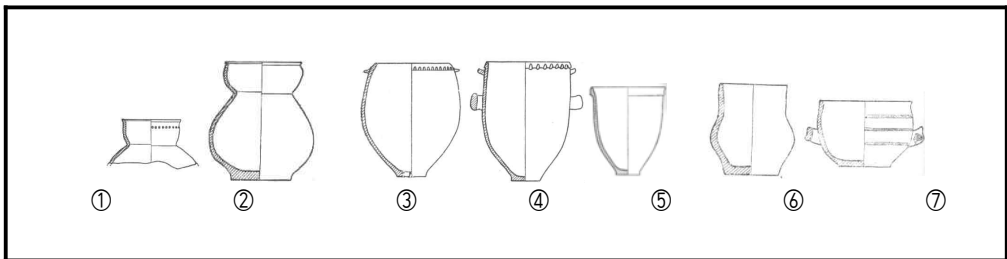
<도면 11> 장가보 A동 39호

<도면 12> 장가보 A동 4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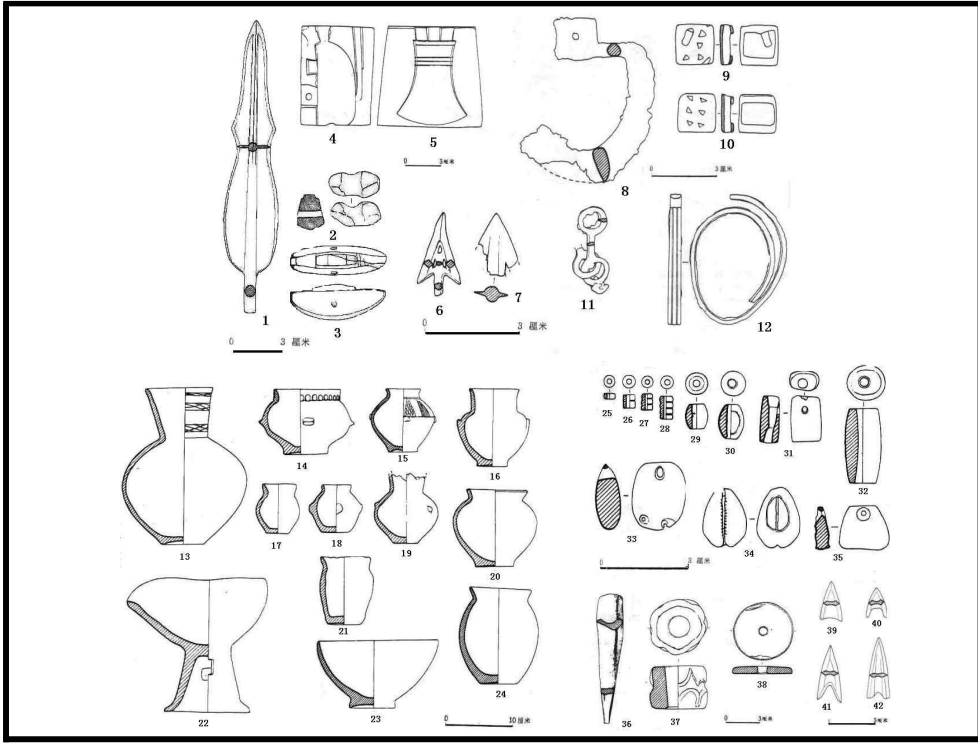
<도면 13> 산성자 C동 출토유물

(②③:2호 ④:5호 ⑤⑥:7호 ⑦:8호 ⑧:9호 ⑨⑩:10호 ⑪⑫: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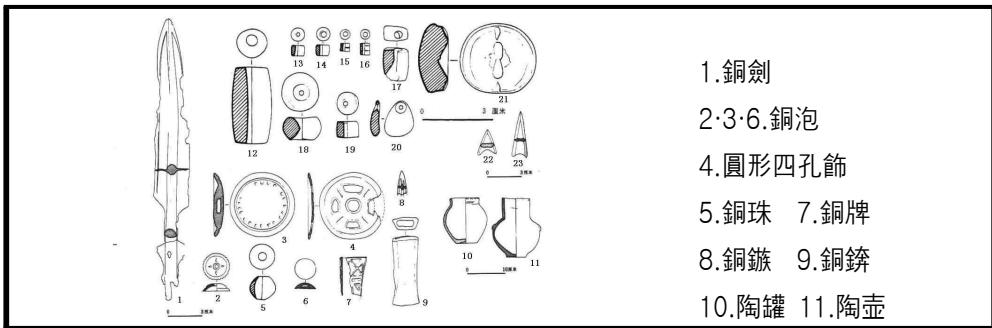


<도면 14> 장가보 A동의 특징적 유물

(①ZAM31:7(3-1층) ②ZAM34:12(3-1층) ③ZAM36:17(3-1층) ④ZAM50:1(4층)
⑤ZAM31:8(3-1층) ⑥ZAM50:7(4층) ⑦ZAM45:6(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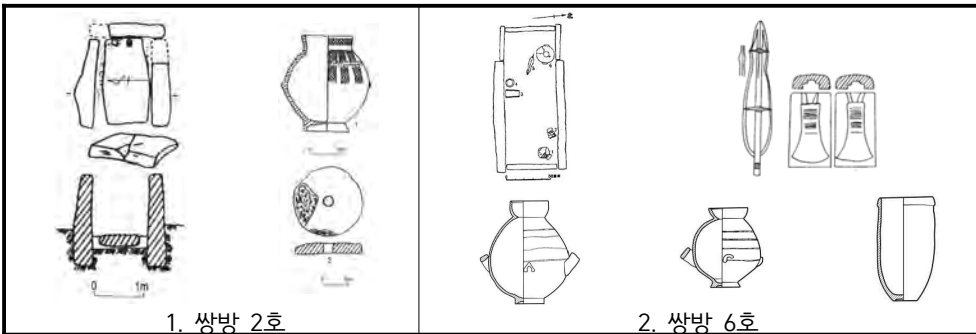


<도면 15> 강상 적석총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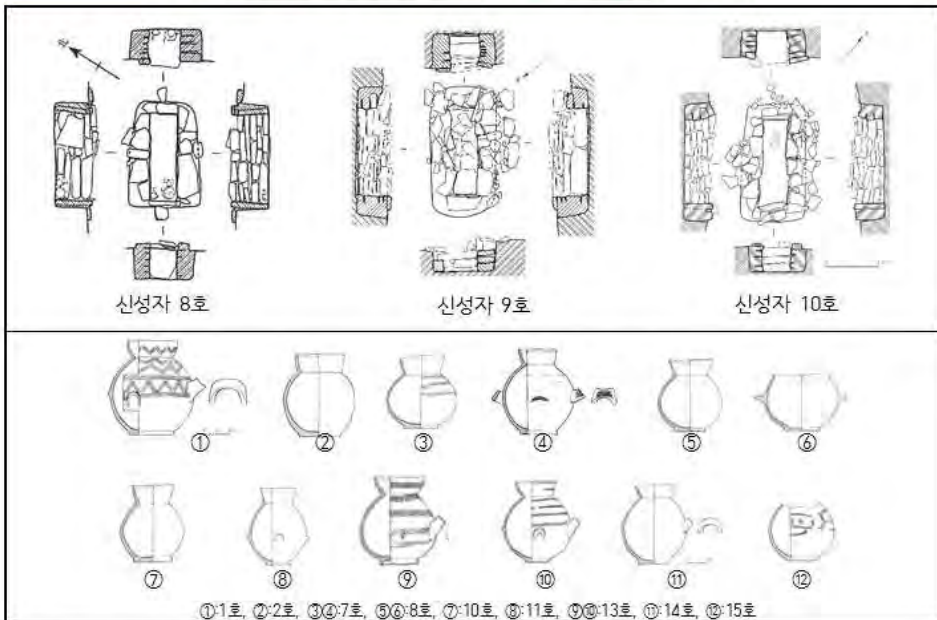


<도면 16> 루상 적석총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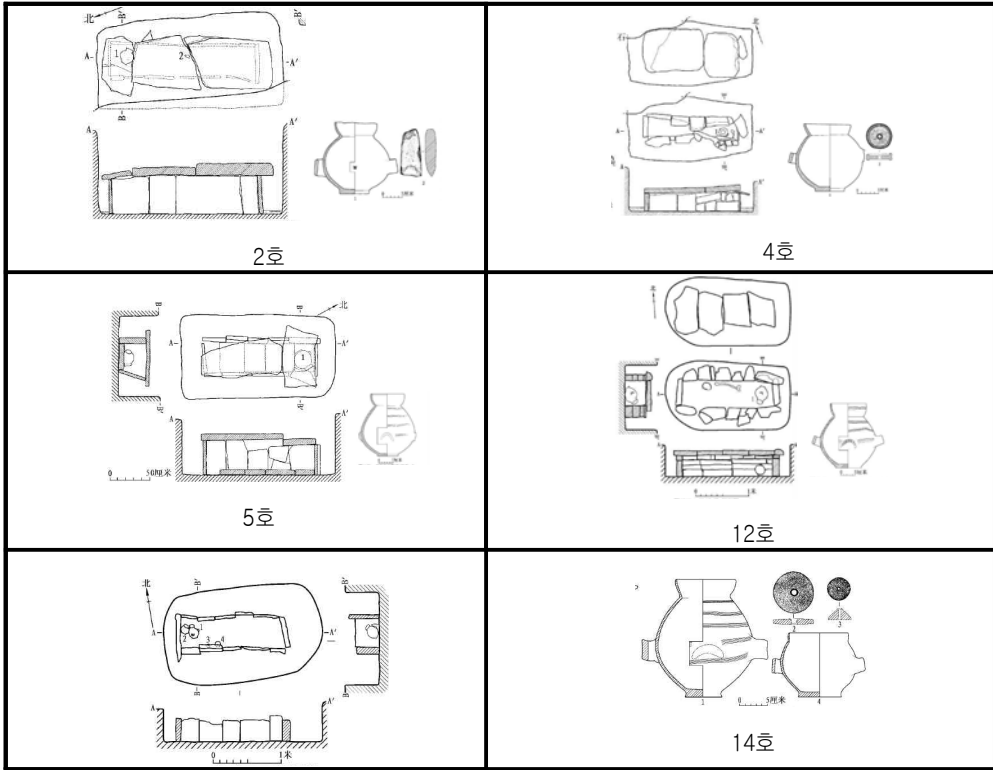
1. 銅劍
- 2·3·6. 銅泡
4. 圓形四孔飾
5. 銅珠 7. 銅牌
8. 銅鏃 9. 銅鏃
10. 陶罐 11. 陶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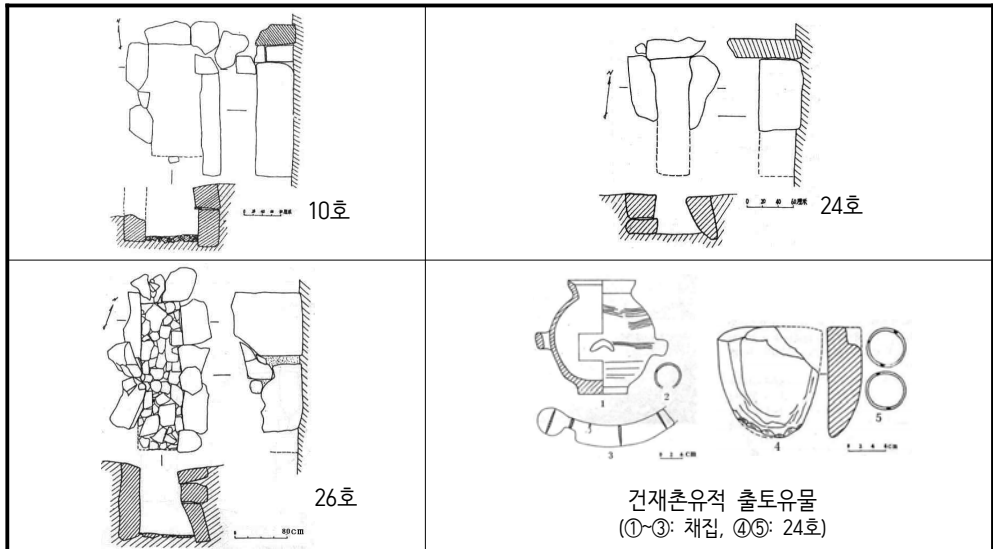
<도면 17> 보란점 쌍방유적 탁자형 고인돌 평·단면도 및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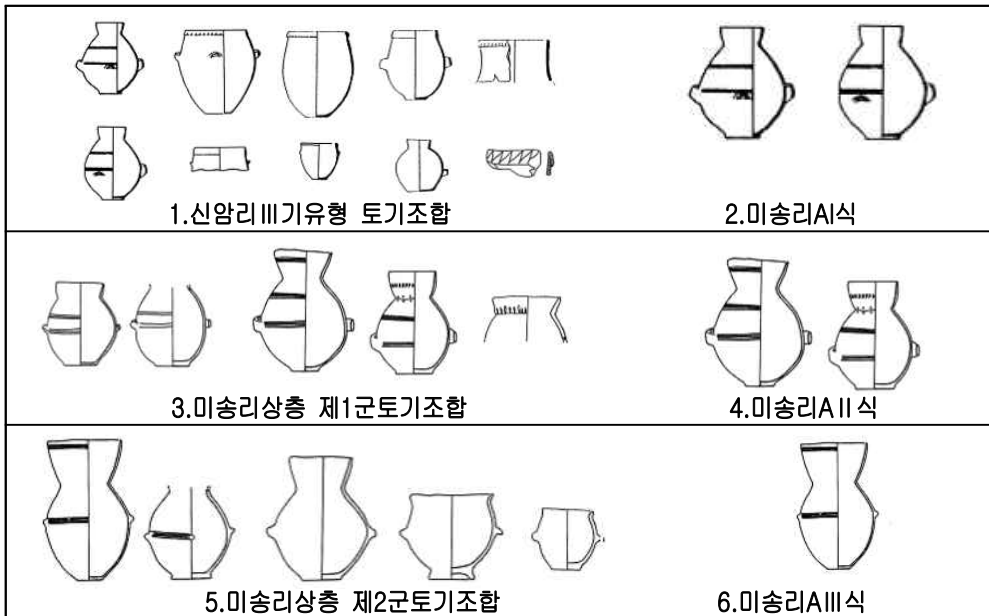
<도면 18> 본계 신성자유적 개석형(석축식) 고인돌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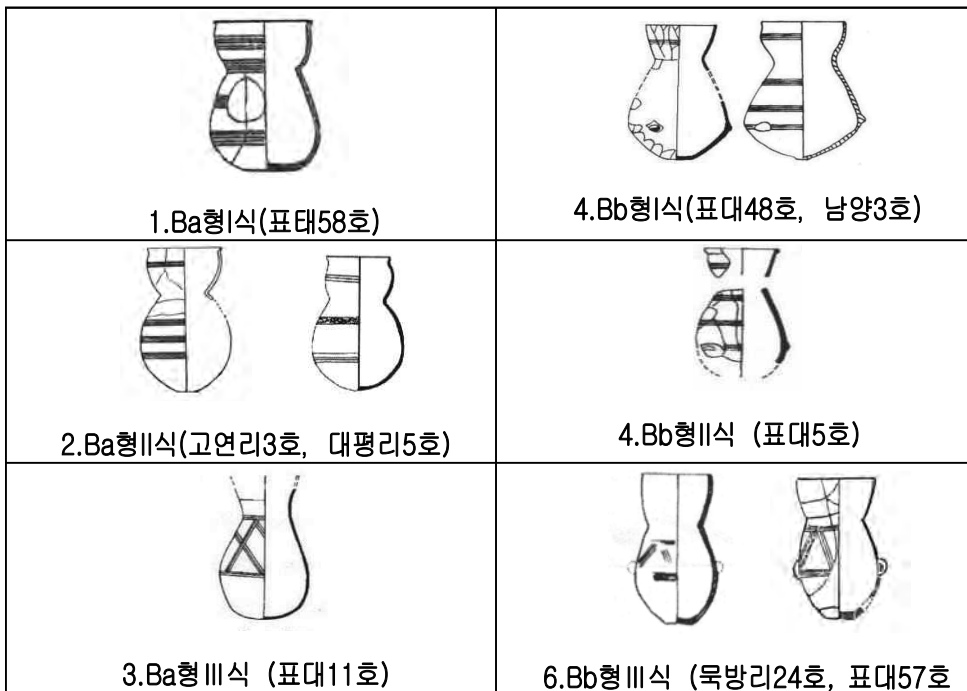
<도면 19> 서풍 동구 석관묘 및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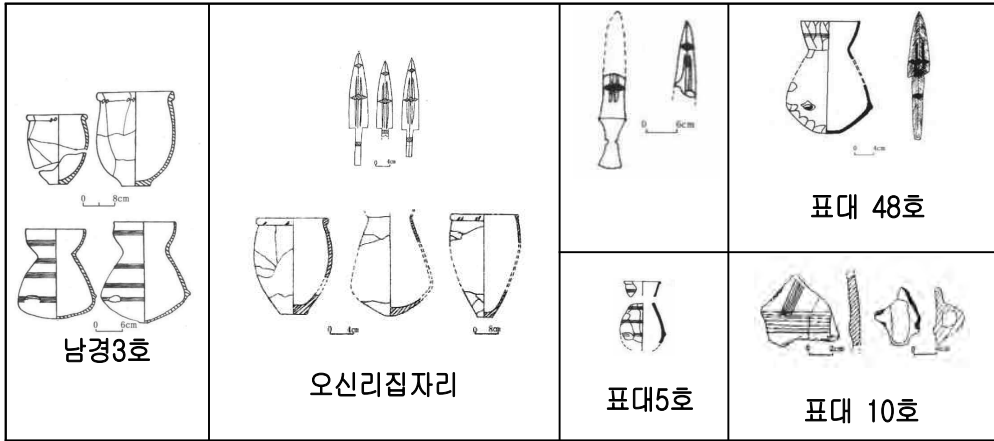
<도면 20> 개원 건재촌유적 고인돌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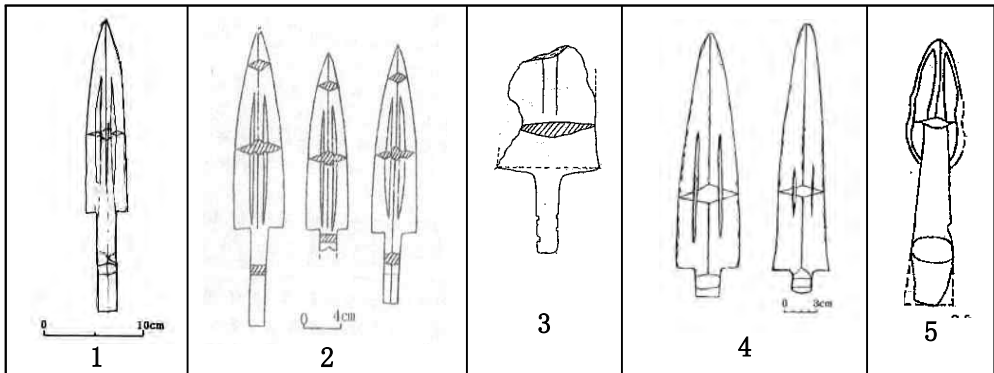
<도면 21> 압록강유역의 A형 토기 조합



<도면 22> 대동강유역의 B형 토기 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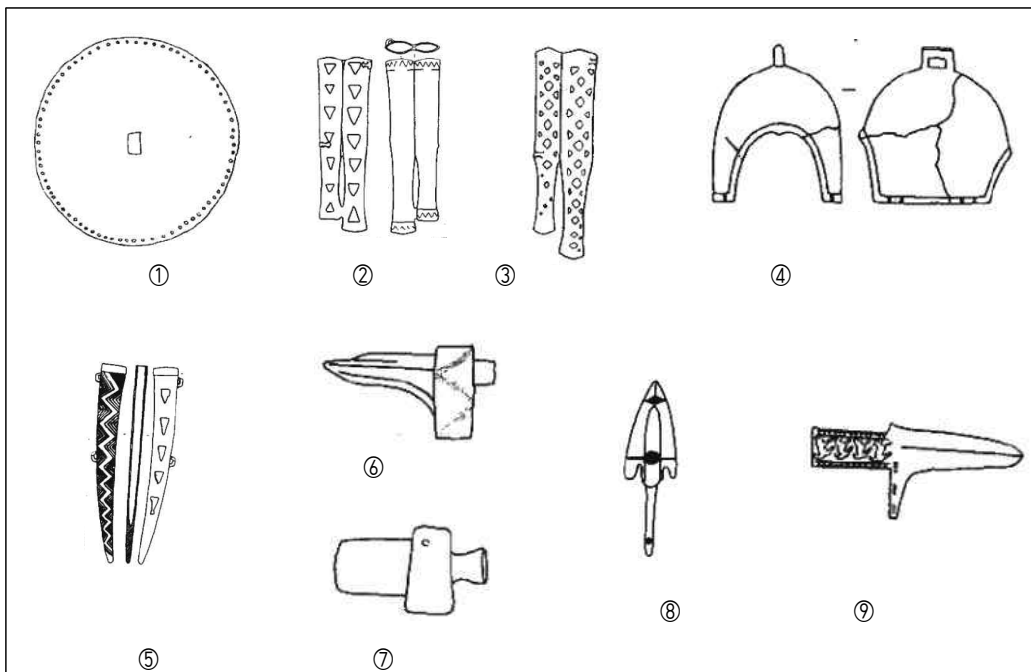


<도면 23> 미송리유형 B형토기의 공반유물 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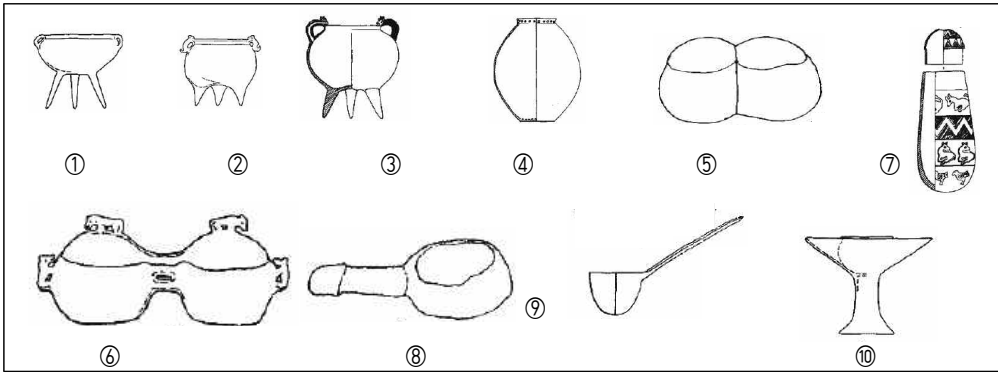
<도면 24> 1·2.석모 3~4.석검 5.비파형동모

(1.덕암리석관묘 2.오신리유적 3.고연리8호 4.대평리석관묘 5. 표대1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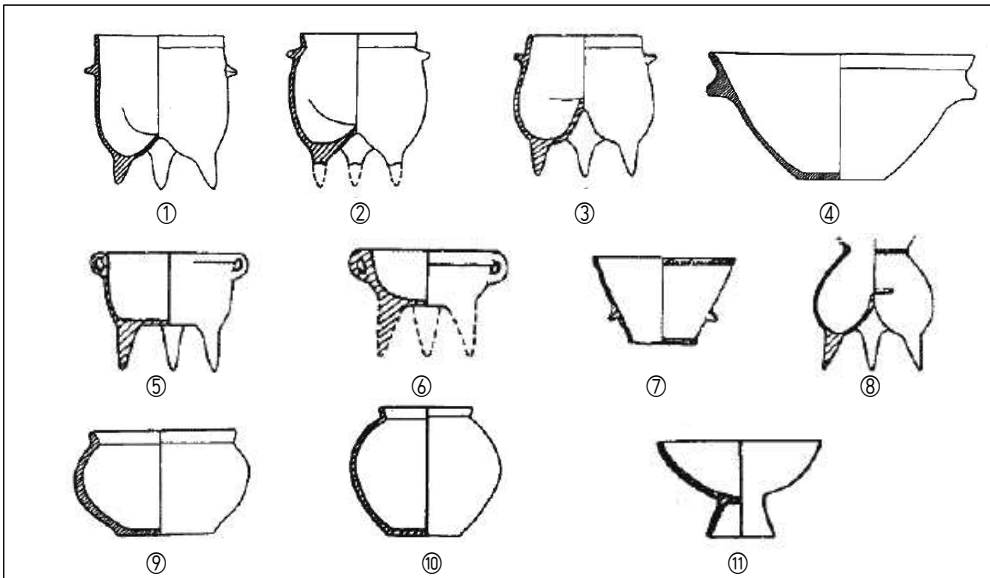
<도면 25> 夏家店 上層文化遺蹟 출토 청동무기

1. 寧城 南山根 M101:30 2. 寧城 小黑石溝 M8501 3. 汐子 北山嘴 M7501 4. 建平 石拉山 M741
 5. 小黑石溝 M8501 6·9. 南山根 東溝 石槨墓 7. 南山根 M101:47 8. 赤峰 紅山後 D區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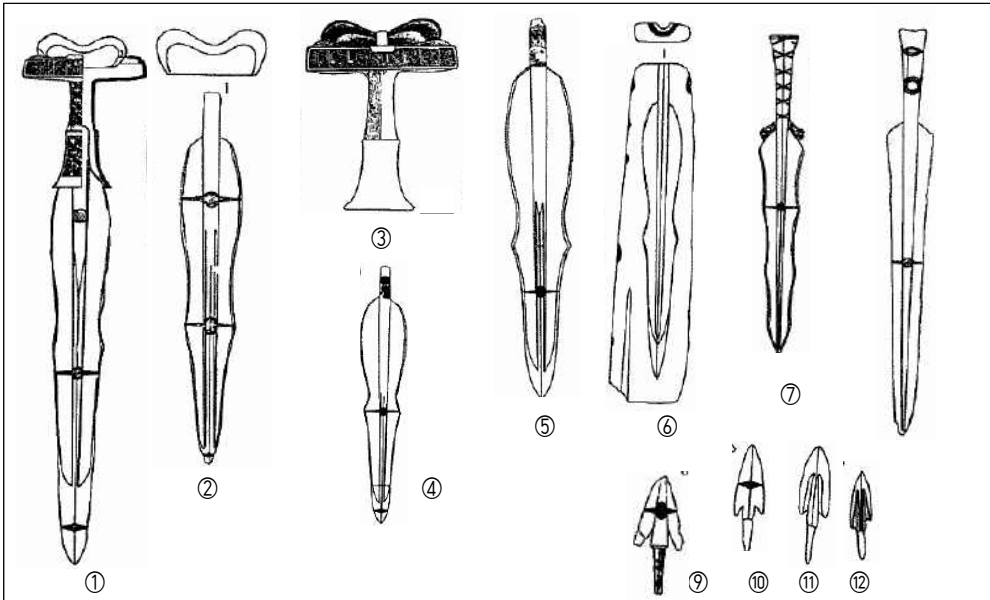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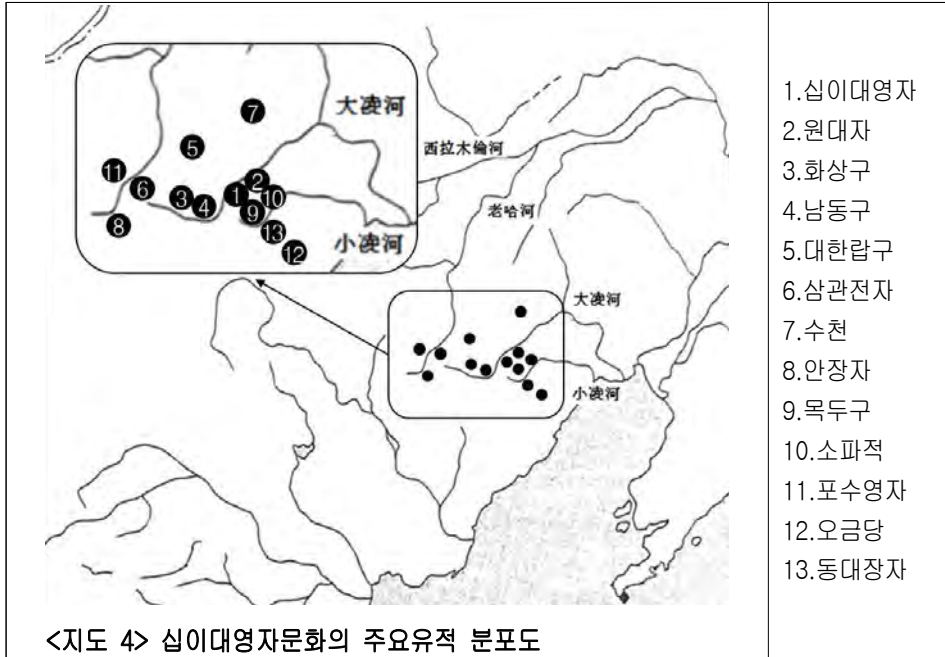
<도면 26> 夏家店 上層文化遺蹟 출토 각종 청동 용기류

1.鼎(南山根 M101:4) 2·3.鬲(南山根 M101:7, 小黑石溝 M8501) 4~7.罐(6.南山根 M101:1, 4·5·7.小黑石溝 M8501) 10.豆形器(南山根 M101:3) 8·9.爵(小黑石溝 M8501, 瓦房中 M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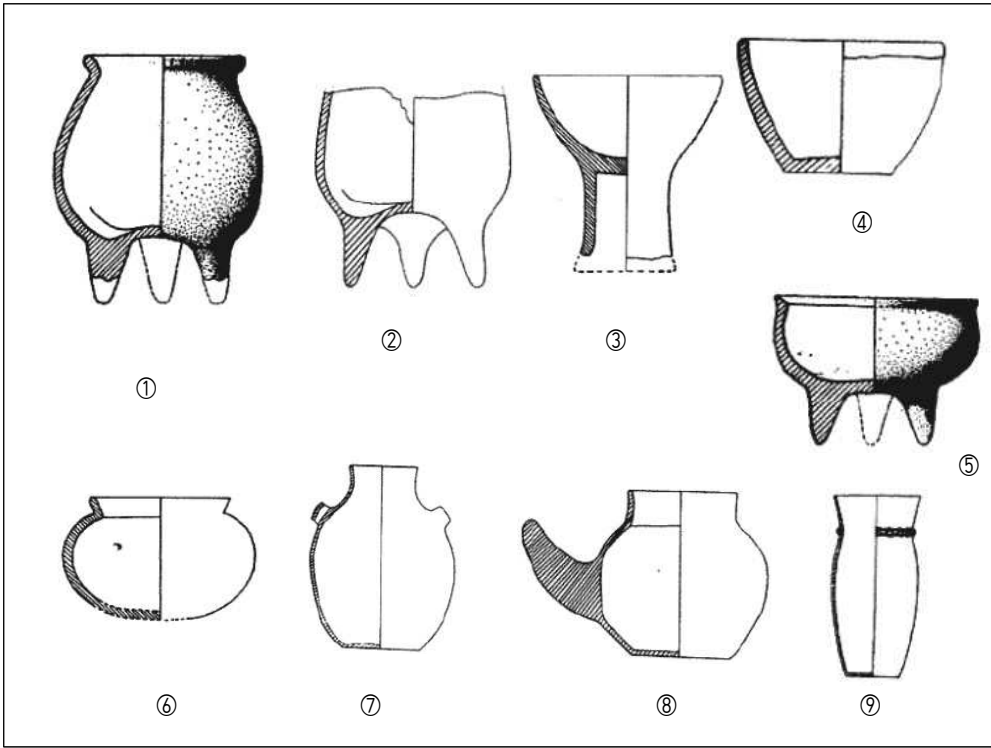
<도면 27> 夏家店 上層文化遺蹟 출토 각종 토기류

1·2·3.鬲(夏家店 T3⑤:11, 夏家店T1②:7, 克什克騰旗 龍頭山) 4.盆(南山根 H14:11)
5·6.鼎(龍頭山) 7·8.甗(龍頭山) 9·10.罐(夏家店 H11:4, M7:1) 11.豆(夏家店 F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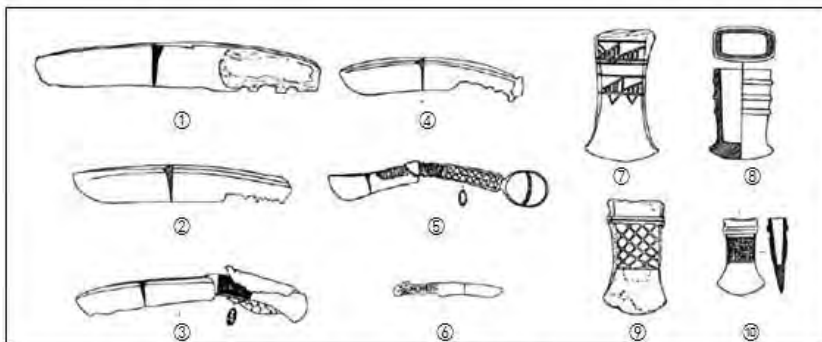
<도면 28> 十二臺營子文化遺蹟 출토 琵琶形銅劍 및 銅鏃

1:2·4·5·7·8. 銅劍(喀左 南洞溝, 建平 大拉罕溝M851, 朝陽 北臺子, 朝陽 十二臺營子, 建平 二三營子, 建平 水泉M8) 3. 劍柄(凌源 三官甸子) 6. 石范(朝陽 黃花溝) 9~12. 鏃(9. 水泉 M8. 10~12 朝陽 小波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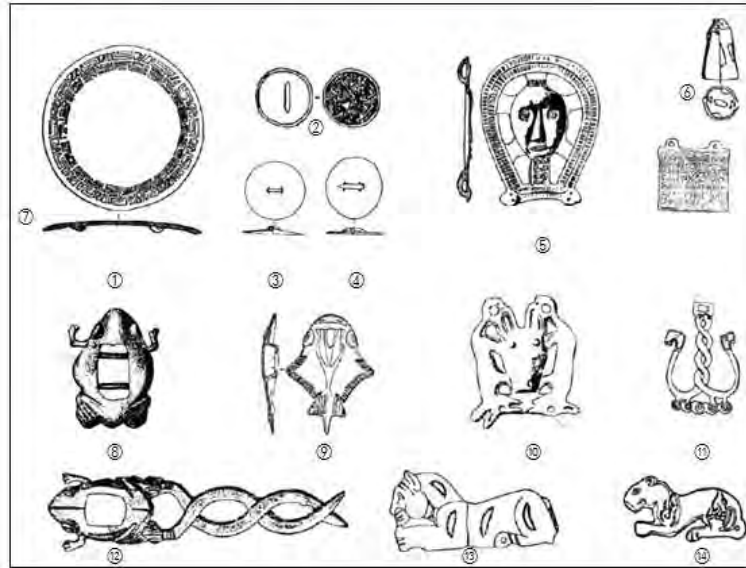
<도면 29> 十二臺營子文化遺蹟 출토 각종 토기류

1·2. 鬲(建平 水泉 T27③:3, 義縣 向陽嶺 H80:1) 3. 豆(安杖子 F13:3) 4. 鉢(向陽嶺 H12:6) 5. 鼎(水泉 T24③:1) 6~9. 罐(凌源 安杖子 H3: 2, 喀左 果木樹營子, 果木樹營子, 向陽嶺 H1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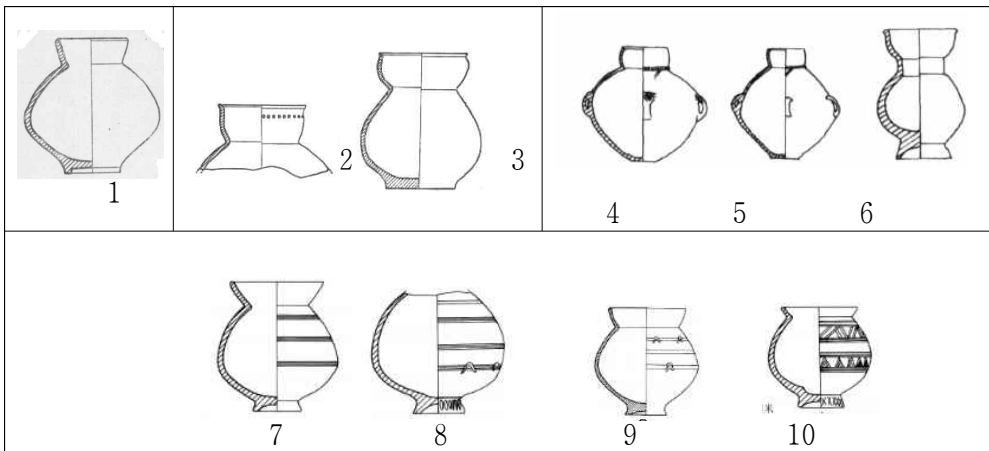
<도면 30> 十二臺營子文化遺蹟 출토 동도 및 동부

1~6. 刀(水泉M8, 和尚溝D區M7:3, 蘭家營子M901, 和尚溝B區M22:5, 十二臺營子M1, 十二臺營子) 7~10. 斧(烏金塘, 水泉M8, 炮手營子M881, 十二臺營子M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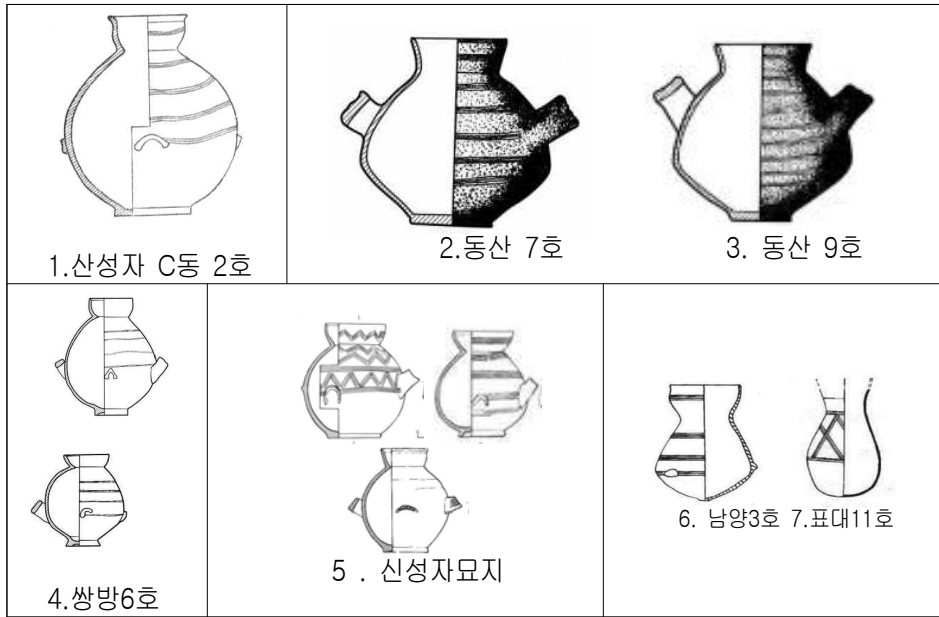
<도면 31> 十二臺營子文化遺蹟 출토 각종 장식품

- 1.多紐鏡(十二臺營子) 2.扣飾(小波赤) 3·4.鏡形飾(炮手營子M881, 大拉罕溝M851) 5.人面形佩飾(十二臺營子M1) 6.鈴形飾(蘭家營子) 7.方形佩飾(烏金塘) 8.蛙形飾(三官甸子) 9.鯨魚形佩飾(喀左 南洞溝) 10.狼紋佩飾(十二臺營子M1) 11.雙龜結合銅飾(十二臺營子M2) 12.雙蛇銜蛙形飾(三官甸子) 13.虎銜兔形飾(三官甸子) 14.金製 虎形飾(三官甸子)



<도면 32> 무문 발구호(A형)와 현문 사구호(B형) 각종

- 1.산성자B동4호, 2·3.장가보A동31호·34호, 4.공주둔 후산T31호, 6.대전자459호, 7~10. 타두유적



<도면 33> 미송리형토기 각종

참고문헌

[국문]

김용간, 1963, 「미송리동굴유적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3, 과학출판사.
 김용간, 1977, 『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미경, 2006, 「미송리형토기의 변천과 성격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60.
 김성국, 2008, 「오신리유적의 팽이그릇시기집자리」, 『조선고고연구』 2008-1.
 김종혁·전영수, 2003, 「표대유적 팽이그릇집자리들의 편년」, 『조선고고연구』 2.
 노태돈, 1990, 「고조선의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한국사론』23.
 박순발, 2003, 「미사리유형 형성고」, 『호서고고학』 9.
 박순발, 2004, 「요녕 점토대토기문화의 한반도 정착 과정」, 『금강고고』 창간호.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평양시고대집자리-조선고고학전서11』 진인진.
 박준형, 2012,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준형, 2012, 「대릉하-서북한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변동과 고조선의 위치」, 『한국고대사 연구』 66.

- 배진성, 2007, 『무문토기문화의 성립과 계층사회』 서경.
- 배진성, 2015, 「미송리형토기문화의 동태와 분포권」, 『동북아역사논총』 47호.
- 백종오·오대양, 2013, 「遼南地域 靑銅器時代遺蹟의 發掘現況과 研究成果」, 『고조선단군학』 29.
- 백종오, 2014, 「遼西地域 靑銅器時代 文化設定에 대한 檢討」, 『고조선문명의 학제적연구 정기 학술대회발표집』 .
- 복기대, 2002, 『요서지역의 청동기시대문화연구』 .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황해남북도 고대집자리- 조선고고학전서 13(고대편4)』 .
- 서국태, 1996, 「팽이그릇문화의 편년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 사회과학출판사.
- 서영수, 1988,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시민강좌』2.
- 손준호, 2006, 『청동기시대 마제석기 연구』 서경.
- 송호정, 2010, 「고조선의 위치와 중심지 문제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58.
- 주영강, 2009, 「區位, 序列, 編年, 系統 : 동북지역 청동기시대문화 구조체계 논쟁」, 『동북아 청동기문화 전개와 한반도』 제19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 조진선, 2010, 「요서지역 청동기문화의 발전과정과 성격」,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조법중 2002, 「고조선의 영역과 그 변천」, 『韓國史論』 34, 국사편찬위원회.
- 조법중, 2013, 「고조선의 중심지 및 도읍관련 논의와 쟁점」, 『고조선.위만조선과 동아시아의 고대문화』 제43회 동양학국제학술회의 자료집.
- 정찬영, 1974, 「북창군 대평리유적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4, 사회과학출판사.
- 오강원, 1996·97, 「고조선 위치비정에 관한 연구사적 검토(1·2)」, 『백산학보』48·49.
- 오강원, 2004, 「중국 동북지역 세 청동단검문화의 문화지형과 교섭관계」, 『선사와 고대』 20.
- 오강원, 2013, 「청동기-철기시대 요령,서북한 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와 고조선」, 『동양학』 53.
- 오강원, 2014, 「요동~서북한지역 미송리형호의 지역문화와 사회문화적 함의」, 『한국상고사학보』 85.
- 오대양, 2014, 「북한지역 고인돌유적의 특징과 성격」, 『선사와 고대』 40.
- 이청규, 2007, 「청동기를 통해서 본 고조선과 주변사회」, 『고조선의 역사를 찾아서』 .
- 이청규, 2011, 「고조선과 요하문명」, 『한국사시민강좌』 49.
- 황기덕, 1989, 「비파형동검문화의 미송리유형 1- 미송리유형의 유적유물과 그 연대」, 『조선 고고연구』 3.

[중국어]

- 勤楓毅, 1987, 「夏家店上層文化及其族屬問題」, 『考古學報』1987-2.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等, 2011, 『后太平 - 東遼河下流右岸以青銅時代遺存爲主的調查與發掘』, 文物出版社.
- 唐森, 2008, 「關於馬城子文化內涵認知的述評」, 『東北史地』2008-6.
- 大連市文物考古研究所, 2000, 『大嘴子——青銅時代遺址1987年發掘報告』, 大連出版社.
- 撫順市博物館·新濱滿族自治縣文物管理所, 2002, 「遼寧新濱滿族自治縣東升洞穴古文化遺存發掘整理報告」, 『北方文物』2002-1.
- 朱永剛, 1987, 「夏家店上層文化的初步研究」, 『考古學文化論集(1)』文物出版社.
- 朱永剛, 1998, 「東北青銅文化的發展階段與文化區系」, 『考古學報』1998-2期.
- 朱永剛, 2008, 「遼東地區雙房式陶壺研究」, 『華夏考古』2008-2
- 朱貴, 1960, 「遼寧朝陽十二臺營子青銅短劍墓」, 『考古學報』, 1960-1.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著, 1996, 『雙砬子與崗上——遼東史前文化的發見和研究』科學出版社.
- 趙濱福, 2007, 「馬城子文化新論 - 遼東北部地區夏商時期遺存的整合研究」, 『邊疆考古研究』6, 科學出版社.
- 趙濱福, 2009, 『中國東北地區夏至戰國時期的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2009年.
- 陳光, 1989, 「羊頭窪類型研究」, 『考古學文化論集』(二), 文物出版社.
- 吳大洋, 2013, 「朝鮮半島北部地區青銅器時代石構墓葬研究 - 兼論與中國東北之比較」吉林大博士論文.
- 吳世恩, 2004, 「關於雙房文化的兩箇問題」, 『北方文物』04-2.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 1994, 『馬城子—太子河上游洞穴遺存—』, 文物出版社.
- 劉大志·柴貴民, 1993, 「喀左老爺廟鄉青銅短劍墓」, 『遼海文物學刊』1993-2.
- 劉觀民·徐光翼, 1981, 「內蒙古東部地區青銅時代兩種文化」, 『內蒙古文物考古』創刊號.
- 王巍, 2004, 「雙房遺存研究」, 『慶祝張忠培先生七十歲論文集』科學出版社.
- 林雲, 1998, 「東胡與山戎的考古探索」, 『林雲學術文集』,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鄭淑敏, 2014, 『后太平墓地再研究』吉林大碩士論文.
- 許志國, 2000, 「遼寧開原建材村石棺墓群」, 『博物館研究』2000-3.
- 華玉冰, 2011, 『中國東北地區石棚研究』, 科學出版社.
- 華陽·霍東峰等, 2009, 「四平山積石冢再認識」『赤峰學院學報』2009-2期.

제2부 동아시아 역사 속의 고조선

기원전 4세기대 요서지역의 문화변동과 그 배경

— 세형동검문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이후석(숭실대학교)

- I. 머리말
- II. 기원전 4세기대 요서지역의 물질문화와 동대장자유형
- III. 동대장자유형의 구조와 특징
- IV. 기원전 4세기대 요서지역의 문화변동과 그 의미
- V. 결론

I. 머리말

세형동검문화는 초기철기시대를 전후하여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에 걸쳐 전개됐던 광범위한 문화 변동을 일관되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설명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철기시대에는 청동기부장묘는 물론 청동유물의 종류와 수량이 이전보다 더욱 증가하여 시공간적 문화 변천이나 사회 계층화의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 ‘세형동검문화’라는 설명 틀이 좀 더 유효하다.

세형동검문화는 세형동검을 비롯한 신종 청동무기, 점토대토기옹이나 평저장경호와 같은 토착 토기류를 기본으로 하는 토착 집단의 물질문화 요소들을 기반으로 한다. 전개과정에서 중원계 또는 북방계 물질문화 요소가 일부 복합되나 기본적으로는 토착 무기류와 토기류를 사용하고 부장하는 전통성이 강해 이에 속한 분묘에는 피장자나 축조집단의 종족적 또는 문화적 정체성이 비교적 잘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형동검문화의 형성 과정이나 변동 양상을 살펴보면 전국시대 이후 중원지역 물질문화의 파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토착 집단의 문화적인 대응 양상을 엿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일부나마 정치적인 동향까지 추론 가능하다.¹⁾

한편 요령지역에서 기원전 4세기대는 비파형동검문화가 세형동검문화로 이행하는 시기이며, 문헌자료와 관련시켜 보면 고조선과 연나라의 제후가 각기 ‘왕’을 자칭하며, 서로 전쟁까지 고려할 정도로 치열하게 상호경쟁하는 때이기도 하다. 또한 중심지 이동설에 따르자면²⁾ 이때 고조선은 요동지역에 중심 거점을 두고 연나라와 요서지역을 경계 또는 접이 지대로 하여 한층 발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³⁾ 그렇다면 당시 요서지역 물질문화의 변동 과정에는 이와 같은 역사 배경들이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기원전 4세기대 요서지역의 물질문화를 대표하는 동대장자유형에는 토착 청동 단검문화와 전국 연계 물질문화 요소들이 서로 복합되어 있어 그와 같은 역사 배경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전국시대 연문화의 확산 과정과 함께 요령지역 세형동검문화 형성 과정의 일면을 보여주는 동대장자유형 유적·유물들에 대한 자료 정리와 기초적인 분석을 통하여 기원전 4세기대 요서지역 물질문화의 특징과 변화 양상을 검토하려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주변 유적과의 비교를 통하여 토착집단의 동향과 관련된 문화변동의 의미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다만 동대장자유형의 유적들은 최근에야 조사된 것들이 많고, 조사 자료가 충분하게 보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다. 특히 동대장자유형의 표지 유적에 해당되는 건창 동대장자 유적 관련 자료들은 최근 상당수가 보고되었으나 정리 과정에서 발굴조사 당시 부여된 임시 유구 번호가 바뀌거나 출토유물 가운데 일부만이 보고

-
- 1) 고고학적 자료의 정치적인 해석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김종일, 2008, 「고고학 자료의 역사학적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고대사연구』52; 이성주, 2011, 「거시적 관점에서 본 동북아 사회문화체계의 변동」, 『동북아역사논총』33). 그렇지만 문헌 사료가 거의 없는 초기국가 단계의 역사문화상을 규명하기 위한 물질문화의 역사적인 성격 규정 역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박순발 2006, 「한국 고대사에서 종족성의 인식」, 『한국고대사연구』44). 다만 물질문화 요소들의 구체적인 사용 맥락이나 원류지와 전파지의 상호관계 또는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문화변동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2) 서영수, 1988,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시민강좌』 2; 노태돈, 1990,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한국사론』 23; 박준형, 2012, 「대릉하~서북한지역 비파형 동검문화의 변동과 고조선의 위치」, 『한국고대사연구』66.
 - 3)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전기 고조선의 중심지로 요충 일대를 주목하며, 심양 정가와자 6512호묘를 대표 유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정가와자유형이 곧 전기 고조선의 문화 실체임을 시사하고 있다(여호규 외, 2014, 고등학교 한국사, 금성출판사, 29~30쪽).

되어 전반적인 출토 맥락을 파악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기원전 4세기대로 추정되는 요서지역의 물질문화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거의 검토된 바 없는데다 동대장자유형에서 요령지역의 세형동검문화 관련 요소들이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선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도 일정부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동대장자유형과 이에 병행하는 요서지역의 물질문화를 세형동검문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논의하려 한다.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통해 보면 후기 고조선은 대내적으로는 연맹체적 지배-복속 관계 하에 주변 소국이나 지역집단들을 통합하여 성장했을 것으로 이해되며,⁴⁾ 대외적으로는 연·제와 경쟁하며 일정하게 교류하였다고 생각된다.⁵⁾ 이런 측면에서 기원전 4세기대 요서 지역 물질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고조선을 포함하여 요서지역 토착집단의 동향이나 주변 사회와의 관계 등을 여러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기원전 4세기대 요서지역의 물질문화와 동대장자유형

1. 기원전 4세기대 요서지역의 물질문화에 대한 논의

춘추전국시대 요서지역의 물질문화는 십이대영자문화로 대표되는 비파형동검문화로 이해되고 있다(강인욱 2004, 오강원 2004:2013, 이청규 2008, 烏恩岳斯圖 2007). 춘추시대에는 하가점상층문화의 남산근유형에 병행하는 ‘십이대영자유형’과 ‘오금당유형’ 등이 분포하였으며, 춘추말~전국초 단계에는 하가점상층문화 요소들이 사라지는 대신 옥황묘문화의 요소들이 비파형동검문화에 복합되어 ‘남동구유형’이 유행한다. 중원계의 문화요소들도 일부 보이지만 동과를 제외하면 기종 구성이나 분포 정형없이 단발적으로만 확인된다.

이후 전국중기 단계에는 옥황묘문화를 비롯한 북방계의 문화요소들은 거의 쇠퇴하는 대신 연문화로 대표되는 중원문화 요소들이 비파형동검문화 요소보다 현저하게 증가하는 양

4) 송호정, 2003,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80~285쪽; 박준형, 2015, 『고조선사의 전개』, 서경문화사, 157~168쪽.

5) 이청규, 2003, 「韓中交流에 대한 考古學的 접근 -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까지」, 『韓國古代史研究』32; 박대재, 2006, 「고조선과 연·제의 상호관계」, 『사학연구』83; 박대재, 2014, 「고조선과 제의 해상교류와 요동」, 『한국사학보』, 57.

상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문화상을 나타내는 유적들은 일본이나 중국 학계 일각에서 흔히 전국시대 연문화에 속한 유적으로 인식되는 반면 국내 학계의 경우 십이대영자문화 또는 비파형동검문화의 하위유형으로 ‘동대장자유형’을 설정하고 있다. 즉, 기원전 4세기대 요서지역의 물질문화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중원계의 문화요소들이 급증하는 점에 주목하여 전국시대 연의 영역 확장과 관련시켜 보는 입장(귀다순·장성덕 2008; 國家文物局 主編, 2001:2012; 宮本一夫 2000; 石川岳彦 2011)과 동검이나 토기류에 나타나는 비중원계 문화요소들에 주목하여 토착집단의 문화변동으로 이해하는 견해(오강원 2006; 이청규 2008; 이후석 2008)로 대비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시각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많은 국내 연구자는 전국시대 요서지역의 물질문화를 담당했던 주민집단을 ‘東胡’라는 북방계 종족집단으로 보는 것 같다(노태돈 2015; 송호정 2003; 귀다순·장성덕 2008; 宮本一夫 2000).⁶⁾ 특히 중국이나 국내 학계의 경우 하북지역에는 ‘연’이, 요서지역에는 ‘동호’, 요동지역에는 ‘예맥’ 또는 ‘조선’이 위치했던 것으로 이해하는 연구자가 많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볼 경우에는 전국시대 하북 북부지역에서 내몽고 동남부지역까지 퍼져 있던 북방계의 물질문화와 요서지역의 물질문화가 서로 달리 나타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魏略』 등의 문헌 사료에서 전국 연과 고조선이 서로 인접하여 있는 듯이 묘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고, 요령지역의 전국시대 물질문화가 심양 일대의 ‘정가와자유형’과 객좌 일대의 ‘남동구유형’으로 분화되어 있었다는 시각으로 당시 고조선이 서로 다른 연맹체로 재편되어 있었다고 주장된다(오강원 2013). 이에 따르자면 기원전 4세기대 요서지역의 물질문화는 고조선의 또 다른 구성체가 된다. 다만 정작 문헌사료의 ‘조선후’와 ‘대부예’ 기사와 같은 시간성을 나타내는 것은 ‘남동구유형’이 아닌 ‘동대장자유형’이란 점이 문제이다. 동대장자유형을 비롯한 기원전 4세기대 요서지역의 물질문화에서 묘제와 청동무기 등은 요동지역 세형동검문화 속의 청동무기류로 계승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이후석 2015).

이와 같이 기원전 4세기대 요서지역의 물질문화는 전국시대 이후 중원계의 물질문화 요소가 증가하는 점에 주목하여 전국 연의 영역 확장이나 ‘동호’와 관련시켜 보는 시각들이

6) 과거 요령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를 ‘東胡’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아키야마 신코 이후 일본 학계의 견해들은 현재까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秋山進午 1968:1969, 「中國東北地方の初期金屬器文化の様相 -考古資料とくに青銅短劍を中 心として- (上)/(中)/(下)」, 『考古學雜誌』53-4, 54-1, 54-4).

많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고조선의 연맹체적 관계, '동대장자유형'의 토착적인 문화요소, 요령지역 세형동검문화의 형성 배경 등과 관련시켜 다른 시각으로 이해하는 견해들도 제시되고 있다.

2. 동대장자유형과 세형동검문화

동대장자유형과 이에 병행하는 기원전 4세기대 요서지역의 물질문화 유형들은 최근에야 논의되기 시작하여 그 분포 범위와 입지, 구성요소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동대장자유형의 경우 기존에는 기원전 4세기대 요서 서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토착계와 중원계의 물질문화가 복합되었으나 중원문화의 요소들이 압도적인 유적들을 대상으로 논의되었는데(오강원 2006, 이청규 2008), 최근 조사 자료들과 청동무기, 토착 토기류에 대한 연구 성과(이후석 2013, 김민경 2014)를 참고하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동대장자유형은 대릉하유역의 이남지역, 즉 요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구체적으로는 동대장자와 우도구 유적 등이 분포하는 건창 일대, 과목수영자와 양가영자유적, 토성자와 북산근 유적 등이 분포하는 객좌 일대, 오가장자 등이 분포하는 조양 일대 뿐만 아니라 산금구 유적을 비롯한 소황지고성 주변 유적 등이 분포하는 호로도(舊 금서) 북부 일대, 수증과 홍성을 잇는 호로도 남부 해안 일대에서 관련 유적이 확인된 바 있다. 이외에도 오한기 수천 유적과 오란보랍격 유적에서 동대장자 유적에서 출토되는 토기류가 확인되고 있어 향후 동대장자유형의 분포 범위는 개념 규정 따라 다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수계와 지형을 기준으로 보면 대릉하 상류역의 산간구릉지대와 소릉하 중류역의 구릉지대에서 주로 분포하며, 사하 중하류의 저구릉성 대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동대장자유형 유적들은 주로 분묘유적이다. 이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유적으로 금서 소황지고성의 2기문화(전국시대)에 속한 문화층과 수혈 등이 있다. 소황지고성의 산성 구간은 방성과는 달리 비파형동검문화 단계에 축조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있다(吉林大學 校考古學系 等 1997, 朱永剛 2000). 보고내용이 소략하여 더 이상은 논의하기 어렵지만 점토대토기로 추정되는 이중구연토기와 두형토기가 함께 출토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분묘유적의 입지를 살펴보면 동대장자나 우도구 유적의 경우 하천 북쪽 구릉의 남사면과 동남사면 말단부에 위치하며, 과목수영자나 북산근 유적 역시 구릉 남사면의 말단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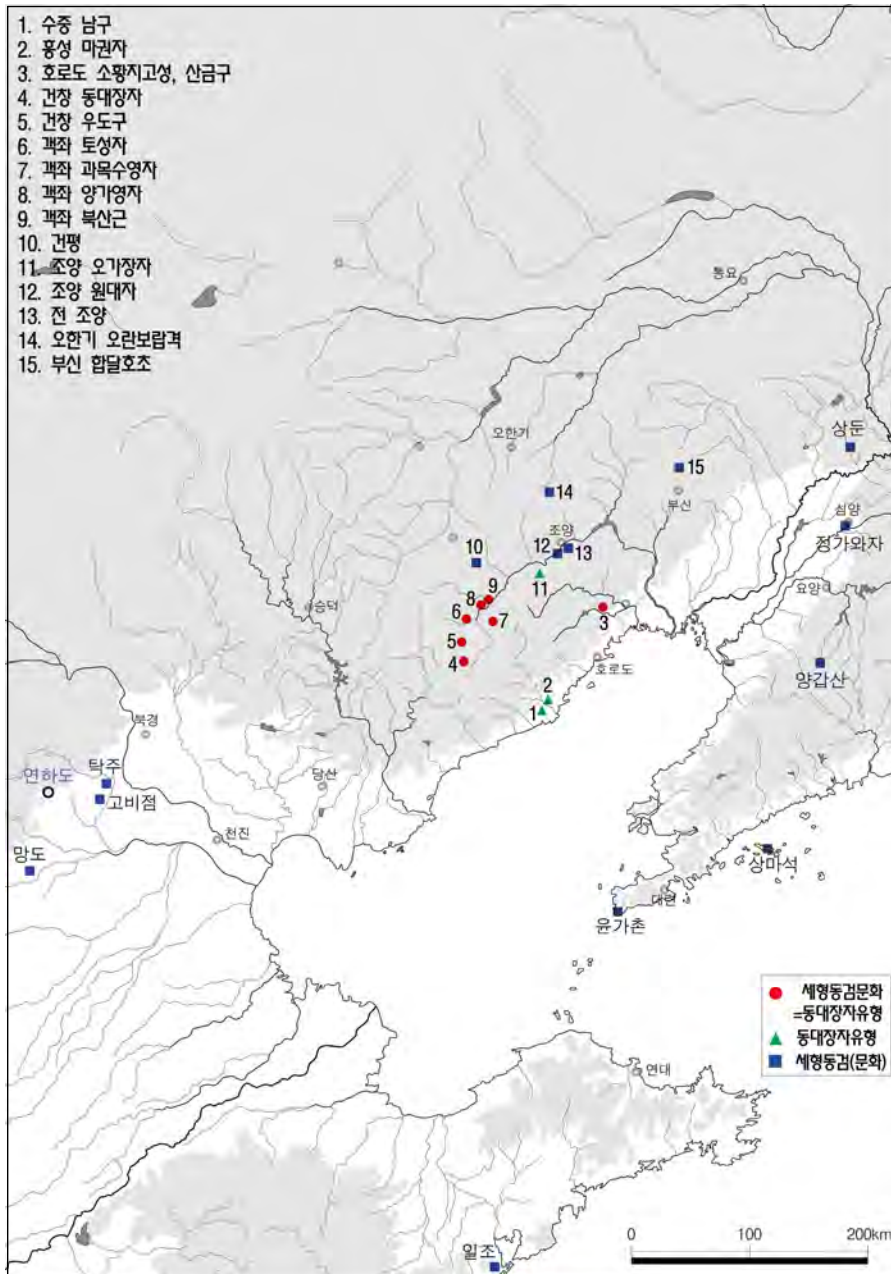
입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소황지고성 일대 유적 역시 조사 정황으로 보아 여아하의 남사면과 동사면의 높지 않은 곳에 분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가장자 유적의 경우에는 남쪽에 평정산이 위치하고 있긴 하나 시야를 좁혀 보면 유적 남쪽으로 동서방향의 마을 하천이 자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입지로는 볼 수 없다. 마권자 유적 역시 속칭 서산이라 불리우는 사하 동쪽 저구릉의 남사면과 동사면에 분포한다. 즉 동대장자유형 분묘들은 그리 높지 않은 구릉 남사면과 동사면의 말단부에 주로 조영되며, 기본적으로는 수십기가 거의 중복없이 배치되어 묘지를 이루면서 그 남변으로 마을 하천이 지나가는 점이 특징이다. 분묘들은 거의 예외없이 등고선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조영되어 묘광 주축방향이 동서 방향이나 이에 가까운 남서-북동 방향으로 한정된다.

동대장자유형의 분묘 구조는 기본적으로 토광묘계 묘제이다. 그렇지만 다른 유형의 묘제와는 달리 중대형묘의 경우 묘광 입구에 적석부가 마련되어 있다거나 중소형묘의 경우 목관 둘레에 강돌이 충전되어 있는 구조를 나타내는 예가 많다. 이와 같은 적석시설 또는 위석시설 부가 토광묘계는 요하 이동지역의 세형동검문화 단계 적석목관묘형 묘제와도 일정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대장자유형 유물들의 구성과 조합 관계는 이전 단계 또는 같은 단계 주변 문화유형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낸다. 부장유물은 토착계와 중원계가 모두 확인되나 토착계 유물들은 동검이나 토기류의 일부분에 한정되는 반면 중원계 유물들은 청동무기, 청동예기, 도제예기 등의 전국 연계 유물이 훨씬 더 많다(오강원 2006, 이청규 2008, 이후석 2013). 북방계의 동물장식이나 장신구는 거의 사라지고 중원계의 장식품과 취사용기, 도제예기 등의 연식 토기류가 부장되는 것이 이전 단계의 남동구유형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그렇지만 토착 토기류가 출토되며, 토착 청동무기에서 요령식 세형동검과 요령식 동과가 처음 출현하는 것도 동대장자유형의 시공간성을 드러내는 주요 특징이다. 중원계의 청동무기는 중원식 동검과 동모가 추가되고, 청동예기의 경우에도 동세, 동이, 동정, 동호, 동돈, 동두 등과 같은 다수 기종이 복합되어 중원지역의 매장문화가 수용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동대장자유형의 유적들은 분포와 입지, 분묘구조와 부장유물에서 다른 문화유형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기본적으로는 분묘 주축방향이 동서방향이며 피장자의 두향이 동쪽으로 일정하게 배치되고, 적석목관묘형 분묘가 나타나는 점과 부장유물에서 전국 연계 취사용기나 도제예기가 출토되거나 토착 토기류가 공반되는 것에 주목해

야 한다.



<도면 1> 요서지역 세형동검문화와 동대장자유형의 유적 분포

<표 1> 요서지역 세형동검문화와 동대장자유형 유적 일람(도면 1과 순번 일치)

순번	유적	유구	출토유물			비고
			무기	위의구/농공구	장식류/토기/기타	
1	수중 남구	분묘?	중원식동검1		/무문토기편	
2	흥성 마관자	토광묘 (M2)		/동도1	/장경호	
		토광묘 (M31)			/장경호	
3	호로도 태집둔 산금구	분묘 (A/B)	세형동검? 요령식동과2	?	?	일부 보고 파편 1점
4	건창 동대장자	적석 목관묘 목곽묘	비파형동검, 금장검 병, 요령식동과 중원식동과, 동모 유경·유공동축 등	동호, 동돈, 동두, 동 경, 동세, 동이 등/ 동함, 동표, 동차축두 , 동개공모 등/	대구, 동환, 마노환, 수정 환 등/파수부관, 장경 호, 단경호, 두, 유개두, 채 회도호 등	과목수영 자식동검- 검병, 분묘 다수
5	건창 고산자 우도구	분묘 (90M1)	청동검병1 중원식동검1 중원식동과1 요령식동과1 삼익유공동축4 삼익장경동축1	/동부1, 동착1, 동도1, 동비1	녹송석제경식(구슬22)/ 개두1, 도두5, 단경호1/ 숫돌1, 관상이진1	총 40여점
6	객좌 황가점 토성자	분묘	세형동검1 청동검병1 유공삼익동축5 중원식동과1	동차축두2, 곡봉형대구1/	/장경호1, 유개도호1	일부 보고
7	객좌 과목수영자	토광묘	과목수영자식동검1 동장검병1 석제검파두식1 중원식동과1	동탁2 곡봉형대구2/	동환1, 동식1/파수부관 1, 건상이호1	
8	객좌 양가영자	채집	요령식동과1	?	?	
9	객좌 복산근	석곽묘	세형동검1	곡봉형대구1/	/점토대도기2, 수환쌍이 호2, 도정1, 도분1/소석 판	
10	건평	채집	세형동검1	?	?	
11	조양 오가장자	EM1	?	?	?	봉석묘
		WM1			/장경호1	토광묘
		WM4		/동도1	/장경호1	토광묘
		WM6			동포17/해패1, 관식3	위석묘
		WM11			/장경호1	토광묘
12	조양 원대자	토광묘	세형동검1 중원식동검1	?	?	분묘유출 채집품
13	傳 조양	채집	청동검병1 석제검파두식1			
14	오한기 오란보랍격	토광묘 (94M1)	세형동검1		/단경호1	일부 보고
15	부신 합달호초	채집	세형동검1			상부결실

동대장자유형을 위와 같은 물질문화 요소들로 규정할 경우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요령 지역 세형동검문화와의 관계이다. 적석목관묘형 분묘 구조와 요령식 청동무기류, 그리고 토착화된 두형토기는 요동지역 세형동검문화에서 확인되는 주요 특징인데, 요서지역의 동대장자유형에서 먼저 확인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외에도 동대장자유형에서 널리 확인되는 오가장자식 평저장경호는 세형동검과도 공반되며, 요동지역 세형동검문화 단계의 정가와자식 평저장경호와 기형이 흡사하며 주요 부장토기로 사용되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즉 요하 이동지역의 세형동검문화 정립과정에서 요서지역의 동대장자유형은 요중지역의 정가와자유형과 함께 일정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령지역 세형동검문화 형성과정에서 동대장자유형의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살펴본다.

III. 동대장자유형의 구조와 특징

1. 동대장자유형의 분묘구조

토동대장자유형의 분묘들은 앞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듯이 기본적으로는 토광묘계 묘제에 해당된다. 매장주체부는 목관이나 목곽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목관 흔적이 뚜렷하지 않은 것도 있어 직장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적석시설이나 위석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매장주체부는 목관이나 목곽이 사용된다. 중국 학계에서 전국시대 분묘 중에 封石墓나 砌石墓라 지칭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田立坤 外 2010,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 2014). 국내 학계에서는 積石木棺槨墓 지칭하는 연구자도 있다(오강원 2006).

적석이나 위석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동대장자유형의 분묘들은 묘광의 규모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소형이나 중소형의 분묘들은 토광묘(직장, 목관)와 체석묘(직장, 목관)로 분류할 수 있고, 중형과 중대형은 분묘들은 봉토묘(목관, 목곽)와 봉석묘(목관, 목곽)로 분류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분묘에서 봉토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동대장자 45호묘(舊 17호묘)와 같은 경우 봉토가 일부 남아 있었다고 한다. 동대장자 45호묘의 봉토 범위는 묘광에서 약 8m 범위 만큼 확인되었다고 하니(성경당 2015), 중대형묘의 경우 원래 봉토 범위는 지름 약 10m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⁷⁾ 중대형묘가 이 정도

7) 심양 정가와자 유적의 대형묘에 해당되는 6512호묘의 경우 묘광 규모(長幅深)는 약 500-

의 봉토 규모라면 중형묘의 경우에도 봉토 규모를 최소 5m 내외로 추정 가능하다. 그러므로 중형묘 이상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은 봉토묘라 해도 무방하며, 이 가운데 적석 시설이 확인되는 것은 봉석묘라 지칭한다.

<표 2> 동대장자 유적의 분묘 규모와 유형 분류

상대등급	묘광 규모(길이cm)	토광묘·봉토묘	체석묘·봉석묘	계
5(소형)	260미만	3, 21, 22, 35, 42	17, 19, 23, 36, 38	10
4(중소형)	260~308	24, 27, 41	4?, 13, 20, 25, 31, 32, 37	10
3(중형)	310~380	39	16, 26, 28, 29, 30, 33	7
2(중대형)	400~480		6, 14, 18, 34, 45	5
1(대형)	500~900	40, 47 (전국만기)	X	2
계		11	23	34

(*총 47기 중 토광묘·봉토묘는 13기, 체석묘·봉석묘는 34기이며, 보고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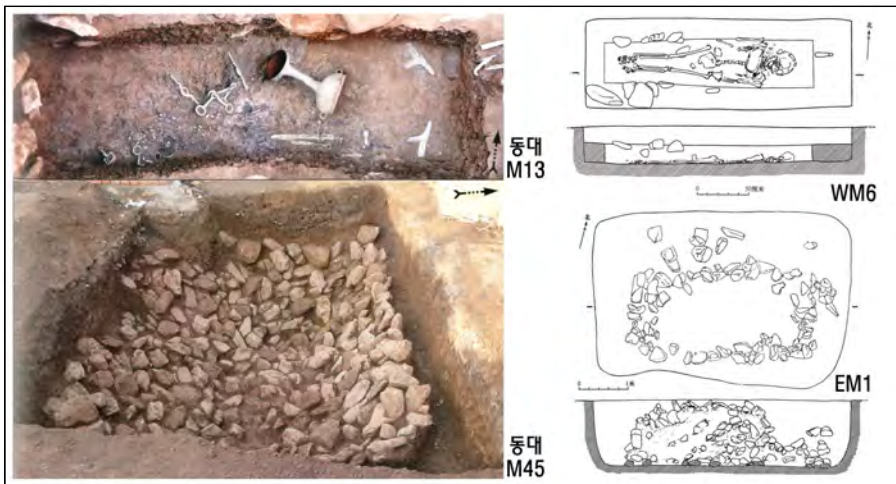
체석묘와 봉석묘는 중국 학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보통 묘광 내에 적석 또는 위석 시설물이 확인되는 경우 부여된다. 이 가운데 체석묘는 오가장자 유적(동구M1)에서 사용되는 예를 보면 대체로 묘광 내부토에 상당량의 석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 2010). 봉석묘는 동대장자 유적에서 사용되는 예로 보아 비교적 큰 규모의 무덤으로 봉토를 시설하기 전에 묘광 입구에 적석하여 놓은 것을 가리킨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編 2014). 다만 동대장자 유적 보고문의 경우 간략화된 적석시설 또는 위석시설로 판단되는 작은 규모의 무덤 역시 봉석묘라 하고 있어 서로 구별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는 일단 묘광의 규모와 석재 충전 양상에 따라 구별하여 간략화된 적석 양상을 보여주는 소형묘와 중소형묘는 체석묘라 하고, 전형적인 적석 양상을 보여주는 중형묘와 중소형묘는 봉석묘로 규정한다. 또한 동대장자 13호묘와 같이 일부 중소형묘 가운데 석재 충전 상태에서 위석 구조의 정형성을 나타내는 것은 보고문의 명칭대로 봉석묘에 포함한다.⁸⁾

300·50(cm)이고, 목곽 규모(長幅)는 약 320·160(cm)이다. 동대장자 45묘의 봉토 범위로 보아 정가와자 6512호묘의 축조 당시 봉토 규모는 지름 약 10m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8) 체석묘와 봉석묘는 중국 학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국내 학계에서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동대장자유형의 유적에서 체석묘나 봉석묘가 확인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동대장자 유적과 오가장자 유적 등의 소수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과거 중국 보고문의 경우 조사과정이나 분묘 구조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가령 객좌 북산근의 경우 석곽묘로 보고되었으나 적석목관묘형 분묘일 가능성이 있고, 분묘 구조를 알 수 없는 건창우도구의 분묘(90M1)나 호로도 산금구의 분묘(A/B) 역시 출토유물 양상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동대장자 유적에서 요령식 동과는 모두 봉석묘에서만 출토되는 점도 고려된다.

적석목관묘형 분묘는 심양 정가와자 3지점의 일부 분묘(M656, M6503)와 여순 윤가촌 일대의 분묘(M12 등)에서 확인되고 있어 요서지역에서 요동지역으로 전이된 것으로 생각된다. 요동지역의 초기 단계 세형동검은 요서지역의 것과 동일한 형식이며, 두형토기가 수반되는 것을 고려하면 요동지역 세형동검문화의 정립 과정에서 요서지역과의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후석 2015).



<도면 2> 동대장자유형의 분묘 구조(좌: 동대장자, 우: 오가장자)

동대장자유형의 분묘 구조는 체석묘나 봉석묘와 같은 적석 시설에서 특징적인 면이 잘 드러난다. 다만 중형 또는 중대형의 분묘들은 봉석묘에 한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있는 용어로 순화시켜 사용해야 하겠으나 본고에서는 혼란을 피하고자 일단 보고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되 용례를 구별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대장자유형에서 확인되는 적석 또는 위석 구조의 토광묘를 통칭하여 부를 때는 적석목관묘형 분묘라고 명명한다.

구조와 장법을 살펴본다. 봉석묘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적석부는 대개 묘광 입구나 상부에 천석을 사용하여 몇 벌 덮은 정도이고, 두께가 보통 40~80cm로 나타난다. 다만 묘광 내에 함몰된 상태를 감안하면 대개 4~8벌 정도 적석하여 묘광 입구를 마감하고 나서 봉토를 쌓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적석 방법은 구체적으로는 잘 알 수 없으나 중대형의 동대장자 6호묘나 45호묘의 경우 20~40cm 크기의 산돌과 냇돌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묘광 가장자리 쪽을 강돌을 사용하여 먼저 돌린 후에 그 안쪽으로 강돌과 산돌을 채워 넣는 방식이다. 묘광 가장자리에 있는 석재들은 안쪽의 석재보다 크기가 좀 더 크고 어느 정도 일정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 같다. 중소형의 동대장자 13호묘를 보면 목관 주위에 충전토를 채워 넣는 과정에서 비교적 큰 강돌들을 함께 넣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목관과 묘광의 사이에 강돌을 2~3벌 정도 돌려 놓았는데 일부는 묘광 상부에 충전한 것이 목관 함몰 과정에서 약간 떨어진 것일 수도 있다. 중소형의 오가장자 서구 6호묘는 이 보다 좀 더 간략화되면서 묘광에는 소량의 강돌만이 충전되어 있다.

묘광 입구 또는 매장부의 위에 적석부를 마련하는 것은 하가점상층문화나 수천문화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이다. 하가점상층문화의 경우 판석재가 주로 사용되어 석관묘나 석곽묘에 더 가까운 구조이며, 수천문화의 경우에도 동대장자유형처럼 묘광 입구 전면 적석 또는 위석 구조를 나타내는 것은 잘 확인되지 않아 봉석묘보다는 체석묘에 더 가까운 구조이다. 십이대영자문화에는 언제부터 적석시설이나 위석시설이 분묘에 채용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조양 십이대영자 유적의 분묘들을 비롯한 비파형동검문화 단계의 석곽묘로 보고된 분묘들 중 일부가 적석목관묘형 분묘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동대장자유형 분묘의 계통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동대장자 유적의 경우 매장주체부의 동쪽, 즉 두향 쪽의 생토이층대나 숙토이층대의 위에 소머리뼈, 특히 소아래턱뼈(牛頰骨)나 소이빨이 남아 있어 매장주체부의 시설을 완료하고 적석부를 마련하기 전에 소를 순생하여 소머리를 단수 혹은 복수로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가장자 유적의 경우에는 묘광 상부에 소와 개, 또는 돼지와 개의 머리뼈가 확인되고 있어 조금 다른 양상이다. 이단굴광이나 충전토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른바 생토이층대나 숙토이층대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생토이층대는 이단 굴광 상태를, 숙토이층대는 충전토를 각각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묘광 구조가 이단 굴광(생토이층대)으로 되어 있고, 매장부의 구조가 이중관곽 또는 목곽 구조를 나타내며 청동예기가 부장되어 있는 측면에서 전국시대 연의 묘제와도 관련시

켜 볼 수 있겠으나 묘광 두향(동쪽) 쪽에 개와 소 등을 순생하는 것은 옥황묘문화의 장례 풍습이다(정대영 2004). 다만 다른 동물 없이 소머리를 순생하여 놓는 것은 조양 십이대 영자나 십양 정가와자에서 먼저 확인되고 있으므로 십이대영자문화의 장례 전통으로 볼 수도 있다. 수천유형에서는 소머리뼈 대신 개와 돼지 머리뼈가 주로 발견되고 있어 동대장자유형의 동물순생과 대비된다.

동대장자 유적과 오가장자 유적에서는 목관 안에 인골이 남아 있는 예도 확인되었는데, 이(齒冠)나 넓적다리뼈(股骨)가 남아 있어 피장자의 두향을 알 수 있다. 피장자는 머리를 동쪽으로 바로펴묻기(仰身直肢)되어 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지만 주축이 남북방향, 두향이 북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도 확인된다. 소형 토광묘인 동대장자 42호묘가 그러한데 승문타날 부와 호가 조합되는 연식 토기만이 부장되어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동대장자유형의 범주로는 보기 곤란하다. 두향을 동쪽이나 이에 가깝게 배치하는 것은 동대장자유형의 분묘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속성이다.

동대장자 유적에서는 목관이나 목곽의 동단부를 나누어 별도의 부장칸(頭箱)을 설치하는 것도 확인되었는데, 중대형의 봉석묘(M14, M45 등)에서 현저하며, 예외적이지만 소형 토광묘(M3)에서도 확인된다. 중대형묘의 부장칸에서는 청동예기류와 청동차마구류, 채색도기 등이 주로 출토되며, 소형묘의 부장칸에서는 두형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동대장자 유적의 경우 부장칸이 없는 경우라도 厚葬墓는 부장품이 서쪽(발치)에 비하여 동쪽(두향)이나 중앙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예가 많다. 오가장자 유적의 경우 대부분이 부장칸이 없는 소형 또는 중소형의 薄葬墓에 해당되며, 두향 쪽의 머리말에 토착 토기류가 단수 부장되었거나 착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장식 정도만이 부장된다.

<표 3> 동대장자 유적 토광묘·봉토묘 속성표(● : 1점, ● : 2점, ● : 3점이상)

호수	두향	묘광 규모(cm)			관(곽) 규모(cm)			청동유물				토기		옥기보석	기타	비고	
		長	幅	深	長	幅	深	무기	차마장식	공구	예기	토	종				
3	동	226	106	234	195 (215)	54 (75)	34 (75)		●					●	●		두상
21	동	240	70	42	226	30	10						●				
22	동	254	70	74													유물×
24	북	300	140	110													유물×
27	동	290	154	86													유물×
35	북동	210	75	24													유물×
39	동	310	170	136	(230)	(180)	(50)										유물×
41	동	300	180	72													유물×
42	북	230	85	120	200	40	26		●					●			

<표 4> 동대장자 유적 체석묘·봉석묘 속성표(● : 1점, ● : 2점, ● : 3점이상)

호수	두향	묘광 규모(cm)			관(곽) 규모(cm)			청동유물				토기		옥기보석	기타	비고	
		長	幅	深	長	幅	深	무기	차마장식	공구	예기	토	중				
4	동												●				
6	동	425	265	152	(228)	(78)	(50)	●	●	●	●	●	●	●			
13	동	260	140	80	210	60	40	●	●	●	●	●					
14	동	445	280	180	(320)	(130)	(45)	●	●	●	●			●	●		두상
16	동	310	153	105	220	60	40	●	●	●	●	●	●	●	●		
17	동	230	190	66													유물×
18	동	400	258	140				●		●							
19	동	215	110	64				●				●	●				
20	동	308	218	110	220	50	40	●	●	●	●	●	●	●			
23	동	252	98	56	224	62	46	●	●			●	●				
25	동	300	?	40				●	●	●		●		●	●		
26	동	350	150	75								●					
28	동	340	196	114	210	48	44		●	●	●	?	●	●	?		도굴 무관 유곽
29	북동	358	190	100								●	●	●			도굴
30	동	380	320	130					●			●	●				도굴
31	북동	280	136	60													도굴
32	동	300	200	120	220	75	20	●	●	●	●	●		●	●		무관 유곽
33	동	310	160	120												●	중복(후) 도굴
34	동	400	260	?				●	●		●	●	●	●	●		중복(선)
36	동	230	90	48													중복(후) 도굴
37	동	270	130	48					●		●					●	중복(선)
38	동	240	100	70	(190)	(46)	(10)										●
45	동	400↑	340↑	130~320	250(308)	95(115)		●	●	●	●		●	●			봉토 두상

<표 5> 동대장자 유적 주요 분묘(봉석묘) 출토유물 일람표

호수	청동유물					토기		옥기 보석	기타	비고
	청동무기		차마구 대구	청동공구	청동예기	토	중			
	토	중								
45	검1, 금병1 과1, 축2↑	과2, 모2	차축두4 항2, 표2 환2↑ 대구1↑	부1↑ 착1↑	호2, 정1, 세1 이1, 두1 외	?	칠합1	마노환 수정환 옥벽, 옥 식	병두1	소뼈, 두상 일부 미상
14	검1, 금병1 과1, 축31	과3	차축두2 항2, 책2 관식40 대구2	부2, 도2 착2, 월1	호2, 정2, 세1, 이1, 개두1, 작 2			옥환1 유리환2	병두1 지석2 이진4	소뼈, 두상 일부 미상
6	검1, 병1	검1 과2	차축두2 항2, 환1 대구2	부1 도1, 월1 조식1	정1, 돈1	광구호1 소구호1 주구관1 두5	채호1	유리구1	병두1 녹송석 16	소뼈, 일부 미상
34	유경축8 유공축3		환형식5 개공모20		돈족1		호1 개호1	수정환5 마노휴1	이진2 병두1	소뼈? , 일부 파괴
18	병1, 축3			부1						소뼈? , 미상
16	병1 유경축4 유공축42	과1, 모1	차축두2 항2 환12, 식5 대구2	도1 부2, 착1	돈1, 이1, 부1	호2	두7	옥식2	녹송석 48 석부1	
32	검2 유경축20 유공축50	과1 축1	차축두2 절약2, 환5 환형식3 개공모14 연결장식6 관식6	도1 월1, 분1 추?	개호1, 정1 돈1	호(관)1		옥환2	녹송석 29	
20	검1, 병1 과1	과1	차축두2 항2, 환1 대구4	도2 부1, 추1		호1	두7 개용2	마노환1	병두1	
13	검1, 병1	과4, 거2 모2	차축두 항2, 표2 환, 대구1	도1 부1, 착1	개두1, ?	단경호1		?	병두1	소뼈

2. 동대장자유형의 부장 유물

동대장자유형의 출토유물은 다른 전국시대 문화유형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다만 유물 부장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유적 수가 적어 여기서는 동대장자 유적과 오가장자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유물의 구성과 기종에 대해서는 과목수영자나 우도구 등의 출토유물과 비교 검토한다.

먼저 동대장자유형의 부장유물은 적석목관묘형 분묘가 토광묘나 봉토묘에 비해 규모가 큰 것에 대응하듯 부장유물도 훨씬 풍부하다. 봉석묘에서는 청동유물이나 토기류가 다량 부장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토광묘나 봉토묘에서는 토기류나 장식류가 소량 출토되는 것이 많고, 심지어는 부장유물이 없는 것도 많다.

이를테면 동대장자 유적에서 동대장자유형에 속한 토광묘·봉토묘 중 보고된 9기 가운데 6기에서 부장유물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2기에서 청동유물이 보이지만 장식 1~2점에 불과하며, 3기에서 토기류가 보이는데 그마저도 두형토기, 연식 부와 호 등이 1~3점 정도이다. 오가장자 유적의 경우에는 도굴 또는 파괴된 동구 분묘(EM1~3)를 제외하면 서구 분묘 14기 가운데 1기(M6)를 제외하면 모두 토광묘(목관묘)로 부장유물은 토기 1점이나 공구 또는 소형 장식류 1~2점에 한정된다. 마권자 유적의 경우에도 오가장자 유적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다.

다만 과목수영자, 토성자, 우도구(90M1) 등의 토광묘로 알려진 분묘유적에서 비교적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분묘 구조가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석곽묘로 알려진 복산군 유적 역시 구체적인 구조를 알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로는 상당수가 적석목관묘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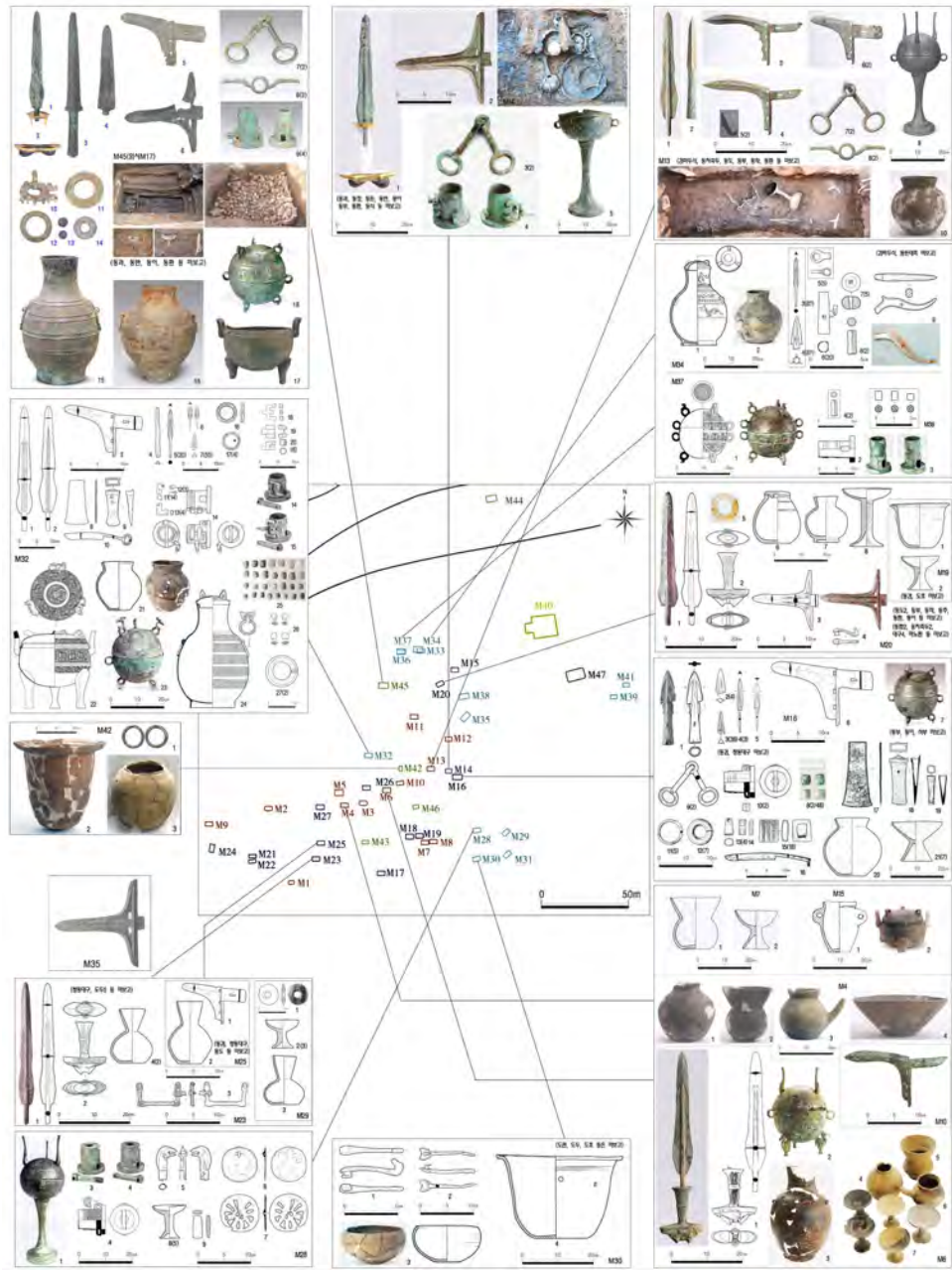
동대장자유형의 유물 부장 양상은 동대장자 유적의 봉석묘에서 잘 나타난다. 중형묘(M16, M28)나 중대형묘(M45, M14, M6, M34 등)에서는 청동무기, 청동예기, 청동차마구, 청동공구, 토기, 옥기·보석 등의 다양한 종류가 기종 조합을 이루면서 2~3점 이상 출토되는 예가 많은데, 특히 청동무기와 청동예기, 또는 청동무기와 청동차마구의 비중이 높은 것이 많다. 그렇지만 일부 분묘(M18 등)에서는 출토 유물이 빈약한 것도 확인되었는데, 보고 내용이 소략하다던지 청동유물 대신 도제예기 등의 토기류가 많은 점이 눈에 띈다. 성별 차이와 관련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중소형묘의 일부(M32, M13)에서 중대형묘에 버금가는 유물상을 보이는데, 특히 청동무기에서 두드러진 양상을 나타낸다. 이를테면 32호묘에서는 청동무기 3점이 청동예기 3점 등과, 13호묘에서는 청동무기 7점이 청동예기 1점(이상) 등과 공반되어 청동무기류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중소형묘로 분류되었으나 실제 규모는 중형묘와 크게 다르지가 않은 점이 고려되며, 상대적으로 군사적인 권위를 강조하려 했던 것 같다.

이와 같이 봉석묘의 묘광 규모와 부장유물 질량 간의 상관관계가 꼭 비례하지 않는 것도 확인된다. 이는 분묘 규모의 설정 기준과도 관련되었으나 권력 기반이나 성별 또는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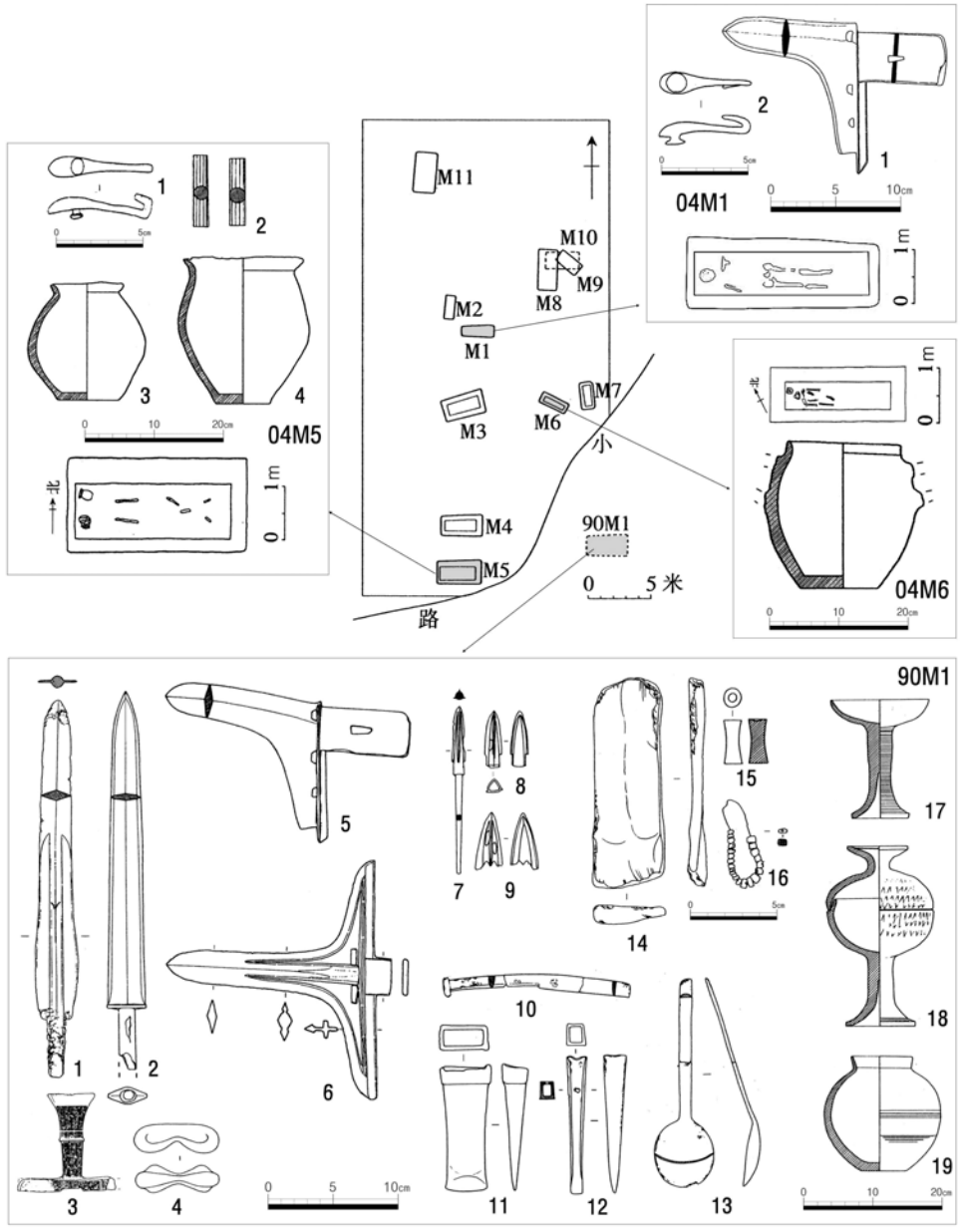
령 차이, 직능 차이 등이 다양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를테면 동대장자 유적의 경우 청동유물 대부분의 기종들을 갖춘 대형 봉석묘(M45, M14 등)는 수장묘로 볼 수 있다. 청동무기가 많고 청동예기는 없이 또는 단수 부장하는 경우에는 군사적인 권위를 반영하려 했던 의도(M13), 이와 대조적으로 청동무기는 없고 청동예기가 있는 것은 성별이나 직능 차이의 반영(M28, M37) 등과 같은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상당수의 분묘들이 도굴되어 보고된 자료가 부장 당시의 유물상을 꼭 반영하는 것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향후 추가 보고가 이루어진다면 묘광 규모와 부장유물 구성상의 특징을 조합하여 분묘 등급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과목수영자나 토성자 유적의 경우에는 분묘 구조의 차이를 논외로 하더라도 부장유물이 청동무기, 청동차마구, 토기류 등의 10~15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대장자 유적과 비교하면 중형묘급이나 중소형묘급에 해당된다. 우도구 유적(90M1)의 경우 청동무기, 청동차마구, 청동공구, 도제예기 등의 총 40여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대장자 유적으로 보면 중형묘급에 해당된다. 또한 마권자나 오가장자 유적은 분묘 규모가 작고, 부장유물 역시 매우 빈약하여 하위등급에 속한 유적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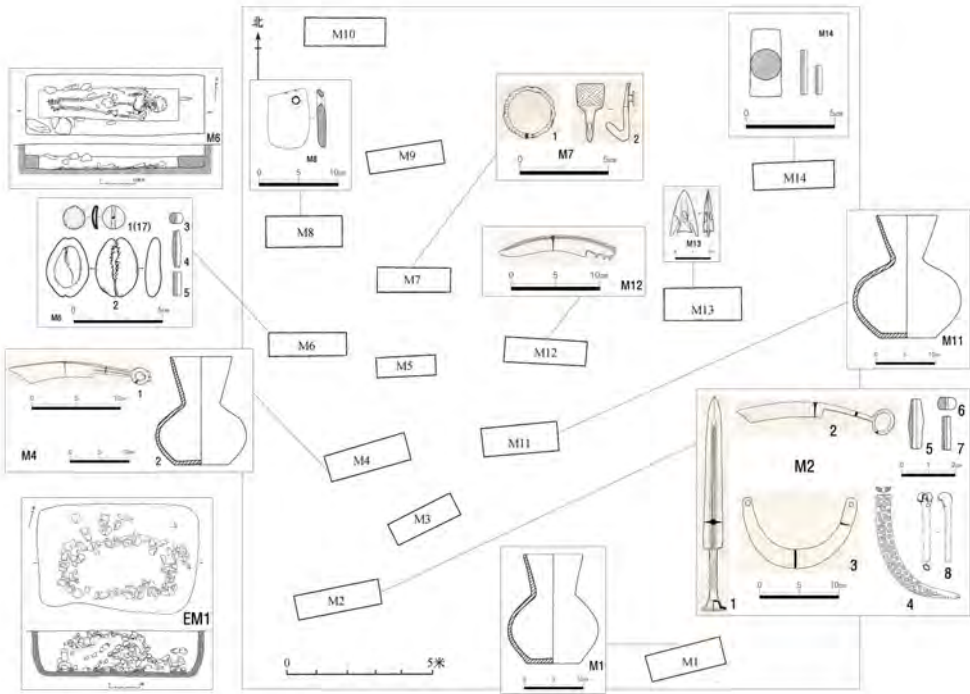
동대장자유형의 부장유물 기종 구성과 그 특징들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라고 하더라도 도면이나 사진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많아 종류별로 특징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부장유물 종류가 다양하고 수량도 비교적 많은 동대장자와 우도구 유적을 중심으로 과목수영자와 토성자 유적이 주요 검토대상이다.



<도면 3> 건창 동대장자 유적의 조사분묘와 출토유물의 배치



<도면 4> 건창 우도구 유적의 분묘와 출토유물의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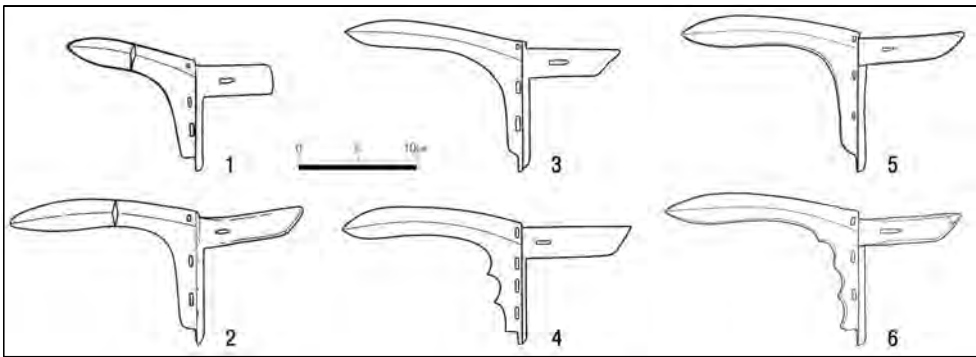
<도면 5> 조양 오가장자 유적(서구)의 조사분묘와 출토유물의 배치

청동무기류

청동무기류는 신출 기종의 토착계와 중원계가 공반되는 점이 특징이다. 남동구유형과는 달리 청동무기 구성에서 중원계 동과 외에 동검과 동모가 추가되고, 토착계의 비파형동검도 보이지만 요령식 세형동검과 요령식 동과가 출현하며, 검병 역시 부속 일부만이 금속으로 제작되는 과목수영자식검병이 등장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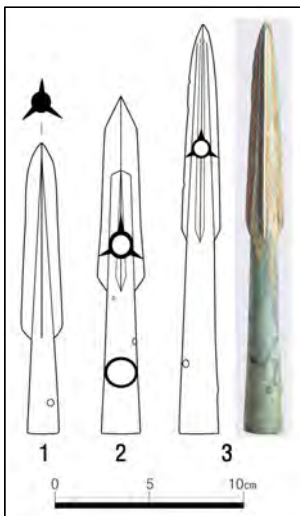
먼저 이전 단계에도 확인되는 중원계 동과의 경우 남동구유형에는 춘추말~전국초 단계의 ‘短内-直援-短胡’의 속성을 나타내는 고식 동과만이 출토되었으나 동대장자유형에는 ‘長内-曲援-長胡’의 속성을 보여주는 신식 동과가 함께 출토된다. 고식 동과는 상대적으로 붕이 날카롭고 내가 길어져서 낮은 형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많고, 신식 동과는 크기가 30cm 가까이로 커지면서 내의 가장자리가 갈리거나 다중 호자가형성되어 있는 전국 중기 단계의 삼진계 연식 동과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13호묘 출토품은 동거와 결합되는 것이어서 ‘연장극’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식 동과는 하북지역의 북경 통현 중조보나

하남지역의 휘현 조고 1호묘 출토품과 같은 형식인데 편년 기준으로 매우 중요하다. 동대장자 유적에서는 20여점의 고식 동과와 신식 동과가 단수 또는 복수 이상으로 출토되었으며, 다른 유적에서는 주로 고식 동과가 단수로 출토되고 있다. 동과는 대부분이 착장하지 않은 상태로 피장자의 두향(동쪽) 쪽에 부장하는 것이 보통인데 신식 동과의 경우 충전토의 위에 착장상태로 부장되는 것도 확인된다.



<도면 6> 동대장자유형 속의 중원식 동과(신식)와 비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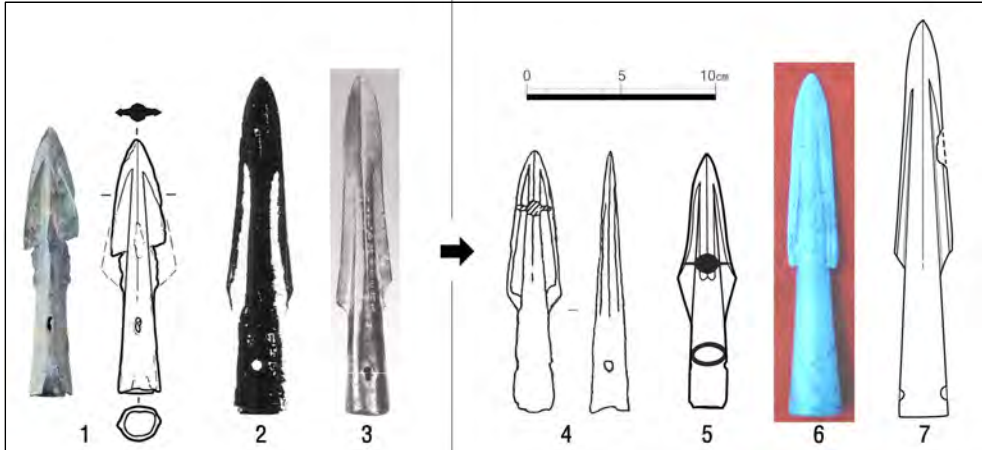
(1-2. 하북 통현 중조보, 3-4. 하남 휘현 조고 M1, 5-6. 건창 동대장자 M10-M13)



<도면 7> 삼익형동모

중원계 동모는 동대장자 유적에서 출토되었는데 45호묘에서는 검형동모가, 13호묘에서는 삼익형동모, 16호묘에서는 세신형동모가 각각 확인된다. 검형동모는 단면 능형과 단면 검릉형이 보이는데 단면 능형의 것은 창으로도 볼 수 있는 형태이고, 단면 검릉형의 것은 대형 동축을 연상케 하는 특이 형식으로 극자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춘추말~전국 초 단계에는 확인되지 삼익형동모(도면 7-3)는 삼진지역에서 주로 유행한 형식으로 모봉이 짧고 모엃이 긴 것에서 모봉이 길고 모엃이 짧아진 것으로 변화하여 결국 삼익형에서 삼릉형으로 변천된다. 극자로 사용된 것 같다(方殿春 2007). 전국 초기의 한단 백가촌 57호묘 출토품(도면 7-1)이 선형 형식이고, 전국 중기의 하북 영수성 3호묘 차마괘 출토품(도면 7-2)이 같은 단계이다. 세신형동모(도면 8-1)는 공부 침공의 투공 방향을 제외하면

기본적인 세신 형태 뿐만 아니라 봉부가 날카롭게 연마되어 형성되어 있는 점과 10~15cm의 소형이란 점이 요동지역 토착 세신형동모, 즉 요령식 세형동모와 동일하다. 동대장자 출토품은 요령식 세형동모의 조형으로 요령식 동과와 함께 요동지역으로 전이된 것이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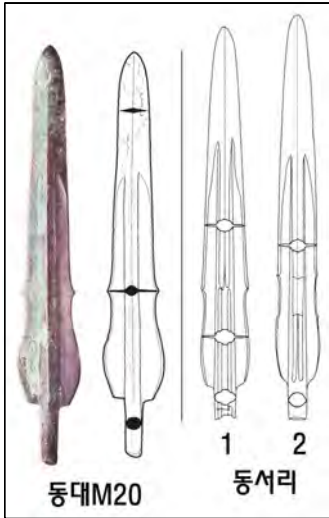
<도면 8> 세신형동모(요령식 세형동모)의 계통과 변천 과정

(1. 동대장자 M16, 2. 하북 연왕직모, 3. 요령 조국동모, 4. 본계 망성강자, 5. 연해주 이즈웨스토프카, 6. 환인 유가대원, 7. 길림 장사산)

중원계 동검은 동대장자유형에서 비파형동검과는 공반되지 않고, 중간 형식 또는 세형동검 초기 형식으로 볼 수 있는 과목수영자식 동검이나 세형동검 등과 공반되고 있어 동대장자유형이나 세형동검문화의 획기 설정에 유효한 편년 자료이다. 중원계 동검은 편경식, 편병식, 통상병식, 유절병식의 4형식으로 대별되며(이후석 2014), 그 밖에 북방계 동검과의 절충식을 포함하면 5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동대장자 유적에서는 편경식이 과목수영자식 동검과, 우도구 유적에서는 통상병식이 세형동검(우도구식)과 공반되었으며, 원대자 유적에서도 유절병식과 세형동검(우도구식)이 함께 채집된 바 있다. 또한 오가장자 유적에서는 절충식이 출토되어 있다.

요서지역에서 중원식 동검의 등장시기는 오도하자 유적(M1)과 동대장자 유적(M6)의 출토품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오도하자 유적은 대릉하 수계가 아니라 난하 수계에 위치하며, 1호묘의 중원식 동검은 편경식과 편병식이 함께 보이면서 전국 중기 단계의 신식동과와 공반되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오가장자 서구 2호묘(WM2) 출토품과 같이 옥황묘 문화 후기단계 요소에 중원문화의 요소가 복합되어 있어 전국 중기 단계라고 하더라도 상

대적으로 이른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대장자 6호묘의 경우에도 전국 초기에 처음 등장하는 청동예기(둔)와 도제예기(채회도호)가 공반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자료로는 기원전 400년경 이전으로 올려보기 곤란하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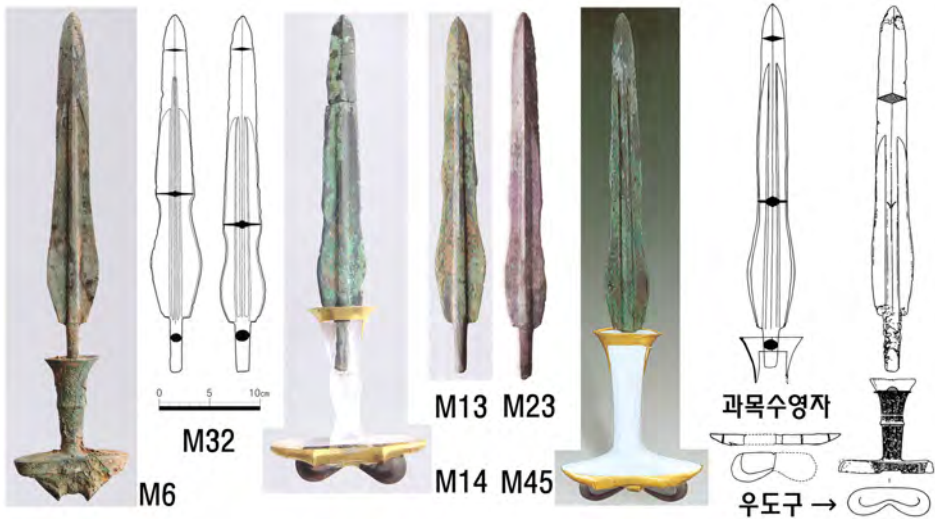
<도면 9> 동검 비교

토착계 동검, 즉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은 동대장자유형 전기 단계와 후기 단계를 대표하는 유물이다. 대부분은 착장상태로 피장자의 허리춤에서 발견된다. 비파형동검은 모두 등대 돌기가 사라지고 검신 상부가 직인화된 것이어서 모두 말기 형식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동대장자 20호묘 출토품(도면 9)은 등대 마디(척절)는 불완전한 형태지만 검엽 돌기(엽절)와 결입부가 검신 하부에 형성되어 있는 점이 한국식 세형동검의 초기 형태와도 유사하다. 예산 동서리 유적 출토품과 가장 닮아 있다.

세형동검은 한국식이 아닌 요령식에 해당된다. 중간 형식 또는 요령식 세형동검의 초기 형식에 해당되는 과목수영자식을 거쳐 우도구식부터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는데,

동대장자 유적에서는 말기 비파형동검이나 과목수영자식(M6, M45)이 출토되었으며, 과목수영자 유적에서는 과목수영자식, 우도구 유적과 원대자 유적에서는 우도구식이 출토되어 선후 관계를 알 수 있다. 다만 세형동검 초기 단계에는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이 공존하며 세형동검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어 공반유물을 통해 세부 연대를 조정해야 한다. 중원식 동검과 공반되는 단계부터 요령식 세형동검이 출현하는 것을 감안하면 요령지역 세형동검 형성과정에서 중원식 동검 사용집단과의 교류가 일부 있었던 것 같다. 현재까지 요서지역에서 확인되는 전형적인 요령식 세형동검은 우도구식인데 요동지역의 요양 양갑산 유적이거나 본계 사와 유적에서 동일 형식에 속한 것이 출토되고 있어 양 지역간에 일정한 상호작용이 있었음도 알 수 있다.

9) 동대장자 6호묘의 채회도호는 하북지역의 연하도 서관성촌 13호묘 출토품과 매우 유사하다. 특히 동물문양은 13호묘 출토품과 일치하며, 기형은 13호묘 출토품과 18호묘 출토품의 중간 형태이다.



<도면 10> 동대장자유형의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

동검과 조립되는 검병은 청동검병과 동목검병(또는 금장목병)이 출토되었는데, 동목검병과 금장목병은 파부 끝과 반부 테두리만 청동 또는 금제로 주조되어 목병과 조립되는 과목수영자식검병이 등장하는 것이 이전 단계와는 다른 가장 큰 특징이다. 현재까지 4점 정도가 출토되었는데 대부분은 동대장자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다. 과목수영자 유적에서는 청동제가 과목수영자식 동검과 처음 확인되었으며, 동대장자 유적에서는 금제가 말기 비파형동검이나 과목수영자식 동검과 결합되어 수장급의 중대형묘(M45, M14, 도굴품 등)에서 출토되어 주목된다. 금장(목)병동검은 동대장자유형 분묘에서 피장자의 지위나 위계를 나타내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요령식 동과는 동대장자유형 청동무기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주로 충전토나 목관 밖에 부장된다. 현재 동대장자 유적 4점, 우도구 유적 1점, 산금구 유적 2점, 양가영자 유적 1점 등 요서지역에서 8점이 확인되었고, 망강촌 유적 1점, 쌍산자 유적 1점 등 요동지역에서 2점이 확인되었다. 요서지역의 경우 호자형(양가영자형)의 양가영자 유적 출토품을 제외하면 모두 쌍호형(우도구형)에 해당된다. 전반적으로는 세신화가 진행되며 장폭비가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하며, 세부적으로는 호와 난설이 퇴화하여 호는 ‘외만→직선→내만’의 방향, 난설의 너비와 높이가 ‘강→약→소멸’하는 방향으로 각각 바뀌면서 결국 요서지역의 우도구형에서 요동지역의 쌍산자형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조진선 2009; 이후석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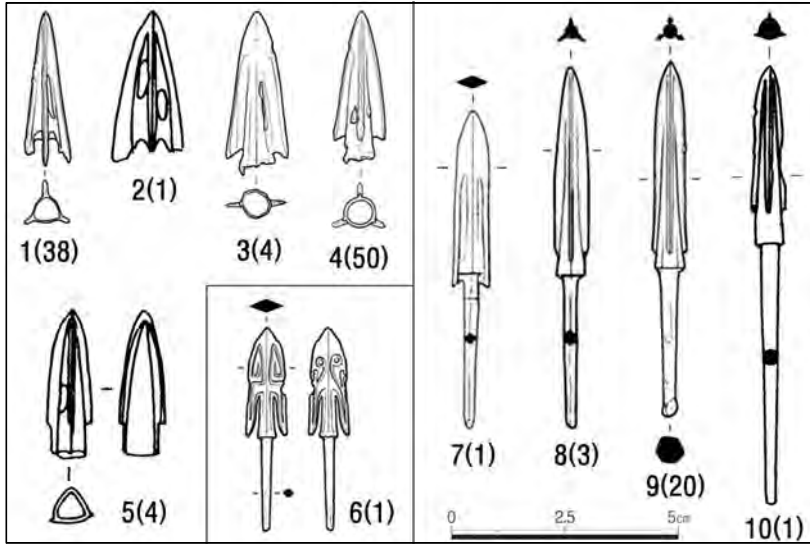
<도면 11> 동대장자유형 요령식동과(우도구형)의 형식 변천

(우도구식: 동대M35·M45·M14, 우도구90M1, 중간형: 동대M20, 산금구식: 산금구A)

우도구형은 다시 우도구식과 산금구식으로 세분할 수 있겠는데, 우도구식은 3점으로 동대장자 출토품(M35, M45, M14)과 우도구 출토품(90M1)이 있고, 산금구식은 2점으로 산금구 출토품(A/B)이 이에 해당한다. 동대장자 M20 출토품은 우도구식에서 산금구식으로 이행하는 중간 속성을 나타낸다. 가장 많은 우도구식은 비파형동검이나 세형동검과 공반되며, 산금구식은 공반유물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세형동검과 공반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요령식동과의 초기 형식은 우도구식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 가운데 어느 것을 초출 형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고 내용이 소략하여 다소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공반유물이나 호·난설 등의 속성으로 보아 제작시기는 동대장자 35호묘 출토품이 전국 초기 단계로 가장 빠를 것으로 추정된다. 요령식 동과는 기본적으로 중대형의 봉석묘나 후장묘에서 출토되고 있어 피장자의 위계나 신분은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동축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다양한 형식이 공반되는 점이 특징이다. 보고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면 동대장자유형 속의 동축들은 유공식과 유경식으로 대별되며, 세부적으로는 6가지 형식으로 분류된다. 먼저 有鑿式은 목(頸)의 유무에 따라 삼익무경축(유공1식), 삼익유경축(유공2식), 양익유경축(유공3식)으로 세분된다. 다음으로 有莖式은 모두

촉경/촉신 비율이 보통 1:1 납짓되는 長身形 長頸式鏃이다. 이 가운데 동대장자 32호묘의 양익역자유경촉 1점(유경1식)¹⁰⁾과 동대장자 16호묘의 삼익무경촉 1점(유경2식)을 제외하면 모두 삼익유경촉(유경3식)에 해당한다.



<도면 12> 동대장자유형 출토 동촉의 분류

(유공1식: 1·2, 유공2식: 3, 유공3식: 4·5 / 유경1식: 6, 유경2식: 7, 유경3식: 8~10) (1·3·7·8. 동대장자 M16, 2·5·10. 우도구 90M1, 4·6·9. 동대장자 M32)

동대장자 유적에서는 300여점이 출토되었는데, 삼익유공촉이 200점 이상이고 삼익장경촉과 이형촉이 100점 미만이다. 적게는 1~2점이, 많게는 80여점이 출토되었는데(성경당 2015),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로는 동대장자 32호묘가 71점으로 가장 많다. 우도구 유적에서는 총 6점이 출토되었는데, 삼익무경유공촉이 1점, 삼익유경유공촉이 4점, 삼익장경식유경촉이 1점이다. 토성자 유적에서도 삼익유공촉 즉, 동대장자유형의 동촉 구성은 크게 보면 三翼有莖鏃과 三翼長莖鏃이 조합을 이루면서 세부 형식이 다른 동촉들이 일부 추가되

10) 有莖式的 兩翼逆刺有頸鏃은 중원계 동촉으로 산서 장치 분수령 M12·M56(山西省考古研究所 外 2010), 산둥 임치제묘 단가장묘지 LSM2(山西省考古研究所 外 2010) 등의 유적에서 동일 형식이 출토된 바 있다. 전국시대 이후 산서-하남-산동지역에서 유행한 형식인데 촉신 표면에 주출된 문양은 조금씩 달리 나타나고 있다.

는 양상이다.

요서지역에서 이와 같은 여러 형식의 동축들이 조합을 이루면서 출토되는 것은 능원 삼관전자 유적부터인데, 다만 장경식삼익축이 추가되는 것은 우도구 1호묘(90M1)나 동대장자 유적(M32, M16)부터 확인되는 양상이다. 이 가운데 전국 초기 후반 또는 전국 중기 단계에 해당되는 중원식 동검(통상병식)과 중원식 동모(세신형)가 공반된 동대장자 16호묘와 우도구 1호묘를 제외하면 동대장자 32호묘 출토품의 부장 연대가 빠를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동대장자유형의 동축 조합을 나타내는 삼익유공축과 삼익장경축은 전국 초기 이후 등장하여 전국 중기 단계에는 동대장자유형 유적에서 보편적으로 부장됐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삼익장경축은 아직까지 동대장자유형 유적에만 보이므로 기원전 4세기 대 요서지역의 청동무기를 구성하는 동축의 대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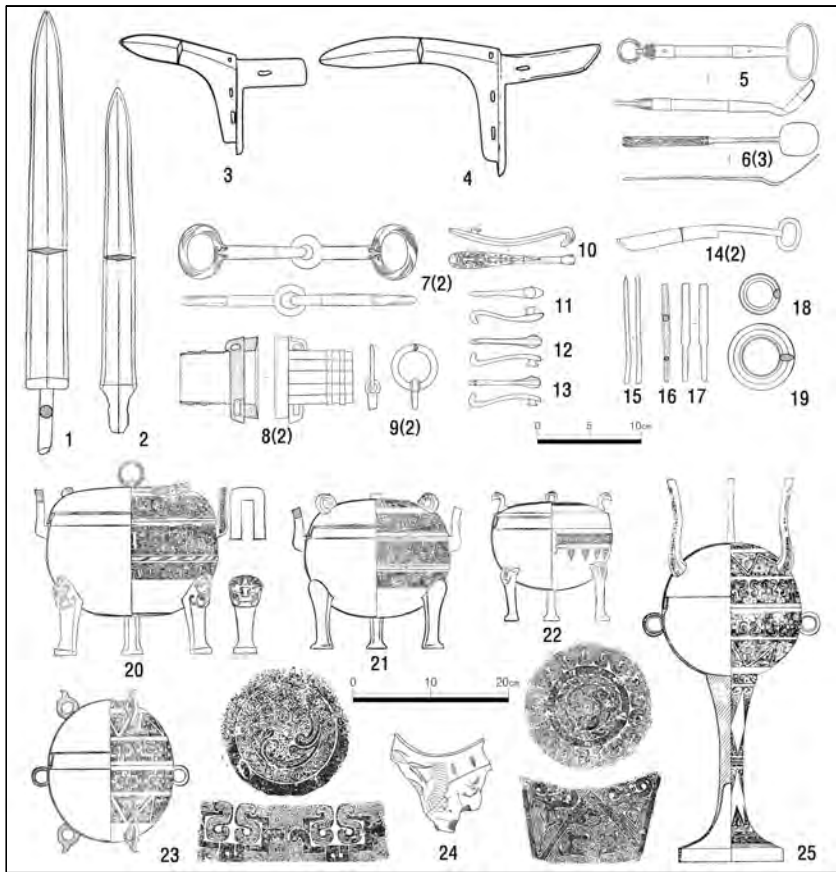
청동예기류

청동예기류는 십이대영자유형부터 출토되나 대부분은 하가점상층문화 남산근유형과 관련된 것들이고, 남동구유형에도 비과형동검과 공반되는 예가 확인되나 하북-요령 접경지대에서 나타나는 흔치않은 현상이다. 그렇지만 동대장자유형에는 중원지역에서 확인되는 여러 기종이 다수 부장되어 이전 단계와는 확연하게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다만 청동예기가 출토되는 유적들은 거의 요서 서남부지역의 건창 일대로 한정되고 있어 역시 지리적, 문화적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 확인되는 특징적인 양상이다.

청동예기류는 모두 봉석묘에서만 출토되었으며, 특히 중형이나 중대형의 무덤에서 출토량이 현저하다. 동대장자 유적에서 집중 출토되었으나 아직까지 다른 유적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와 같은 양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향후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동대장자 유적의 청동예기들은 동세, 동이, 동정, 동호, 동돈, 동두, 동착 등의 기종으로 구성되었는데, 주로 확인되는 것은 동호, 동돈, 동두, 동정이다. 출토 수량이 1점인 것은 6기이고, 3점 이상인 것은 4기이다. 특히 중대형묘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되는 14호묘와 45호묘의 경우 청동예기는 6~9점이나 되어 중원지역 귀족묘에서의 출토 정황과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청동예기의 출토 맥락을 살펴보면 부장칸(두상)이 있는 경우 절반 이상이 부장칸에 매납되고 있다. 동세나 동이는 주로 부장칸이나 두향 쪽에 배치되며, 차마구류를 담아 함께 부장했던 것 같다. 동정과 동두는 묘광 중앙부 언저리에 정형없이 흐트러진 채 발견되는

예로 보아 주로 목관 위에 매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뚜껑과 몸체가 서로 이격되어 발견되는 것은 목관 함몰 과정에서 떨어져서 그런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보고문에 목관 바닥면에 정치 부장한 것으로 도면화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즉, 목관 안치후에 관내 부장품을 매납하고 관의 주변부를 충전한 후 청동예기를 목관 위나 부장간에 매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13> 청동예기 비교 자료 - 북경 통현 중조보 유적 일괄유물

청동예기들은 대부분이 전국 초기 형식(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14)으로 보이는데, 제사용기로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청동유물에 비해 제작시점과 부장시점의 간격이 크며, 이는 중원지역에서 지리적·문화적으로 먼 외연지대에서 더욱 잘 나타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김정열 2011, 로타 본 팔겐하우저 2011).

동대장자의 청동예기 중에 빈번하게 출토되는 동두·동돈·동정 등은 연의 영역에서 출토되는 것과 형태와 장식이 유사하다. 특히 북경 통현 중조보 유적(程長新 1985)에서는 동두·동돈·동정 등이 고식·신식 동과, 편경식·통상병식 동검, 수면문재갈 등과 공반되었는데, 동두는 14호·13호·28호, 동정은 32호, 동돈은 16호·37호, 동과는 10호, 동검은 우도구(90M1)와 6호, 수면문재갈은 동대장자 대부분의 재갈들과 각각 유사성이 매우 높다. 청동예기의 경우 기형은 물론이고 주문양이 삼각운문 또는 기룡문인 것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동대장자 청동예기의 대부분은 중에 전국 초기 후반~중기 무렵 연을 통해 입수된 것으로 판단해도 크게 문제될 것 없다.

청동차마구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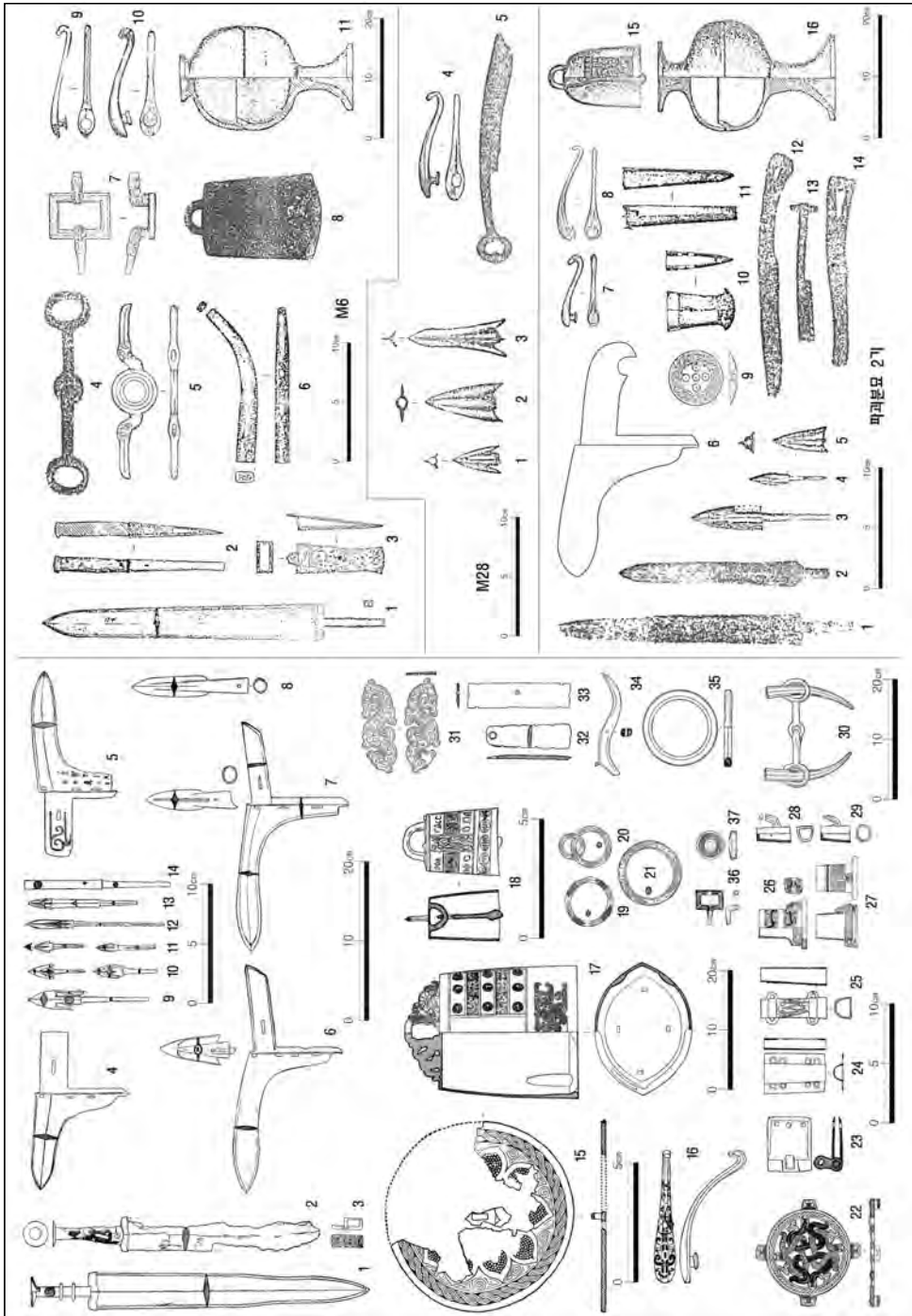
청동차마구류는 기본 구성이나 형태가 이전 단계의 남동구유형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 그렇지만 동대장자유형의 차마구류는 기종 구성과 장식에서 일부 새로운 양상들이 확인되며, 이전 단계의 북방계 요소들은 거의 사라지고, 중원계 요소들이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내어 주목된다.

청동차마구류는 재갈(동함), 재갈멈치(동표), 절약, 동탁, 동차축두, 동책, 동개궁모 등이 확인되며, 이 가운데 거의 공통적으로 부장되는 것은 동함, 동표, 동차축두 정도이다. 일단 기종 구성에서 이전 단계에 부장되지 않던 동개궁모가 등장하는 점이 특징이다. 동개궁모는 동대장자 유적(M32·M34 등)에서 주로 출토되었으며, 머리가 없고, 고리가 각진 느낌이며, 단면형의 경우 한쪽 면은 편평한 원형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산서지역의 섬현 후천촌 2040호묘(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著 1994) 출토품과 같이 전국 초기~중기 단계에 중원지역에서 흔히 확인되는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함의 경우는 고리 위에 수면문이 장식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북경 통현 중조보 유적(程長新 1985) 등의 동표의 경우 중앙부의 원환을 중심으로 새머리가 대칭되게 배치되어 있는 조두형 동표가 출현하는 점이 주목된다. 조두형 동표는 가까이서 하북 북부지역의 전국 초기~중기 유적에 해당되는 난평 포대산 6호묘(河北省文物管理研究所外 1984)에서 확인되고 있다. 절약은 이전 단계에는 옥황묘문화의 것과 유사한 방형에 가까운 십자대칭형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때에는 ‘ㄱ’자나 ‘ㄷ’자 모양의 각진 형태가 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은 관상각식은 동대장자 32호묘에서 여러 형태가 확인되며, 산서지역의 장치 분수령 11호묘(山西省考古研究所外 2010)와 산동지역의 임치제묘 동하장묘지 5·6호

묘(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07)를 비롯하여 중원지역의 전국 초기~중기 단계 다수 확인되는 형식이다. 분수령과 임치제묘의 전국시대 무덤에서 관상각식은 마노휴식과 공반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산서지역의 섬현 후천촌 2040호묘 또는 동대장자 34호묘 출토품과 세부 형태까지 같은 형식이다. 동책은 방형 환에 물새 모양의 새머리가 배치되어 있는 압두형 동책이다. 동대장자 유적 출토품은 섬현 후천촌 2040호묘나 난평 포대산 6호묘 출토품과 유사하다. 동탁은 과목수영자 유적 이후 동대장자유형에서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동대장자유형의 청동차마구는 전국 초기~중기 단계 삼진지역이나 연·제지역에서 종종 확인되는 기종 형식이다. 하북 북부지역의 경우 옥황묘문화가 연문화로 이행하는 단계부터 확인되고 있어, 요서지역에서 중원지역 차마구가 등장하는 시기를 가늠하게 한다. 신출 기종으로 동개궁모가 주목되며, 이전 단계와는 달리 뱀·가오리·개구리·소·말 등의 모티브를 활용한 북방계나 토착계의 동물장식은 수면문, 압두형 등의 중원계 장식 문양으로 대체된다.



<도면 14> 청동차마구 비교 자료 - 성현 후천촌 M2040(좌), 난평 포대산(우)

토착 토기류

동대장자유형의 토기류는 토착계의 조질무문토기(협사홍갈도, 협세사회갈도)와 중원계의 연식 취사저장용기, 도제예기로 크게 구별된다. 남동구유형과 비교하면 일단 연식 토기류가 사용되고 부장되기 시작하며, 토착 토기류에 신출 기종이 추가되는 점이 주목된다. 다만 토착 토기류라 하더라도 동대장자유형에만 한정된 토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도 적지 않아 기종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주요 기종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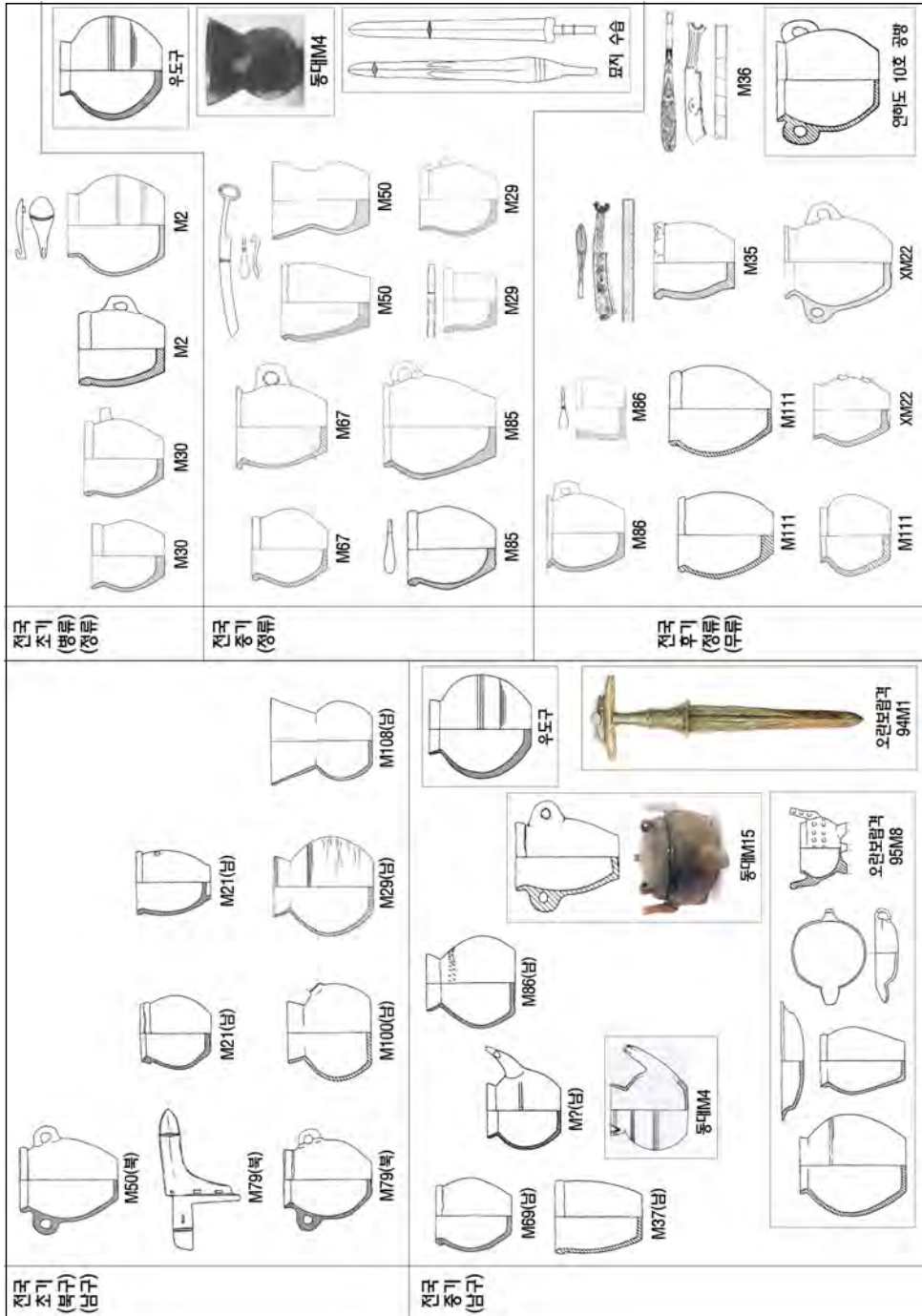
먼저 토착 토기류는 평저장경호와 평저단경호, 주구관형토기, 이중구연심발형토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평저장경호는 오가장자 출토품이 대표적인 사례여서 오가장자식 장경호라 명명된다(김민경 2014). 오가장자식 평저장경호는 편구형 동체에 경부가 길게 외경하는 것이 특징인데, 경부 하단 폭이 매우 좁은 것(1식)과 그렇지 않은 것(2식)으로 세분된다. 1식 장경호는 오가장자 11호묘를 비롯하여 동대장자 23호·25·29호묘에서 출토되었고, 2식 장경호는 오가장자 1호·2호묘, 마권자 2호·31호묘에서 출토되었다. 남동구유형에서는 원대자 갑류묘 출토품과 같은 원대자식 장경호가 부장되었는데, 이는 옥황묘문화의 장경호를 계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오가장자식 장경호는 1식의 경우 전 단계의 변화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2식의 경우에는 정가와자 3지점 전국중기 문화층(M2) 출토품과 매우 흡사하여 이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자료로만 보면 전국 초기 이후 동대장자유형과 함께 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평저단경호는 편의상 소구호와 광구호, 외반구연호, 구형호로 세분하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서로 다른 기종이라 할 수 있다. 소구호나 광구호는 서로 공반 또는 주구관형토기와 공반되는 예가 동대장자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고, 오한기 수천 유적(남구)이나 오란보랍격 유적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분포 범위는 요서 전역에 걸쳐 있다. 이 가운데 소구호(또는 소구용)는 동대장자 6호묘, 외반구연호는 동대장자 32호묘 출토품이 확인된다. 광구호는 동최대정보다 구경이 넓은 장경식이 특징인데 동대장자 4호·6호·7호묘와 원대자 정류묘(M50), 수천 남구 분묘(M108)에서 확인된 바 있다. 비파형동검문화 단계에도 유사 기종이 확인되고 있어 이전 단계 토기에서 변화된 기형으로 생각된다. 원대자나 동대장자의 공반유물로 보아 전국 초기에 등장하여 전국 중기에 유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형호는 원대자 1호묘(90M1), 원대자 병류묘(M2), 수천 남구 분묘(M29), 오란보랍격 8호묘(95M8) 출토품과 같이 동체에 특징적인 횡방향 조정흔이 있는 것(수제이질회갈도)과 동대장자 13호·16호묘 출토품과 같이 표면이 매끈하게 물손질되어 있는 것(수제협사회갈도)

이 있어 기술적·계통적으로 구별되는 것 같다. 전자의 경우 대릉하유역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하며, 동체는 상대적으로 편구형에서 장동형으로, 구경은 긴 것에서 짧은 것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수천M29·원대자 M2→우도구 90M1→오란보랍격 95M8'의 변화상이 상정된다.

주구관형토기는 기존에 파수부관이라 명명했던 기종인데 파수가 아닌 주구로 확인되는 것이 많아 명칭을 수정했다. 현재까지 동대장자와 과목수영자 유적 뿐만 아니라 수천 남구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역시 대릉하유역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하는 기종으로 공반유물로 보아 전국 초기 이후 등장하는 특징적인 기종이다.

그렇지만 이중구연심발형토기는 종상의 쌍환이가 달린 것이어서 수천 79호묘와 50호묘 출토품과 비교되는 수천유형 토기이다. 수천유형 토기류는 춘추말~전국초 무렵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郭治中 2000) 기형 변화와 이중구연부의 퇴화과정을 거치면서 동대장자 15호묘 출토품과 같이 전국 중기 무렵에는 연식 도제 예기와 공반된다던지 또는 연하도 낭정촌 10호공방 전국 만기 수혈(H427) 출토품과 같이 전국 후기까지 잔존한다.



<도면 15> 동대장자유형 단계 토착 토기류의 비교

IV. 기원전 4세기대 요서지역의 문화변동과 그 의미

앞서 검토하였듯이 기원전 4세기대 요서지역의 물질문화는 동대장자유형으로 대표된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유적 수가 많지 않고, 조사 유적 역시 요서 서남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다 보고 자료 역시 소략하여 구체적인 변화과정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대장자 유적을 비롯한 건창 일대의 유적 조사성과와 오가장자 유적이나 마권자 유적 또는 원대자 유적 등의 주변 유적 조사성과를 통해 초보적이거나 비교 연구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동대장자유형은 건창-객좌 일대의 요서 서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요서 남부지역 전역에 걸쳐 분포하며, 그 중심지는 동대장자 일대로 추정된다. 동대장자 유적의 주변에는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지점에 우도구 유적이 위치하며, 그곳에서 다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지점에 토성자 유적이 위치한다. 이곳에서 다시 북동쪽과 동쪽으로 30~50km 떨어진 지점에는 양가영자, 북산군, 과목수영자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유적 규모와 유물 출토 정황을 고려할 때 동대장자유형은 동대장자 유적이나 그 부근에서 형성되어 이른 단계부터 북동 방향으로 범위가 점차 확장되는 형국이다. 요서 동남부지역에 호로도 유적이 위치하는 것으로 고려하면 늦은 단계에는 요서지역 전역으로 파급됐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대장자유형의 유적들은 대개 구릉 남사면과 남동사면 말단부에 위치하며, 분묘 주축이 동서방향, 두향은 동쪽으로 하는 것이 많다. 분묘 구조는 기본적으로 토광묘제이며 체석묘나 위석묘로 명명되는 적석목관묘형 묘제가 특징인데, 동대장자유형의 존속기간에 요하 이동지역에도 적석목관묘형 묘제가 등장하는 것에 주목하면 요동지역 세형동검문화의 묘제와도 일정부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대장자유형의 무덤들은 규모에 따라 중대형묘, 그 다음의 중형묘, 중소형묘, 소형묘로 구별 가능하며, 중대형묘나 중형묘는 기본적으로 봉석묘에 해당한다. 출토유물 수량과 기종 구성 등을 고려하면 중대형묘는 청동무기, 청동예기, 청동차마구, 청동공구, 토기류, 옥석기 등을 다량 부장하는 최고 위계의 등급으로 판단되며, 중형묘와 중소형묘는 청동무기와 청동예기 등의 수량과 조합 관계를 통해 일부 조정이 필요한데, 차상위와 차차상위 등급으로 판단된다. 성별, 연령, 직능 등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대체로 청동무기를 다수 부장한 것과 청동무기는 빈약하나 청동예기가 더 부장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소형묘 일부와 소형묘는 모두 토광묘로 부장유물

이 없는 것도 많아 가장 낮은 위계에 해당된다.

동대장자 유적의 경우 45호묘와 14호묘가 수장급의 중대형묘에 해당되며, 이에 준하거나 그 다음 등급으로 6호묘와 34호묘, 16호묘와 32호묘를 들 수 있다. 13호묘는 청동무기의 부장이 현저하여 군사적인 권위를 강조하려 하였다면 차상위 등급에 속할 가능성도 있다. 동대장자 13호묘와 같은 등급 또는 한 등급 아래의 무덤에는 우도구 1호묘(90M1)을 들 수 있고, 토성자와 과목수영자가 그 다음을 잇는 유적이며, 복산근은 같은 등급이나 다소 시기 폭이 내려가는 유적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동대장자유형 분묘유적 간의 상대거리가 약 40km 단위로 분포하고, 대릉하 상류에서 중류 방향으로 진행하며 상대등급이 다소 떨어지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동대장자 유적을 중심으로 동대장자유형의 범위가 확산되는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대장자 유적에서 상대거리가 비슷한 오가장자 유적이나 마권자 유적에서는 청동유물은 거의 출토되지 않고 동대장자유형의 토착 토기류인 오가장자식 평저장경호가 소량 확인되고 있을 따름이다. 거리상으로는 문화상으로는 하위등급에 속한 유적으로 토기류의 형식에서 동대장자 유적의 것과 다르지가 않아 동시기의 상위 등급 유적과 하위 등급 유적의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로만 보았을 때 동대장자유형은 전국 초기 후반 무렵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그 이른 단계(기원전 5세기 말엽~기원전 4세기 전반)에는 요서 서남부 지역으로 범위가 확산되었으며, 늦은 단계(기원전 4세기 후반~기원전 3세기 초엽)에는 요서 동남부지역까지 범위가 확산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고고학적 문화 양상들은 결국 동대장자 유적의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은 바 건창 일대를 거점으로 성장했던 정치체는 기원전 4세기대 동대장자유형의 범위 확대와 맞물리며 요서 서남부지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대장자 유적에서 중형이나 중대형의 봉석묘 가운데 전국 중기 이후 축조됐던 것이 절대 다수임을 고려하면 이는 고조선과 연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했던 기원전 4세기 중후반경의 역사적인 정황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동대장자유형을 고조선에 바로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자료가 없는 대신 동대장자유형의 문화요소들이 기원전 4세기 후반 요동지역의 세형동검문화 형성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점을 감안하면 일정한 상호관계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 주변부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V. 맺음말

기원전 4세기대 요서지역의 물질문화를 대표하는 동대장자유형은 최근에야 조사 보고되기 시작했다. 아직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 정리와 성격 추정을 중심으로 초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면밀하게 정리되지 못해 수정, 보완해야 할 점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기원전 4세기대 요서지역의 동대장자유형과 요중지역의 정가와자유형 간의 문화 관계와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추후 논지를 보완하려 하며, 여기서는 기본적인 자료 정리와 초보적인 추정으로 글을 마감한다. 향후 본격적인 연구를 기약하며 본 시론을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인욱, 2010, 「기원전 1천년기 요령~한반도 비파형동검문화로 동물장식의 유입과정」, 『湖南考古學報』36.
- 경기도박물관, 2010, 『요령 고대 문물전』(특별전 도록).
- 귀다순·장상덕(김정열), 2008, 『동북문화와 유연문명』(하), 동북아역사재단.
- 金玟燦, 2014, 「遼寧地域 粘土帶土器文化의 변천과 파급」, 『韓國青銅器學報』15
- 김정열, 2011, 「하가점상층문화에 보이는 중원식 청동예기의 연대와 유입 경위」, 『韓國上古史學報』72.
- 김종일, 2008, 「고고학 자료의 역사학적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고대사연구』52.
- 미야자토 오사무(宮里修), 2010, 『한반도 청동기의 기원과 전개』, 사회평론.
- 박대재, 2015, 「고조선의 정치체제」, 『동북아역사논총』47.
- 박순발, 2006, 「한국 고대사에서 종족성의 인식」, 『한국고대사연구』44.
- 박준형, 2014, 『고조선사의 전개』, 서경문화사.
- 宋 眞, 2014, 「戰國秦漢時期 遼東郡과 그 경계」, 『한국고대사연구』76.

- 송호정, 2003,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 吳江原, 2006, 「요령성 建昌縣 東大杖子 積石木棺槨墓群 出土 琵琶形銅劍과 土器」, 『科技考古研究』12.
- 吳江原, 2013, 「청동기~철기시대 요령·서북한 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와 고조선」, 『東洋學』53.
- 이건무, 1990, 「초기철기시대 유적」, 『북한의 문화유산』 I, 고려원.
- 이성주, 2007, 「청동기시대 동아시아 세계체계와 한반도의 문화변동」, 『청동기·철기시대 사회 변동론』, 학연문화사.
- 이성주, 2011, 「거시적 관점에서 본 동북아 사회문화체계의 변동」, 『東北亞歷史論叢』33.
- 李清圭, 2005, 「靑銅器를 통해 본 고조선과 주변사회」, 『北方史論叢』6.
- 李清圭, 2008,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청동기문화 연구의 성과」,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 동북아역사재단.
- 李厚錫, 2008, 「中國 東北地域 細形銅劍文化 研究 - 遼寧式細形銅劍을 중심으로」, 『崇實史學』 21.
- 李厚錫, 2013, 「세형동검 단계 중국 동북지역의 동과와 동모」, 『韓國考古學報』87.
- 이후석, 2015, 「요동~서북한지역의 세형동검문화와 고조선」, 『고조선과 위만조선의 연구쟁점과 대외교류』,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고조선사연구회 편.
- 이희준, 2011, 「한반도남부 청동기~원삼국시대 수장의 권력 기반과 그 변천」, 『嶺南考古學』 58.
- 정대영, 2004, 「中國 河北省北部 “玉皇廟文化” 연구」, 『문화재』37.
- 趙鎮先, 2009, 「韓國式銅戈의 登場背景과 辛庄頭 30號墓」, 『湖南考古學報』32.
- 조진선, 2014,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와 고조선의 위치 변동」, 『東洋學』56.
- 한국고고학회 편, 2010, 『개정신판 한국 고고학 강의』, 사회평론.
- 國家文物局 主編, 2001, 「遼寧建昌東大杖子戰國墓地的勘探與試掘」, 『2000 中國重要考古發現』.
- 國家文物局 主編, 2012, 「遼寧建昌東大杖子戰國墓地M40發掘」, 『2011 中國重要考古發現』.
- 郭治中, 2000, 「水泉墓地及相關問題之探索」, 『中國考古學跨世紀的回顧與前瞻』, 科學出版社.
- 喬梁, 2010, 「燕文化進入前的遼西」, 『內蒙古文物考古』2010-2.
- 吉林大學校考古學系 等, 1997, 「遼寧錦西市邵集屯小荒地秦漢古城址試掘簡報」, 『考古學集刊』11.
- 滕銘予·張亮, 2011, 「玉皇廟文化的發現與研究」, 『北方文物』2011-4.
- 萬欣·徐紹剛·孫建軍, 2012, 「遼寧建昌東大杖子飾金青銅短劍的發現和意義」, 『中國文物報』2012년 2月3日.

- 方殿春, 2007, 「西漢平剛故址考」, 『遼寧省博物館館刊』2.
- 柏艺萌, 2015, 「東大杖子戰國墓地出土銅器的保護與初步分析」, 『중국고고학 특강IX』, 울산문화재연구원 제23회 초청강연회.
- 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2007, 『臨淄齊墓』, 文物出版社.
- 山西省考古研究所 外, 2010, 『長治分水嶺東周墓地』.
- 邵國田, 1996, 「敖漢旗烏蘭寶拉格戰國墓地調查」, 『內蒙古文物考古』1996-1-2.
- 烏恩岳斯圖, 2007, 『北方草原考古學文化研究-青銅時代至早期鐵器時代』, 科學出版社.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89, 「遼寧凌源縣五道河子戰國墓發掘簡報」, 『文物』1989-2.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1, 「遼寧建昌東大杖子戰國墓地取得重要考古發現」, 『中國文物報』2011年12月30日.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藏文物精華』.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葫蘆島市博物館·興城市文物管理所, 2004, 「興城馬圈子青銅時代遺址發掘報告」, 『2003 遼寧省道路建設 考古報告集』, 遼寧民族出版社.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06, 「遼寧建昌于道溝戰國墓地調查發掘簡報」, 『遼寧省博物館館刊』1.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10, 『朝陽袁臺子-戰國西漢遺址和西周至十六國時期墓葬』, 文物出版社.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12, 『遼寧省建昌縣東大杖子戰國墓地』.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14, 「遼寧建昌東大杖子墓地2001年發掘簡報」, 『考古』2014-12.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14, 「遼寧建昌東大杖子墓地2002年發掘簡報」, 『考古』2014-12.
- 劉大志·柴貴民, 1993, 「喀左老爺廟鄉青銅短劍墓」, 『遼海文物學刊』1993-2.
- 王成生, 1997, 「漢且慮縣及相關陶銘考」, 『遼海文物學刊』1997-2.
- 田立坤·萬欣·杜守昌, 2010, 「朝陽吳家杖子墓地發掘簡報」, 『遼寧考古文集』(二), 科學出版社.
- 傅宗德·陳莉, 1988, 「遼寧喀左縣出土戰國器物」, 『考古』1988-7.
- 鄭紹宗, 1975, 「河北省發現的青銅短劍」, 『考古』1975-4.
- 程長新, 1985, 「北京通縣中趙甫出土一組戰國青銅器」, 『考古』1985-8.
- 井中偉, 2006, 『先秦時期青銅戈·戟研究』, 吉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朱永剛, 2000, 「錦西部集屯小荒地出土的曲刃青銅短劍與屠何古城」, 『文物春秋』2000-01.
-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編著, 1956, 『輝縣發掘報告』, 中國田野考古報告集 第一號.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著, 1994, 『陝縣東周秦漢墓』, 科學出版社.
- 載書田, 1999, 「河北省文物研究所藏銅戈初論」, 『河北考古文集』.

- 河北省文物管理研究所 外, 1984, 「灤平縣虎什哈炮臺山山戎墓地的發現」, 『文物資料叢刊』7.
- 河北省文化局文化工作隊, 1962, 「河北邯鄲百家村戰國墓」, 『考古』1962-12. (M57동과동모)
- 胡保華, 2011, 『中國北方出土先秦時期銅銛研究』, 吉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華玉冰, 2013, 「遼寧建昌東大杖子戰國墓地情況介紹」, 『중국고고학 특강VI』, 울산문화재연구원 제20회 초청강연회.
- 성경당, 2015, 「중국 동북지역 청동기 고고학의 새로운 성과 -요령 동대장자유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해외저명학자 초청강연회 PPT 자료.
- 宮本一夫, 1985, 「七國武器考 - 戈戟矛を中心にして -」, 『古史春秋』2.
- 宮本一夫, 2000, 「戰國燕の擴大」, 『中國古代北疆史の考古學的研究』, 中國書店.
- 宮本一夫, 2008, 「細形銅劍と細形銅銛の成立年代」, 『東』アツア青銅器の系譜』, 雄山閣.
- 石川岳彦, 2001, 「戰國期における燕墓葬について」, 『東京大學考古學研究室研究紀要』16.
- 石川岳彦, 2011, 「青銅器と鐵器普及の歴史的背景」, 『多様化する彌生文化』(彌生時代の考古學3), 同成社.
- 小林青樹, 2008, 「東北アジアにおける銅戈の起源と年代-遼西式銅戈の成立と燕・朝鮮への影響」, 『東アジア青銅器の系譜』, 雄山閣.
- 小林青樹, 2011, 「細形銅銛の起源」, 『栃木史學』25.
- 村上恭通, 2000, 「遼寧式銅劍・細形銅劍文化と燕」『東夷世界の考古學』, 青木書店.

제2부 동아시아 역사 속의 고조선

스키토-시베리아문화의 발생과 동북아시아의 청동기시대

- 러시아 투바 아르잔고분과 요령 대련 강상묘의 비교를 중심으로 -

강인욱·조소은(경희대학교)

- I. 서론
- II. 아르잔 고분의 구조
- III. 강상묘의 구조
- IV. 비교분석
- V. 결론

I. 서론

스키토-시베리아문화(=스키탈타이 문화)는 기원전 9세기~3세기경에 유라시아 초원에서 발달한 기마문화로 마구, 동물장식, 무기 등의 스키탈타이 삼요소로 불리우는 공통적인 유물 군으로 대표된다. ‘스키탈타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과거 이 문화의 기원을 스키탈타이로 보았지만, 1980년대 남부 시베리아의 아르잔(Arzhan) 고분을 통하여 그 기원지가 투바 일대임이 밝혀지고 있다. 이와 아울러 그 상한연대가 기원전 7세기에서 기원전 9~7세기대로 소급되어서 전기 스키토-시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아르잔유형이 설정되고 있다.

그런데, 스키토-시베리아문화는 ‘스키탈타이 삼요소(scythian triad)’로 대표되는 유물뿐 아니라 왕족급(차르급) 고분¹⁾이 등장하는 것도 또 다른 특징이다. 이러한 왕족급 대형고분은 흑해연안 북쪽의 스키탈타이 왕족의 무덤으로 드네프르천유역의 체르토크리크(Chertomylyk), 톨스타야 모길라(Tolstaya Mogila), 솔로하(Solokha)고분 등이 있다. 또

1) 대형고분을 러시아에서는 차르의 고분(Царский курган)이라고 한다. 이는 반드시 국가나 제국 단계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한 무덤 군에서 각 집단의 우두머리의 고분을 뜻한다. 일단 본고에서는 러시아 고고학의 통례를 따라 ‘왕족급’ 고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 다른 흑해 연안 지역에서도 케렐르메스(Kelermes), 울스키에(Ulskye) 고분 등이 있다. 카자흐스탄 북부의 세미레치에 지역에는 베스샤투이르(Besshatyr), 이식(Issyk)고분 등이 있으며, 알타이 파지릭문화에는 파지릭, 쉬베(Shibe), 투엑타(Tuekta), 우코크(Ukok) 등의 고분 등이 있으며 미누신스크지역의 타가르문화에서는 살브익(Salvyk) 고분 등이 있다. 투바지역의 아르잔고분 등이 있다²⁾.

스키토-시베리아 문화권의 대형 고분³⁾ 중에서도 특히 투바 공화국에 위치한 아르잔 고분은 다른 스키토-시베리아 고분과 비교해서 시기 및 형태에서 뚜렷하게 차이를 보인다. 아르잔 고분이 축조된 때는 원전 9세기 초중반에 세워진 스키토-시베리아문화의 가장 이른 고분이다. 이 아르잔 유적의 조사로 스키토-시베리아문화의 기원지가 중국이나 흑해연안이 아니라 남부 시베리아임이 밝혀진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아르잔 고분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단독 무덤을 군집시키는 다른 스키토-시베리아문화의 고분⁴⁾과 달리 처음 무덤을 만들 때부터 통나무로 거대한 원형기념물을 만들고 200여 년 간에 걸쳐서 추가로 그 안에 무덤을 사용한 대형 집단묘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매우 뚜렷하다.

이와 같은 ‘집단묘’의 전통이 스키토-시베리아문화의 기원과 연관되어 있는 아르잔 고분에서 발견되지만, 정작 비슷한 시기의 유라시아 초원지역에서는 유사한 예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시야를 조금 넓히면 요동반도에서 발견되는 강상, 누상으로 대표되는 비파형동검문화 단계의 적석총 군이 주목된다. 요동반도의 적석총은 장관산, 사평산, 타두 등의 신석기시대부터 축조되기 시작하여 청동기시대를 거쳐 철기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축조가 된 지역적인 무덤 전통이다. 그런데 기원전 8~7세기 비파형동검 초기 단계인

2) 대형쿠르간은 유라시아 초원지역에서도 남부 시베리아 미누신스크지역을 경계로 서쪽에 주로 분포하고 그 동쪽에서는 전혀 그 존재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 대체로 바이칼을 경계로 동쪽으로는 스키토-시베리아 문화권의 시대에 몽골의 동부, 중국 오르도스 지역에서는 대형 쿠르간이 전무하며, 흉노시기가 되어서야 골-모드, 노인-올라와 같은 대형쿠르간이 등장한다(최몽룡 외 2003).

3) ‘쿠르간’은 고분을 뜻하는 러시아 고고학의 용어로 ‘고분’이라는 뜻이지만, 한국 및 일본의 고분시대 등 고분 및 고총고분이라는 용례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라시아 초원지역의 고분이라는 뜻으로 ‘쿠르간’을 사용하기도 한다.

4) 스키토-시베리아문화의 경우 무덤을 일정한 원칙을 두고 차례로 축조한다. 파지릭 고분의 경우 강을 따라 일렬로 30~40개의 무덤을 축조하며, 몽골 초원의 경우 히르기수르나 판석묘의 경우 수십개의 무덤이 군집되어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상묘(崗上墓)시기가 되면 무덤의 한가운데에 족장급의 무덤이 설치되고 주변에 방사상으로 무덤이 만들어지면서 문화상이 일변하는 양상을 보인다.

물론, 요동지역의 적석층 집단은 직접 스키토-시베리아문화권과 교류를 했다는 적극적인 증거는 아직 없다는 점에서 동물장식, 마구, 투구 등의 청동기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초원지역과 교류했던 夏家店上層文化와는 다르다. 하지만 스키토-시베리아문화와 비파형동검문화가 발생하는 시기에 아르잔과 강상묘와 같이 서로 떨어진 지역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고분구조의 비교는 기원전 1천년 기 초엽 동아시아 청동기문화⁵⁾의 형성 과정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초보적인 분석이지만, 필자들의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유라시아 초원지역을 막연하게 한반도 청동기 문화의 기원지로만 상정하던 기존의 견해에서 탈피하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동북아시아와 유라시아 고대문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일조하고자 한다.

II. 아르잔 고분의 구조

아르잔 유적(위도 52도03" 경도 93도.35")은 러시아 투바 공화국 우육(Uyuk)강의 근처 해발 1,000m정도의 투란-우육 고원지대인 아르잔 마을에 위치한 고분군 유적이다(지도 1). 이 지역에는 대형의 고분 3기가 분포하는데, 그 중 1971~1974년에 조사된 아르잔-1호 고분⁶⁾은 스키토-시베리아문화의 형성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아르잔 고분은 외형상 지름 120m, 높이 3~4m이며, 외부에 덮인 적석을 제거하자 지름이 약 80m에 이르는 서로 連接한 무덤방들이 조사되었다(도면 1). 이 아르잔 고분의 전모는 그라즈노프의 간략한 종합보고서(그라즈노프 1980)을 통하여 알려진 바, 그의 보고를 중심으로 외형과 주변의 석열을 포함하는 외부구조, 원형목곽을 이루는 내부구조, 그리고 매장주체부 등 3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5) 유라시아 고고학의 편년으로는 초기 철기시대가 된다.

6) 아르잔 유적은 1970년대에 조사된 아르잔-1호와 2000년대 초반에 조사된 아르잔-2호로 나뉜다. 각각 기원전 9~7세기대와 7~5세기대로 나뉜다. 본 고에서 특별하게 표시를 하지 않은 유적은 모두 아르잔-1호를 지칭한다.

1. 아르잔 고분의 외부구조

아르잔 고분의 봉분은 돌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분의 바깥 덮개역할인 외부 적석은 먼저 깨어진 형태의 크고 납작한 돌(무게 20-50kg, 두께20-40cm)을 쌓고 그 위에는 강가의 자갈을 덮었다. 이 외부의 벽돌형 적석(плитка)은 거의 석벽에 가까우며, 직경 110m, 높이는 2.5m에 달한다.

무덤의 바깥쪽으로 고분에서 약 15~30m 떨어진 지점에 2-3 열로 길이가 300m에 이르는 석열이 돌아간다. 이 석열은 주로 잡석과 깨진 판석으로 구성되었는데, 전반적으로 護石을 연상시키지만 전체 무덤을 감싸지 않고 대체로 전체 고분의 약 절반정도만을 감싼다는 차이가 있다. 석열 주변에서 별도로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양이나 염소, 소, 말, 양, 멧돼지 등의 각종 동물 뼈가 발견되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에 석열은 장례의식에서 말을 희생시키는 장소였으며, 의례 중에 희생된 동물의 가죽은 그 자리에 그대로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돌을 원형으로 깔고 그 위에 동물희생을 하는 관습은 청동기시대 이후로 최근까지 스텝지역의 주민들 사이에 넓게 퍼져있다(그랴즈노프 1980).

2. 아르잔 고분의 목곽구조

아르잔 고분의 주 매장 공간에는 큰 통나무로 된 목곽이 설치되었다. 고분은 지상식이며, 매장주체부의 목곽은 지름 50-85cm의 낙엽송계 통나무를 이용하여 만들어졌다. 고분의 중앙부에는 방형으로 거대한 목실이 설치되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방사상으로 다양한 목곽이 설치되었는데, 각각의 목관은 15m²~150m²로 그 면적은 매우 다양한 편이다.

대형의 무덤이지만 전반적인 고분의 구조와 매장은 다소 무질서하게 이루어진 느낌이 강하다. 고분 내부 목곽은 일반적으로 축조하는 목곽묘의 구조와 같이 치밀한 것이 아니라, 井자형으로 통나무를 다소 거칠게 쌓아 만든 형태(сруб-клести)이다. 이렇게 목곽의 구조가 치밀하지 못한 이유는 단기간에 주변의 나무를 벌채해서 현장에서 그 크기를 감안하여 단기간에 내에 쌓는 과정에서 두꺼운 통나무는 하부에 깔고 얇은 것은 위에 쌓는 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는 후술하겠지만, 각 지역의 비교적 독자성이 강한 집단들이 짧은 여름에 모여서 무덤을 축조하고 의례를 행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각 목곽의 벽은 3~4개의 통나무를 쌓아 올렸으며 목곽의 전체 높이는 대략 2.4~3m

이다.

고분의 내부는 모두 70여 개의 목곽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분 내부의 일부는 결실되었고, 목곽 내부에 칸막이를 만들거나 넓히고 새로 쌓은 것도 보인다. 전체적으로 고분 내부의 목곽들은 각각 15~130㎡ 크기로 그 차이가 큰데, 이것은 이들 목실이 평면 원형으로 방사상으로 그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기인한 듯하다.

고분의 중심부에는 족장과 그 측근들이 묻힌 중앙에는 중심부 목실(방1)이 있고, 그를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사방으로 뻗는 무덤의 구조 안에는 다양한 목곽이 설치되어서 말과 사람들이 매장되었다. 2~7호 목곽은 중심부 목실(방1)에서 동쪽으로, 13~21호 목곽은 중앙에서 남쪽으로, 8~10, 29~37호는 북쪽에 축조되었다. 다만 남쪽의 구조는 다소 명확하지 않다. 전체 무덤 구조의 특성상 목곽의 평면 형태는 사다리꼴이고 목곽과 목곽의 연결은 방사상으로 뻗어 나간다.

중심부 목실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퍼져나가는 무덤들의 구조는 크기나 구조면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축조된 북쪽구역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북쪽구역은 먼저 2열의 방사상으로 뻗어나가는 골조를 짓고 목실을 만들었다.(목곽 33, 49와 34, 50) 그리고 주 골조의 옆으로 목곽을 증축했으며(방 30, 48a), 다음 단계로는 그 옆으로도 방사상의 골조를 세우고 평면상 원형이 되도록 목곽 수를 증축하였다.(목곽 35-37, 51-53)

전체적인 목곽의 평면형태가 완성된 후에 추가로 목곽 사이에 비어있는 삼각형의 공간에는 작은 목곽들을 설치하여 채웠다. 중심구역에 가까울수록 작은 목곽(목곽 8-9)을 설치하고 그 바깥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큰 목곽(목곽 27, 29, 32)을 설치했다. 가장 바깥에는 대형의 목곽이 만들어졌다(목곽 25-28, 45-47). 전체 고분의 가장자리는 마치 움집의 처마처럼 자갈한 바닥으로 향하도록 비스듬하게 덮어서 마무리했다.

아르잔 고분은 외형상 쉽게 보이고 도굴이 용이했기 때문에 그 파괴가 심한 편이며 1970년대의 발굴수준 및 소략한 발굴보고서로 자세한 목곽구조의 축조 방법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그 축조과정은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중심부의 족장 부부의 무덤은 처음에 만들고, 그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골조를 세워 전체 외형을 완성했다. 그 다음으로 방사상으로 뻗는 주변구역은 외곽으로 나가는 2열의 통나무 골조를 먼저 세우고 그 안을 채우는 식으로 무덤을 만들었다. 외곽으로 나가

7) 본 고에서 중앙부의 족장과 그의 측근(또는 후손)이 매장된 부분을 목실로 하고, 그 내부의 무덤 안에 족장 부부 무덤만을 위한 내곽 및 주변의 무덤은 목곽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겠다.

는 골조의 형태와 사용빈도는 각 구역마다 서로 다르다. 아르잔 고분에 만들어 놓은 무덤 구역 중에 절반 이상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구역(북측)은 나무 골조를 덧대어 무덤을 더 만든 흔적(목곽 30호 및 47~48호 사이의 격벽)을 볼 때에, 외곽 구역은 서로 다른 집단이 각각의 방향대로 각자 축조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중심부에 족장의 무덤과 그 측근(또는 후손)을 위한 무덤구역을 만들고 사방의 각 구역은 서로 다른 집단들이 각자의 구역을 설정하여 무덤 제작 및 의례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3. 매장주체부

1) 중심부의 목실

고분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 매장주체부는 8x8x2.6m인 정방형의 목실로 이루어져있다. 이 목실의 천장은 원래 적석으로 덮여있었지만, 일찍이 도굴되었다. 목실의 안에는 다시 크기 4.4*3.7*1m의 내곽이 설치되었고, 그 안에는 족장의 부부로 보이는 두 개의 통나무관이 설치되었다. 목곽 내부의 바닥은 지름20cm의 나무를 깔았다. 이 내부 목곽과 목실 사이에는 6개의 통나무관과 2개의 작은 목곽이 있으며(도면 2), 동쪽 벽에는 족장의 말이 부장되어 있다. 무덤의 규모나 무덤들의 배치 정황으로 볼 때에 중심부 목곽1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족장급(또는 차르급)임이 분명하다. 중앙부에 위치한 족장 급 및 그 매장목곽의 정황은 다음과 같다. (표1, 도면 2)

<표 1> 중앙목곽 1 內 유구 현황

유구 구분	크기(m)	부장유물	피장자 성별	기타 특징
목곽1	4.4x3.7x1	담비모비·모직 옷 조각, 터키석 구슬, 행엽	남, 여	내부 통나무관2
목곽2	2.5x1.2	금제 행엽, 금제 원통형 장식, 터키석 구슬		내부 통나무관1
목곽3	1x0.5x0.35		남(40-60세)	
통나무관 1		담비가죽, 청동화살촉		
통나무관 2		허리띠, 가죽칼집, 청동단검, 골제 화살촉, 금제이식, 담비가죽·모직 옷 조각	남(18-20세)	
통나무관 3			남(60세이상)	
통나무관 4		담비가죽·모직 옷 조각	남(60세이상)	
통나무관 5		담비 및 기타 동물 가죽 옷 조각	남(40세이하)	
통나무관 6		담비 및 기타 동물 가죽 옷 조각	남(성인)	

죽장의 말 무덤은 목실의 동편에서 발견되었는데, 마구를 완전히 갖춘 6마리 분의 말뼈가 부장되었다. 심한 도굴에도 불구하고 표 1에서 보듯이 귀한 모피제 옷, 황금 옷장식, 페르시아 또는 중앙아시아계통으로 추정되는 모직계 유물이 발견되었다. 그 밖에 사슴돌 일부와 청동장식, 동검들도 발견된 바(도면 3), 실제 부장유물은 매우 풍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주변부의 무덤

(1) 말무덤

다른 무덤들과 달리 아르잔 고분은 마구를 완전히 갖춘 말의 무덤이 특히 많은 것이 특징이다. 말무덤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도면 1). 첫 번째로 단독으로 하나의 목곽에 부장되는 경우로 목곽 2, 5, 13, 31번이 그 예이다. 두 번째는 하나의 목곽에 격벽을 설치하여 두 구역으로 나누어 말을 부장한 경우이다(목곽 3, 10, 17, 20, 37). 세 번째로 목곽사이의 통로에 말을 부장한 경우(목곽 2-3사이, 목곽 34-35사이, 목곽 62-68)이다. 4개의 목곽 사이에 부장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목곽 25-26, 목곽 27-28).

<표 2> 목곽 별 부장 내역(중심부 목곽1 제외)

부장위치	목곽크기 (m)	목곽내부 매장 구분		부장유물	기타특징
		馬	人		
목곽2	9.5x8x0.9	30		골제·청동제 재갈, 3공 재갈머치, 골제·청동제 화살촉, 행엽(장식드리개), 환(鑲)	
목곽2~3		3		청동제 재갈	목곽 2-3 사이 통로 부장
목곽3	12.5x7.5x2.2	3		청동제 재갈	
목곽5	10x6.5x2.4	15		청동제 재갈·재갈머치	
목곽9	8x3.5x2.5		◎	담비 모피·모직 천 조각	
목곽10		2		청동제 재갈	
목곽13	7.5x5.5x2.5	7	◎	담비모피·모직 천 조각, 청동제 바늘, 석제 경식, 재갈·재갈머치	내부 통나무관 2개 有
목곽17	7x4.5x1.9	8		청동제 재갈·재갈머치	칸막이로 분리된 목곽
목곽20	6.5x6	18		청동제 재갈·재갈머치, 산양장식, 청동제 막대끝장식(그림25), 골제·목제 굴레장식	
목곽25-b			◎	모피·모직 옷조각, 활, 소형 허리띠, 금제이식	목곽 25-27 사이 통로 부장
목곽 26-a, 6-b		11	◎	청동제 재갈·재갈머치, 골제 행엽, 금제 말꼬리 장식	목곽 26-28 사이 통로 부장
목곽31				청동제 재갈	내부 통나무관 2개
목곽34a		5			목곽 34-35 사이 통로
목곽37		13			
목곽68		2			

(2) 사람의 무덤

70여개의 목곽 중에서 사람을 매장한 통나무관이 발견된 경우는 중앙부 1호 목곽을 제외하고는 9호, 13호, 31호 등이다. 목곽 13호와 31호는 목곽의 규모도 크며 사람과 말이 같이 부장되어서 비교적 높은 신분 또는 중심부의 피장자와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9번 목곽은 중앙부의 목곽에 바로 인접하여 간신히 목곽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격벽에 안치되었다. 다른 사람의 목곽묘와 다르게 그 위치나 규모로 볼 때에 중심부 목실에서 족장 목곽의 주변에 설치된 측근 또는 신하들의 매장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묻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아르잔 고분의 분석

1) 중심 매장주체부 분석

학자들은 대체로 아르잔 고분은 중심부에 족장이 묻히고 그 주변에는 그를 따르는 신하(또는 귀족)의 무덤이라는 견해(그라즈노프 1983)를 지지한다. 심한 도굴에도 불구하고 무덤 안에는 수입된 천과 담비 모피로 된 호화로운 유물의 잔편들이 발견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 한다. 벡위드(2009)는 이러한 왕의 측근들을 주로 전사였던 코미타투스스로 묘사한 바 있다. 이들 코미타투스는 유목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지도자그룹이다. 이러한 코미타투스의 운영은 흉노제국으로 이어져서 선우는 지속적으로 위신재를 이들에게 줌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다(강인욱 2012). 이러한 호위그룹은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기록된 스키타이의 왕 무덤에 가까운 측근이 같이 묻힌다는 점과도 부합된다.

그런데 이러한 그라즈노프의 설에는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2003~2004년에 아르잔-1호의 근처에 위치한 아르잔-2호를 발굴한 결과 기원전 7세기 중엽에 축조가 되었으며, 아르잔-1호 고분에서 출토된 목곽에 대한 나이트측정법의 결과 고분의 축조가 적어도 200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졌음이 밝혀졌다(Zaitseva G I et al. 2004;). 200여 년이라면 적어도 8~9여명의 족장이 등장했을 것이다. 이 수는 족장급 고분의 주변에 매장된 목곽의 수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아르잔-1호 고분 무덤 내에서 매장된 인골의 나이가 대부분 40대 이상~60대 초반으로 다른 스키타-시베리아문화권의 무덤에 묻힌 연령대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젊은 전사들이 묻힌 파지릭고분(폴로스막 2002)와 달리 그 연령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아르잔 고분 주변에는 시기를 달리하는 대형고분은 3기뿐 이 시기에 다른 대형고분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르잔-1호 고분이 축조되어 사용된 200년 간에 다른 대형고분의 축조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한다면 이 매장된 무덤의 주인공은 측근이라기 보다 중심부에 첫 번째로 묻힌 족장(즉, 스키타-시베리아의 문화를 처음 도입하고 새로운 사회조직을 만들어낸 사람)과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지위를 계승한 후손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러한 필자들의 추론과 관련하여 사람이 매장된 9번 목곽이 주목

된다. 이 목곽은 전반적으로 무덤에서 빈 공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중심목곽에 붙은 작은 격실에 간신히 통나무관 하나를 넣은 정황이다. 또한 중앙 족장급 목곽 주변의 공간에는 통나무관들이 꼭 차게 들어가서 다른 통나무관을 더 이상 넣을 수 없을 정도이다. 전체 아르잔 고분에서 사용된 실제 무덤으로 사용된 공간은 1/3에 불과할 정도로 공간에 여유가 많다. 그럼에도 굳이 중심부 목실에 연접한 작은 공간에 넣었다는 것은 바로 이 목곽은 반드시 중심부에 묻혀야할 위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이 맞다면 전체 원형목곽 구조에서 유일하게 공간이 부족한 부분은 중심부의 목실 공간이며, 아르잔 고분이 1/3정도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을 중단하고 근처의 아르잔-2호 고분을 축조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아르잔-1호 고분에 족장급 주변에 매장된 목곽은 세습된 후대의 족장들이고 더 이상 매장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자 자연스럽게 아르잔-2호 고분의 축조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매장주체부 주변 분석

중앙의 무덤에 족장과 그의 측근(또는 후손)들을 매장했지만, 주변에는 사람 대신에 말무덤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이 아르잔 고분의 구조가 가진 주요한 특징이다. 알타이 파지릭 고분의 유물에 미루어 볼 때, 알타이와 스키타이의 귀족 무덤에서의 말은 재산의 개념이 아닌 그들에 종속된 부족이나 친족집단에서 현상한 봉납품의 성격을 가진다(루덴코 1953; 폴로스막 2002). 이것을 고분축조 과정의 특징과 결부지어서 볼 때에 이 말들은 주변의 복속된(또는 친족관계인) 집단으로부터 봉헌된 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무덤의 평면도상에 나타난 고분 주변구역의 축조구조를 볼 때에 적어도 7개의 집단으로 보인다. 일찍이 발굴자 그라즈노프는 이 무덤 내에 봉헌된 말의 재갈 및 재갈멈치가 각 구역별로 확연하게 드러남을 주장한 바 있다. 즉, 각 목곽에서 출토된 재갈과 재갈멈치 등 마구 일괄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보이는 이유는 각각 다른 집단에서 족장의 장례에 자신들의 말을 가져와서 봉헌했음을 의미한다.(도면3) 아르잔 고분에 사용된 나무는 모두 활엽수로 나이테의 분석 결과 별목시기는 모두 늦가을인 10월이며 수종도 거의 동일하다(그라즈노프 1980). 즉, 이 족장의 장례의례는 여름목초지에서 겨울목초지로 이동하는 가을에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 집단의 열에 맞추어서 나무를 베어서 목곽을 만들고 말을 매장했다. 한 곱에 매장하는 말의 수는 15~30마리(중심 곱의 남쪽과 동쪽편에 위치한 6개의 목곽) 정도이며 작게는 3마리만 부장한 경우(2-3번 목곽 사이)도 있다.

아르잔과 같은 대형 무덤에서 정작 사람은 거의 매장하지 않고 대신 말을 매장했다는 점은 두 가지 점을 의미한다. 첫 번째로 아르잔에 봉헌을 하고 각 구역에 무덤을 만든 집단들은 같은 무덤을 쓸 정도로 친연성이 강한 집단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굴레와 재갈멈치에서 보이는 특징은 하나의 문화를 가진 사회 조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세부적인 차이는 다른 민족의 소구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분 출토 마구의 형식을 분류해보면 아르잔 고분 남쪽 동쪽 구역은 아르잔 집단의 것으로 보이며, 북쪽구역은 그들과 이웃한 집단이라고 추정된다(그라즈노프 1980).

두 번째 아르잔 사회에서 말의 역할이 아주 강조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르잔 고분에서는 적어도 160마리의 기승용 말이 매장되었는데 모두 숫말이며, 12-15세의 늙은 말이다. 평소에 타던 말 중에서도 숫말을 부장하는 스키타이 고분에서도 그러하며, 알타이 지역의 수장급 고분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기원전 9세기대에 초원지역에 등장한 발달된 기마문화인 스키타-시베리아문화권이 등장하면서 전쟁이 빈번해졌고 마구를 장착한 말의 상징성이 매우 커졌음을 의미한다. 왕족급 무덤에 10~15마리의 말을 부장하는 풍습은 알타이의 과거리문화 및 흑해의 스키타이무덤(켈레르메스 고분) 등에서도 보이는 스키타-시베리아문화권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III. 강상묘의 구조

1. 발굴 및 전체 정황

강상무덤은 요동반도 끝자락의 大連市 甘井子區 後牧城驛의 북쪽 400m에 위치한다. 그리고 그 남서쪽으로 450m지점에는 樓上墓가 위치한다(지도 2). 강상 이후의 적석총 1963년에 朝中考古發掘隊에 의해 조사된 대련 강상묘는 동서19m, 남북 20m이며 높이는 1m내외이다. 강상묘 내부에는 중심부에 설치된 7호 석곽묘를 중심으로 모두 23개의 석곽이 설치되었는데, 각 석곽에서는 적게는 2~3인분, 많게는 18개체분의 인골이 출토되는 등 모두 144개체 분의 인골이 출토되었다. 강상묘는 크게 3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가장 동쪽이 중심 묘역이고 추가로 중간과 동쪽에 묘역을 만들었다. 동쪽의 묘역은 19x20m로 16개의 묘광을 설치했다. 이 주 무덤 구역은 중심부에 대형 석곽묘(7호)를 중심으로 방사상으

로 석축을 이용하여 구획을 하고 그 안에 무덤을 설치했다. 중간부분은 타원형으로 훨씬 소형이며 모두 5개의 무덤이 설치되었다. 가장 서쪽에는 단 1개의 무덤(22호)만 설치되었다.

강상묘는 1960년대 이래로 단군릉 발굴 이전까지 북한 학계에서 고조선 노예제사회를 대표하는 표지유적으로 간주되어왔다(고고학연구소 1969). 강상묘가 가운데에 대형무덤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무덤들이 배치된 집단묘는 노예제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전체 고조선의 무덤을 대표하기에는 요동반도 끝 여대지구의 방사상의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르잔의 예를 보듯이 강상묘를 노예제사회로 규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지배 계층이 대를 이어서 사용한 집단묘라고 할 수 있다.

2. 무덤간 계층구조

강상묘 내부의 계층차이는 무덤의 평면형태는 물론 각 무덤의 형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강상묘의 묘제는 발굴자에 의해 모두 5개의 유형으로 분리되었다. 제 1유형은 바닥에 적석을 하고 그 위에 다시 석판을 얹은 대형 석저묘(石底墓, 7, 6, 19호), 제 2 유형은 석판묘로 바닥은 적석을 하고 4벽과 뚜껑을 석판으로 만든 것(4,5,11,14,15호)이다. 제 3 유형은 바닥이 소토화 된 토광묘(1, 10호), 제 4유형은 가장 다수인 12개의 무덤으로 바닥에 자갈에 섞인 황토를 깐 토광묘(2,3,8,9,12,13,16,17,18,20,21,22호)이며 제 5유형은 별다른 시설이 없는 토광묘(23호)로 9호묘와 중복관계인 바 다소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3유형과 4유형은 바닥에 소토 또는 소토와 자갈을 섞은 것으로 사실상 하나의 유형으로 묶을 수 있다. 이러한 발굴자의 형식분류를 실제 평면도와 대입해보면 제 1 유형이 주목된다. 제 1유형은 7호, 19호 6호 등은 각각 각 구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대형묘이다. 나머지 유형의 무덤은 분포상이나 매장 인골 수 등에서 크게 정형성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2유형의 경우 벽석을 석판으로 만들어서 이질적인 장제의 영향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매장된 인골의 수에도 각 유형 간에는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는다.

중심부 묘장에 대한 권력의 집중화는 전체 무덤 속의 정황으로도 볼 수 있다. 중심부 목곽을 중심으로 다른 통나무관을 설치한 아르잔 무덤과는 달리 강상은 중간의 7호무덤의 주변에는 묘광이 전혀 설치되지 않고 대신에 내부 석열을 돌리고 일부 구역을 나누었다. 이 현상은 강상묘의 묘광 크기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즉 장변의 길이가 최저 1.6m인

강상묘의 석곽을 좁은 내부 호석열에 넣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7호 묘곽을 둘러싸고 내부 호석열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고 적어도 7~8개의 무덤구역이 형성되어 있다. 아마도 매장대신에 의례를 봉행하거나 산골했을 가능성도 있다. 중심의 7호묘는 그 크기는 물론 주변에 따로 호석열을 둘러서 독자적인 위치를 매장뿐 아니라 의례의 과정에서도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3. 축조집단의 성격

다음으로 강상묘 축조 집단의 성격을 보자. 아르잔 고분의 경우 출토된 마구의 분석을 통하여 아르잔집단을 토착집단 및 주변에서 그에 복종하여 말을 공헌했던 집단을 분리해 낸 바 있다. 반면에 강상묘의 경우 마구는 전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유물의 출토상황을 분석한 결과 아르잔과 비슷한 구역간의 차이가 보인다(도면4 上). 강상묘 출토 토기의 경우 청동기와 달리 화장과 같은 장법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처음 부장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주요한 지역 간 차이를 볼 수 있다. 토기는 주로 강상묘의 북부(II구역)에 밀집한다. 또한 동편(III구역)의 경우 16호무덤에는 거푸집이 출토되고 그 외의 무덤에는 전혀 다른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서편(I구역)에서는 토기와 장신구도 일부 출토되지만 무엇보다 청동무기(동검 및 창)의 출토가 두드러진다. 남편(IV)구역에서는 1호무덤은 청동장식이, 그리고 8호묘에서는 457점에 달하는 석제구슬이 출토되는 등 장신구류의 출토가 두드러진다. III구역의 16호 무덤에서는 4점의 동부 석범, 만입형 석촉 5점, 동촉, 구슬 124점 등이 발견되었다. 청동기 용범이 대량으로 출토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이 주인공은 청동제련기술을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인접한 17,18호 무덤에서는 동검 1점이 나온 이외에 다른 유물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무덤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볼 때에 강상묘 사회에서 그렇게 주도적인 입장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I구역의 경우 청동기의 출토가 많고 무덤 구역이 계속 확장되는 바 이 사회에서 다수의 집단을 차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구역의 경우 동검이 출토된 경우(13호묘)가 1군데 있지만 토기가 주류를 이루며 IV구역의 경우 장신구가 나오기 때문에 집단의 차이가 아니라 성별 내지는 노동분화의 차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I-II구역과 III-IV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즉, 적어도 2개의 집단이 강상묘를 축조했으며, 그 중에서도 비파형동검과 토기를 주로 매장한 I-II구역과 청동기 생산을 담당했었던 III-IV구

역으로 세분된다. 특히 무덤의 확장이 I구역에 집중된 바, I구역의 집단이 강상묘 축조집단의 중심적인 위치를 담당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각 구역간의 이질성은 무덤의 평면구조로도 알 수 있다. 즉, III구역에는 구역이 구획되었지만 무덤을 쓰지 않은 부분이 뚜렷히 존재한다. 7호무덤의 동남쪽 및 동북쪽, 18호와 1호 사이, 그리고 16~18호 무덤의 동편 구역이다. 무덤의 축조 공간이 부족하여 2차에 걸쳐서 그 구역을 확장한 I구역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즉, 각 집단은 각자의 영역을 뚜렷하게 지키며 강상묘 무덤 축조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IV. 비교분석

1. 두 유적의 유사점

삼아르잔과 강상묘는 상이한 생계경제 및 지리적인 정황에도 불구하고 방사상으로 가운데 중심무덤을 중심으로 구역을 나누어 축조하는 집단묘라는 점을 포함하여 많은 유사성을 보인다.

1) 축조방식

두 무덤 모두 처음에 넓은 무덤구역을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그 내부 안에 무덤을 축조했다. 두 무덤 모두 평면형태로 장방형 또는 원형으로 무덤의 구역을 처음에 설정을 하고, 그 가운데에 족장급 무덤을 가장 먼저 축조한다.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무덤의 각 구역을 다른 묘장으로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무덤을 완성했는데, 두 무덤 모두 각 구역은 각각 서로 다른 집단이 자신의 구역을 지켜가면서 무덤을 점진적으로 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정 구역은 무덤에 빈 곳이 많은 반면에 다른 구역은 무덤을 더 쓸 공간이 없어서 목곽을 덧대어 매장공간을 만들거나(아르잔) 무덤의 서쪽에 석축을 덧대어 쌓아서 무덤공간을 확장한 예(강상)가 보이기 때문이다.

아르잔 무덤의 경우 상기한 바와 같이 고분의 외곽부분에 각 집단은 자신들만의 구역을 설정하는 나무골조를 세우고 무덤을 만들었는데, 구역에 따라 나무구조를 덧대어 고분을 축조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대부분의 경우 빈 무덤으로 남아있기도 한다. 강상묘의 경

우도 비슷해서 강상묘 무덤구역의 서편은 무덤이 지속적으로 축조가 되고 2차에 걸쳐 증축하는 반면에 동편은 무덤이 5기에 불과하며 빈 공간도 군데군데 보인다. 강상묘의 10호 묘는 강상묘 서측 석축을 허물고 만들었고, 덧붙인 묘역에는 3, 5, 6, 9, 23호무덤이 만들어졌다. 또한 추가로 석축을 더 만들고 22호 무덤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축조방법은 각각 통나무와 석곽이라는 다른 방법이 동원되었지만, 기본적인 무덤의 축조방법은 유사하다.

2) 새로운 문화의 전개

두 번째로 아르잔과 강상의 축조집단은 재지의 토착세력이지만 이전의 문화와는 완전히 단절된 모습을 보여준다. 두 집단 모두 모두 새로운 문화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지도자의 무덤을 대형화하고 의례의 공간으로 사용되며 광범위한 지역 간의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였다. 아르잔 고분은 기원전 9세기 경에 스키토-시베리아문화라는 발달된 기마문화 및 유목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경제의 출현시기에 등장한 무덤이다. 유목경제를 도입한 초원의 여러 집단들을 대표하는 새로운 물질문화는 새로운 무기(동검), 마구(삼공재갈멈치), 전사의 상징(동물장식) 등으로 대표된다. 이는 이 시기에 시베리아 초원지역에 전반적으로 심한 기후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강력한 청동무기와 기마에 기반한 유목경제가 출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단순히 새로운 유물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체제와 바뀐 정착 중심에서 유목중심으로 바뀌는 사회에서 새로운 이데올로기 체계의 성립과도 연관된다. 이 시기에 기마문화가 주요한 사회 지배의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말과 마구는 실질적인 무력뿐 아니라 상징체계 및 의례에서도 주요한 대상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전환기적 시점에 아르잔의 대형고분을 축조한 세력은 새로운 경제체제에 어울리는 의례를 주도하면서 대형의 고분을 만들었다. 그러나 아르잔 고분이 만들어진 투바 일대에서 기원전 9세기 이전, 즉 기원전 11~9세기대의 카라숙 문화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으며, 일부 사슴돌과 같은 거석기념물들만 존재 했던바 이전 문화와의 단절성이 뚜렷하다⁸⁾.

강상묘의 경우 아르잔 처럼 완전히 새로운 경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문화로 재편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강상묘가 전체적으로는 그 이전부터 이어진 적석묘 전통을 계승하지만 비파형동검문화권에 편입되면서 무덤간의 계층화가 본격화되며 무덤의 입지도 완전히 바뀐다. 요동지역의 적석총은 사평산, 장군산 등 쌍타자 2기 단계에

8) 이러한 단절성은 새로운 경제체제의 도입에 따른 무덤을 포함한 물질문화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하지, 주민의 교체는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로 아르잔 고분에서는 그 이전단계인 카라숙문화의 요소가 존재한다(사비노프 1998).

서는 산의 정상에 축조했었다. 이후 쌍타자 3기문화인 타두 단계가 되면서 그 입지조건은 해안가나 산의 구릉지대로 옮겨진다(지도2).

강상 단계에서 무덤의 축조 및 입지조건이 완전히 바뀌는 것과 관련해서 강상묘의 하층에서 발견된 쌍타자 3기단계 주거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상묘의 발굴시에 하층에서 쌍타자3기 문화의 담장과 주거지 흔적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로 볼 때에 강상유적 언덕 전체는 쌍타자 3기의 취락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발굴단은 전체 무덤의 외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트렌치 1개만 발굴했고, 대신에 주변에 트렌치를 확장하는 식으로 하여 그 양상을 파악했다. 그 결과 전형적인 쌍타자 3기의 토기와 석기들이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쌍타자3기는 이후 곧바로 비파형동검문화시기로 이어진다. 즉, 강상 하층의 주거지는 무덤이 축조되기 직전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바로 그 취락지 위에 이 지역을 대표하는 거대한 무덤을 축조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강상묘가 위치한 지역은 후북성촌 일대로 북쪽은 황해, 서쪽에 사평산, 동쪽에 鞍子山, 磊子山 등으로 둘러싸인 분지이다. 이미 이 시기에 무덤의 축조지는 산 정상부에서 구릉지대로 이동한 상태인데, 굳이 주거지 위에 세운 이유는 바로 강상이 약 1.5m정도 솟은 구릉지대이기 때문일 것이다. 비슷한 상황은 역시 누상에서도 마찬가지로여서 주변을 조망하기 좋은 지역이다. 즉, 강상묘의 위치는 무덤에 매장된 사람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입지선택의 결과였으며, 바로 직전 문화의 취락지를 무덤으로 선정한 점 등을 볼 때에 이전의 문화와 단절적인 모습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3) 새로운 상호작용권의 형성

아르잔 고분을 보면 아르잔-1 고분의 축조 및 말매장 등에 참여한 세력은 아르잔 주민들 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집단임은 일찍이 아르잔 고분의 발굴자인 그라즈노프에 의해 밝혀졌다. 그는 말에 채워진 마구 일괄을 통해서 이러한 경향을 주장했다. 아르잔의 재갈 멈치는 그 한쪽 끝은 버섯머리처럼 처리되어 있고 다른 쪽은 뾰족하게 만들어졌다(도면 2). 이는 도면상으로 보면 주로 동-서-남쪽의 말무덤에서 주로 발견된다. 반면에 아르잔 고분의 북부에 부장된 말의 경우는 이와는 상이한 것으로 재갈멈치의 끝을 타원형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이를 들어서 아르잔 고분의 장례시에 아르잔의 족장이 직접 지배하는 지역 이외에도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면서 아르잔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거나 간접적으로 복속되었던 세력들도 의례에 참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르잔고분을 비롯하여 투바

의 초기 스키토-시베리아문화가 알타이나 미누신스크 지역 일대를 통치했음을 의미하는 어떠한 고고학적 증거가 없이 각기 독자적인 문화를 영위했기 때문이다⁹⁾.

한편, 강상묘의 경우 마구가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¹⁰⁾ 강상묘는 화장을 하는 장법 탓에 대부분의 유물이 불을 맞아서 훼손되었고 잔편만 남아있다. 하지만 단편적임에도 불구하고 강상묘의 유물 상에서 분명한 점은 이전 시기에 적석총 축조집단이 주로 교류했던 산동지역과의 교류관계는 거의 보이지 않으며¹¹⁾, 대신에 요서지역 발해만 유역 비파형동검문화와의 관련성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강상묘 출토 비파형동검은 가까운 30cm에 가까우며¹²⁾, 돌기부가 도드라지고 동검의 뒷날이 요동지역 비파형동검보다 날씬하여 비파형동검의 자체의 형태 및 크기는 요동지역보다는 요서지역에 가깝다(강인욱 1996). 또한, 강상묘에서는 오금당, 십이대영자문화 등에서 주로 발견되는 기하학무늬를 한 청동장식이 발견되며(도면 4), 누상묘에서는 초원계의 동물장식이 출토되었다(도면 5). 대부분 심하게 불을 맞아서 원형이 많이 훼손되었음을 요서지역과 관련있는 청동기는 실제로 더욱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강상묘와 인접한 쌍타자 유적에서는 미송리형 토기와 비파형동검을 부장한 석관묘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요동지역의 석관묘문화와도 밀접한 교류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강상묘가 축조되는 기원전 1천년 기에 들어서 전통적으로 산동 반도 지역과 교류하던 요동반도 끝자락 여대지구에서 기존과는 완전히 상이한 요서지역 및 요동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권과 교류하는 상황으로 바뀐다.

9) 아르잔 시기(초기 스키토-시베리아문화)에는 흑해연안과 하가점상층문화 등과 서로 교류한 부분은 원거리간의 상호작용이므로 본고의 맥락과는 다소 다른바, 이는 별고에서 다루겠다.

10) 강상 및 누상에서 마구와 비슷한 형태의 유물이 발견된 바 있어서 마구 또는 명기화 된 마구의 가능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마구는 단순히 재갈과 유사한 유물의 존재뿐 아니라 말의 부장 및 기타 마구 일괄의 흔적이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비파형동검 시기 요동반도 적석총 집단의 마구사용의 가능성은 없다.

11) 요동과 산동지역의 교류는 모피무역을 매개로 진행되었음은 사서 및 산동지역 고고자료로도 증명되고 있다(박준형 2012). 하지만 강상 및 누상묘를 비롯하여 요동반도 적석총에는 산동지역과 교류의 증거로 볼 수 있는 고고학적 유물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12) 27~29cm이지만 불에 맞아 흰 것을 감안하면 실제 사용 시 길이는 30cm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4) 집단묘에서 개인묘로

강상 및 아르잔 모두 약 200여 년간 무덤을 축조한 이후 주변에 유사한 새로운 집단묘를 만들었다. 또한, 새롭게 만들어지는 무덤은 그 안의 묘광 수는 감소하는 대신에 개인에게 부가 집중되는 양상, 즉 개인화의 경향이 두드러진다. (도면5)

아르잔 유적에서는 아르잔-1호고분의 축조 이후에 축조된 아르잔-2의 경우 기원전 7세기 중반 이후 ~ 5세기로 편년되며 직경 80m, 높이 2m의 대형 고분이며 외형상은 유사하다. 하지만 아르잔-2 고분은 아르잔-1호와 비교했을 때에 부의 집중 및 무덤 구조의 차이가 뚜렷하다. 그 시기는 7세기 중반~5세기로 아르잔-1호 축조 이후로 전체 무덤의 수는 20여개로 줄었지만 중심 묘광에서 12kg의 황금이 출토되는 등 무덤의 집중화가 현격하게 진행된다(추구노프 2004; Čugunov 외 2010).

강상묘의 경우 그 무덤에서 남동쪽으로 450m지점에 이후에는 누상묘를 세웠다. 누상묘의 편년은 학자간의 다소 견해 차이는 있지만 기원전 6~5세기대 전후로 강상묘의 축조 이후에 축조되었다는 점에서 아르잔-2호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누상묘도 아르잔-2호와 마찬가지로 무덤의 수가 대폭 감소된다. 누상묘(도면 5) 21.9x21.4m의 크기로 높이 1m정도이나 그 안의 무덤은 10기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아르잔과 강상모두 공통적으로 권력이 집중되면서 독자성을 유지했던 집단이 통합되고 사회 내에서 집단간에 계층화가 더욱 진행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 비파형동검문화의 기원과 스키토-시베리아문화

위에서 비교한 두 유적은 시기적으로 거의 일치하지만 기층문화, 생업경제, 유물 상에서 두 지역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예컨대, 아르잔의 경우 발달된 유목경제의 형성에 따라 청동제 무기와 마구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반면에 강상묘에서는 동검 위주의 무기류 및 청동장식 등이 발달되었고 각 무덤은 다수의 사람이 매장되는 친족위주의 세대공동체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무덤의 장구 역시 통나무와 석축, 그리고 장법의 경우 축신굴신장(아르잔¹³)과 화장(강상묘)등 기층문화의 개별 요소는 매

13) 아르잔 고분은 심하게 도굴된 탓에 정확한 장법을 복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아르잔-2를 비롯하여 이 지역의 무덤은 거의 예외 없이 축신 굴신장을 사용하고 있다.

우 다르다. 사실 두 지역의 공간적 차이와 지리환경의 상이함을 감안하면 이러한 차이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은 시기적으로 기원전 9~8세기 대에 집단묘를 축조했으며, 무덤에 반영된 사회구조의 모습에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 또한, 고고학적으로 볼 때에도 기원전 9세기경부터 유라시아 초원 및 동북아시아 모두 발달된 청동무기와 마구에 근간하는 청동기문화로 재편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르잔으로 대표되는 남부 시베리아 초원지대는 기원전 9세기를 기점으로 이전의 카라속문화 단계(후기 청동기시대)가 끝나고 적극적으로 유목경제를 도입하고, 발달된 청동제련기술에 기반 한 마구와 무기를 사용한 스키토-시베리아 문화가 등장한다. 이와 같은 문화의 변혁이 빠른 속도로 유라시아 초원지대로 확산된 이유는 이 시기 전반적으로 기후가 한랭화 되면서 초원은 적극적으로 유목을 도입하기에 적합하게 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한편, 요령지역의 경우 기원전 9세기 이전의 초기 청동기문화 단계는 신락상층, 쌍타자3기, 마성자문화, 위영자문화 등 각 지역별로 청동기시대가 세분되는 양상이며, 청동기 자체로는 초원지역의 영향이 명확한 카라속계 청동기를 사용했다. 이후 기원전 9세기 경에 비파형동검이 도입되면서 전체 요령지역을 비파형동검문화권으로 재편된다.

이와같이 기원전 9세기를 중심으로 남부 시베리아와 요령지역은 이전에 각 지역별로 세분화되었던 문화가 새로운 물질문화와 생계경제로 재편되고 통합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모두 아르잔과 강상은 이렇게 지역화된 고고학적 문화들이 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묘장이다. 새로운 무덤의 등장은 각 지역이 새로운 문화로 통합되고 재편되는 과정에 동반되는 새로운 무덤 축조와 의례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에서 두 지역 모두 거대한 의례 기념물의 역할을 하는 무덤-기념물의 축조로 집단무덤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강화하는 식으로 사회구조를 공고히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통합은 아르잔과 강상묘 모두 동시기에 근처에 다른 무덤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증명된다. 강상의 경우도 주변지역에 많은 적석총이 존재하지만 정작 강상단계의 적석총은 전혀 확인된 바 없다. 강상과 아르잔의 단계는 이러한 문화의 통합과정의 초기 단계로 걸으려는 거대한 무덤에 동참을 했지만 서로 상이한 세력임이 그들이 남긴 각 구역의 무덤에 반영이 되었다. 이후 누상과 아르잔-2호 단계에서 이러한 새로운 문화로의 재편이 완성되며 사회적 권력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고 그에 따라 무덤의 수는 적어지고 대신에 무덤의 규모가 거대해지고 부장품이 풍부해지는 양상으로 전환된다. 이와 같이 아르잔과 강상은 기원전 9세기경에 동북아시아와 북방

유라시아 지역이 새로운 문화로 재편되는 과정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V. 결론

서로 떨어진 지역 간의 비교는 기존에 논의된 고대 유라시아 초원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대의 상호교류는 누차에 걸쳐 논의되어 왔다(Boyle, etc 2002). 반면에 직접적인 상호작용권이 아니지만 하나의 커다란 체계 안에서 각 지역의 문화들이 발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바로 세계체계이론(World System Theory)을 고고학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으로, 1990년대에 주로 유럽에서 진행되었다(Hall 1993). 최근에는 이러한 원거리 지역을 하나의 체계로 묶으려는 노력이 유라시아 초원으로도 확대되고 있다(Kradin 2002).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광역의 문화변동 흐름을 초원과 동북아시아로 확대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아르잔과 강상묘를 case study 삼아서 기원전 1천년 기 동검문화의 개시기에 동아시아 북방과 비파형동검문화권은 하나의 체계로 연동되어서 문화가 전개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먼저 II, III장에서 아르잔 고분 및 강상묘의 고분구조와 주요 특징을 외형, 내부구조, 묘장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IV장에서는 두 고분을 비교하고 그 의의를 고찰했다. 그 결과 두 지역은 서로 상호작용을 상정할 수 없는 원거리이지만, 기원전 9세기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전역의 문화가 재편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무덤축조 현상으로 보았다.

본 고의 초보적인 분석에서는 집단묘라는 차원에서 두 지역을 비교했지만, 향후 지역적인 범위를 확대한다면 지역적인 자료에 집중하는 동북아시아 청동기문화의 연구경향에서 거시적인 분석이라는 새로운 경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¹⁴⁾. 기존 고조선 초기 문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 표지유물이 비파형동검 및 중국 동북지역 내의 지역성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비파형동검문화권과 북쪽으로 연접한 초원의 유목문화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한국고고학의 맥락에서 탈피하여 고조선의 청동기문화를 유라시아 고고학적 맥락

14) 이와 같은 기원전 1천년 기 동검문화의 형성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은 이미 일본의 야요이문화 재편년에 도입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기원전 10~9세기를 전후한 유라시아 변혁기를 하가점상층문화와 일본의 야요이문화의 출현시기로 잇는 노력(宮本一夫 2003)이 바로 예이다.

에서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고조선의 연구는 물론 유라시아적 관점에서 고조선의 청동기시대를 조망할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문]

- 강인욱 1996 『요령지역 청동기문화에 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인욱, 2005b, 「韓半島 出土 初期 琵琶形銅劍의 登場과 成立過程 대하여」 『한국상고사학보』 49집.
- 강인욱 2012 「匈奴遺蹟출토 銘文자료에 대한 일고찰」 『한국상고사학보』 75집, 한국상고사학회.
- 고고학연구소, 1969, 「기원전 천년기전반기의 고조선문화」 『고고민속문집』 1.
- 크리스토퍼 백워드, 이강한 류형식 공역 『중앙유라시아 세계사 프랑스에서 고구려까지』 (2014; 소와당).
- 조중고고학발굴대 1966 『중국 동북 지방의 유적 발굴보고』 사회과학원출판사.
- 최몽룡·이헌중·강인욱, 『시베리아의 선사고고학』 (2003; 주류성).

[중문·일문]

- 旅順博物館, 1960, 旅順口區後牧城驛戰國墓清理 考古 8期.
-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 1996, 『双砣子与岗上一辽东史前文化的发现和研究』, 科学出版社.
- 旅順博物館、辽宁省博物館, 1983, 「大连于家村砣头积石墓地」 『文物』 9期.
- 宮本一夫, 2004, 「青銅器と彌生時代の實年代」, 『彌生時代の實年代』 (春成秀爾·今村峯雄 編).

[노문]

- Грязнов М.П. Аржан. Царский курган раннекифского времени. Л.: (1980), 64 с. (그라즈노프 1980, 초기 스키타이시기 아르잔의 왕족급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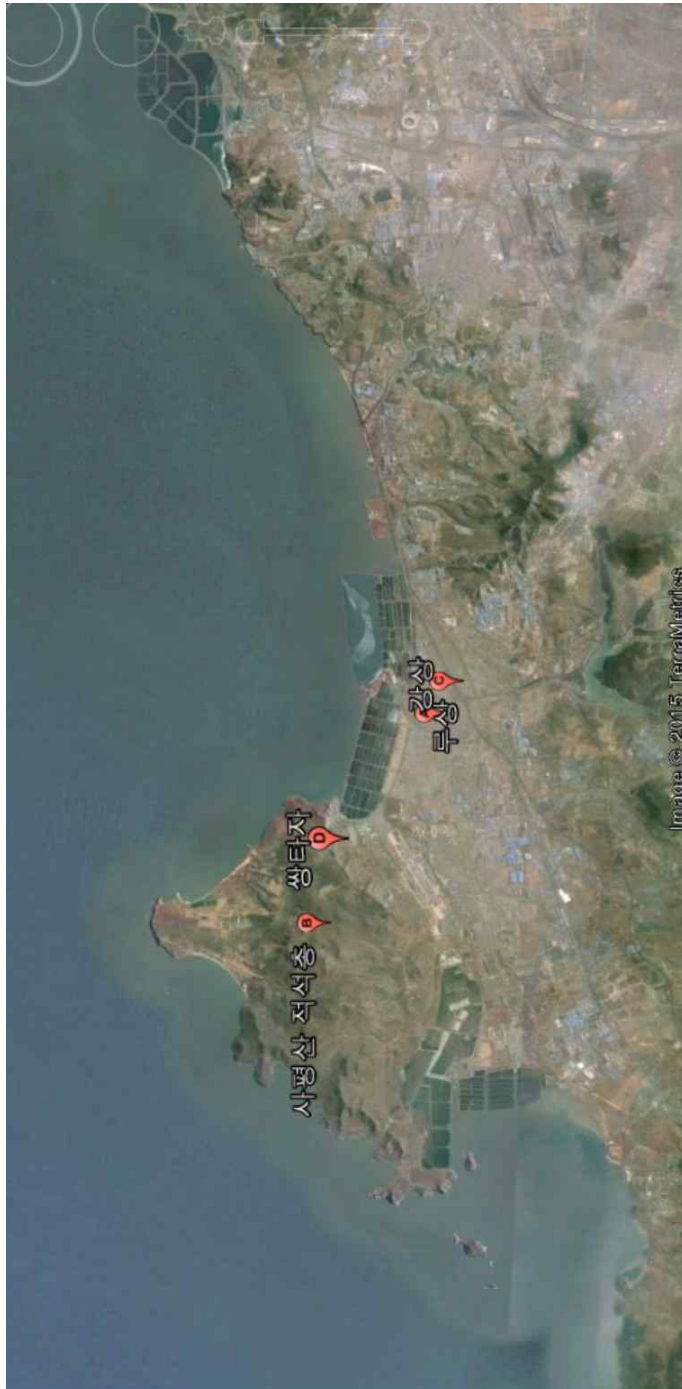
- Савинов Д.Г. Карасукская традиция и «аржано-майэмирский» стиль. // Древние культур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СПб: Культ-информ-пресс, (1998). С. 132-136. (사비노프, 카라숙문화와 아르잔-마이에르 유형)
- Степная полоса Азиатской части СССР в скифо-сарматское время. - М., (1992). (아시아지역 스키토-사르마트시대, 1992)
- Полосьмак, Н.В. Всадники Укока, -Новосибирск, (2002). (폴로스막 2002 우코크의 기마인)
- Руденко С.И. 1953 : Культура населения Горного Алтая в скифское время. М.-Л.: 1953. 402 с. + 120 табл. (루덴코 1953, 스키탈타이시기 산악알타이지역의 문화)
- Чугунов К.С. и др. Аржан-источник в долине царей,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открытия в Туве, СПб, (2004). (추구노프 외 2004 투바 아르잔고분에서 고고학적 발견)

[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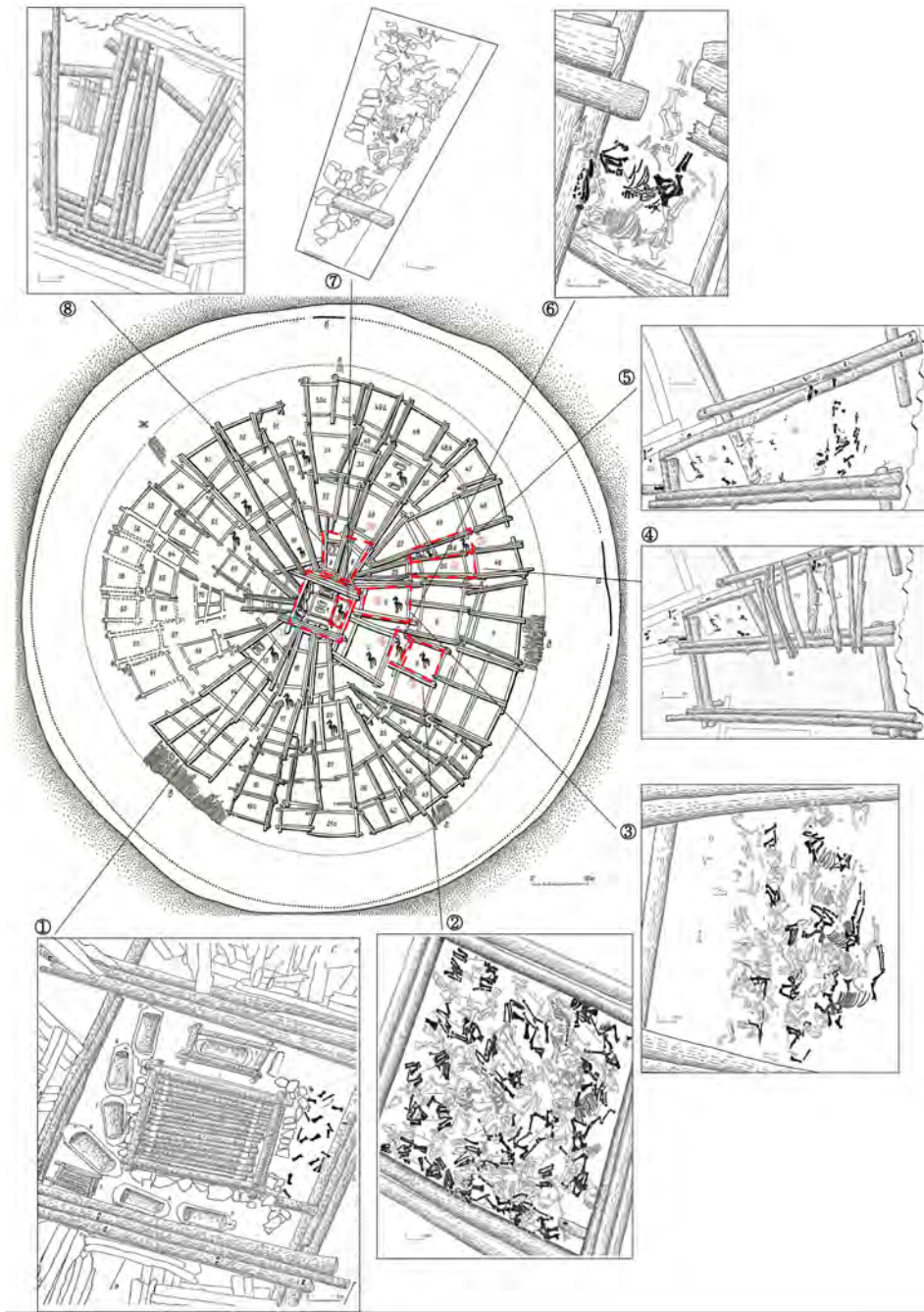
- Boyle, Katie, Colin Renfrew, and Marsha Levine, eds. Ancient interactions: East and west in Eurasia. McDonald Institute for Archaeological Research, 2002.
- Čugunov K., Parzinger H., Nagler A. *Der skythenzeitliche Fürstengraban Aržan 2 in Tuva*. Mainz: 2010 ; Verlag Philipp von Zabern.
- David Christian, "Silk Roads or Steppe Roads? The Silk Roads in World History." *Journal of World History* 11, no. 1 (2000): 1-26.
- Hall, Thomas D. Christopher Chase-Dunn The world-systems perspective and archaeology: Forward into the past, *Journal of Archaeological Research* 1993, Volume 1, Issue 2, pp 121-143.
- Kradin, Nikolay N. "Nomadism, evolution, and world-systems: Pastoral societies in theories of historical development." *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 8.3 2002: 368-388.
- Sherratt, Andrew What Would a Bronze-Age World System Look Like? Relations Between Temperate Europe and the Mediterranean in Later Prehistory, *Journal of European Archaeology*, Volume 1, Issue 2, 1993, pp. 1-58.
- Zaitseva G I et al. Chronological Studies of the Arzhan-2 Monument (Russia) *Radiocarbon*, Vol 46, Nr 1, 2004, p 277-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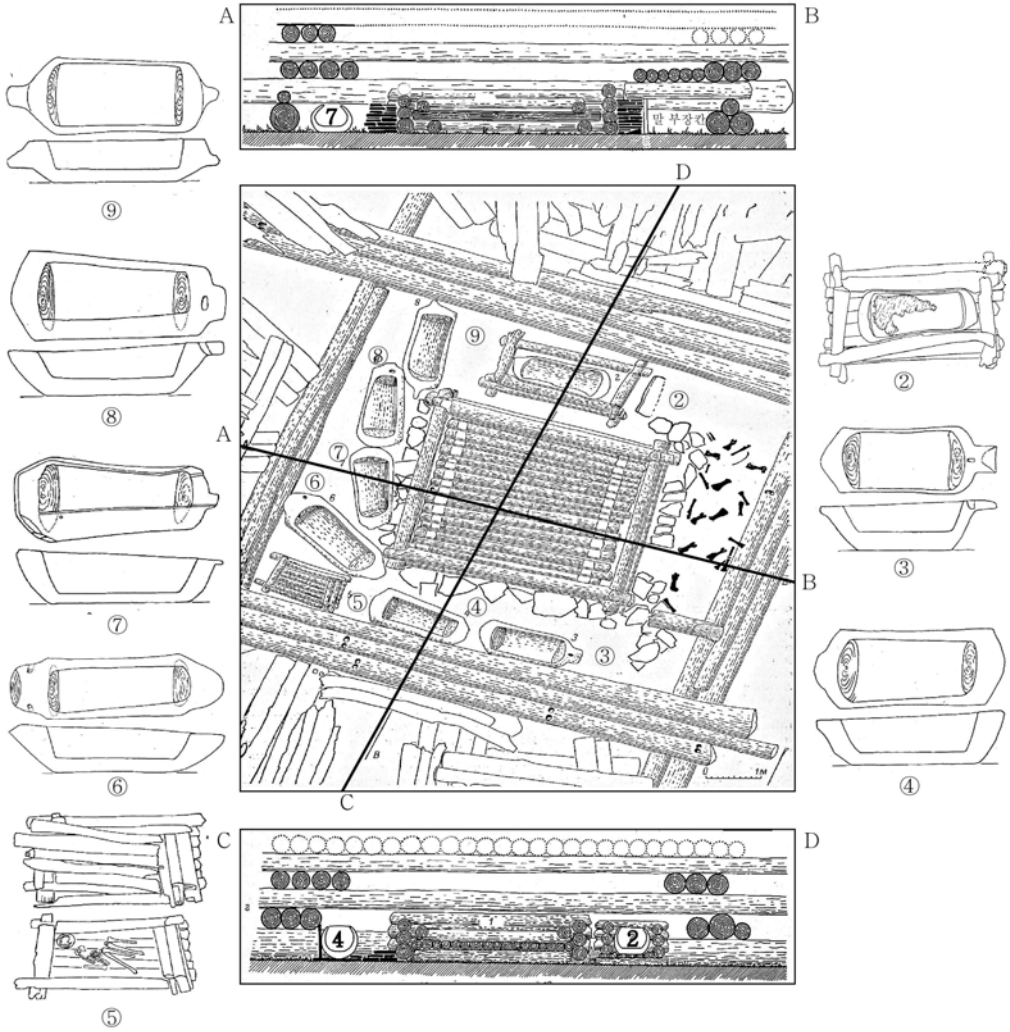
<지도 1> 아르잔 고분 및 초기 스키토-시베리아 문화의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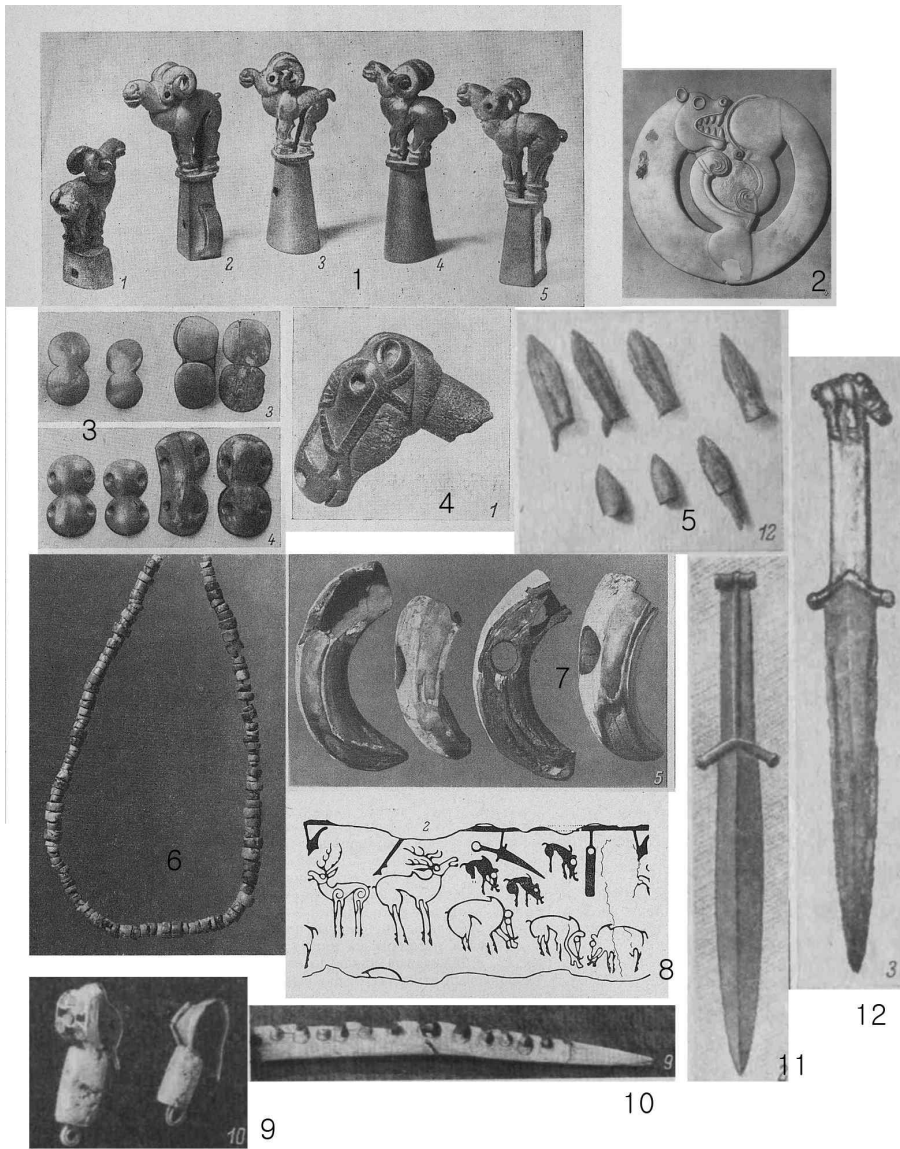
<지도 2> 대령지구 적석총 관련 유적



<도면 1> 아르잔 1호 고분의 평면도, 중심부 목실, 말부장묘의 세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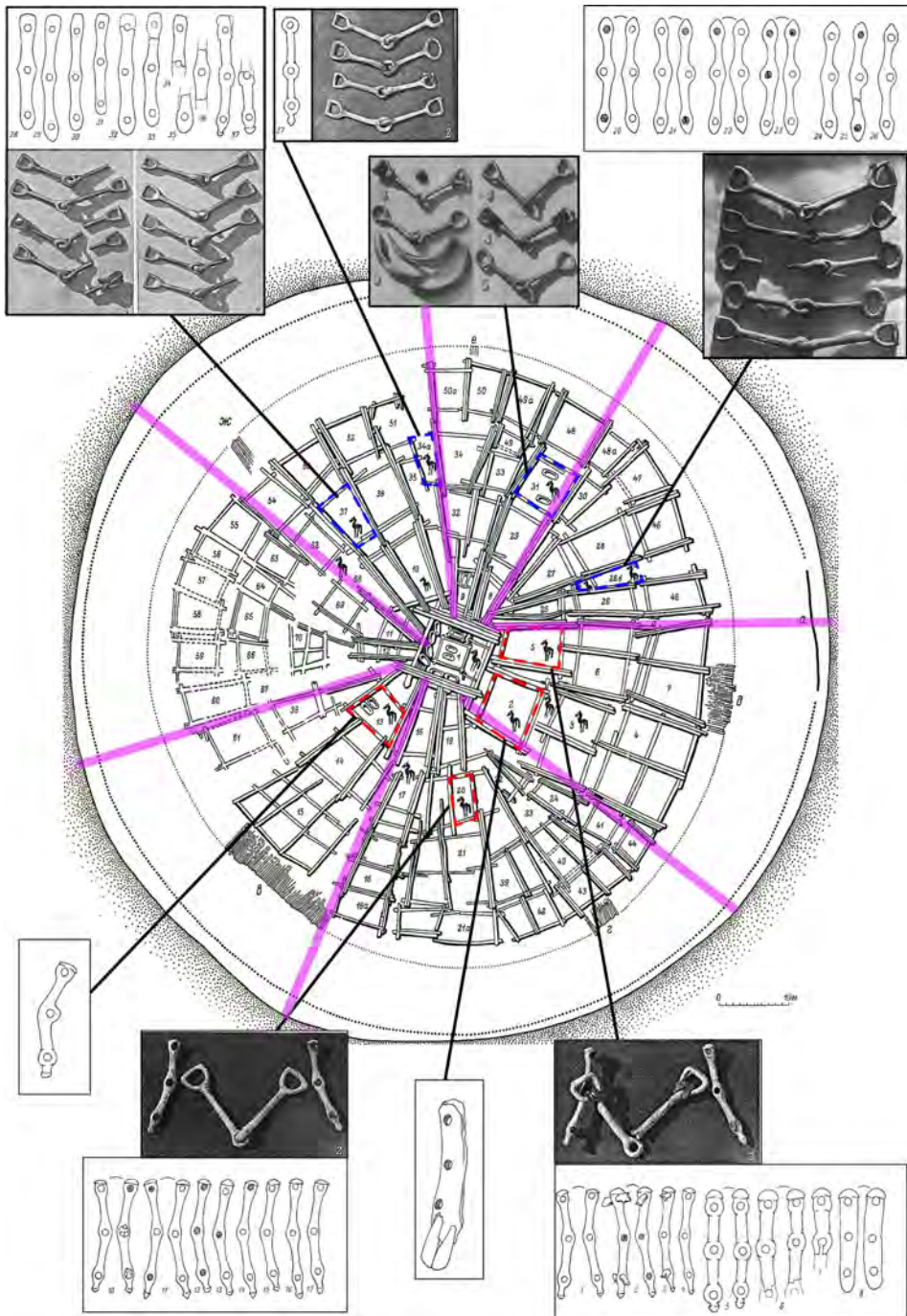


<도면 2> 아르잔 1호 고분, 중심 목실의 내부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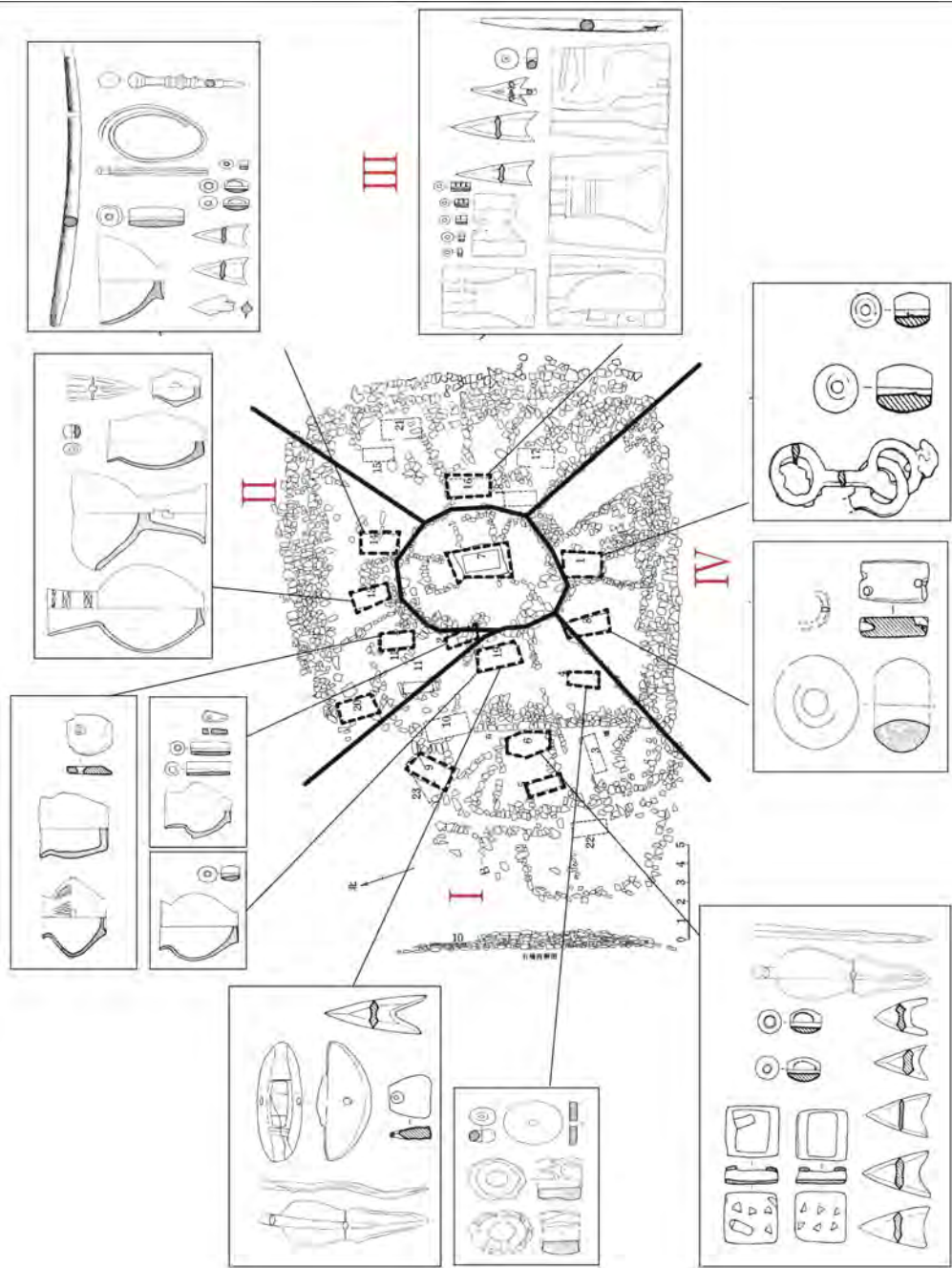


<도면 3> 아르잔 고분 출토 주요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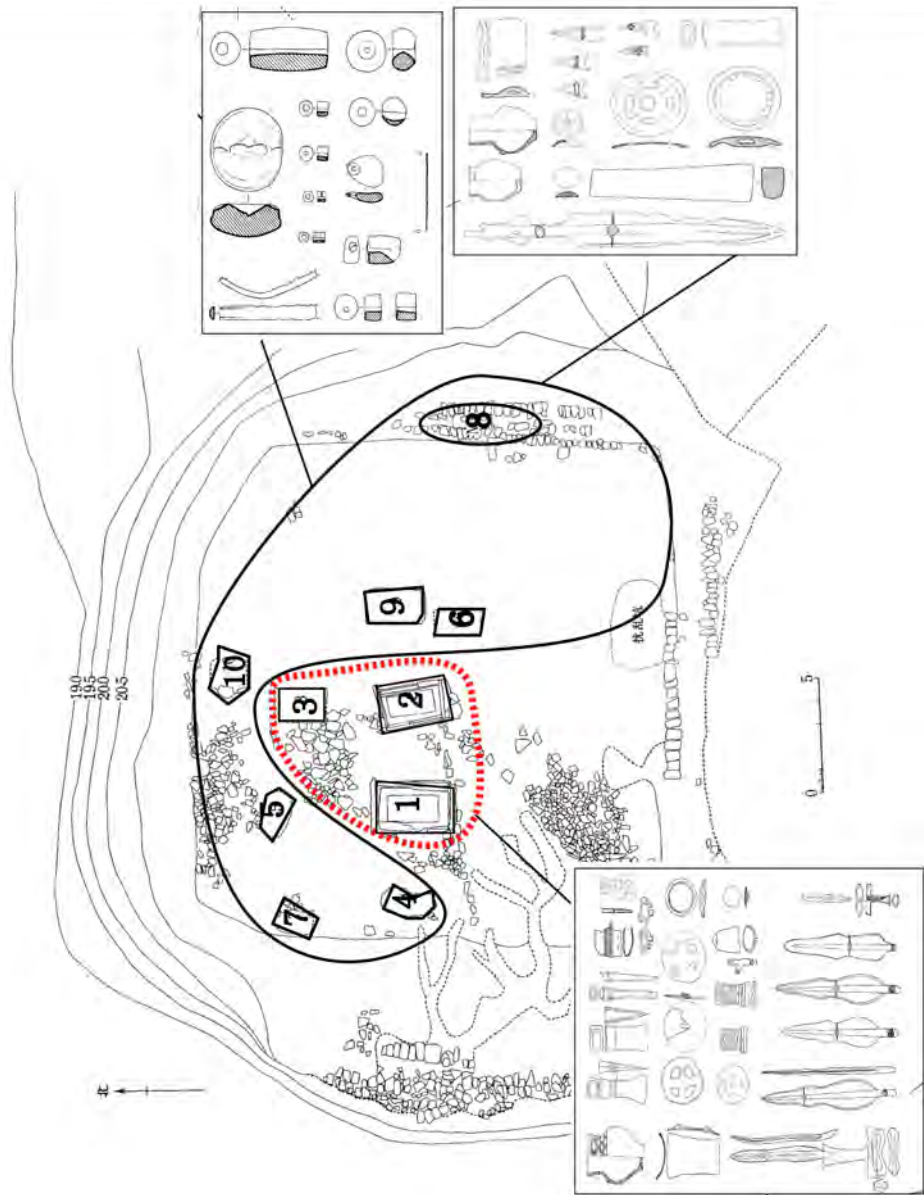
(마구 제외, 1-청동간두장식; 2-금제 원형굴신문; 3-연주형 청동장식; 4-마두형 장식; 5-유공식 동촉; 6-석주 목걸이; 7-송곳니장식; 8-무덤봉토내 출토 사슴돌 탁본; 9-금제이식; 10-발화구, 11,12-동검)



<도면 3-1> 아르잔 구역별(재갈+재갈멈치)



<도면 4> 강상묘 구조 및 출토 유물



<도면 5> 누상묘 구조 및 출토유물

지역구분	B.C. 9c~5c의 지역별 무덤 변천
투바지역	
여백지역	

<도면 6> 각 지역의 무덤변천 (上: 아르잔1호, 2호, 下: 강상묘, 누상묘)

제2부 동아시아 역사 속의 고조선

홍산문화 우하량 무덤집단의 변천¹⁾

이청규·우명하(영남대학교)

- I. 머리말
- II. 매장주체부와 묘역의 형식분류
- III. 우하량 무덤과 묘역의 단계구분
- IV. 단계별 묘제와 부장유물의 변천
- V. 종합고찰

I. 머리말

여신묘와 적석총, 피라밋형 제단, 옥기와 채도로 널리 알려진 건평 우하량 유적은 1983년도에 처음 실물보다 큰 여신상이 확인된 1지점부터 시작하여 2003년에 이르기까지 6개 지점에 걸쳐 10여 차례 발굴조사 되었다. 그 조사성과는 부정기적으로 소략하게 소개되어 오다가 2012년 11월 비로소 요령성문물고고연구소가 출간한 《우하량 홍산문화유적발굴 보고(1094-2003년도)》을 통해 정식 보고되기에 이른다.

동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 지점의 무덤에 대해서 총체적이고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사실이다. 무덤의 매장시설과 묘역의 구조를 비롯하여 옥기의 부장 맥락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장된 사람의 뼈에 대한 정보, 그리고 무덤군 간의 선후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되어 있다.

1) 이 글의 전반부는 우하량 무덤의 형식분류와 단계구분을 내용으로 하는 바, 이는 필자들의 최근 논문인 다음에서 따온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이청규·우명하, ‘우하량 무덤의 축조과정에 대하여’, “牛行 李相吉教授 追慕論文集”, 2015.4

우하량의 묘역을 갖춘 석관묘와 적석총, 석축기단으로 구획된 제단시설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무덤과 제사시설과 유사한 속성을 보여주므로, 한국고고학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하량 무덤과 제사시설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물론 발굴된 유구의 현상을 직접 관찰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동 보고서가 출간됨으로써 우하량의 무덤과 제사유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무엇보다도 우하량 여러 지점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무덤과 제단의 축조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떠한 형식의 무덤과 제단이 어느 지점에 어떠한 순서로 조영되었는지를 알아야 계층화되고 의례행위가 강조된 지역집단의 등장과 해체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매장주체부의 구조와 묘역시설에 대해서 형식을 분류를 하고 그 선후관계를 살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 중국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가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점이 있어 발표자 2인이 나름대로 검토한 바 있다. 이를 전제로 동 유적의 무덤구조와 주인공의 성별, 그리고 부장유물의 변천과정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당대 우하량 무덤 집단의 동향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하량 무덤을 거의 동시기로 파악하여 동 축조집단을 4-5등급의 계층화가 이루어진 사회라는 중국연구자들의 설명과 달리 여러 시기에 걸쳐 형성 발전 붕괴의 변천과정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매장주체부와 묘역의 형식분류

1. 매장주체부의 형식분류

중국의 여러 연구자들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것을 토대로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형식분류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1)

우선 피장자를 안치하는 별도의 시설 없이 지상에 단순하게 인골만 안치한 무덤은 A식 무시설묘, 토광을 얇게 굴착한 무덤으로서 간단하게 돌을 둘러싼 정도의 무덤은 B식 토광묘로 구분한다. 그리고 매장주체부 시설을 할석 혹은 판석으로 번듯하게 조성한 무덤으로 C식 석관묘가 있다.

<표 1> 우하량유적 매장주체부 형식분류

제1기준	제2기준	제3기준	형식		무덤 예	
무시설 (A)	-	-	A		N2	Z4:85M1 85M2 85M3
					N5	Z3:M1
토광 (B)	순수 토광 (1)	-	BI		N2	Z2:M5 Z4:M6 M7 M9
					N16	M2 M7 M8 M9 M11
	위석 (2)	-	BII		N2	Z4:M4 M5 M8 M10 M12 M13 M16
					N5	Z2:M7
석재 (C)	지상 (0.5 m 이 상) (1)	-	CI		N2	Z1: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3 M14 M15 M16 M17 M19 M20 Z4:M3
					N3	M1 M2 M3 M4 M5
					N5	Z1:M5 M6 M7 Z2:M9
					N16	M1
	얕은 지하 (1m 내외) (2)	활석 (a)	CIIa		N2	Z4:M14 M15 Z6:M1
					N3	M6 M7 M8 M9 M10 M11 M12
		판석 (b)	CIIb		N2	Z1:M27 Z2:M3 M4 Z4:M2 M11
					N16	M15
	깊은 지하 (1.5 m 이 상 5.0m 이하) (3)	다단 곽단 (a)	CIIIa		N2	Z1:M21 M22 M23 M24 M25 M26 Z2:M2
					N5	Z1:M1
		부뚜막 (b)	CIIIb		N16	M4 79M2
					N2	Z2:M1

우선 無施設式인 A식은 2지점 4호층과 5지점 3호층의 적석층 상부에서 확인된다. B식 토광묘는 두가지 형식으로 세분되는데 토광에 아무런 시설이 없는 순수토광묘로서 B I식은 우하량 유적에서 2지점 2호층·4호층, 16지점 등에서 9기 확인되었다. B II식은 우하량 보고서에서 “土坑墓(A)”로 규정된 무덤으로서 지하에 토광을 굴착하고 토광을 따라 판석을 세워 매장주체부를 시설한 圍石墓이다. 이에 해당하는 무덤은 2지점 4호층, 5지점 2호층, 16지점의 사례로 모두 11기가 있다.

C식 석관묘는 우하량 유적에 축조된 대부분의 무덤이 해당된다. 이들 석관묘는 매장주체부의 수직적 위치, 묘광의 형태, 매장주체부 축조방식 등을 기준으로 삼아 세분할 수 있다. 지상 혹은 깊이 0.5m 이하의 얇은 지하에 묘광이 뚜렷하지 않은 채 매장주체부가 축조된 석관묘를 C I식, 매장주체부가 지하 1m 내외 중간 깊이의 묘광에 시설된 석관묘를 C II식, 지하 1.5m에서 5m 정도로 깊게 묘광을 굴착하여 매장주체부를 설치한 깊은 묘광의 석관묘를 C III식으로 구별하였다.

이는 다시 석관의 축조방식을 기준으로 세분할 수 있다. C I식은 보고서에서 분류된 “無壙墓(C)”에 해당하는데, 매장주체부 내 피장자는 일차장 이외에 이차장으로 안치되었다. 모두 29기가 확인되는데, 그중 20기가 2지점 1호층의 총 남쪽에 배치되어 있다. C II식은 다음 C III식보다 묘광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묘광의 단면형태는 ‘凹’자형을 비롯하여 묘벽을 1~2계단으로 굴착한 것도 있다. 이러한 C II식은 매장주체부 벽석의 축조방식에 따라 세분할 수 있는데, C IIa식은 할석을 이용하여 쌓아서 매장주체부를 조성한 ‘할석석관묘’로서 14기의 무덤이 이에 해당되고, 3지점 12호묘가 대표적이다. C IIb식은 판석재를 사용하여 정연하게 매장주체부를 축조한 ‘판석석관묘’이다. 2지점 4호층 2호묘가 대표적으로 우하량유적에서는 모두 5기가 이에 해당된다.

C III식은 상대적으로 대형급에 속한 무덤으로 잘 다듬은 얇고 납작한 판석을 정교하게 쌓아 축조한 석관묘이다. 보고서에 분류된 “土階砌石墓(Bb)” 형식이 이에 해당되는데, 묘광을 2단 이상의 계단형으로 파낸 것으로 모두 10기가 확인되었다. 2지점 1호층 25호와 26호 무덤이 이에 속하는 전형적인 예로 이를 C IIIa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토광을 깊게 파는 대신 지표상에 석축시설을 방향으로 축조하여 지상에 매장주체부의 위세를 과시한 대형석관묘로서 2지점 2호층 1호 무덤이 있다. 비록 1기에 한정되지만 이를 C III식 중 별도의 하위형식인 C IIIb식으로 세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필자들의 분류안을 선행연구자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표 2)

<표 2> 우하량 무덤 형식분류의 비교

이청규·우명하 (2014)			報告書 (2012)	郭大順 (1997)	华玉冰·楊榮昌 (1998)	熊增龍 (2005)
A	無施設	무시설묘	-	-	-	-
B I	土坑墓	순수토광묘	Aa 土坑數石墓	附屬墓(?)	甲 土坑竖穴墓	A 土坑竖穴墓
B II		위석토광묘	Ab 土坑立石墓			
C I	石棺墓	지상석관묘	Ca 无坑砌石墓	甲類石棺墓	丙 积石石棺墓	C 积石石棺墓
			Cb 无坑石匣墓	乙類石棺墓		B III 土坑竖穴石棺墓
C II a		할석석관묘	Ba 土坑砌石墓	-	乙 土坑竖穴石棺墓	B II 土坑竖穴石棺墓
C II b						
C III a		다단묘역석관묘	Bb 土阶砌石墓	中心大墓	B 土阶竖穴石棺墓	
C III b		단독묘역석관묘		大型土坑石棺墓		

2) 묘역의 형식분류

우하량 유적에서 확인된 구획시설 혹은 적석층은 모두 15기이다. 이 중에는 매장주체부가 갖추어지고 무덤 또는 무덤군의 경계로서 축조된 ‘묘역’은 11기이고, 무덤이 확인되지 않는 ‘제단’은 2지점 3호층, 4호층, 5지점, 그리고 16지점 등에서 4기가 확인된다.

우선 우하량의 묘역은 무덤 1기가 설치된 單葬과 다수의 무덤이 설치된 多葬으로 구분되는 사실이 주목된다. 그밖에 주된 분류기준으로 삼을만한 속성은 묘역의 평면형태과 축조방식이다.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묘역은 우선 단장 묘역으로서 평면형태 원형이고 쇄석을 산포한 Ia식, 평면형태 방형이고 주구로 경계로 삼고 묘역 전체를 봉토한 것으로 추정되는 Ib식이 있다. 그리고 평면형태가 원형이고 석축기단으로 경계시설을 축조한 Ic식, 평면형태 방형으로 석축기단으로 경계시설을 축조한 Id식의 네 가지 형식이 확인된다.(표3)

단독무덤에 평면형태 원형으로서 잡석을 파쇄하여 덮은 Ia식 묘역에는 통형기가 설치된 예가 많은데 2지점 4호층 4-8호묘, 16지점 9호묘 등 5기가 이에 해당된다. 단독

무덤에 평면형태 방형의 Ib식은 3지점 7호묘의 사례가 있으며, 단독무덤에 평면형태 원형인 Ic식에는 5지점 1호층의 1호묘가 해당된다. Id식은 단장묘역으로 방형의 축대를 설치하여 구축한 것으로 2지점 2호층 1호묘가 대표적이다. 묘역 경계석은 내·중·외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경계에서 내경계로 갈수록 높이 쌓아 3층으로 계단식 묘역을 축조하였는데, 2지점 2호층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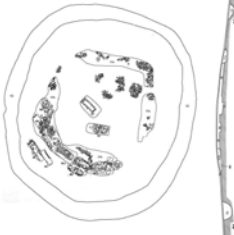

다수의 무덤을 보호하는 II식 다장 묘역은 평면형태 원형으로서 주구를 굴착하고 봉토하여 조성한 IIa식과 평면형태 방형으로서 석축기단을 시설한 IIb식이 있다. 우선 IIa식은 3지점에 그 사례가 있다. 평면형태 방형의 석축시설로 구축된 묘역시설 IIb식은 2지점 1호층으로 대표되는데, 1호층 전체를 보면 모두 27기의 무덤이 배치되어 있지만 묘역으로서 보호되는 무덤은 25호와 26호 두기이다. 16지점은 2단으로 구성된 석축기단시설이 서쪽에 극히 일부만 남아 있어 정확한 규모와 범위를 알기 어렵지만, 대형의 석관묘 4호묘와 79년 2호묘를 중심에 둔 장방형 묘역이 시설되었음이 확인된다.

IV. 우하량 무덤과 묘역의 단계 구분

우하량유적 각 지점의 무덤은 묘역보다 빨리 설치된 무덤도 있고, 묘역과 함께 축조된 것도 있으며 또 묘역보다 늦게 축조되어 묘역을 일부 파괴하고 들어간 무덤도 있다. 특히 다장묘역의 경우 무덤과 묘역의 중첩관계가 복잡하다. 또한 무덤과 순수제단시설과 겹치는 사례도 있다.

이들의 선후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무덤축조집단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토대가 된다. 우하량 무덤들은 그 대부분 집단의 일반구성원이라기 보다는 그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의 무덤이다. 그러한 무덤의 존재양태를 일정한 단계별로 꼼꼼하게 살펴보면 그들이 이끄는 집단의 동향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이제 곧 정착한 소규모 인구집단이라면 그 우두머리의 무덤은 소규모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규모가 커지고 보다 조직화된 세력이라면 그 우두머리는 좀 더 규모가 크고 잘 정비된 무덤에 안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개인 혹은 다수 무덤 어느 쪽을 대상으로 삼아 성역화한 묘역을 축조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축조집단의 조상숭배 형태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표 3> 우하량유적 묘역 형식분류

분류 기준	형식		묘역 예
단장 (I)	I a		N2Z4 :M4 M5 M6 M7 M8 N16M9
	I b		N3:G1M7 N16M4
	I c		N5:Z1M1
	I d		N2:Z2
다장 (II)	II a		N3:G2
	II b		N2:Z1 N16:Z1

한편으로 선대 묘역의 외곽 또는 중심부를 파괴하고 시설한 무덤은 피장자의 집단 귀속의식을 살피는 잣대로 활용할 수 있다. 전자는 선대무덤에 대한 계승의식을 반영한 것이지만, 후자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각 지점별로 무덤과 묘역의 중첩 혹은 선후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지점 1호층의 사례를 보면 중첩관계가 우하량 유적에서 가장 복잡하다. 묘역시설을 축조하기 전 깊은 묘광의 대형석관묘(CⅢa식)인 25호묘와 26호묘가 가장 먼저 설치되었다. 동서 길이 34m, 남북 길이 22m의 축석기단과 통형기가 배치된 3단식의 다장묘역(Ⅱb식)이 이들 복수의 무덤을 성역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묘역의 바깥쪽에 잇대어 대형의 석관묘(CⅢa식) 24, 23, 22, 21호묘와 중간 깊이의 중형석관묘(CⅡb식) 27호가 서쪽에서부터 동쪽 방향으로 시설된다. 24호와 23호 무덤이 중첩되고 후자의 묘광 바닥이 더 낮아 선축된 것으로 보이지만 24호묘가 합장묘라는 점, 양 무덤이 상호 매장주체부 공간을 파괴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큰 시차 없이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지하중형 석관묘가 축조된 후 CI식 지상소형 석관묘가 남쪽 묘역의 경계 동쪽으로 치우쳐 일부 경계석을 파괴하고 들어와 무덤군을 이루었다. 이들 무덤 다수는 상호 연결되어 전체 무덤군이 조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무덤과 묘역의 관계를 통해 2지점 1호층은 깊은 묘광의 대형석관묘(CⅢa식) → 다장묘역(Ⅱb식) → 깊은 지하 대형석관묘(CⅢa식)와 중간 깊이의 중형석관묘(CⅡb식) → 지상소형 석관묘(CI식) 순으로 축조된 것으로 이해된다.(표4)

<표 4> 2지점 1호층의 중첩관계

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N2Z1묘역설치 →		N2Z1묘역설치이후			
형식	CIIIa		CIIIa + CIIb		CI	
2지점 1호층	M25	M22	M21	M4		
	M26	M23	M27	M5	M7	
		M24		M6	M8	
				M9	M10	
				M11	M15	
				M13	M16	
				M14	M17	
				M20	M19	

2지점 2호층은 1호의 초대형 단독묘와 그 남쪽의 다수 석관묘로 구성되어 있는데 1호층과 마찬가지로 전자의 묘역 남쪽 경계석을 일부 파괴하고 후자 무덤이 들어온 형국이다. 우선 CIIIb식 지하대형석관묘 1호묘를 축조하고 이를 성역화한 단장묘역 Id식을 시설하였다. 이후 묘역시설 남쪽에 경계석을 파괴하고 CIIIa식 측벽계단석관묘 2호묘, 판석석관묘 CIIb식 3호묘와 4호묘를 축조하였다. 2지점 1호층과 유사한 이 지점의 변화는 CIIIb식 단독묘역 석관묘 → Id식 단장묘역 → CIIIa식 다단묘광 석관묘 → CIIb식 판석석관묘 순으로 확인된다. 2호층 2호묘의 무덤형식은 앞서 2호층에서 가장 먼저 축조된 중심무덤 25, 26호와 형식이 흡사하여 거의 같은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이 맞다면 2호층 중심대묘 1호층은 2호층 중심묘보다 먼저 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3지점은 내구와 외구의 2중 주구로 구성된 묘역을 갖추고 있는 무덤군으로 단장묘역 축조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 할석석관묘 CIIa식 7호묘를 설치한 후 상부에 봉토를 덮었고 그 다음 방형의 주구를 굴착하여 단장묘역의 경계를 만들었다. 이후 주구 묘역 경계를 따라 지하 할석석관묘 10기를 중첩 또는 연접으로 축조하여 무덤군을 조성하였다. 이들 다수무덤의 경계시설로 원형의 외구를 굴착하여 3지점의 묘역을 완성하였다. 그 축조 순서를 요약하면 CIIa식 할석석관묘 → Ib식 단장묘역 → CIIa식 할석석관묘 → IIa식 다장묘역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16지점에서는 층위관계로 볼 때 적석층 이전단계와 적석층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보고

서에서는 적석층 하층과 적석층 상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층적석층 층위에서 확인된 무덤은 2호, 7호, 8호, 9호 무덤으로 순수토광묘 B I 식에 해당한다. 이 중 9호묘는 2지점 4호층에서 확인되는 무덤 상부에 얇은 봉토가 덮여있고 주변으로 통형기 잔편이 확인되는 적석산포형의 단장묘역(I a 식)으로 확인된다.

다음 상층적석층단계의 무덤은 다단묘광의 대형석관묘(CIIIa 식) 4호묘로서 모래흙을 여러 차례 깔고 다진 단장묘역(I c 식)을 갖추었다. 4호 무덤의 축조이후 다단묘광 석관묘(CIIIa 식) 79년 2호묘가 4호묘의 묘역 일부에 연접하여 조성하였다. 그 후에 이 두 무덤을 성역화하기 위하여 시설한 II b 식의 다장묘역이 조성되었는데, 그 일부 석축시설만 남아 있다. 이 무덤 주위로 조성된 길이 45m, 폭 18m의 장방형 흙토끼는 바로 그 석축묘역 시설에 잇대어 조성된 묘역시설로 이해된다. 그리고 할석석관묘 CII a 식 무덤 13호, 14호와 판석석관묘 CII b 식 무덤 15호가 일부 잔존하는 묘역경계석 남쪽에 잇대어 축조되었다. 이러한 무덤과 무덤, 무덤과 묘역의 중복관계를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16지점에서는 B I 식 순수토광묘 → CIII a 식 다단묘광 석관묘 → II b 식 다장묘역 → CII 식 석관묘 또는 B 식 토광묘 순서로 조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앞서 각 형식의 중복관계를 통해 알아본 우하량 유적 무덤과 묘역의 단계별 변화를 정리하고 그 배경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에는 우하량 유적에서 BII 식 위석토광묘와 함께 단순한 형태의 통형기를 갖춘 단장묘역 I a 식이 가장 먼저 축조되었다. 순수 제단시설 2지점 4호층의 남쪽에 있는 4호, 5호, 6호, 7호묘와 16지점 9호묘가 이에 해당된다. 16지점의 2호, 7호, 8호묘도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2단계는 깊게 조성된 묘광에 벽석을 정연하게 축조한 대형 석관묘(CIII b 식)의 2지점 2호층 1호묘를 비롯하여 CIII a 식 대형석관묘로서 5지점 1호층 1호묘, 16지점 4호묘가 축조된다. 이들 개인 무덤이 원형 혹은 방형의 석축시설을 1단 혹은 3단으로 이루어진 묘역으로 보존되었다.

3단계는 묘역을 갖추지 않은 대형석관묘 CIII a 식이 조성되는 단계이다. 2지점 1호층 25, 26호, 그리고 16지점 79년 2호묘가 이에 해당된다. 앞서 보듯이 이미 2단계에 2지점에서는 2호층에서 단독묘역의 대형석관묘 CIII b 식 무덤이 시설되었다. 동 무덤은 지상에 3단의 적석 묘역이 조성되어 이 일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로서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2호층 1호묘를 옆두에 두고 그 인접한 1호층 구역에 동 무덤이 조성된 것이다, 16

지점의 경우는 2지점과 달리 단독묘역의 4호 무덤과 같은 구역 내에 무덤을 조성하였는데, 양 지점이 공통되는 것은 복수 무덤을 위한 석축기단 IIb식이 장방형 공동묘역을 조성하였다는 사실이다.

4단계에는 2지점과 16지점의 앞서 조성한 묘역 경계시설 부근에 다수의 무덤이 축조된다. 2지점 2호총과 1호총에서 CIIIa식의 중형석관묘가 축조된다. 2호총에서는 1기이지만, 1호총에서는 24호의 부부합장묘를 비롯하여 22호, 23호, 27호 무덤이 축조된다. 선대 묘에 잇대어 축조하는 것은 집단의 귀속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곧 이어 소형의 판석석관묘 CIIb식과 할석석관묘 CIIa식 무덤들이 2지점 1호총의 남쪽 묘역 경계구역 중 동쪽으로 치우쳐 10여기가 축조된다. 그러면서 앞선 시기에 구축하였던 묘역을 일부 조정하기도 한다.

다음 5단계에서는 묘역의 경계에 더욱 많은 무덤이 조성되는 바, 그 무덤 형식이 묘광이 많아 거의 지상화된 소형석관묘 CI식이라는 점이 앞선 단계와 다르다. 바꾸어 말하면 선대의 묘역시설을 파괴하고 석관묘를 축조하는 경향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단계로서, 적석총 단계 중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한된 범위의 공간 내에서 앞선 단계의 석관묘 위에 중첩은 물론 뺄뺄하게 들어서 연결하는 경우가 등장한다. 2지점 1호총과 16지점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단계에 비로소 단독 묘역의 중형석관묘가 들어선 3지점의 경우 묘역 경계에서도 같은 현상이 확인된다. 십 여기의 소형 석관묘가 묘역의 주구 내에 뺄뺄하게 들어선 것인데 다른 지점과 다른 것은 이들 무덤을 둘러싼 주구 묘역이 시설되고 그 내부 전체를 봉토하였다는 사실이다.

우하량의 마지막 6단계는 순수토광묘 BI식, 무시설묘 A식이 우하량 유적 무덤형식 중 가장 늦은 단계에 축조된 것이다. A식 무덤에서 동이식이 부장되는 것으로 보아 홍산문화 말기에서 하가점하층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IV. 단계별 묘제와 부장유물의 변천

1. 1단계

우하량 무덤 85기 중 1단계 무덤은 모두 10기로서 무덤형식은 BⅠ식과 BⅡ식, 2지점 4호총 4,5,8,(BⅡ), 6,7,9(BⅠ)호묘, 16지점 2,7,8,9(BⅠ)호묘가 있다. 무덤의 규모도 작고 토기가 1-2점 출토되었을 뿐 대부분 유물이 부장되지 않고 옥기도 1점만 확인되었다. 옥기가 부장유물로 정형화되지 못한 단계이다. 다음 단계에 보는 수장급 무덤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보아 집단의 규모와 조직은 아직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무덤 10기 중 묻힌 인골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성은 4기, 남성은 5기로서 남녀 성비의 차이가 없다. 이는 다음 2단계에 남성 위주의 수장묘가 조성되는 사실과 비교가 된다. 아직 실력자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우하량에 처음 일정한 인구집단이 등장하여 정착하였음을 반영한다. 단, 묘, 총이 본격적으로 축조되기 이전인 적석총 하층단계의 선주민 집단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이들 무덤과 같은 지점의 동일 총 구역내에 선축 무덤을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 적석총 상층단계의 집단이 그 계보를 직접적으로 이어받는 후계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2단계 이후의 무덤 조성상태 혹은 배치를 보면 더욱 그러한 것이다.

단계	형식	총	무덤	인골				출토유물 ²⁾	
				성별	나이	두향	장법	부장품	출토위치
1	BⅡ	N2Z4	M4	남성	22~24	—	이장	—	—
1	BⅡ	N2Z4	M5	여성	25~30	남	양신직지장	(유개채도용) 1	발 아래
1	BⅠ	N2Z4	M6	여성	50~55	—	이장		
1	BⅠ	N2Z4	M7	남성	—	남	양신직지장	(채도용) 1	발 아래
1	BⅡ	N2Z4	M8	남성	45~50	남	양신직지장	사구통형옥기 1 (도쌍이관) 1 (절복반) 1	복부 발 아래 관 입구
1	BⅠ	N2Z4	M9	여성	20~25	남	양신직지장	(사구통형옥기) 1	두정부 좌측
1	BⅠ	N16	M2	남성	40±	동남	양신직지	—	—
1	BⅠ	N16	M7	여성	45±	동남	양신직지	—	—
1	BⅠ	N16	M8	불명	성인	동남	—	—	—
1	BⅠ	N16	M9	남성	50~55	—	이차장	(A형 통형도기)	—

2. 2단계

우하량 유적 85기 무덤 중 이 단계에 속하는 무덤은 모두 3기로, 2지점2호층1호묘(CIII b), 5지점1호층1호묘, 16지점4호묘(CIIIa)가 바로 그것이다. 무덤형식은 CIIIa, CIIIb식으로 대형급이다.

7-8점의 옥기로 갖추어진 부장유물의 구성으로 볼 때 이 단계부터 토기는 부장되지 않고 옥기 부장이 정형화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구운형기 혹은 사구통형기와 탁을 기본으로 하는 갖춤새는 이후 5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된다. 이밖에 사람, 새, 자라 등의 실물을 형상화한 옥기가 부장된다.

우하량 적석총 단계의 초기로서 그 무덤의 규모나 단독 묘역으로 보아 집단 구성원들이 숭배하는 유력자 개인이 묻힌 수장묘로 추정된다. 이를 통하여 규모가 더욱 커지고 위계가 발달한 사회의 모습을 갖춘 지역집단이 우하량에 등장하였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2지점, 5지점, 16지점 각기 다른 지점에 시설된 대형석관묘로 보아 지역집단은 다수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3단의 정연한 묘역을 갖춘 2호층 2호묘가 가장 우월하여 이를 축조한 집단이 더욱 중심적인 역할을 한 세력의 것으로 이해된다. 아마도 가장 먼저 등장한 집단의 수장묘이기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하량 각 집단의 최초의 수장들로서 후손들이 단독 묘역을 조성하여 성역화한 점이 다음 3단계의 그것과 다르다. 3기중 2기에서 인골이 발견되었는데, 둘다 나이 40~50대의 남성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보아 수장 지위는 남성이 독점한 셈이 되는데, 이러한 양상은 다음 3-4단계에도 계속된다. 이들을 중국연구자들이 주장하듯이 샤만이라고 한다면 남성 샤만인 셈이 된다.

단계	형식	총	무덤	인골				출토유물	
				성별	나이	두향	장법	부장품	출토위치
2	CIIIb	N2Z2	M1	—	—	—	—	—	—
2	CIIIa	N5Z1	M1	남성	50±	동남	양신직지	벽2 고형고1 구운형기1 탁1 자라2	두개골 양측 흉부 흉부 오른쪽 팔 양쪽 손
2	CIIIa	N16	M4	남성	40~45	동	양신직지	봉황1 사구통형기1 옥인1 탁1 환2 녹송석추식2	두개골 아래 오른쪽 갈비뼈 좌측 분골 팔꿈치 분골 옥환 내

2) 출토된 유물 중 토도류는 ()로 표시하였음.

3. 3단계

우하량 유적 85기 무덤 중 3단계 무덤은 모두 3기로서 2지점 1호총 25, 26호묘, 16지점79-2호묘의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무덤형식은 모두 CⅢa식인 대형묘이다. 앞선 단계에서 단독 묘역을 조성한 것과 달리 복수의 조상무덤들을 성역화하였다. 후손들의 집단세력이 일정기간 세를 키우고 안정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이 된다.

부장된 옥기는 4-9점으로 앞선 단계의 것과 마찬가지로 무덤 간에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보기 어렵다. 2기의 무덤에서 확인된 인골은 성인 남성인 점이 앞서와 마찬가지로이다.

단계	형식	총	무덤	인골				출토유물	
				성별	나이	두향	장법	부장품	출토위치
3	CⅢa	N2Z1	M25	성인남성	35~40	서	양신직지	사구통형기 2 관상기 1 탁 2 주 2	두부, 복부 흉부 좌우 팔목 두개골 우측, 경부
3	CⅢa	N2Z1	M26	성인남성	—	서	양신직지	쌍수장신구 1 관상기 1 탁 1 추식 1	복부 우측흉부 우측요골 팔꿈치뼈 우측
3	CⅢa	N16	79M2	불명	성인	서북	양신직지	구운형옥기 1 사구통형옥 기1 방형옥벽2 옥탁1 옥환2 옥관주1 옥조1	두개부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 오른쪽 허리 오른손 흉부 오른쪽 발 벽석 왼쪽 아래 발 오른쪽 왼쪽

4. 4단계

우하량 유적 85기 무덤 중 모두 12기로서, 2지점 1호총 21,22,23,24,(CIIIa), 27(CIIb)호묘, 2지점 2호총2(CIIIa), 3,4(CIIb)호묘, 2지점 4호총 2,11(CIIb)호묘, 3지점 7호묘(CIIa), 16지점15(CIIb)호묘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 무덤은 모두 각 지점별로 앞서 조성된 묘역의 경계에 조성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집단의 사회적 성격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첫째는 같은 묘역 범위에 조성된 무덤의 숫자가 늘어나는 현상에 주목하면 각 지점 총의 균집묘를 조성한 집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는 앞선 단계에 특정의 대형석관묘 1-2가 묘역내에 보호된 것과 달리 다수의 중형 석관묘가 묘역을 무시하고 조성되었다는 현상으로, 이는 상호 경쟁적인 지도자가 거의 동시에 또는 세대를 달리해가면서 등장하였음을 보여준다.

여전히 피장자는 남성 위주이지만, 2지점 1호총 24호의 경우 합장묘로서 여성이 묻힌 사실이 확인된다. 그 밖에 또다른 1기의 무덤에서 여성이 묻힌 사례가 확인되는 바, 우하량 무덤에 여성에 묻힐 수 있는 모종의 여건이 소극적이거나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구통형기, 구운형기, 탁 또는 환, 벽, 관옥 등으로 구성되는 정형화된 옥기 부장유물 갖춤새가 확인된다. 앞서 3단계까지는 부장된 옥기의 차별화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이 4단계부터는 부장유물을 통해 등급 분류가 가능하게 된다. 최상급의 사례는 옥기 20점 출토된 2지점 1호총 21호묘이다. 이 무덤에서는 모두 20점이 부장되었으며 수면 패식 1점, 귀각 1점, 구운형기(매형상) 1점, 사구통형기 1점, 원통상식 1점, 벽 11점, 락벽 2점, 주 1점, 탁 1점 등 수량과 옥기종류에서 탁월하다. 대부분은 1-4점 부장되었는데, 전혀 유물이 부장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제2부 동아시아 역사 속의 고조선

단계	형식	총	무덤	인골				출토유물		
				성별	나이	두향	장법	부장품	출토위치	
4	CIIIa	N2Z1	M21	성인남성	30전후		양신직지	수면패식1 사구통형기 1 귀각 1 구운형기 1 원통상식 1 벽 10 쌍련벽 2 주 1 탁 1 벽형식 1	복부 두개골 정부 왼쪽 가슴 왼쪽 어깨 밖 오른쪽 어깨 밖 머리, 턱, 팔, 손, 허벅지 오른쪽 어깨 배 오른 팔목 서단벽 아래	
4	CIIIa	N2Z1	M22	—	—	동	양신직지	사구통형기 1 구운형기 1 탁 1	두개골 정부 오른쪽 가슴 오른쪽 팔목	
4	CIIIa	N2Z1	M23	성인남성	—	—	양신직지	용봉패식 1 탁 1 월형벽 1 녹송석추 1	복부 오른쪽 팔목 오른쪽 가슴 두개골 부근	
4	CIIIa	N2Z1	M24	성인여성	북쪽	—	양신직지	구운형옥기 1 옥탁 1	복부 아래 오른쪽 팔	
				성인남성	남쪽	—	양신직지	옥탁 1	오른쪽 팔	
4	CIIb	N2Z1	M27	성인여성	30전후	서	양신직지	구운형옥기 1 탁1	왼쪽 두부, 어깨 위	
4	CIIIa	N2Z2	M2	남성	15전후	서남	양신직지	옥환	오른쪽팔목	
4	CIIb	N2Z2	M3	—	—	—	—	—	—	
4	CIIb	N2Z2	M4	?	?	동	양신직지	—	—	
4	CIIb	N2Z4	M2	여성	40~45	—	양신직지	사구통형기 1 옥환 2 녹송 석추 2	오른쪽 가슴 양쪽 다리 머리 아래, 경추 위	
4	CIIb	N2Z4	M11	—	—	—	이장	—	—	
4	CIIa	N3	M7	남성	45±	서북	양신직지	사구통형기1 탁1 대옥환1	두개골 오른쪽 팔목 오른쪽 가슴	
4	CIIb	N16	M15	남성	45±	서북	양신직지	옥걸1 옥환1 구운형옥기1	우측 흉부늑골 위 흉복이 결합된 중부 요추 아래	

5. 5단계

우하량 유적 85기 무덤 중 모두 48기가 이 단계에 속한다. 2지점 1호총 1~11호, 13~17호, 19, 20호묘(CI 식), 2지점 4호총 3, 10, 14, 15호묘(CI, BII, CIIa), 3지점 1~5(CI)호, 6, 8~12(CIIa)호묘, 5지점 1호총 5~7호묘(CI), 5지점 2호총 1~3호(CIIa), 7호(BII), 9호묘(CI), 16지점 1호(CI), 10(BII), 11(BI), 13, 14호(CIIa), 79-1, 79-3호(BII)묘 등이 그것이다.

묘역의 가장자리 혹은 경계 도랑에 배치되는 현상이 확인되는데, 이는 4단계부터 시작된 것으로 묘역을 신성시하면서도 나름대로 선대무덤과의 계승성, 귀속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부장된 옥기가 가장 많은 무덤이 7점으로 부장품이 소략화되는 경향이 파악된다. 2지점 1호총 7호, 15호, 16지점1호, 16지점14호 등의 무덤 7기에서는 4~7점의 옥기가 부장하였다. 1~3점의 옥기가 부장된 무덤은 17기이고, 전혀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 무덤은 모두 25기로 2분의 1을 넘는다.

이러한 5단계의 현상은 4단계에 이어 여전히 각 지역집단이 세를 늘려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유력한 개인묘가 조성된 무덤군이 다수의 지점과 총에 조성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우하량 일대에 다수의 집단이 상호 대등하면서 경쟁적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무덤의 규모와 부장된 옥기가 하향평준화하는 현상이 확인된다.

인골이 확인된 27기 중 남성이 13기, 여성이 14기로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등하였다. 또한 옥기의 부장상태도 남녀간에 큰 차이가 없다.

장법에서도 그동안 주종을 이루었던 양신지지장(16기) 이외에 이차장(16기), 첩골장(2기) 등 새로운 장법이 등장한다. 이러한 장법의 변화는 장제의 엄격성이 낮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구의 증가에 비해서 위계적 조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부장된 옥기를 보면 1인당 소유한 숫자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형의 정교한 옥기도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인구에 비해 가진 자원은 한정되니까, 소량 분배된 것으로 이해된다.

제2부 동아시아 역사 속의 고조선

단계	형식	총	무덤	인골				출토유물	
				성별	나이	두향	장법	부장품	출토위치
5	C I	N2Z1	M1	성인 여성	35~40	—	양신직지	대옥환 1	두개골 왼쪽
5	C I	N2Z1	M2	성인 여성	30~35	—	양신직지	옥환 잔편	—
5	C I	N2Z1	M3	—	—	—	1인 이차장	—	—
5	C I	N2Z1	M4	성인 남성	35전후	—	양신직지	옥룡 2 사구통형기 1	가슴 위 두개골 아래
5	C I	N2Z1	M5	성인 남성	40전후	—	—	—	—
5	C I	N2Z1	M6	성인 남성	35~40	—	양신직지	—	—
5	C I	N2Z1	M7	성인 남성	30~35 18~20 30	—	3인 이차장	벽옥 3 환 2	서쪽, 남쪽, 동쪽 인골 남쪽, 동쪽 인골
5	C I	N2Z1	M8	성인 여성	40전후	—	이차장	옥환 1	묘실 서남 모서리
5	C I	N2Z1	M9	성인 남성	50±	—	양신직지	석월 1 구운형옥기 1	복부 석월 상부
5	C I	N2Z1	M10	성인 여성	40~45	—	이차장	—	—
5	C I	N2Z1	M11	성인 남성	25~30	—	이차장	환옥 1 벽옥 1 검옥 1	묘실 남벽 문산 — —
5	C I	N2Z1	M13	성인 여성	22~24	—	이차장	—	—
5	C I	N2Z1	M14	성인 여성	45전후	서	양신직지	구운형옥기 1 옥탁 2	가슴 앞 팔목
5	C I	N2Z1	M15	성인 여성	40~45	서	양신직지	사구통형기 1 벽 1 환 1 팔찌 2	두개골 정부 — 벽옥아래 목아래, 왼쪽 팔목
5	C I	N2Z1	M16	—	—	—	1인 이차장	—	—
5	C I	N2Z1	M17	성인 여성	50~55	—	1인 이차장	쌍인수삼공목 소배식 1	두개골 우측아래
5	C I	N2Z1	M19	—	—	—	1인 이차장	—	—
5	C I	N2Z1	M20	—	—	서	양신직지	—	—
5	C I	N2Z4	M3	여성	14~15	—	이차장	—	—
5	B II	N2Z4	M10	남성	성년	동	이장	—	—
5	C II a	N2Z4	M14	—	—	—	이장	옥환 2	북벽 아래
5	C II a	N2Z4	M15	여성	35~40	—	양신직지장	옥환 2	두개골 위, 두개골 좌측
5	C I	N3	M1	—	—	—	—	—	—
5	C I	N3	M2	여성	30~35	동	양신직지	—	—
5	C I	N3	M3	여성	25±	서	양신직지	옥벽1	두개골

								옥환1 옥탁2	좌측정부 위 오른쪽 우팔목위 양쪽팔목 각1점
5	C I	N3	M4	남성	50~55	서	이차장	—	—
5	C I	N3	M5	—	—	—	이차장	—	—
5	CIIa	N3	M6	—	—	—	—	—	—
5	CIIa	N3	M8	—	노인	—	소량출토	—	—
5	CIIa	N3	M9	남성	25~30	북서	양신직지	옥탁1 옥배식1	오른쪽 팔목 오른쪽 흉부
5	CIIa	N3	M10	—	—	—	—	—	—
5	CIIa	N3	M11	—	—	—	—	—	—
5	CIIa	N3	M12	—	—	—	—	—	—
5(1?)	C I	N5Z1	M5	—	성인	—	두개골	—	—
5(1?)	C I	N5Z1	M6	남성	40~45	서남	양신직지	—	—
5	C I	N5Z1	M7	남성	40~45	서남	양신직지	옥탁1	오른쪽 팔목 위
5	CIIa	N5Z2	M1	—	—	—	—	—	—
5	CIIa	N5Z2	M2	—	—	—	양신직지	채도1 탁2 추식1	석감내 양쪽 팔목 경부
5	CIIa	N5Z2	M3	—	성인	—	이차장	옥탁1	하지골 두개 사이
5	BII	N5Z2	M7	—	성인	—	—	—	—
5	C I	N5Z2	M9	—	아동	서	—	옥여치1	두개골 옆
5	C I	N16	M1	남성	30~35	서남	양신직지	옥벽1 쌍련옥벽1 삼련옥벽1 옥환2	두개골 좌측 두개골 우측 흉부 오른쪽 팔
5	BI	N16	M11	남성	성인	—	—	—	—
5	CIIa	N16	M13	여성	30±	—	이차점골장	구운형옥기1	남벽 중부, 지골아래
5	CIIa	N16	M14	여성	30~35	—	이차점골장	세석기 석인1 옥벽1 옥롱1 옥탁1 사구통형기1 옥환3	묘실바닥 소토 위 두개골, 지골 사이 두개골 동쪽 아래 지골 북측 편서 옥탁 동쪽 북쪽, 중앙
?	BII	N16	M10	—	20~30	서남	—	사구통형옥기 1	교란
?	BII	N16	79M1	남성	성인	서북	양신직지	방추형기3 쌍수수삼공옥 소배식1	요부 좌측 —
?	BII	N16	79M3	불명	—	—	골편	—	—

6. 6단계

우하량 유적 85기 무덤 중 6단계의 무덤은 모두 8기로서, 2지점 2호층 5호묘(B I), 2지점 4호층 12,13,16호묘(B II), 2지점 4호층 85-1,2,3호(A), 5지점 3호층1호묘(A)가 이에 해당된다.

얕고 좁게 묘광을 시설하거나 무시설의 무덤이 5단계 이전의 무덤에 중복되거나 근접한 상태로 조영되었다. 더 이상 옥기가 주된 부장유물이 아니다. 그 대신 동이석이 2지점 4호층 85-1,2,3호묘에 부장되었다. 우하량의 마지막 단계로서 적석층에서의 석관묘 축조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는 것으로 지역집단의 조직이 크게 붕괴된 것으로 이해된다.

단계	형식	총	무덤	인골				출토유물	
				성별	나이	두향	장법	부장품	출토위치
6	B I	N2Z2	M5	여성	50전후	남동	양신직지	—	—
6	B II	N2Z4	M12	—	—	남	이장	—	—
6	B II	N2Z4	M13	—	—	북	이장		
6	B II	N2Z4	M16	—	—	남동	양신직지장	사구통형옥기 1	오른쪽가슴
6	A	N2Z4	85M1	—	어린이	동남	양신직지장	—	—
6	A	N2Z4	85M2	—	성인	남동	양신직지장	—	—
6	A	N2Z4	85M3	여성	성인	동남	양신직지장	동이식 1 옥추주 1	— —
6	A	N5Z3	M1	—	성인26.55	—	이차장(4구)	—	—

VI. 종합고찰

지금까지 우하량 무덤과 묘역을 형식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그 축조과정을 6단계로 구분하여 살폈다. 여기서 제시되는 단계별 무덤과 묘역의 축조 추이에 대한 설명은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세분한 단계별로 추이과정을 가설적인 수준에서 제시하는 것은 단묘총의 고고학적 증거로 대표되는 우하량 사회에 대해서 세분된 시기 없이 등급화한 기존의 주장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동일한 접근을 홍산문화 집단은 물론 요동지역의 적석묘, 한반도의 지석묘 집단을 설명하는 준거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검토대상이 되는 것은 우하량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무덤에 안치되는지 여부이다. 분명한 것은 모든 단계에 걸쳐 20대 미만의 유아나 청소년의 무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15세 전후의 남자가 각 단계에 1기, 그리고 유아묘는 6단계에 1기가 있을 뿐이다. 또한 2-4 단계에 걸쳐 무덤에 묻힌 사람은 대부분 남성으로서 여성이 없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당연히 20대 미만의 청소년, 그리고 전연령대의 여성이 동 단계에 사망한 사례가 없다고 할 수 없는 바,, 이를 통해서 우하량 여러 지점의 무덤에 묻힌 사람은 전체 구성원 중 일부임을 알 수 있다.

주의되어야 할 또 다른 점은 우하량 무덤의 모든 옥기부장묘를 동일한 1단계에 속하거나 기껏 2단계에 걸친 것으로 이해할 경우와 이번 발표에서처럼 4단계에 걸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 그 무덤집단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크게 달라진다.

같은 시간적 단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4-5등급으로 구분되는 묘제 혹은 장법이 동일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4단계로 나누어 이해할 경우 각 단계 별로 단일등급 혹은 기껏해야 2-3등급의 등급화만 가능하다.

또한 우하량 무덤을 모두 단일 단계에 속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남성과 여성의 무덤이 혼재하여 하위등급에 여성의 무덤이 속한다고 판정하겠지만, 여러 단계에 걸친 것이라면 처음에는 남성만이 무덤에 모셔지다가 나중에야 비로소 여성의 무덤이 들어서는 형국이 되는 셈이다. 앞서 보듯이 5단계에 비로소 여성의 무덤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동단계에 비로소 이전 단계와 달리 남성과의 부장유물 등에서 차별화되는 현상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대형 중심묘를 비롯한 대형, 중형, 소형의 무덤이 동일 단계에 축조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초기에 대형 중심묘가 조성되고, 후대에 소형묘가 선대 무덤에 잇대어 조성된 셈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고대사회에서 왕릉이 그 규모와 묘제의 큰 변화 없이 수십 세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축조되는 양상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우하량의 경우 2-3단계까지 묘역을 갖춘 대형 중심묘가 조성되었지만, 4-5단계에서는 무덤의 규모가 작아지고, 이를 성역화한 묘역도 조성되지 않았다. 특히 5단계에 이르면 4단계까지 남성의 성인만이 무덤이 조성되고 숭배되었던 것과 달리 남성 숫자만큼이나 여성이 무덤에 안치되는 큰 변화가 도래한다. 아울러 4단계까지 지켜졌던 양신직지의 장법이 흔들려 2차장의 굴장이 유행하는 변화도 맞이하게 된다.

앞서 추정된 단계 구분의 시도가 틀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우하량 집단에 대해서 등장에서 해체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큰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하량 집단이 처음 등장하여 끝에 사라지는 동안 사회규모와 조직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면 어느 일정 단계에 일정 사회조직이 완성되어 지속되지 아니하고, 발전과 붕괴의 변화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다.

제2부 동아시아 역사 속의 고조선

明治시기 발행 朝鮮地圖에 보이는 檀君墓와 箕子殿

박준형(연세대학교)

- I. 머리말
- II. 明治초기 朝鮮地圖의 수요와 제작
- III. 明治시기 檀君墓와 箕子殿을 수록한 朝鮮地圖의 검토
- IV. 明治시기 朝鮮地圖에 수록된 檀君墓와 箕子殿의 의미
- V. 맺음말

I. 머리말

한 1867년 12월 왕정복고 쿠데타로 메이지정부가 수립되면서 일본은 근대사회로 본격적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1869년 중반에는 戊辰전쟁이 종결되면서 대내적 안정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권의 안정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관제개혁이 단행되었고, 그 일환으로 外務省이 설립되었다. 이로써 일본이 근대적인 외교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조선과의 외교사무도 對馬藩主를 통한 간접통교방식에서 외무성에서 직접 주관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¹⁾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朝鮮觀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일본사회에 근대적 문명의식이 확대되면서 근대 이전에 중국문명을 토대로 형성된 세계관의 테두리 내에서 인식되었던 조선²⁾을 점차 정체된 사회, 미개한 사회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문명개화가 어

1) 함동주, 「明治初期(1868-1875) 일본 외무성의 조선침략론과 그 성격」 『사학연구』54, 1997.

2) 矢澤康祐, 「江戸時代における日本人の朝鮮觀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6, 1969; 미야케 히데토시(三宅英利) 지음, 하우봉 옮김, 『역사적으로 본 일본인의 한국관』, 풀빛, 1990.

느 정도 진행되면서 일본이 조선의 문명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선진국인 일본이 미개사회를 침공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開化를 위한 것이라는 일본의 문명지도론이 조선에 적용되었다. 즉, 일본의 '국익'을 위한 행동을 타국의 '문명'을 위한 것으로 정당화했던 것이다. 征韓論자들의 조선관이 곧바로 일본의 문명지도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좀더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자신감을 얻은 일본은 1870년대 중반을 넘기면서 대만 출병이나 강화도 조약 등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³⁾

征韓論을 계기로 朝鮮地圖를 비롯하여 地理志, 안내서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幕府시대에는 한일 양국 간의 문화적 교류와 관련되어 교양도서로서의 조선지도가 지식인층 사이에 요구되어 영성하나마 필사되거나 목판본으로 인쇄되었다. 그러나 메이지유신 직후 칙령주의는 교양도서가 아닌, 보다 현실적인 정보로서 조선지도를 요구하였다. 1870년대 전반기에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많은 판본의 조선지도가 목판본 또는 銅版本으로 다량 보급되었다.⁴⁾

메이지시기에 발간된 조선지도는 대략 75건 정도이다.⁵⁾ 이들 중 상당수는 국내 도서관이나 연구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지도와 관련된 연구는 백두산 정계비나 독도 문제에 대부분 집중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들 지도 중에서 아직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檀君墓와 箕子殿이 표시된 지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발표자가 확인한 결과 1875, 1876, 1882, 1894, 1904년에 발간된 5건⁶⁾의 지도에서 단군묘와 기자전을 동시에 표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발행 연도만 보더라도 강화도조약, 임오군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 당시 한일관계상에서 중요한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시점을 전후하여 기존의 지도가 復刻重刊改訂 발행되었다.⁷⁾

메이지시기 일본에서 단군기자를 포함한 古朝鮮에 대한 인식은 그리 낮은 것은 아니다. 당시 일본에서 素戔鳴尊를 檀君과 연결시켜서 이해하거나 檀君을 부정하고 箕子부터 고조선의 실체를 인정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日鮮同

3) 함동주, 「메이지 일본의 조선론-문명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2, 1994, 54-59쪽.

4) 박현수, 「일본의 조선지도와 식민주의」 『영남대 박물관 소장 한국의 옛 지도』, 영남대학교 박물관, 1998, 152-154쪽.

5) 櫻井義之, 「明治期刊行'朝鮮全圖'の解題」 『韓』2-5, 韓國研究院, 1973.

6) 재판본을 발행한 지도까지 합하면 모두 7건이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살펴보겠다.

7) 櫻井義之, 「明治期刊行'朝鮮全圖'の解題」 『韓』2-5, 韓國研究院, 1973, 116쪽.

祖論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다시 일본 주도의 조선의 문명화, 즉 침략을 통한 식민지 건설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인의 단군에 대한 인식, 즉 일본의 한국사 왜곡의 실체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에서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졌지만,⁸⁾ 지도에 나타난 조선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주로 지리학, 지도학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육군 참모본부에서 파견한 間諜隊에 의한 潛入盜測과 지도 제작, 지리지 편찬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실제로 일본 참모본부에서 침략을 위한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어 있다.⁹⁾ 최근에는 여행안내서, 현지 조사보고서 등에 표출된 조선 인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¹⁰⁾

일반적으로 지도에는 행정 도시, 道路, 驛院, 山川, 名勝古蹟 등 인문 요소가 담기기 마련이다. 그런데 단군묘와 기자전은 일반적인 全圖에 표시되지 않는 한국사의 시작과 관련된 특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지도제작자의 역사인식과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지도를 중심으로 왜 단군묘와 기자전

8) 旗田巍 著, 李基東 譯, 「日本에 있어서 韓國史研究의 傳統」 『日本人의 韓國觀』, 일조각, 1983; 이만열, 「19세기말 일본의 한국사 연구」 『청일전쟁과 한일관계』, 일조각, 1985; 최혜주, 「메이지(明治)시대의 한일관계 인식과 日鮮同祖論」 『한국민족운동사연구』37, 2003; 나카쓰카 아키라(中塚明) 著, 성해준 옮김, 『근대 일본의 조선인식』, 청어람미디어, 2005; 장신, 「일제하 日鮮同祖論의 대중적 확산과 素戔鳴尊 신화」 『역사문제연구』21, 2009; 신종원 엮음,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2009; 櫻澤亞伊, 「日本人の檀君論」 『東アジア-歴史と文化-』20, 新潟大學東アジア學會, 2011.

9) 남영우, 「일제 참모본부 간첩대에 의한 병요조선지지 및 한국 근대지도의 작성과정」 『문화역사지리』4, 1992; 남영우, 「일제의 한반도 측량침략사」, 범우사, 2011; 양윤정, 「미국 의회 도서관 소장 19세기 후반 한반도 비밀군사지도」,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허종구·이범관·김홍택, 「日帝에 의한 朝鮮 潛入盜測 研究」 『한국지적학회지』28-2, 2012.

10) 박양신, 「19세기말 일본인의 조선여행기에 나타난 조선상」 『역사학보』177, 2003; 기무라 겐지(木村健二), 「명치기 일본의 조사보고서에서 보이는 조선인식」 『근대 교류사와 상호인식 I』,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2; 문순희, 「19세기 말 일본인의 조선여행 관련 기록물 연구-1894년 출판 조선여행기록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31, 2012; 최혜주, 「개항 이후 일본인의 조선사정 조사와 안내서 간행」 『한국민족운동사연구』73, 2012; 최혜주, 「1900년대 일본인의 조선이주 안내서 간행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75, 2013

을 표시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대 일본의 조선인식에서 역사학뿐만 아니라 지리학·지도학 분야까지 포괄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 明治초기 朝鮮地圖의 수요와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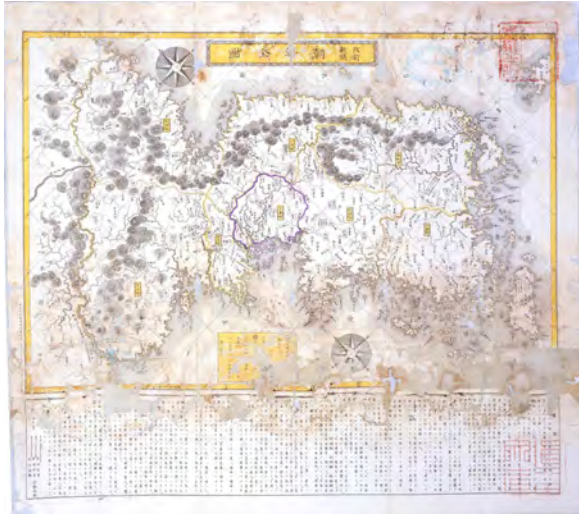
무력에 의한 침략을 위해서는 조선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메이지초기에는 이러한 정보가 부족하여 征韓論을 전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한론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들은 임진왜란 당시 자료들과 幕府시대에 이를 다시 출판한 것들, 그리고 계속해서 조선과 관계를 유지하던 對馬島 宗氏 자료, 부산 倭館의 일본인들이 수집한 자료들이었다.

근대적 국민국가를 형성하기 시작한 단계에서 대외 침략의 논의는 민간에서도 관심을 갖게 하였다. 자연스럽게 민간에서 조선 관련 자료들의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직 직접 조사한 정보를 축적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손쉬운 방법은 일본에 전래되어 온 조선의 고지도 등을 복제하는 방법이었다. 이로 인해 이 시기에 출판된 지도 중 지형이 왜곡된 형태의 조선지도가 계속 유통되면서 반복, 재생산되었기도 하였다. 染崎延房의 <朝鮮國細見全圖>(1873.10, 71.5×100.5cm, 지도1)나 川口常吉의 <五畿八道 朝鮮國細見全圖>(1874.1, 47.2×98.4cm)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는 조선에 대한 지식의 부족뿐만 아니라 정보의 혼란상을 잘 보여준다.¹¹⁾ 이와 관련하여 당시 조선과의 교섭을 담당했던 佐田白茅와 岸田吟香이 공동으로 제작한 <改訂新携 朝鮮全圖>(1875.10, 41.6×48.5cm,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지도2)는 林子平(『三國通鑑圖說』, 1785) 지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일부 근대적인 製圖 요소가 가미되었으나 여전히 幕府 시기에 그려진 조선지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한반도 지형 및 해안선의 왜곡의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11) 박현수, 「일제의 침략을 위한 사회문화 조사활동」 『한국사연구』30, 1980; 박현수, 앞의 책, 1998, 153쪽.



<지도 1> <朝鮮國細見全圖>
(1873.10, 영남대 소장)



<지도 2> <改訂新携 朝鮮全圖> (1875.10, 국립중앙
도서관 소장)

조선을 직접 실측해서 지도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 지형 및 해안선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서 유럽의 지도에 의존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陸軍 參謀局에서 1875년에 발간한 <亞細亞東部輿地圖>(91.8×137.5cm)는 한반도 서남해안이 ‘ㄱ’자로 꺾인 형태로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지도3).



<지도 3> <亞細亞東部輿地圖>(1875)

참모국이 참고한 외국지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시 영국판 <일본 및 조선 부근 沿海圖>(1863)와 이에 앞서 페터만(Petermann)의 지리학 잡지에 실린 海圖(1858)에도 한반도 서남해안이 ‘ㄱ’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1882년 8월 출



<지도 4> <朝鮮全圖>(영남대 소장)

정보였으며 그것은 지도로 표현되게끔 되어 있다.

조선에 대한 지리와 군사를 중심으로 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 참모본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871년 7월 大政治改革의 일환으로 兵務省 내에 參謀局이 설치되었다. 임무는 기밀탐지를 비롯한 첩보활동과 지도제작 및 地誌書의 편찬에 있었다. 1873년 3월, 兵務省이 陸軍省과 海軍省으로 분리됨에 따라 육군성의 第6局으로 편제되었다가 1874년에 참모국으로 부활되었으며 제1과에 亞細亞兵制科를, 제5과에 地圖政誌科, 제6과에 測量科를 두었다. 이중 제5과는 일본 국내는 물론 캄차카반도, 사할린, 만주, 시베리아, 한반도, 연해주를 위시하여 南洋群島까지도 첩보대상으로 하였다. 이후 1878년 12월 陸軍省 내에 參謀本部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참모본부 내의 管東局에서는 사할린, 만주, 캄차카반도,

간된 大村恒七의 <朝鮮全圖>(47.2×33.6 cm, 지도4)에서도 여전히 나타난다. 반면에 幕府이후 메이지시기에 조선에서 제작된 지도를 모사한 지도들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당시 육군 참모국이나 민간에서 지도를 제작하는 데 서양에서 제작한 해도를 참조한 것으로 지도의 정확성을 드러내고자 했지만 이것은 시행착오라고 할 수 있다.¹²⁾

이러한 오류를 극복하는 데에는 육군 참모국[참모본부]의 지도제작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한론을 불러 일으켜 침략주의를 국민적 함의로 몰아갔던 메이지정부는 당연히 조선에 대한 정보를 서둘러 수집해야 했다. 침략을 위한 전략전술적 정보에서 기초가 되는 것이 정확한 지리

12) 박현수, 앞의 책, 1998, 155쪽.

시베리아를 대상으로 첩보활동을 하였으며, 管西局에서는 한반도, 중국 연해주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1879년 만주와 한반도의 관할이 바뀌어 한반도는 管東局의 첩보 대상이 되었다.¹³⁾

참모조직이 제6국이던 1873년에 長白山이 國防의 第一線이라는 주장에 따라 美代清元 중위를 淸國에 파견한 바 있으며, 1874년에는 大原里賢 대위 외 7명의 첩보장교를 淸國에 파견하여 인접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1874년 10월에 육군 准參謀 木村信卿 少佐의 이름으로 간행된 <亞細亞東部輿地圖>¹⁴⁾(日本國會圖書館 소장)는 발간 시기로 보아 大原里賢의 활동 결과를 긴급히 정리하여 제작한 지도로 보인다. 물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류가 있는 서양의 해도를 기준으로 삼아 제작한 지도이지만, 한국, 일본, 만주, 중국을 구분해서 그린 이 지도는 동아시아를 침략의 대상으로 삼았던 제국주의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¹⁵⁾

첩보활동의 결과 1876년에 현재의 한반도 지형과 거의 흡사한 1/1,000,000의 <朝鮮全圖>(97.8×134.9cm)를 제작하였고, 1888년에는 조선에 대한 지리 정보를 『朝鮮地誌略』으로 편찬하였다.¹⁶⁾ 그리고 한반도의 潛入盜測에 의한 실측지도는 1899년 경에 1/50,000의 軍用秘圖로 제작되었다.¹⁷⁾ 뿐만 아니라 참모본부는 1890년에 1/1,680,000의 <滿洲全圖>를 제작하였으며, 1899년에 『滿洲地誌』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1891년에는 1/6,969,600의 <支那全圖>를 제작하였으며, 1887년에는 『支那地誌』를 발간하였다. 이로써 참모본부는 자체적으로 조선, 만주, 중국에 대한 지도 제작과 지리지 편찬을 마치게 되었다.

참모국에서 제작한 <朝鮮全圖>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한반도를 비롯하여 만주와 산둥반도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지형과 거의 흡사하다. 한반도 남부의 해안과 섬을 자세히 그렸으며 해안의 수심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 군사적 용도의 지도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 지도는 실측에 의한 것이 아니라 <朝鮮八道全圖>, <大清一統輿圖>와 英美에서 측량한 海圖 등을 참고하여 제작한 것이다. 또한 함경도 사람 김인

13) 남영우, 앞의 논문, 1992, 80쪽; 남영우, 앞의 책, 2011, 11-20쪽.

14) 이 지도가 1875년에 육군 참모국으로 재발행 된 것으로 보인다.

15) 박현수, 앞의 책, 1998, 155쪽.

16) 박현수, 앞의 책, 1998, 155쪽.

17) 양윤정, 앞의 논문, 2010.

승의 자문을 얻어 제작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¹⁸⁾ 그리고 축척에 朝鮮里와 日本里를 병기하였으며, 地名에 한국어 발음을 병기하였는데 예를 들어 漢城 옆에 ‘ハンション’과 같이 가다카나로 씌으로써 실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모국의 <朝鮮全圖>는 메이지시기 제작된 조선지도 중에서도 정확성이 높고 축척도 1/1,000,000으로 가장 큰 지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지도는 전략용으로 제작된 군용지도이다. 그러나 그 정확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지도는 하나의 모본으로서 민간에 유통되어 다양한 지도가 제작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¹⁹⁾

Ⅲ. 明治시기 檀君墓와 箕子殿을 수록한 朝鮮地圖의 검토

메이지시기에 발행된 朝鮮地圖는 1873년 10월 染崎延房의 <朝鮮國細見全圖>(71.5×100.5cm, 지도1)에서부터 1911년 12월 岡庸一이 <(併合後新調査) 朝鮮全地圖>(54×78cm)에 이르기까지 약 75건이 발행되었다.²⁰⁾ 여기에는 <亞細亞東部輿地圖>(1875, 91.8×137.5cm, 지도3)나 <大日本清韓地圖>(1894.12, 100×104cm)처럼 한국, 중국, 일본 전체를 다루는 동아시아 지도도 포함되어 있다. 한반도만을 다룬 조선전도는 약 50건 정도에 달한다. 이 중에는 關口備正의 <朝鮮輿地全圖>(1875.10, 62.0×34.6cm)처럼 약 1/2,500,000의 축척 지도에서부터 육군 참모국의 <朝鮮全圖>(1876, 97.8×134.9cm)처럼 1/1,000,000의 축척 지도까지 다양한 축척의 지도가 발행되었다. 기본적인 행정구역과 도로, 산천 등 기본적인 정보를 담아 한반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한 ‘全圖’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적어도 1/2,500,000-1/1,000,000의 축척으로 지도를 편찬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메이지시기 발간된 조선전도 중에서 가장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면서 가장 크게 제작된 지도는 바로 1876년 육군 참모국에서 발행한 <朝鮮全圖>라고 할 수 있다.

본장에서는 메이지시기에 발행된 조선전도 중에서 平安道 江東縣에 소재한 檀君墓와 平安道 平壤에 소재한 箕子殿을 수록한 지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영남대학교 박물관, 동북아역사재단, 국립중앙도서관, 일본국회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지도를 검토 대

18) 남영우, 앞의 논문, 1992, 92쪽

19) 박현수, 앞의 책, 1998, 156쪽.

20) 櫻井義之, 「明治期刊行『朝鮮全圖』の解題」 『韓』2-5, 韓國研究院, 1973, 115-131쪽.

상으로 삼았으며 여기에는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지도도 포함되어 있다.

검토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모두 5건의 지도에서 단군묘와 기자전을 확인되었다. 여기에 육군 참모국에서 1876년에 발행된 <朝鮮全圖>가 1894년 7월에 재판이 나오고, 1882년에 발행된 <新撰朝鮮輿地全圖>가 1894년 6월에 재판이 발간되는 것을 포함한다면 모두 7건의 지도에서 단군묘와 기자전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약 1/2,500,000-1/1,000,000의 축척의 지도로 ‘全圖’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 5건의 지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도명	편자	발행처	발행년	축척	크기(cm)	소장처
1	朝鮮輿地全圖	關口備正	淺倉屋	1875.10	약1/250만	34.6×62.0	영남대
2	朝鮮全圖	陸軍參謀局	陸軍參謀局 陸軍文庫	1876 (재: 1894.7)	1/100만	97.8×134.9	동북아(초), 필자(초) 영남대(재), 중도(재)
3	新撰朝鮮輿地全圖	若林篤三郎	若林篤三郎	1882.10 (재: 1894.6)	약1/260만	46.5×68.5 (47.1×69.8)	영남대(초), 일국(초) 중도(재), 필자(재)
4	朝鮮輿地圖	清水常太郎	鹿田靜七	1894.3	1/110만	78.6×104.7	영남대, 고려대, 필자
5	實地踏査滿韓大地圖	後藤常太郎	中村由松	1904.2	1/110만	77.6×105.6	명지대, 필자

* 소장처: 영남대학교박물관→영남대, 동북아역사재단→동북아, 국립중앙도서관→중도, 일본국회도서관→일국으로 함.

** 초판본은 (초)로, 재판본은 (재)로 함.

1) <朝鮮輿地全圖>

이 지도는 關口備正²¹⁾이 제작한 것으로 크기는 34.6×62.0cm이고, 축척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 1/2,500,000 정도이다(지도5). 經度는 東京을 중심으로 표시하였으며, 회화적인 수법을 이용하여 山脈을 표시하였다. 長白山[白頭山] 오른쪽의 함경도와 길림성의 경계가 현재의 지형과 차이가 난다. 전체적으로 한반도가 현재에 비해 좀더 길게 표현되었다. 지도 오른쪽에 ‘朝鮮國八道行政表’가 있다. 八道를 각기 다른 색으로 표시했는데 이는 多色木板畫의 전통을 이은 銅版 인쇄기술이 발달했기 가능했다고 본다.²²⁾ 울릉도

21) 關口備正은 1876년 6월에 <大日本全圖-紀元二千五百三十六年新鑄->(99×94cm, 축척 없음, 日本國會圖書館 소장)를 편집하였다.

22) 박현수, 「도판해설」, 『한국의 옛 지도』, 1998, 190쪽.

와 독도를 각기 竹島와 松島로 적고 있으며, 대마도나 일본 본토와 같이 채색을 하지 않아 이들을 일본령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凡例에서 “酒井如醉翁에게 지리를 배우고 영국의 해안측량도와 大清一統輿圖 등을 참고하여 經緯分度を 바로 잡았다”고 하였다. 이는 당시 제대로 된 조선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영국의 해안측량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일본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이 지도에서 평안도 평양과 강동현 부분을 살펴보면(지도6), 평양의 왼쪽에 ‘箕子殿’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江東縣 왼쪽으로 강을 건너 ‘檀君’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주지하듯이 『東國輿地勝覽』 平安道 江東縣 古迹조에는 縣 서쪽 3리에 둘레 410尺의 檀君墓가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지도상의 ‘檀君’은 강동현의 檀君墓를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古朝鮮史에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지도는 메이지시기에 발간된 지도 중에서 단군묘와 기자전을 가장 먼저 표시한 지도이다.



<지도 5> <朝鮮輿地全圖> (영남대 박물관 소장)



<지도 6> <朝鮮輿地全圖>의 단군묘와 기자전

2) <朝鮮全圖>

이 지도는 1876년 육군 참모국에서 제작한 것으로 크기는 97.8×134.9cm이고, 축척은 1/1,000,000으로 메이지시기에 발행된 조선지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육군 참모국에서 1875년에 발간한 <亞細亞東部輿地圖>(지도3)에서 심하게 왜곡되었던 한반도 서남 해안선이 바로 잡힌 것을 알 수 있다. 例言에 의하면 이 지도는 <朝鮮八道全圖>, <大清一統輿圖>와 英美에서 간행된 測量海圖를 참조하여 만들었으며, 함경도 사람의 자문을 구해 오류를 시정했다고 한다. 앞의 <조선여지전도>가 東京을 중심으로 經度를 표시한 것에 비해 이 지도에서는 국제표준인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삼았다. 산맥을 당시 유행하였던 방식인 牛毛式으로 표현하였는데 한반도의 지형을 파악하기가 쉽다. 전체적으로 정확성이 매우 높은 지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八道와 해안 도서를 색으로 구분했는데 울릉도[竹島]로, 독도[松島]에는 색을 칠하지 않았다.



<지도 7> <朝鮮全圖>



<지도 8> <朝鮮全圖> 단군묘와 기
자전

이 지도는 육군 참모국 陸軍文庫에서 1876년에 발행되었으나 例言에 의하면 1875년 11월에 작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발행 시점은 1875년 9월 운요호 사건으로 인해 1876년 2월 강화도조약을 맺은 것과 관련이 있다.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육군 참모국은 1871년 설립 초기부터 조선에 대한 기밀을 수집해 왔다. 이후 海軍省 水路局에서는 조선 해안을 몰래 측량해 왔으며, 1873년에 海軍 水路寮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朝鮮全圖>를 제작하였다. 이런 점에서 육군 참모국의 <조선전도>는 조선의 침략을 위해 철저한 준비 속에서 발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지도에 한강 입구, 대동강, 釜山浦, 永興灣 등 4곳의 세부도를 넣고 구체적으로 수심까지 표기하였던 것은 바로 침략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과정을 잘 보여준다. 한편, 이 지도는 1894년 7월에 재판이 발행되었는데 청일전쟁을 목전에 두고 발행된 점이 주목된다.

육군 참모국에서 제작한 <朝鮮全圖>에는 앞의 <朝鮮輿地全圖>(1875.10)처럼 평안도의 평양부와 강동현에 각기 箕子殿과 檀君을 표시하였다(지도8). 강동현의 단군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檀君墓를 지칭하는 것이다. <조선전도가> 1875년 11월에 예언을 작성했고, <조선여지전도>가 1875년 10월에 발간되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두 지도에서 모두 기자전과 단군묘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지도 제작자의 의도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 <新撰朝鮮輿地全圖>

이 지도는 若林篤三郎이 1882년 10월에 제작한 것으로 크기는 46.5×68.5cm이고, 축척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 1/2,600,000 정도이다(지도9). 經度는 앞의 <조선여지전도>처럼 東京을 기준으로 삼았다. 산맥을 회화적인 수법이 가미된 牛毛式으로 표현하였다. 長白山을 吉林省 경내로 포함시켰으며 함경도와 길림성의 경계가 현재와 많은 차이가 있다.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는 八道와 달리 색을 칠하지 않았다. <조선여지전도>처럼 한반도가 좀더 길게 그려져 있다. 朝鮮里尺과 日本里尺을 함께 표시했으며, 왼쪽 서해 바다 여백에 朝鮮全國行政表를 넣었다. 범례에는 지도 부호만 표시되어 있고 제작

배경과 관련된 설명은 없다. 이 지도는 전체적으로 <조선여지전도>와 흡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櫻井義之는 이런 점에서 <신찬조선여지전도>가 <조선여지전도>를 再刻한 것이라고 보았다.²³⁾ 그러나 <조선여지전도>에서는 만주와 일본을 단순히 선으로만 표시한 것에 비해 <신찬조선여지전도>에서는 우모식으로 산맥을 표시하였고, 함경도와 길림성의 경계에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전자가 후자의 단순한 再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조선여지전도>를 母本으로 하여 새롭게 추가된 측면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 若林篤三郎이 <朝鮮輿地全圖>를 '新撰'하여 <新撰朝鮮輿地全圖>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도는 1894년 6월에 재판이 발행되는 데, <조선전도> 못지않게 많이 유통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지도에도 평양이란 글씨 왼쪽에 箕子殿이 표시되어 있고, 강동현 옆에 檀君이라고 되어 있다(지도10).



<지도 9> <新撰朝鮮輿地全圖>



<지도 10> <新撰朝鮮輿地全圖>의 단군묘와 기자전

23) 櫻井義之, 앞의 논문, 1973, 122쪽.

4) <朝鮮輿地圖>

이 지도는 清水常太郎이 1894년 3월에 편집·발간한 것으로 크기는 78.6×104.7cm이고 축척은 1/1,100,000이며 朝鮮邦里와 日本邦里가 함께 표시되어 있다(지도11). 經度는 국제표준을 따랐으나 經緯度를 지도에 선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도 사방 궤선에 1度마다 표시를 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삽도는 오른쪽 상단에 ‘京城’과 ‘京城接近之地’가, 왼쪽 하단에 ‘漢江口及仁川港’, 釜山浦, 元山港가 있다. 오른쪽 하단에 ‘京城에서 各地로 가는 里程’表가 들어가 있다. 八道를 색으로 구분하였으며,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가 강원도와 같은 색으로 되어 있어서 조선영토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백두산 옆에 ‘定界碑’가 표시되어 있고 그 위에 ‘大池’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것은 메이지시기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에서 볼 수 없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지도의 표지에는 ‘韓客 朴泳孝 題字’, ‘清水光憲 編纂’이라 쓰여 있다. 지도 題號 왼쪽에는 ‘紹隆三寶’라 쓰고 ‘國, 民, 君이 三大權’이라는 해제를 달은 박영효의 친필과 그의 낙관도 있다. 三寶는 곧 國權, 民權, 君權을 계승하여 융성하게 한다는 뜻으로, 박영효를 비롯한 개화파들의 지향을 드러낸 것이다. 삼보의 순서도 國權-민권-군권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왕권보다는 國權과 民권을 중시하는 개화파의 가치관과 개혁관을 보여준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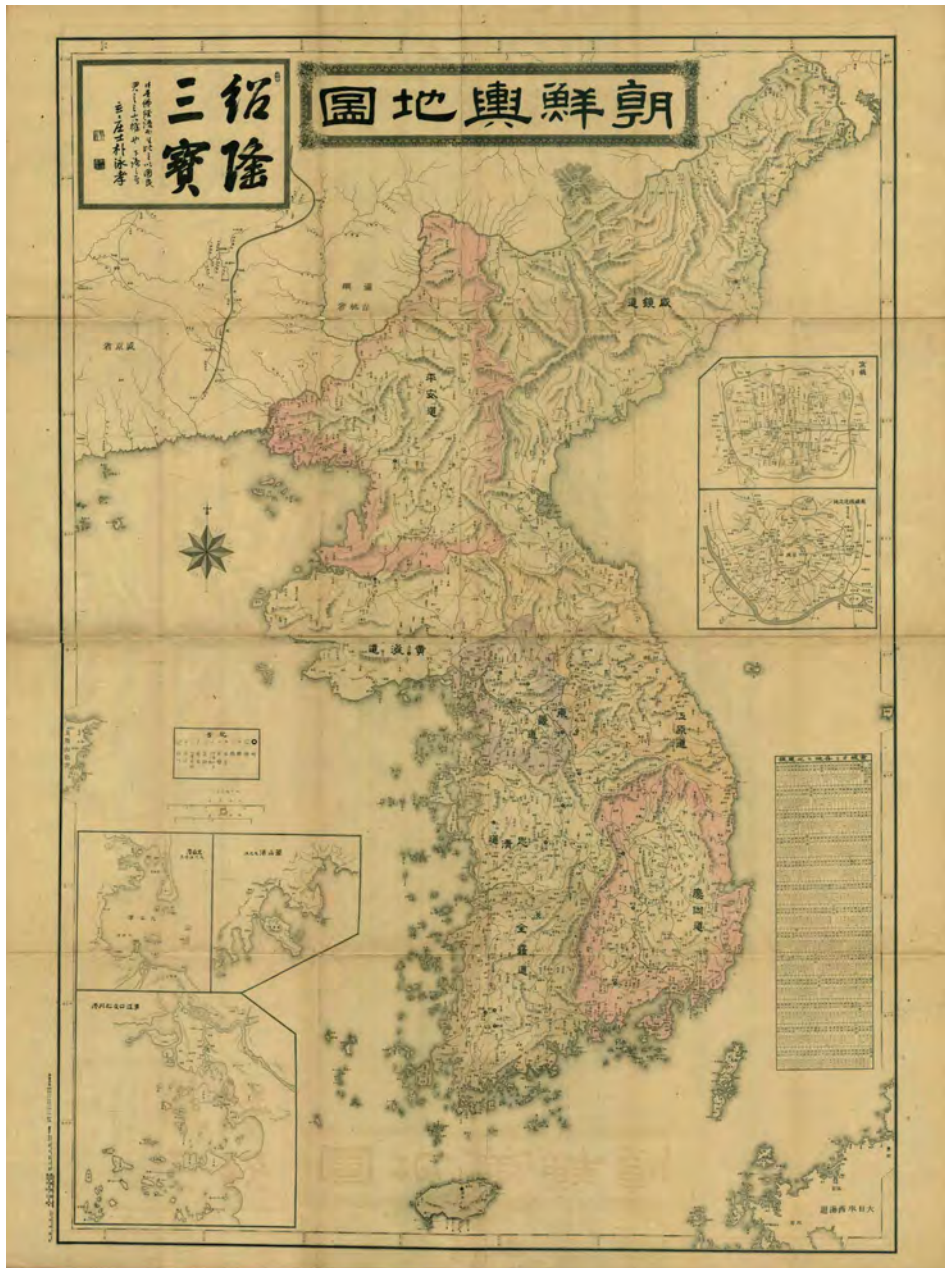
이 지도의 跋文에는 제작 배경과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이 지도는 前年에 金玉均씨가 본국을 떠날 때 휴대하고 온 것으로 그 나라[조선]에서는 돌도 없는 明細分間大繪圖로서 그가 생전에 잠시라도 座右를 떠나지 않도록 하였다. 지난 번 上海로 건너 갈 즈음에 무슨 생각인지 當地의 貴顯편에 남겨둔 것을 時事에 느낀 바가 있어서 이 지도를 ‘縮寫’하였다. 지도 중 八道, 여러 州府郡縣, 兵營, 水營 여러 鎮, 名勝, 各邑, 山川, 岬角, 港灣, 島嶼의 위치는 한번 보면 손바닥을 가리키는 듯하였다. 그가 일찍이 國力을 써서 조사했던 만든 것에 더하여 便覽을 위해 京城, 元山津, 부산포, 인천, 한강 등 부근의 지역을 5개 구역으로 나누어 특별히 切圖[삽도]를 만들었다. 경성으로부터 여러 지역에 이르는 이정표를 더하였으며, 아울러 지도의 주변에 副記된 坊間은 왕왕 조선 지도에도 있지만 이와 같은 것은 있지 않으니 실로 천하에 비할 바 없는 明細圖이다.

발문의 내용을 보면 이 지도는 김옥균이 1884년 10월 조선을 떠나 일본으로 망명했

24) 박은숙,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의 활동과 영토·영해 인식-울릉도·독도 인식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36, 2012, 129쪽.

을 때 가져갔던 지도를 清水常太郎이 1894년 3월에 縮寫하여 만들었고 당시 망명객이었던 박영효가 상해로 간 김옥균을 대신하여 題字한 것이다.



<지도 11> <朝鮮輿地圖>

이 지도는 메이지시기에 발행된 일본의 다른 조선지도와 달리 백두산 정계비가 표시되어 있고,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으로 확실하게 표기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東南諸島開拓使를 역임했던 김옥균의 영토·영해 인식과 관련시켜서 이해하는 것²⁵⁾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도의 편집자인 清水常太郎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 든다. 김옥균이 가져간 지도가 明細分間 大繪圖였다는 점에서 그 지도는 繪畫的인 기법이 중심이 된 조선의 전통적인 製圖방식을 이은 繪圖라고 볼 수 있다. 明細分間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지도는 한 장으로 된 全圖가 아니라 道別로 나누어 그린 分圖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지도를 清水常太郎가 축소해서 그렸던 것이다. 그렇다면 清水常太郎는 김옥균의 지도를 그대로 縮寫하기만 했을지가 의문이다. 지도에 기입된 군현, 도로, 산천 등 제반 요소가 육군 참모국에서 제작한 <朝鮮全圖>와 너무 흡사하다.²⁶⁾ 또한 뒤에서 살펴볼 <滿韓大地圖>와도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 물론 백두산 정계비나 울릉도·독도의 사례는 김옥균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지도 오른쪽 하단의 일본 규슈 지역을 ‘大日本西海道’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大日本’이란 표현도 과연 김옥균의 인식을 반영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뒤에서 살펴볼 <實地踏査 滿韓大地圖>에도 ‘大日本西海道’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조선여지도>에 김옥균의 영토 인식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조선지도 제작 전통을 바탕으로 김옥균의 지도에 있는 京城과 그 주변 지역 지도와 같은 좀더 자세한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듯하다.

이 지도에도 평양이란 글씨 왼쪽에 箕子殿이 표시되어 있고, 강동현 옆에 檀君이라고 되어 있다(지도12). 앞에서 살펴본 지도와 같은 현상이다.



<지도 12> <朝鮮輿地圖> 단군묘와 기자전

25) 박은숙, 앞의 논문, 2012.

26) 박현수, 앞의 책, 1998, 192쪽.

5) <實地踏查 滿韓大地圖>

이 지도는 後藤常太郎이 1904년 2월에 편집, 발간한 것으로 크기는 77.6×105.6cm이고 축척은 1/1,100,000이며 朝鮮邦里와 日本邦里가 함께 표시되어 있다(지도13). 經度는 <조선여지도>처럼 국제표준을 따랐으나 經緯度를 지도에 선으로 표시하지는 않고 지도 사방 궤선에 1度마다 표시를 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삼도는 왼쪽 하단에 ‘漢城’과 ‘釜山浦’와 ‘亞細亞’가, 오른쪽 중간에 ‘元山’이 있다. 동해안 쪽으로는 울릉도[竹島]까지만 표시하였고 대신 서쪽으로 요동반도의 大連과 산둥반도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산맥의 표시 방식은 <조선여지도>처럼 당시 유행하던 우모식으로 하였다. 앞의 <조선여지도>와 차이가 있는 점은 1896년 8월 4일자로 조선에서 23府制가 폐지되고 13道制를 시행됨으로써 지도상에도 13개의 행정구역을 색을 달리해서 표현한 것이다.



<지도 13> <實地踏查 滿韓大地圖>

이 지도는 題號가 <實地踏查 滿韓大地圖>인만큼 만주 전체와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만주 지역 중에서 요동지역과 길림성 남부 지역만을 다루고 있다. 1/1,000,000 축적 지도에서 만주와 한반도 전체를 다루기에는 지도를 그릴 종이 너무 커지게 되어 실용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만주와 한반도 전체를 다룬 가장 큰 全圖는 1904년 3월에 黑龍會에서 발간한 <滿韓新圖>로 크기는 82×118cm이고 축척은 1/1,650,000이다. 또한 ‘實地踏查’라고 했는데 참모본부에서 이미 1899년에 한반도의 1/50,000 축적 지도를 작성했기 때문에 題號에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東亞地理研究會에서 1904년에 작성한 <最新踏查 滿韓西北利地圖>(80×115cm, 1/3,200,000)도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도 14> <戰時必攜 最新滿韓地圖>



<지도 15> <實地踏查 滿韓大地圖> 단군묘와 기자전

또한 이 지도는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난 직후인 1904년 2월 15일에 발행된 것으로 삼도로 ‘亞細亞’ 지도를 넣은 것은 일본의 대륙진출 의도를 엿보게 한다. 한편 1904년 2월 27일 발간된 <戰時必攜 最新滿韓地圖>(三星堂 발행, 78×107cm, 1/2,500,000, 지도14)는 실제로 만주 전체와 산둥반도까지 포괄하는 지도로 명실상부한 滿韓地圖이었다. 이 지도는 1904년 7월 8일에 발간된 지 반년도 안 되어 訂正增補 4판이 발행되었다. 그러면서 초판에 삼도로 들어갔던 亞細亞지도 대신에 奉天세부도가 들어갔다. 이것은 러일전쟁 중에 만주지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려 준다. <實地踏查 滿韓大地圖>는 한반도가 중심인 지도이지만 요동반도와 길림성 남부 일부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당시 만주지도에 대한 수요에 어느 정도 부흥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지도에도 평양이란 글씨 왼쪽에 箕子殿이 표시되어 있고, 강동현 옆에 檀君이라고 되어 있다(지도15). 앞에서 살펴본 지도와 같은 현상이

다. 한편, 이 지도의 단군묘와 기자전 부분은 김옥균의 지도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고 하는 <조선여지도>의 그것(지도11·12)과 글자체, 글자 위치, 符號 등 거의 모든 요소가 일치한다. 후자가 전자를 모사했거나 혹은 그 전에 조선지도에 대한 모본이 존재하고 그것을 민간의 수요에 맞추어 일정하게 변형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IV. 메이지시기 朝鮮地圖에 수록된 檀君墓와 箕子殿의 의미

혹룡 일반적으로 지도에는 자연환경적, 행정적, 경제적, 군사적, 교통·통신적, 교육·의례적 요소가 담기기 마련이다.²⁷⁾ 이들이 지도상에 山川, 州府郡縣 治所, 倉庫, 軍營, 도로와 驛院, 塚墓·寺刹·壇廟·古蹟 등으로 표시되며 지면의 제약과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위해 약속된 부호가 명칭과 함께 표현된다. 단군묘와 기자전은 마지막 교육·의례적 요소에 포함되고 볼 수 있다.

<조선여지도>, <신찬조선여지도>에서는 단군묘와 기자전을 별도의 부호로 표시하지 않았다. <조선전도>에서는 ‘ㅇ’로 표시하였는데 예언에서는 이를 ‘著名地’의 부호로 삼았으며, ‘名所(·)’와 구분하였다. 반면에 <조선여지도>와 <실지답사 만한대지도>에서는 단군묘와 기자전을 ‘名邑’의 기호인 ‘ㅇ’로 표시하고 이를 ‘名勝’과 구분하였다. 그런데, 단군묘와 기자전을 왜 名邑으로 분류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단군묘와 기자전을 표기한 5건 지도 중에 가장 빠른 것은 1875년 10월에 발행된 <조선여지도>이다. 육군 참모국에서 <조선지도>를 1876년에 발행하였지만 例言에서는 이보다 앞선 1875년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다. 전자의 발행시점과 후자의 제작시점이 불과 1달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거의 비슷한 시점에 두 지도가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전자가 먼저 발행되었지만, 이 지도는 축척이 약 1/2,500,000이고 백두산을 비롯하여 함경도와 길림성의 경계가 정확하지 않고, 한반도가 전체적으로 좀더 길쭉하게 표현되는 등 일정한 오류를 담고 있다. 이에 비해 후자는 축척이 1/1,000,000으로 당시 발행된 지도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고, 이전에 왜곡된 한반도 지형을 바로 잡았다. 뿐만 아니

27) 이경미, 「地誌 및 地圖의 표현요소와 環境인식-조선후기 영남지역의 郡縣地圖를 중심으로-」 『영남대 박물관 소장 한국의 옛 지도』, 영남대학교박물관, 1998.

라 후자는 지도상에 좀더 많은 邑과 名所를 담고 있거나, 대동강, 한강 입구 등의 수심을 표시하는 등 육군 참모국에서 수집한 좀더 많은 지리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자에 비해 좀더 발전된 형태의 지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참모국에서 제작된 전략용 지도가 민간에서 모본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도를 낳게 되었던 것이다.²⁸⁾ 이런 점에서 후자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고 본다.

그렇다면 <조선여지전도>와 <조선전도>는 어떻게 해서 단군묘와 기자전을 지도에 표시하였을까? 이것은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참고한 자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에서는 영미 해안측량도와 大清一統輿圖 등을 참고해서 經緯와 해안선을 잡고 內部巨名の 위치는 諸書를 참고했다고 하였다. 후자에서는 朝鮮八道全圖, 大清一統輿圖, 영미 간행의 測量海圖를 참고했다고만 하고 지도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책을 참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전자의 축척이 약 1/2,500,000이고 후자가 1/1,000,000이므로 지도의 면적도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상, 후자가 전자보다 좀더 많은 지리정보를 담아야 했기에 좀 더 많은 자료를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군사지도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전자에서 참고한 ‘諸書’와 후자가 참고한 자료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1888년에 육군 참모본부에서 『朝鮮地誌略』을 편찬할 때 참고했던 서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지지략』 범례에는 “(東國)輿地勝覽, 邑誌, 通史, 東國文獻備考, 朝鮮輿地誌, 東國通鑑 등의 諸書와 우리가 파견한 將校의 報告에 근거하여 조선 府州郡縣의 疆域, 沿革, 城地, 關防, 人口, 戶數 등을 摘錄·蒐輯한 것을 8권으로 엮어서 朝鮮地誌略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東國)輿地勝覽』이다.²⁹⁾ 물론 지도가 제작되었던 1876년의 시점과 『조선지지략』이 편찬된 1888년과는 12년의 차이가 있지만 “(東國)輿地勝覽, 邑誌, 通史, 東國文獻備考, 朝鮮輿地誌, 東國通鑑 등의 諸書”는 그 이전에 조선을 통해 일본에 유입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도를 제작하는 데에서는 특히 『동국여지승람』과 같은 정부의 공식적인 지리지의 유용하게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여지전도>와 <조선전도>를 제작할 때에도 이러한 지리서가 참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단군묘와 기자전을 지도에 표시하는 것이 지도를 제작한 關口備正과 육군 참모국의 독자적인 생각이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당시 조선에서 제작된 지도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 지도 중에서 회화식 필사본

28) 박현수, 앞의 책, 1998, 156쪽.

29) 남영우, 앞의 논문, 1992, 87쪽.

지도로 <廣輿圖>(古4790-58) 平壤府에 崇仁殿, 箕子墓, 箕子井, 井田, 檀君殿이, <海東地圖>(古大4709-41) 평양부에 崇仁殿, 箕子井, 檀君殿이, <輿地圖> 평양에 崇仁殿, 箕子墓, 箕子井, 檀君殿, <地乘>(奎 15423) 平壤尹에 崇仁殿, 箕子墓, 箕子井, 井田, 檀君殿이 수록되어 있다. 방안식 필사본 지도 중에는 <朝鮮地圖>(奎16030) 평양에 箕子墓가, <八道郡縣地圖>(古4709-111) 평양에 箕子墓가, <靑邱要覽> 평양에 箕子墓가 수록되어 있다. 기타 필사본으로 <朝鮮地圖>(古4709-77) 평안도에 箕子墓가 있다. 그리고 <朝鮮八道地圖>(古4709-54) 평안도[북부제외] 지도에 江東縣에 檀君墓가 표기되어 있다. <조선팔도지도>는 18세기 말 鄭厚祚(1758-1793)가 그린 ‘海州新本’ 계열의 지도로 추정된다.³⁰⁾ 조선후기 지도 중에서 『동국여지승람』에 언급된 단군묘를 지도에 표시한 것으로는 이 지도가 유일하다.



<지도 16> <朝鮮八道地圖> 平安道 江東縣 檀君墓

<廣輿圖>, <海東地圖>와 같이 府·縣別로 별도 제작된 대축척 지도에서는 崇仁殿, 箕子墓, 箕子井, 井田, 檀君殿 등이 수록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러나 <조선팔도지도>처럼 道別로 제작된 소축척 지도에서는 평양에 승인전, 기자묘, 단군전 등 고조선 관련 사적이 수록되지 않고 오히려 강동현에 단군묘가 표시되었다.

그렇다면 왜 강동현에 단군묘가 표시된 것일까? 7세기 후반 柳馨遠의 『東國輿地志』와 許穆(1595-1682)의 『東史』

『檀君世家』의 저술로 이어지면서 단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그리고 18세기 申景濬(1712-1781)이 大朴山 아래로 檀君墓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물론 주자학이 발전하면서 기자를 중심으로 고조선사를 이해하고 단군묘의 존재를 불신하는 견해도 있지만, 위와 같은 18세기 중반 단군과 단군묘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흐름이 <조선팔도지도>의 단군묘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³¹⁾

30) 이기봉, 「朝鮮後期 大縮尺 朝鮮分圖 解説」 『朝鮮後期 大縮尺 朝鮮分圖-鄭尙驥의 <東國地圖> 修正本 系統-』,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 42-51쪽.

일본에서는 조선에서 단군과 단군묘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던 것과는 달리 檀君=素盞鳴尊說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素盞鳴尊와 고대한국과의 관계는 『日本書紀』 神代 卷上 簸川 상단에 一書, 즉 本說에 대한 異說로 인용된 것이 유일하다. 그 내용은 神代에 일본 개국신화에 나오는 天照大神의 동생인 素盞鳴尊이 韓國을 왕래하고 지배하였다는 것이다. 林春齋는 1666년 간행된 『東國通鑑』 서문에서 素盞鳴尊이 經歷한 곳이 韓國[신라국]이라고 했으며 1781년 藤原貞幹은 『衡口發』에서 素盞鳴尊이 신라국을 다스렸다고 주장했다.³²⁾ 이후 19세기 초반 伴蒿蹊는 단군을 대마도의 素盞鳴尊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다. 1870년 繁繼의 『舊記集錄』에서 素盞鳴尊가 거쳐했다는 신라의 曾尸茂利가 우리말의 牛頭와 같은 점에서 착안하여 낙랑의 우두산 존재와 신라왕의 牛頭州 太白山에서 望祭한 것을 주목했다. 그는 단군과 素盞鳴尊, 우두주의 태백산과 단군의 강림지 태백산, 우두와 불설의 牛頭栴檀의 관계를 엮어냈다.³³⁾ 이후 1877년에 저술된 『日本史略』에 檀君=素盞鳴尊說로 정리되었다. 이 설은 神功 황후의 신라정벌, 임나일본부설 등과 함께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한편, 菅原龍吉는 『啓蒙朝鮮史略』(1875)에서 단군신화는 황당하여 믿을 수 없다고 보면서 오히려 고조선은 기자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에도시대에서 메이지 초기에 일본에서는 단군부정론도 일부 제기되었으나 주로 檀君=素盞鳴尊說로 논의가 집중되었다. 1929년 今西龍은 「檀君考」를 발표하면서 “일본에서의 素盞鳴尊·檀君 동일설은 異學의 무리 사이에 유행하였으며 혹 그 동일설을 믿지 않는 자도 조선을 경영하려는 의의에서 素盞鳴尊을 조선에 奉祀시키고 曾尸茂利를 春川이나 伽倻山에 있다고 한 것”이라고 하여 국학자와 관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의 논의가 학문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³⁴⁾ 그러나 에도시대부터 싹트기 시작한 檀君=素盞鳴尊說은 日鮮同祖論의 기초가 되고 신공황후의 신라정벌과 임나일본부설과 함께 정한론의 역사적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 한편으로 기자조선의 존재는 한국사의 타율성론을 설명하는 기재로 사용되었다.

31) 김성환, 「조선 후기의 檀君墓 인식」 『단군학연구』19, 2008; 김성환, 『朝鮮時代 檀君墓 認識』, 경인문화사, 2009.

32) 장신, 「일제하 日鮮同祖論의 대중적 확산과 素盞鳴尊 신화」 『역사문제연구』 제21호, 2009, 369쪽.

33) 김성환, 앞의 책, 2009, 167-170쪽.

34) 今西龍, 「檀君考」, 『靑丘學叢』1, 靑丘學會, 1929(김희선 번역, 「단군고(檀君考)」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2009, 103-115쪽.

이처럼 조선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조선지도의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선진출의 역사적 명분과 관련이 있는 단군기자 관련 내용을 지도에 표시한다는 것은 당시 정한론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갔을 것이다. 특히 조선 침략을 무력으로 준비하고 있던 육군의 참모국에서 제작된 지도에 단군묘와 기자전이 표기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후 1888년 참모본부에서 편찬한 『朝鮮地誌略』(平安道之部) 江東縣 名勝古蹟條에서 大塚에 대해 “하나는(縣) 서쪽 3리에 있는데 주위가 410척으로 세상에 傳하기를 檀君의 무덤[墓]이라고 한다”고 하고, 平壤府 名勝古蹟條에서도 箕子宮과 (箕子)井田에 대해 『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겼다. 이러한 『조선지리지』의 단군기자 관련 내용은 정한론의 실천하는 참모본부의 의도가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5건의 조선지도에서 또 하나의 공통점은 평양에 永崇殿, 전주에 慶照殿, 경주에 集慶殿을 모두 표기하였다는 점이다. 이중 전주의 慶照殿은 慶基殿의 誤記로 5건의 지도에서 모두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주지하듯이 이것은 조선왕조의 개창자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한 사당이라는 점이다. 물론 서울에도 태조 어진을 봉안한 사당이 있지만 지방에 있는 것은 이들 3곳이 전부이다. 그렇다면 지도제작자들은 왜 태조 어진을 봉안한 사당을 표시하였을까? 태조는 조선왕조를 개창한 왕으로 조선왕조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한 태조의 어진을 봉안한 평양, 전주, 경주의 사당은 조선왕조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조선지도에 이들 사당을 표시하였다는 것은 정한론의 대상이었던 조선에 대한 지도제작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육군 참모국에서 제작한 <조선전도>에 표시되었고 그 지도의 영향력이 컸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평양의 영승전, 전주의 경조전[경기전], 경주의 집경전을 지도에 표시한 것도 결국에는 단군묘와 기자전을 표시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일본은 침략 상대국인 조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단군기자]과, 조선왕조를 개창했던 태조



<지도 17> <朝鮮全圖> 평양 永崇殿, 전주 慶照殿, 경주 集慶殿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한 사당을 한 지도 안에 모두 표시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조선 침략의도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고조선[단군·기자]는 정한론의 역사적 명분과 관련된 것이고, 태조 어진 봉안 사당은 정한론의 대상인 조선왕조의 500년 역사의 시작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일본에서 제작된 조선지도에 반영된 것이다.

1905년 이후에 발행된 조선지도에 단군묘, 기자전, 영송전, 경조전, 집경전이 더 이상 표시되지 않는다. 그것은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화하면서 그들의 관심이 滿洲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1905년 이전만큼 조선과 조선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러일 전쟁을 전후하여 <韓國及南滿洲>(政教圖閣, 1904.3, 46×62cm, 1/2,500,000), <戰時必攜 最新滿韓地圖>(三省堂, 1904.2, 78×107cm, 1/2,500,000), <滿韓地圖>(時事新報社, 1904.1, 54×78cm), <日露清韓輿地圖>(東雲堂, 1904.3, 78.5×106cm, 1/4,000,000), <最新踏査 滿韓西比利地圖>(東亞地理研究會, 1904, 80×115cm, 1/3,200,000), <滿韓新圖>(黑龍會, 1904.3, 82×118cm, 1.1,650,000) 등 만주와 관련된 지도가 집중적으로 발행되는 것도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메이지시기 발행된 조선지도 중에서 檀君墓와 箕子殿을 표기한 지도를 검토해 보고 그것을 표기한 의미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본론에서 다른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 이후 征韓論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에서도 조선에 대한 정보의 수요가 높아졌다. 조선지도는 史書, 地理書, 안내서와 더불어 그들에게 중요한 자료였다. 메이지초기에는 조선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에도시대 이래의 조선지도가 재발행하거나 英美의 해양측량도를 이용하여 일부 보완하였으나 여전히 조선의 지형을 정확히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육군 참모국에서 간첩대를 비밀리에 파견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육군 참모국에서 1876년에 발행한 <朝鮮全圖>는 <朝鮮八道全圖>, <大清一統輿圖>, 영미의 해안 측량도 등을 참고했을 뿐만 아니라 함경도 사람의 자문을 구하여 좀더 발전된 형태의 전략용 군사지도를 제작할 수 있었다. 이 지

도는 메이지초기에 제작된 조선지도 중에서 가장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이후 민간에서 지도를 제작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메이지시기에 발행된 조선지도는 대략 75건 정도이다. 이 중 <朝鮮輿地全圖>(關口備正, 1875.10, 34.6×62.0cm, 약 1/2,500,000), <朝鮮全圖>(陸軍 參謀局, 1876, 97.8×134.9cm, 1/1,000,000), <新撰朝鮮輿地全圖>(若林篤三郎, 1882.10, 46.5×68.5cm, 약 1/2,600,000), <朝鮮輿地圖>(清水常太郎, 1894.3, 78.6×104.7cm, 1/1,100,000), <實地踏査 滿韓大地圖>(後藤常太郎, 1904.2, 77.6×105.6cm, 1/1,100,000) 등 5건의 지도에서 平安道 江東縣에 檀君(墓)와 平壤府에 箕子殿을 표기하였다. 이들 지도는 그 발행시기가 각기 1875, 1876, 1882, 1894, 1904년으로 강화도조약, 임오군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 당시 한일관계상에서 중요한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들 사건을 전후로 기존의 조선지도가 復刻重刊改訂 발행되었다.

5건의 지도 중에서 <조선여지전도>가 제작시점이 가장 빠르지만 지도상의 오류가 많은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1년 뒤에 육군 참모국에서 제작한 <조선지도>는 축척이 1/1,000,000으로 메이지시기에 제작된 조선지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정확성이 높다. 이후 이 지도가 메이지 중후기 조선지도 제작에 큰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단군묘와 기자전을 표기한 부분도 그 영향력과 함께 조선지도에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후기에 제작된 많은 지도 중에서 <廣輿圖>, <海東地圖>와 같은 府縣別 대축척 지도에서는 崇仁殿, 箕子墓, 箕子井, 井田, 檀君殿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朝鮮八道地圖> '평안도'지도처럼 道別 소축척 지도에는 평양에 송인전, 기자묘, 단군전 등 고조선 관련 사적이 수록되지 않고 강동현 부분에 檀君墓가 표기되었다. 이는 18세기 중반 단군과 단군묘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흐름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에도시대~메이지초기에 일본에서는 단군부정론도 일부 제기되었으나 주로 檀君=素戔鳴尊說로 논의가 집중되었다. 檀君=素戔鳴尊說은 日鮮同祖論의 기초가 되고 신공황후의 신라정벌과 임나일본부설과 함께 정한론의 역사적 명분을 제공하게 된다.

조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선지도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였다. 일본의 조선진출의 역사적 명분과 관련이 있는 단군·기자 관련 사실을 지도에 표시한 것이 당시 정한론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과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갔을 것이다. 특히 조선 침략을 무력으로 준비하고 있던 육군의 참모국에서 제작된 지도에 단군묘와 기자전이 표기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편 5건의 조선지도에는 평양에 永崇殿, 전주에 慶照殿, 경주에 集慶殿을 모두 표기하였다. 이것은 조선왕조의 개창자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한 사당이다. 태조의 어진을 봉안한 사당은 조선왕조의 시작과 정체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한론의 대상이었던 조선에 대한 지도제작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육군 참모국에서 제작한 <조선전도>에 표기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일본은 침략 상대국인 조선의 역사적 뿌리인 고조선[단군·기자]과, 조선왕조를 개창했던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한 사당을 한 지도 안에 모두 표시했다. 고조선[단군·기자]는 정한론의 역사적 명분과 관련된 것이고, 태조 어진 봉안 사당은 정한론의 대상인 조선왕조의 500년 역사와 관련된 것이다. 이처럼 조선이란 나라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지도에 그대로 표현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일본의 조선 침략의도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1905년 이후에 발행된 조선지도에 단군묘, 기자전, 영송전, 경조전, 집경전이 더 이상 표시되지 않는다. 그것은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화하면서 그들의 관심이 滿洲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1905년 이전만큼 조선과 조선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러일 전쟁을 전후하여 만주와 관련된 지도가 집중적으로 발행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